

#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1년 기준

# contents

## part Ⅰ 전국총괄

---

<b>01 인구</b>	<b>011</b>
1. 인구 동향	012
2. 지역별 인구 동향	019
3. 지역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023

---

<b>02 경제</b>	<b>027</b>
1. 경제 동향	028
2. 산업 동향	030
3. 소비 및 물가 동향	033
4. 수출·입 동향	034
5. 사업체 동향	034
6. 분배 동향	037
7. 지역별 경제 동향	040

---

<b>03 고용</b>	<b>045</b>
1. 노동력 현황	046
2. 취업자 및 고용률	049
3. 실업자 현황	059
4. 비경제활동인구	062

---

<b>04 노동이동</b>	<b>069</b>
1. 입·이직 현황	070
2. 워크넷 구인·구직 현황	074
3. 미충원 인원	078
4.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082

---

<b>05 직업훈련</b>	<b>087</b>
1. 직업훈련 현황	088
2. 수료자 취업 현황	093

---

<b>06 근로조건</b>	<b>097</b>
1.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098
2.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103
3. 사회보험 가입률(고용형태별)	111

---

<b>07 노사협력</b>	<b>115</b>
1. 노동조합	116
2. 노사분규	119
3. 노사분쟁 사건	122
4. 근로감독 현황	128

---

<b>08 산업안전</b>	<b>133</b>
1. 산업재해	134
2. 경제적 손실	137
3. 산재보험	139

---

<b>09 시도별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비교</b>	<b>143</b>
1. 지역별 인구현황	144
2. 인구이동현황	145
3. 지역내총생산	146
4. 산업단지분포 현황	147
5. 고용률	148
6. 취업자수	149
7. 실업률	150
8. 비경제활동인구	151
9.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152
10. 근로조건	153

## part 02 대상별 현황

---

<b>01 청년</b>	<b>157</b>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158
2.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160
3.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168
4. 청년 근로조건	170
5. 취업 활동 과정	171
6. 청년 대졸자의 전공계열별 현황	173
7. 일자리 이동	175

---

<b>02 여성</b>	<b>179</b>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180
2.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182
3.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190
4. 여성 근로조건	192

---

<b>03 장년</b>	<b>195</b>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196
2. 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198
3. 장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205
4. 장년 근로조건	207
5. 정년 현황	208
6. 장년층 동태 분석	214

---

<b>04 비정규직</b>	<b>219</b>
1. 비정규직 취업 현황	220
2. 근로조건	229
3. 고용형태 변화	238

## part 03 부록

---

<b>고용노동관련 OECD국제비교 통계</b>	
1. 인구 및 고용	244
2. 근로조건	256
3. 분배지표	265
4. 기타 고용노동 지표	269



# 인구

(2021년 기준)

## 51,745 천명

우리나라 전체인구('21년 인구추계)

## 45,080 천명

우리나라 15세 이상('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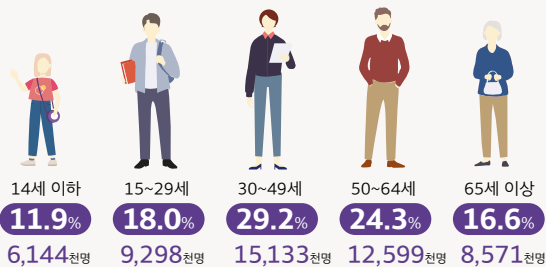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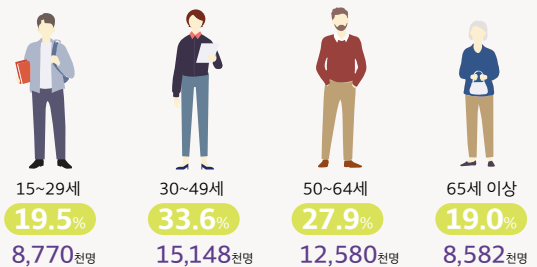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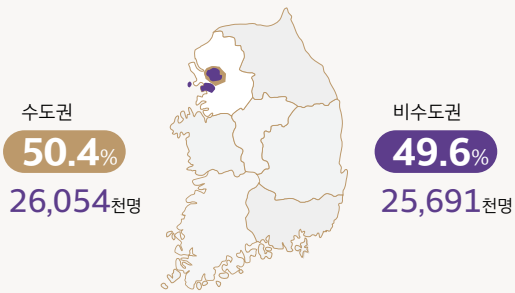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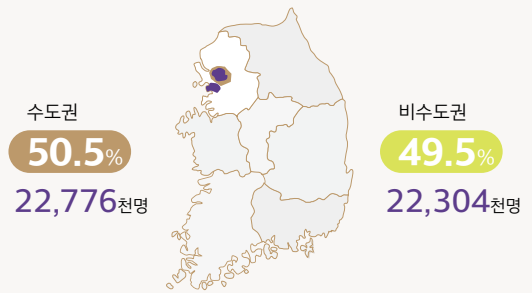
### 연령별



### 지역별



### 지역별



# 경제활동상태

(2021년 기준)

## 45,080 천명

'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인구 **28,310** 천명    참가율 **62.8%**

취업자 **27,273** 천명    고용률(15~64세) **66.5%**

실업자 **1,037** 천명    실업률 **3.7%**

### 비경제활동인구

인구 **16,770** 천명

육아 **1,120** 천명    가사 **6,018** 천명

재학·수강 등 **3,452** 천명    연로 **2,388** 천명

그 외 **3,792** 천명    취업준비\* **841** 천명

\*취업준비는 '재학·수강 등'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과 '그 외' 중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의 합계

 청년(15~29세)

고용률 **44.2%**  
실업률 **7.8%**  
경참률 **47.9%**

 여성(15세이상)

고용률 **57.7%**  
(15~64세)  
실업률 **3.8%**  
경참률 **53.3%**

 장년(50세이상)

고용률 **55.9%**  
실업률 **3.1%**  
경참률 **57.7%**

 비정규직(21.8월기준)

임금근로자 **20,992** 천명  
비정규직 **8,066** 천명  
(임금근로자의 **38.4%**)

# 주요 경제지표

(21년 OECD, 한국은행)

## GDP

17,985 억US\$

(2,072조원, 명목)

- OECD 회원국 36개국 중 8위(1위 미국, 229,961억 US\$)
- 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 '21년 4.1%



## 1인당 GDP

34,619 US\$

(4,004만원, 명목)

-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2위  
(1위 룩셈부르크, 135,267 US\$)



## 1인당 노동생산성

79,660 US\$

('19년, ppp기준)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위(1위 아일랜드, 181,353US\$)



## 고용률

66.5 %

(15-64세)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9위(1위 네덜란드, 80.1%)



## 삶의 만족도

5.8 점

(10점만점)

- OECD 회원국 41개국 중 35위  
(1위, 핀란드 7.9점)

# 주요 노동시장 지표

(2021년 기준)

## 사업체 수

6,032 천개

(’20년 경제총조사)



※ 2020년 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

## 임금근로자 수

20,753 천명

(’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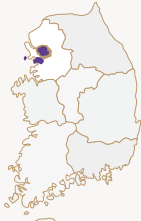


## 지역별

수도권

49.3%

2,973천개



비수도권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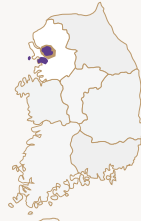
3,059천개

## 지역별

수도권

53.9%

11,188천명



비수도권

46.1%

9,565천명

## 산업별

광공업

9.6%

582천개

서비스업

81.1%

4,892천개



건설업

7.8%

471천개

농림어업

0.2%

13천개

## 산업별

광공업

19.0%

3,956천명

서비스업

71.9%

14,917천명



건설업

8.2%

1,695천명

농림어업

0.6%

121천명

## 임금 및 근로시간

(’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명목임금

369만원

(월평균실질임금 360만원)

월평균근로시간

161시간

(연간근로시간 1,928시간)

## 노동조합

(’20년 전국 노동조합조직 현황)



노동조합수

6,564개소

노동조합조직률

14.2%

노동조합원수

2,804,633명

## 산업안전

(’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사망만인율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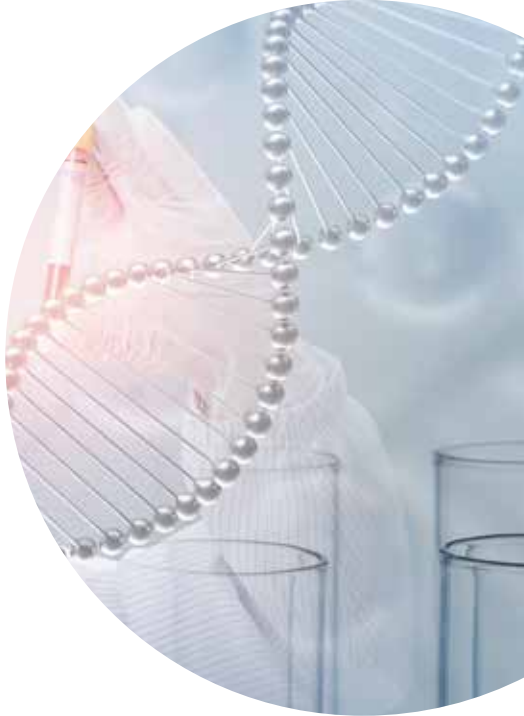
산업재해율

0.57%

산업재해자수

108,379명

(사망자 2,062명)



#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1년 기준

# 01

## 전국총괄





[www.moel.go.kr](http://www.moel.go.kr)

# 01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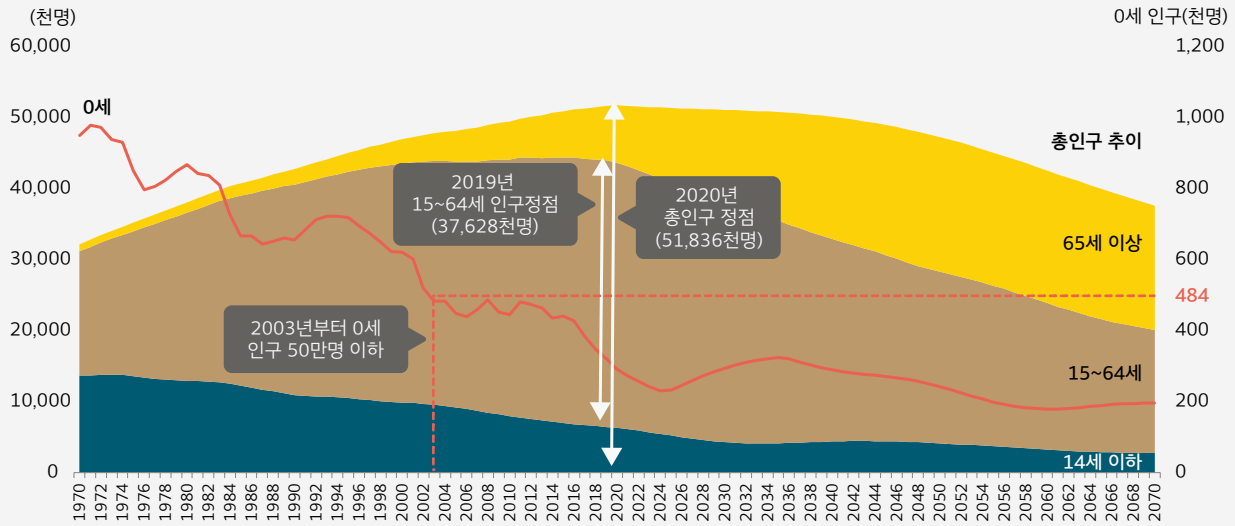
# 1. 인구동향

## 총인구

2021년 국내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1970년에 비해 1.6배 증가하였다. 총인구는 2020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인구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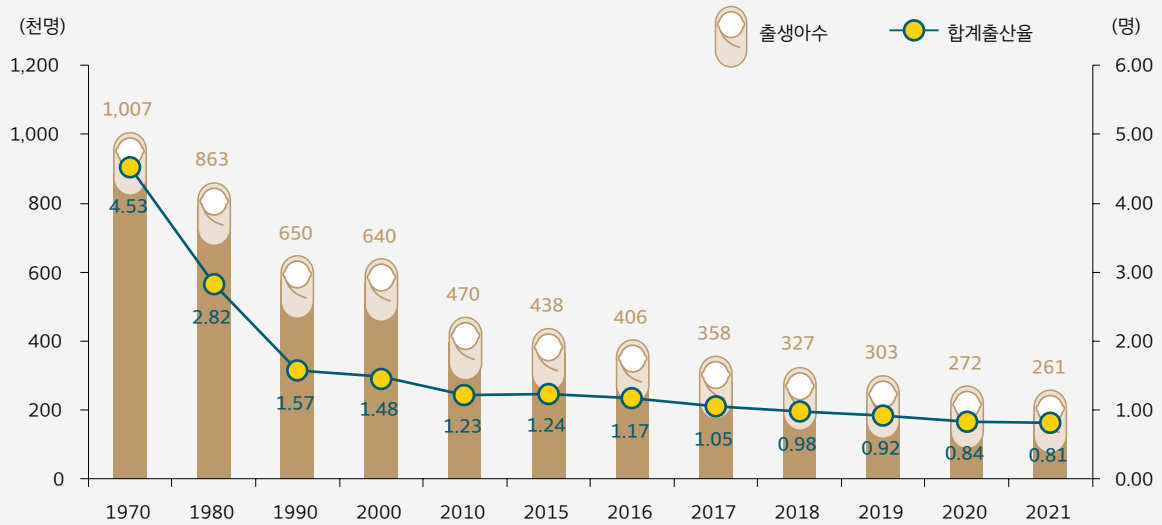
+ 세부적으로 보면 15~64세 인구는 2019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4세 이하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0세 인구는 2003년부터 50만명 이하로 줄었다.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1	2030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32,241 (100.0)	38,124 (118.2)	42,869 (133.0)	47,008 (145.8)	49,554 (153.7)	51,836 (160.8)	51,745 (160.5)	51,199 (158.8)	50,193 (155.7)	47,359 (146.9)	42,617 (132.2)	37,656 (116.8)
0세	950	870	656	622	447	292	273	295	290	243	180	196
14세 이하	13,709	12,951	10,974	9,911	7,979	6,306	6,144	4,329	4,427	4,166	3,274	2,815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6,209	37,379	37,030	33,813	28,521	24,189	20,660	17,368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5,366	8,152	8,571	13,056	17,245	19,004	18,683	17,47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1970년 대비 비율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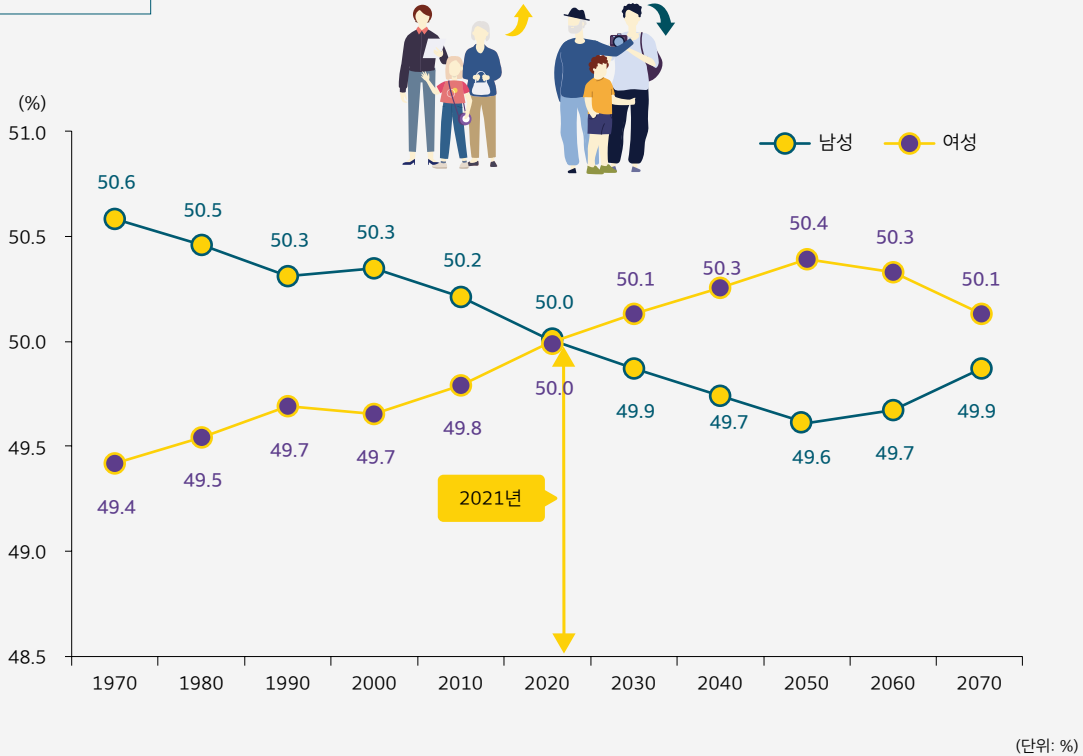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1년은 잠정치  
주)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 2021년 출생아수는 261천명으로 1970년(1,007천명)의 25.9% 수준
- +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970년(4.53명)보다 3.72명 낮음

## 성별 연령별 인구

우리나라 총인구 중 남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커지게 된다.

성별 연령별 인구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1	2030	2040	2050	2060	2070
전연령	남성	50.6	50.5	50.3	50.3	50.2	50.0	50.0	49.9	49.7	49.6	49.7	49.9
	여성	49.4	49.5	49.7	49.7	49.8	50.0	50.0	50.1	50.3	50.4	50.3	50.1
14세 이하	남성	51.9	51.8	52.0	52.9	52.1	51.4	51.4	51.2	51.2	51.2	51.2	51.2
	여성	48.1	48.2	48.0	47.1	47.9	48.6	48.6	48.8	48.8	48.8	48.8	48.8
15~64세	남성	50.1	50.5	50.6	50.8	51.2	51.3	51.3	51.5	51.8	51.9	51.7	51.5
	여성	49.9	49.5	49.4	49.2	48.8	48.7	48.7	48.5	48.2	48.1	48.3	48.5
65세 이상	남성	41.2	37.4	37.4	38.3	40.9	43.2	43.4	45.2	46.0	46.3	47.2	48.1
	여성	58.8	62.6	62.6	61.7	59.1	56.8	56.6	54.8	54.0	53.7	52.8	51.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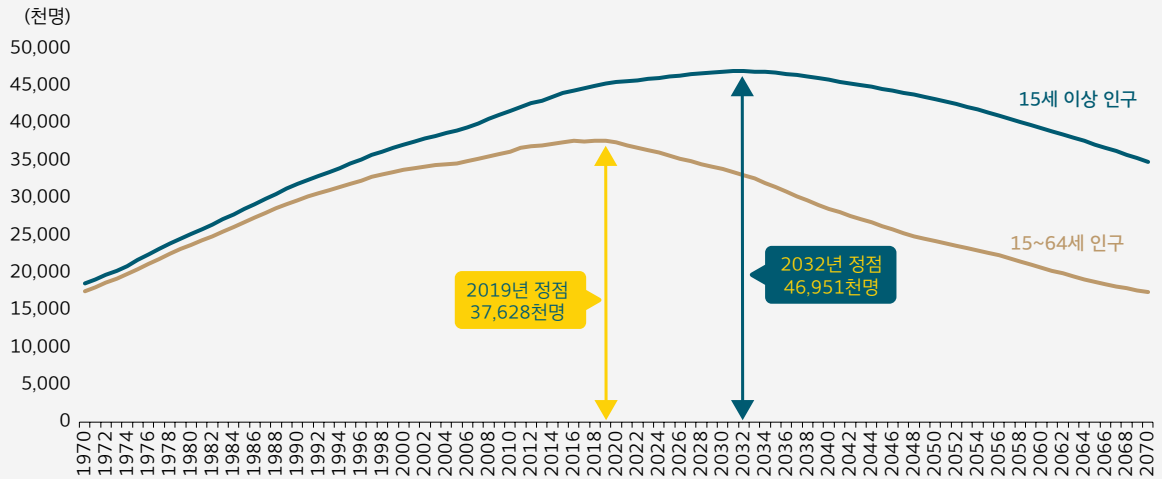
- + 성별-연령별 비중으로 보면 향후 65세 이상의 남성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다.
- + 여성비중은 64세 이하에서 남성비중보다 낮지만 65세 이상에서는 남성비중보다 높다.

##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는 2032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다.

\* 장래인구추계에서는 15~64세를 “생산연령인구”로 지칭하고 있음

### 1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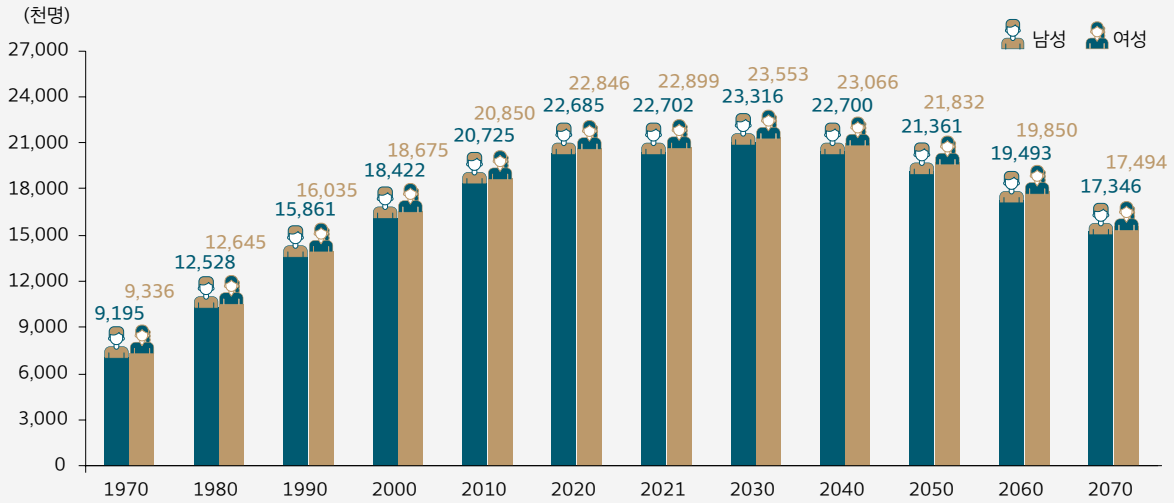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성별 (15세 이상 인구)

여성의 15세 이상 인구는 남성보다 많으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5~64세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성별 (15세 이상 인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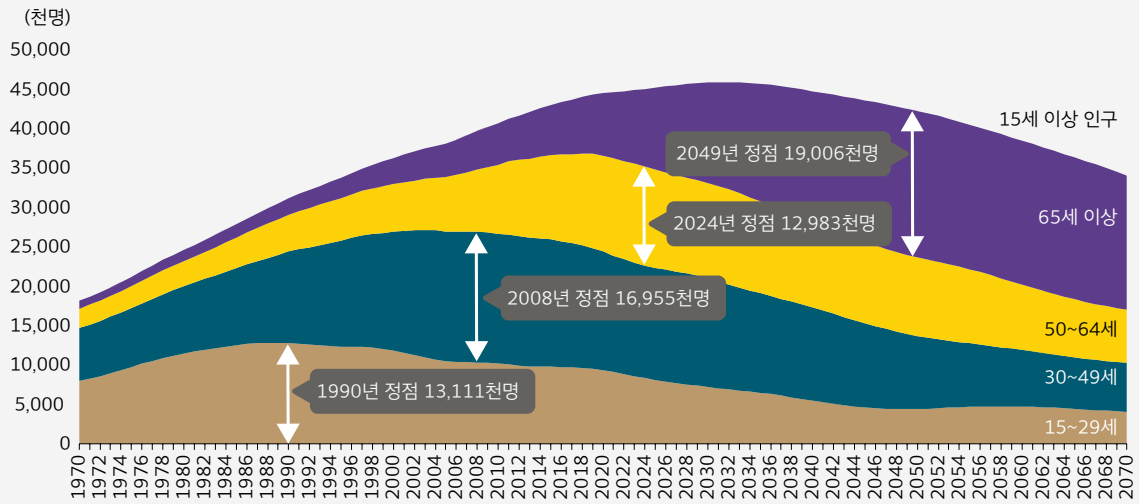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1	2030	2040	2050	2060	2070
15세 이상	합계	18,531	25,173	31,896	37,097	41,575	45,530	45,601	46,870	45,766	43,193	39,343	34,841
	남성	9,195	12,528	15,861	18,422	20,725	22,685	22,702	23,316	22,700	21,361	19,493	17,346
	여성	9,336	12,645	16,035	18,675	20,850	22,846	22,899	23,553	23,066	21,832	19,850	17,494
15~64세	합계	17,540	23,717	29,701	33,702	36,209	37,379	37,030	33,813	28,521	24,189	20,660	17,368
	남성	8,787	11,984	15,039	17,122	18,531	19,164	18,980	17,416	14,772	12,566	10,677	8,943
	여성	8,753	11,733	14,662	16,580	17,677	18,215	18,050	16,398	13,749	11,623	9,983	8,42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연령별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연령별 비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노년층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 (15세 이상 인구)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1	2030	2040	2050	2060	2070
15세 이상	18,531 (100.0)	25,173 (100.0)	31,896 (100.0)	37,097 (100.0)	41,575 (100.0)	45,530 (100.0)	45,601 (100.0)	46,870 (100.0)	45,766 (100.0)	43,193 (100.0)	39,343 (100.0)	34,841 (100.0)
청년 (15~29세)	8,174 (44.1)	11,686 (46.4)	13,111 (41.1)	12,050 (32.5)	10,402 (25.0)	9,556 (21.0)	9,298 (20.4)	7,342 (15.7)	5,600 (12.2)	4,510 (10.4)	4,820 (12.3)	4,113 (11.8)
중년 (30~49세)	6,843 (36.9)	8,739 (34.7)	11,821 (37.1)	15,463 (41.7)	16,843 (40.5)	15,433 (33.9)	15,133 (33.2)	14,094 (30.1)	12,085 (26.4)	9,496 (22.0)	7,365 (18.7)	6,429 (18.5)
장년 (50~64세)	2,522 (13.6)	3,292 (13.1)	4,768 (14.9)	6,189 (16.7)	8,964 (21.6)	12,390 (27.2)	12,599 (27.6)	12,377 (26.4)	10,836 (23.7)	10,183 (23.6)	8,475 (21.5)	6,826 (19.6)
노년 (65세이상)	991 (5.3)	1,456 (5.8)	2,195 (6.9)	3,395 (9.2)	5,366 (12.9)	8,152 (17.9)	8,571 (18.8)	13,056 (27.9)	17,245 (37.7)	19,004 (44.0)	18,683 (47.5)	17,473 (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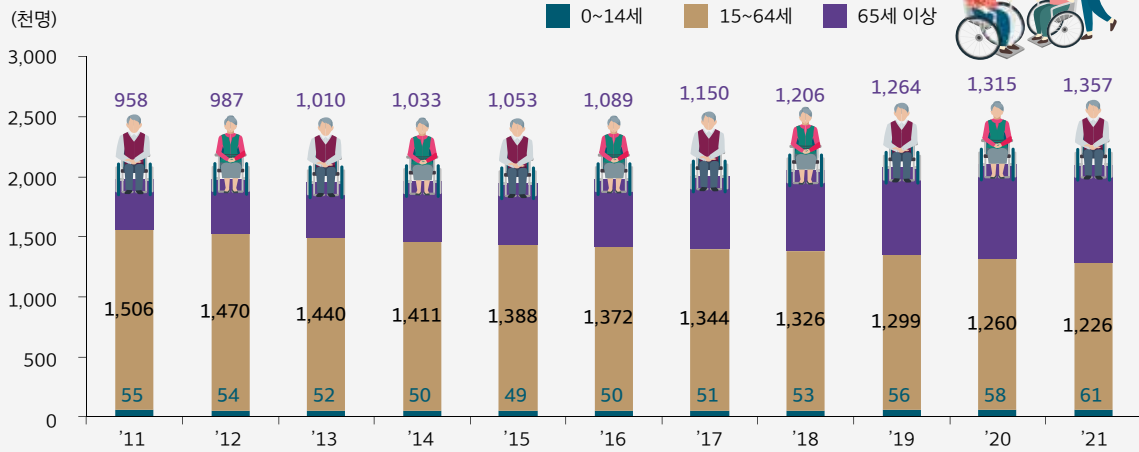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청년층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중년층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고, 장년층은 2024년을 정점으로, 노년층은 2049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된다.

## 장애인·외국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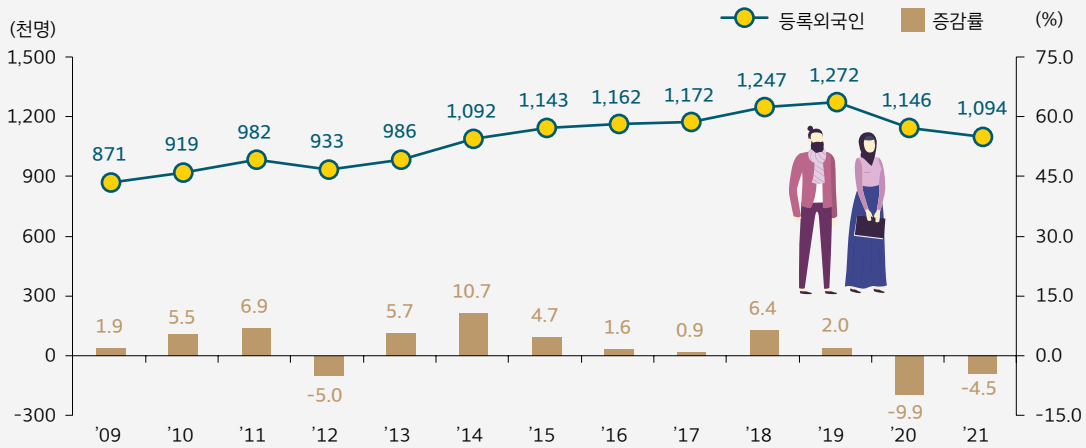
등록장애인수는 65세 이상 연령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등록외국인 역시 추세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20년부터 감소하였다.

### 장애인수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 등록 외국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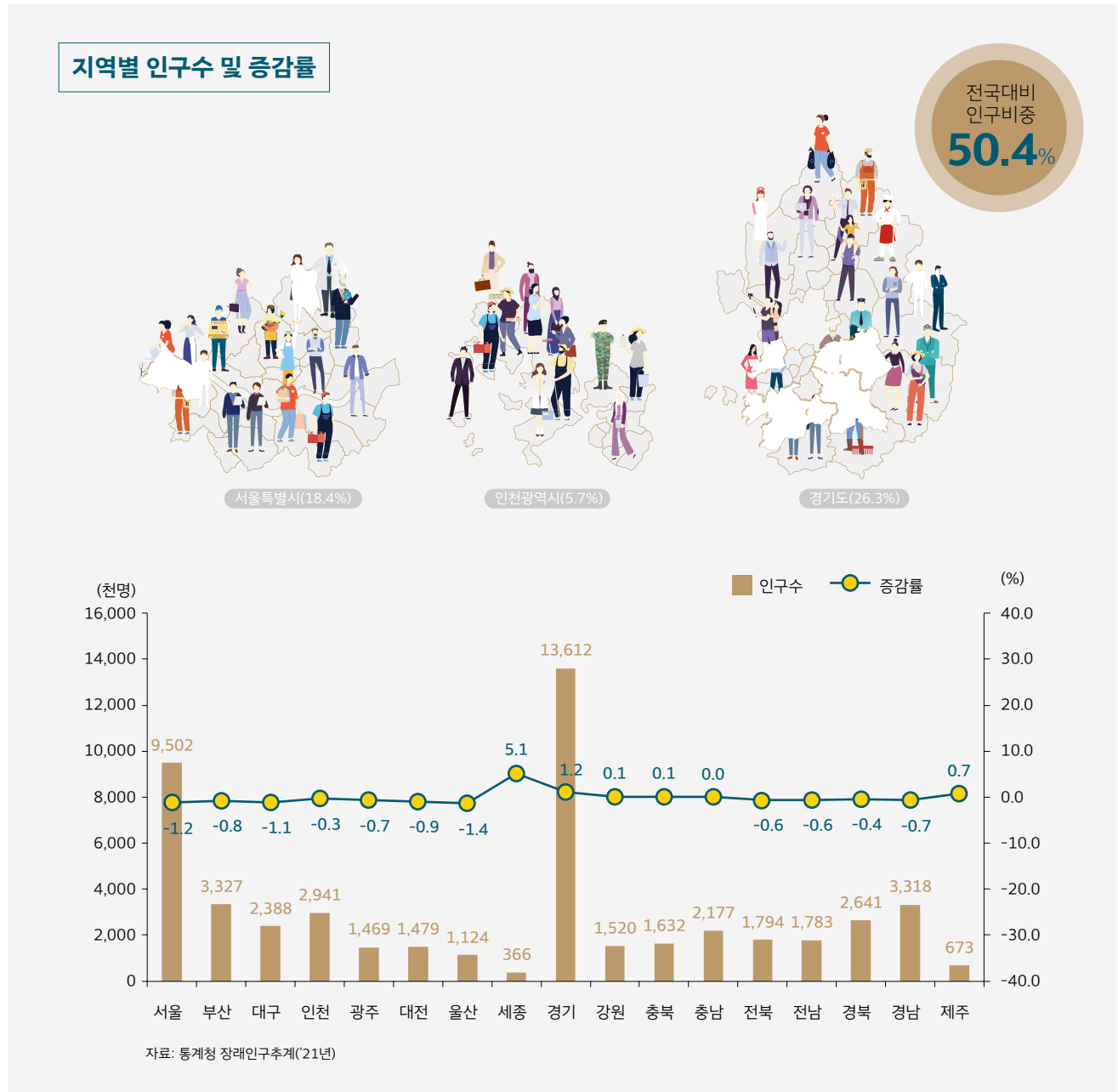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

## 2. 지역별 인구 동향

### 시·도별 인구

2021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50.4%를 차지해 지역 편중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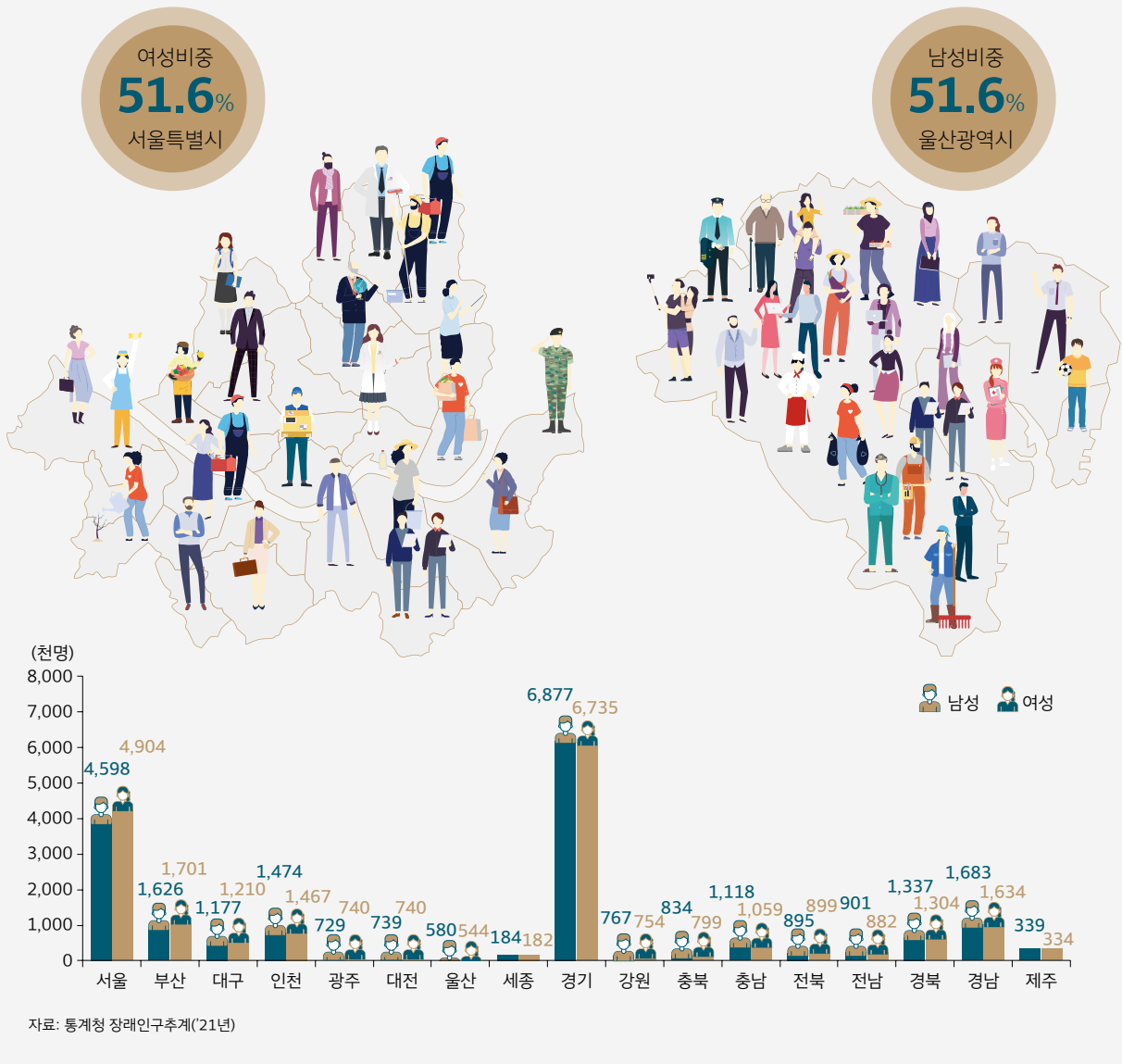
+ 인구 증감률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높으며, 강원, 충북, 충남은 1% 이하의 증감률이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은 감소하였다.



## 시·도별 성별 인구

2021년 여성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51.6%)이고  
남성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51.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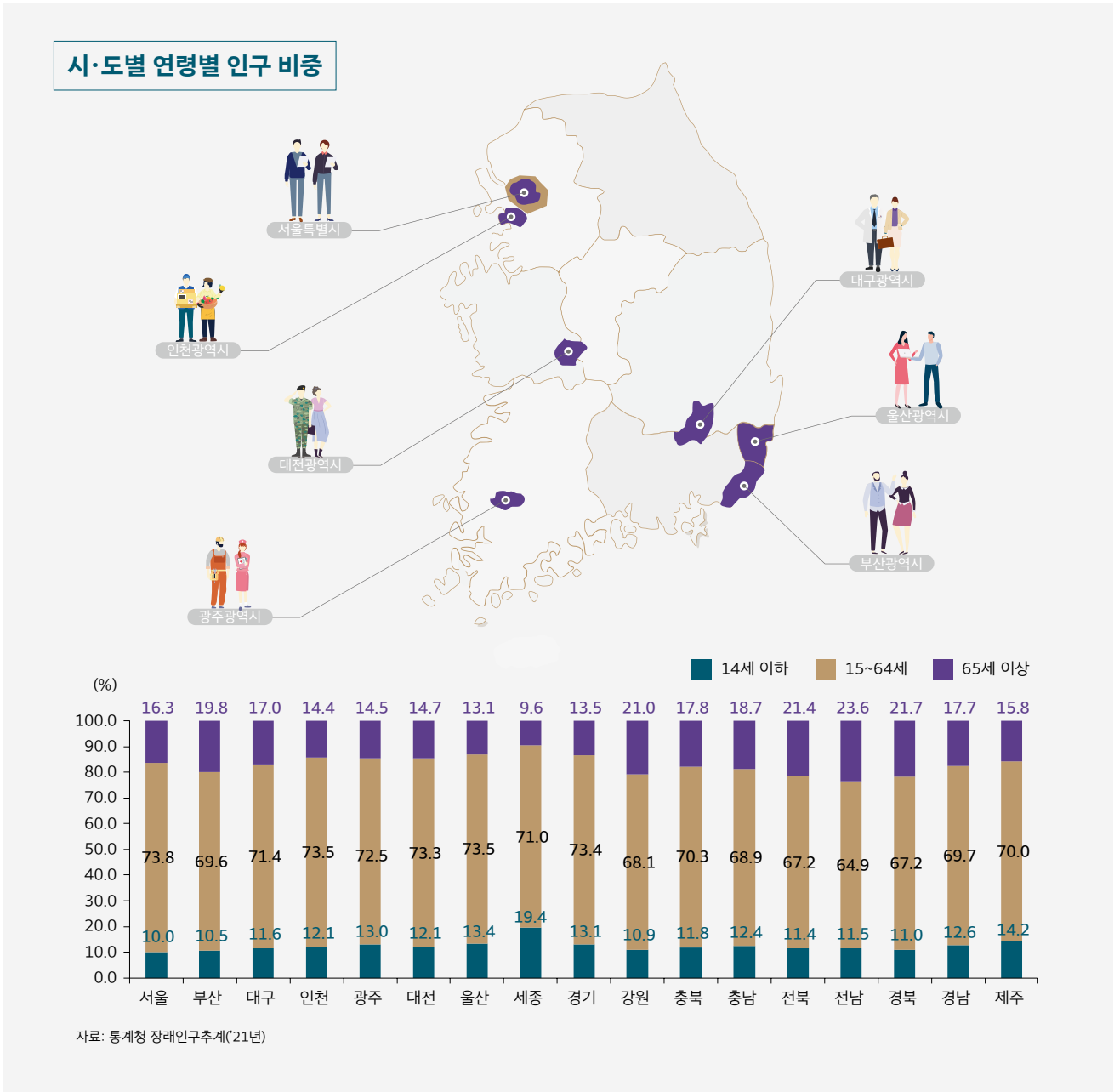
### 시·도별 성별 인구



+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은 여성 비중이 높은 반면, 나머지 지역은 남성 비중이 높다.

## 시·도별 연령별 인구

2021년 15~64세 인구비중은 대체로 특·광역시보다 도지역보다 높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도지역이 뚜렷하게 높은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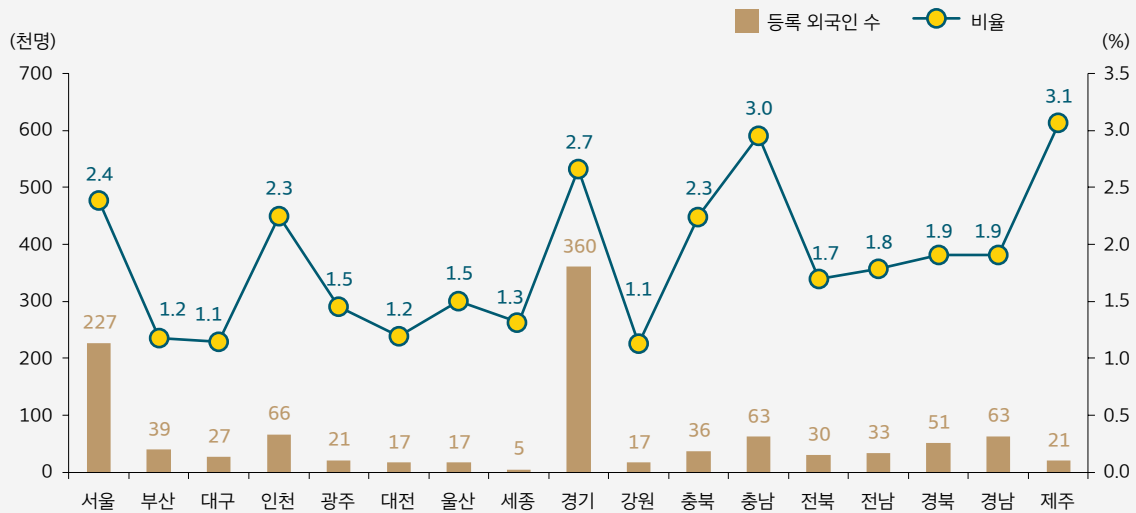


+ 시·도별 14세 이하의 비중은 대체로 10~13% 수준인데, 세종(19.4%), 제주(14.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모습이다.

+ 한편, 서울은 15~64세 비중이 가장 높고(73.8%), 14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낮음(10.0%) 반면, 전남은 15~64세 비중이 가장 낮고(64.9%), 65세 이상의 비중은 가장 높은(23.6%) 특징을 보인다. 세종은 14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고(19.4%), 65세 이상의 비중은 가장 낮다(9.6%).

## 시·도별 등록외국인수

2021년 등록외국인은 경기(360천명), 서울(227천명), 인천(66천명) 순으로 많다.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1년),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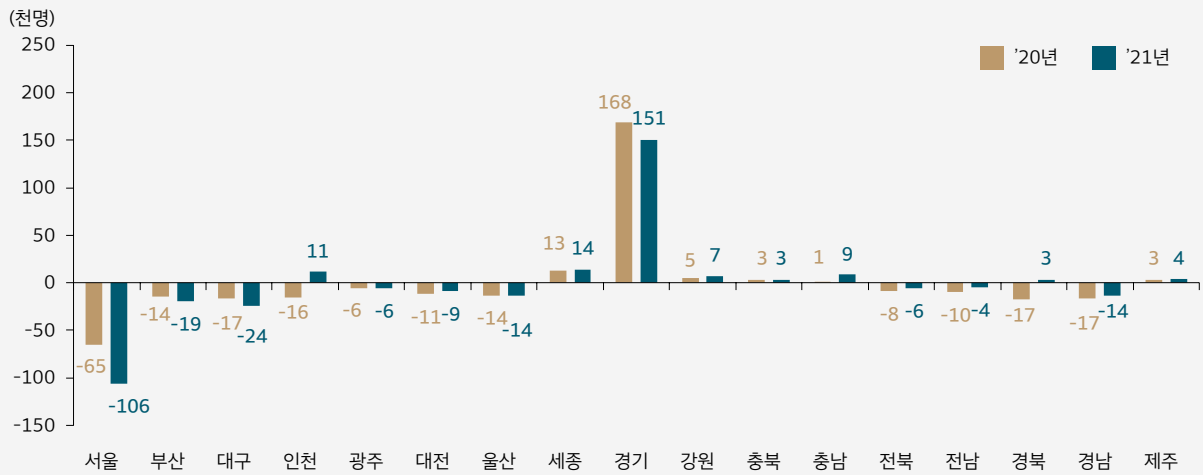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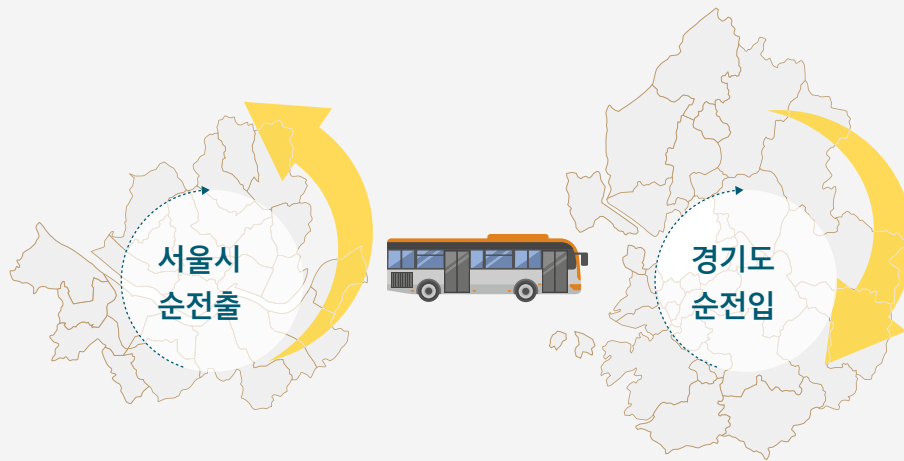
+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제주(3.1%), 충남(3.0%), 경기(2.7%) 순으로 높음

### 3.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 사·도 간 인구 순이동

2021년 인구이동은 서울의 순전출(타 시·도로 이동)인구가 가장 많고  
경기는 순전입(타 시·도에서의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간 인구이동(전입·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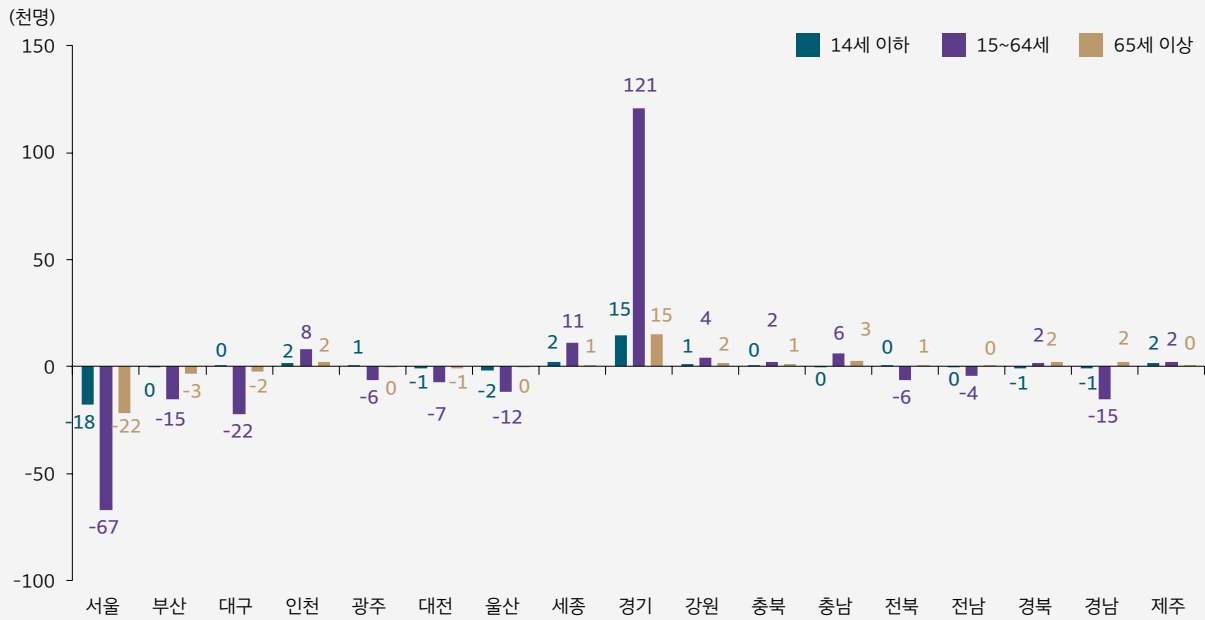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1년, 전입-전출)

## 시·도 간 연령별 인구 순이동

2021년 서울은 전 연령층에서 순전출이 컸고  
경기도는 전 연령층에서 순전입이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 연령별 인구이동(전입·전출)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1년), 전입·전출

+ 특히 경기도는 15~64세의 순전입(121천명)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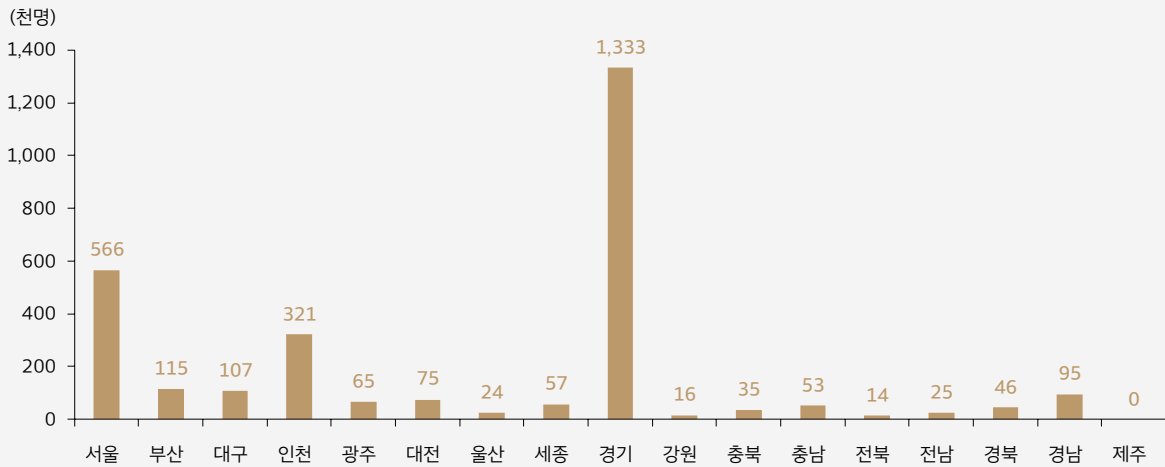
## 시·도 간 통근자

시·도간 통근자수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고 이들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75.3%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의 권역화된 노동시장임을 알 수 있다.

### 시·도간 통근자



시·도별 통근자  
**75.3%**  
수도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년)



[www.moel.go.kr](http://www.moel.go.kr)

## 02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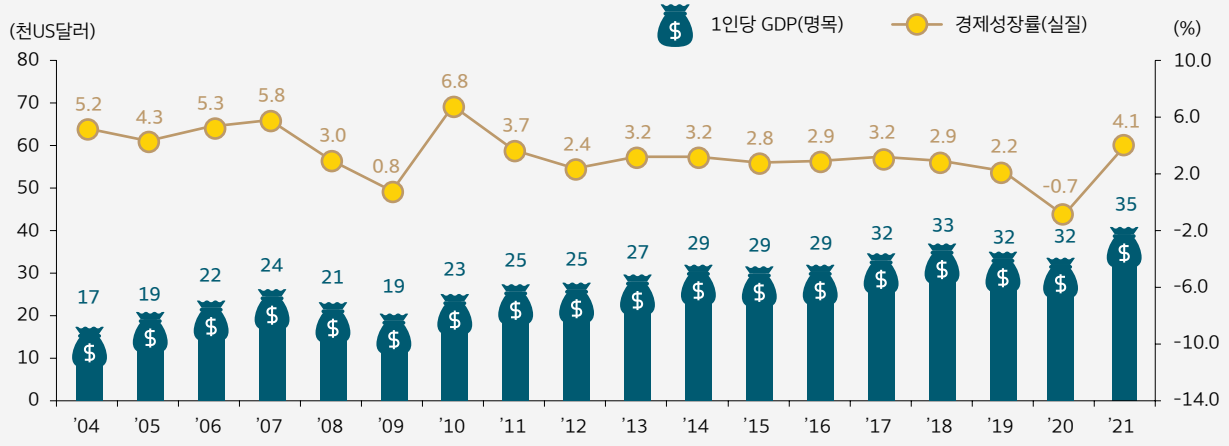


# 1.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2021년 경제성장률은 4.1%로 전년(-0.7%)대비 증가하였고  
1인당 GDP 역시 35천 US달러로 전년(32천 US달러)보다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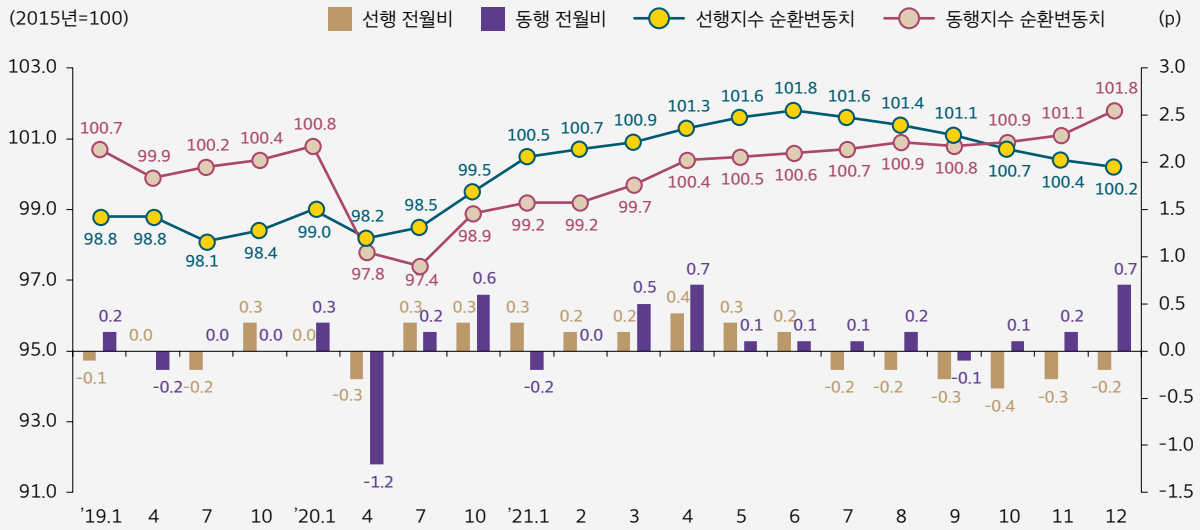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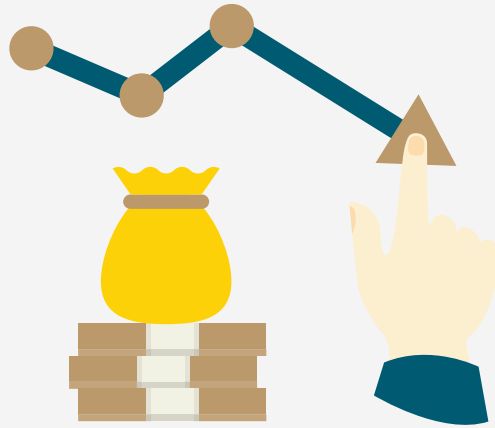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인당 GDP는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  
주) 최근 2개년은 잠정치('22.8.23. 발표 기준)

## 경기종합지수

2021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 이후 100보다 높게 나타나 체감되는 경기상황은 이전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 경기종합지수



자료: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단위: 불경기 < 100 < 호경기, p)  
 주) 선행종합지수: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동행종합지수: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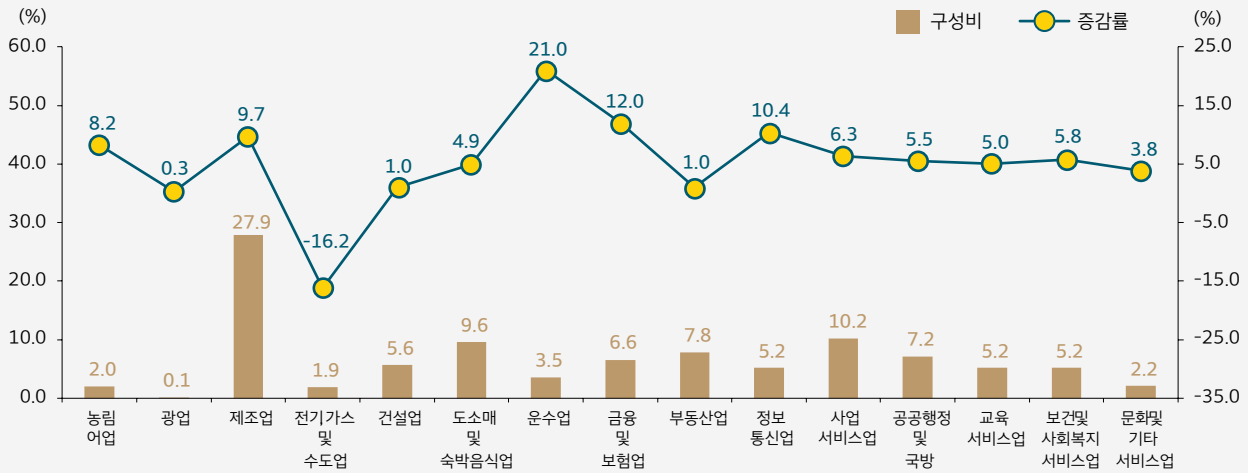
+ 한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1년 1월 이후 대체로 100보다 높게 나타나 경기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산업 동향

### 업종별 총생산액 비중

제조업의 생산액 비중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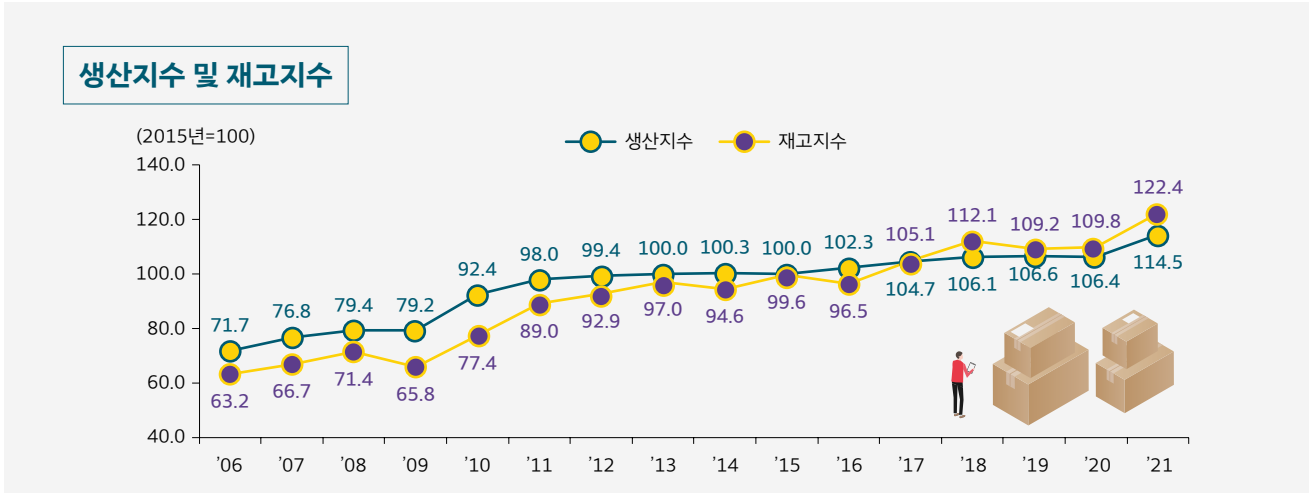
'21년 업종별 총생산액 구성비 및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잠정치, 명목, '22.8.23. 발표 기준)

## 제조업 생산지수 및 재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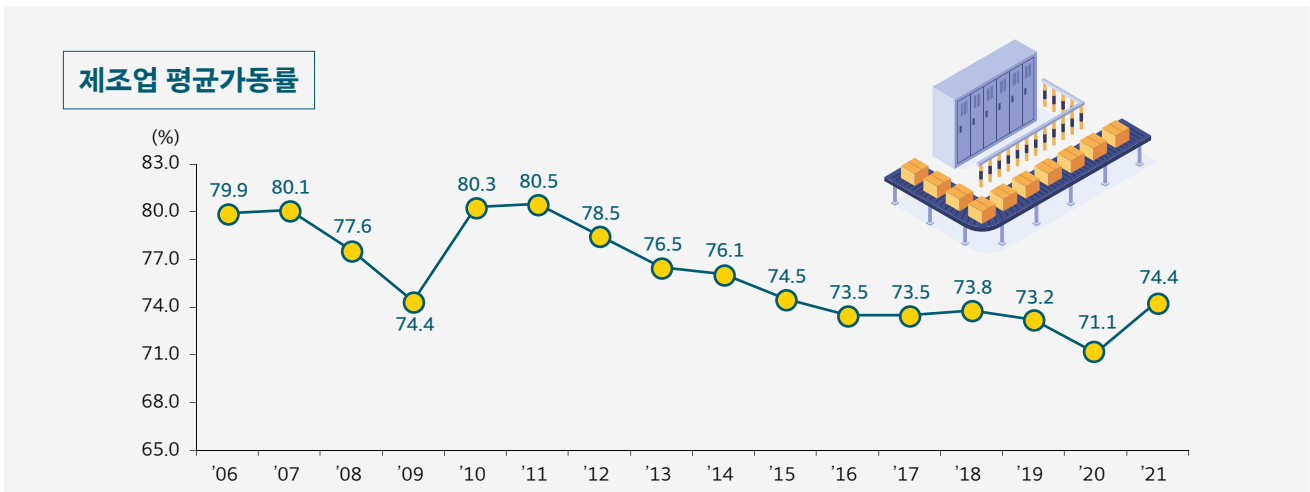
제조업 재고지수는 2017년 이후 생산지수를 상회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제조업 평균가동률

최근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1년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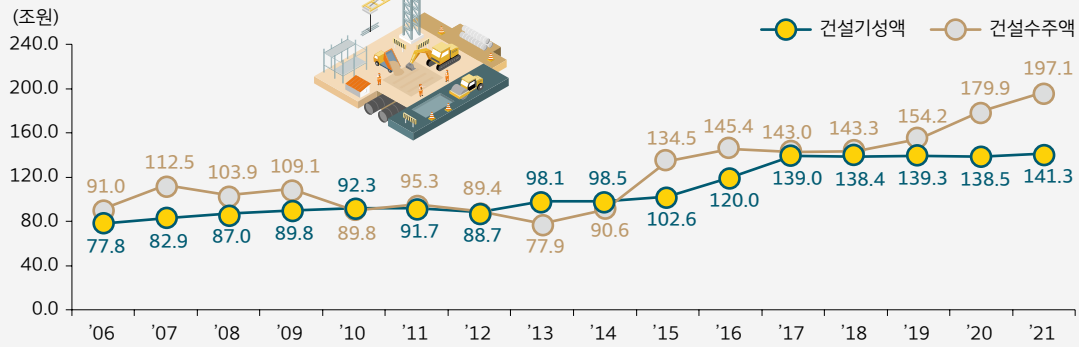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건설

최근 건설 수주 증가로 2021년 건설수주액은 건설기성액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건설기성액 및 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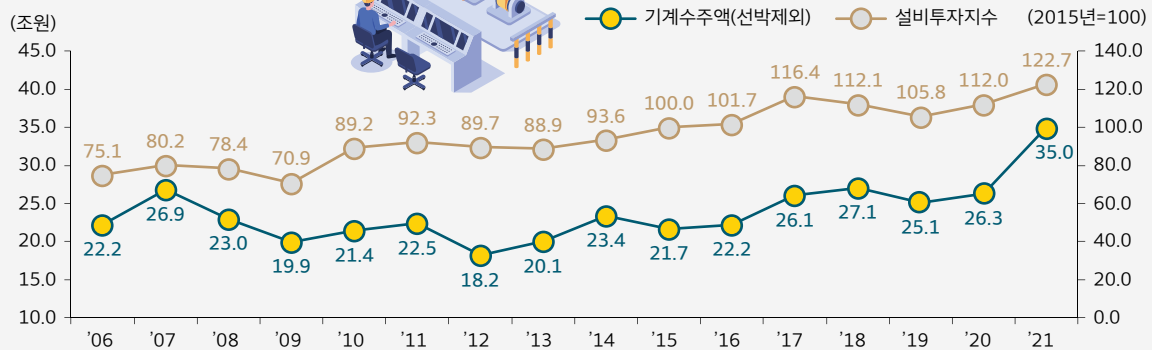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기계

2021년 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지수는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기계수주액 및 설비투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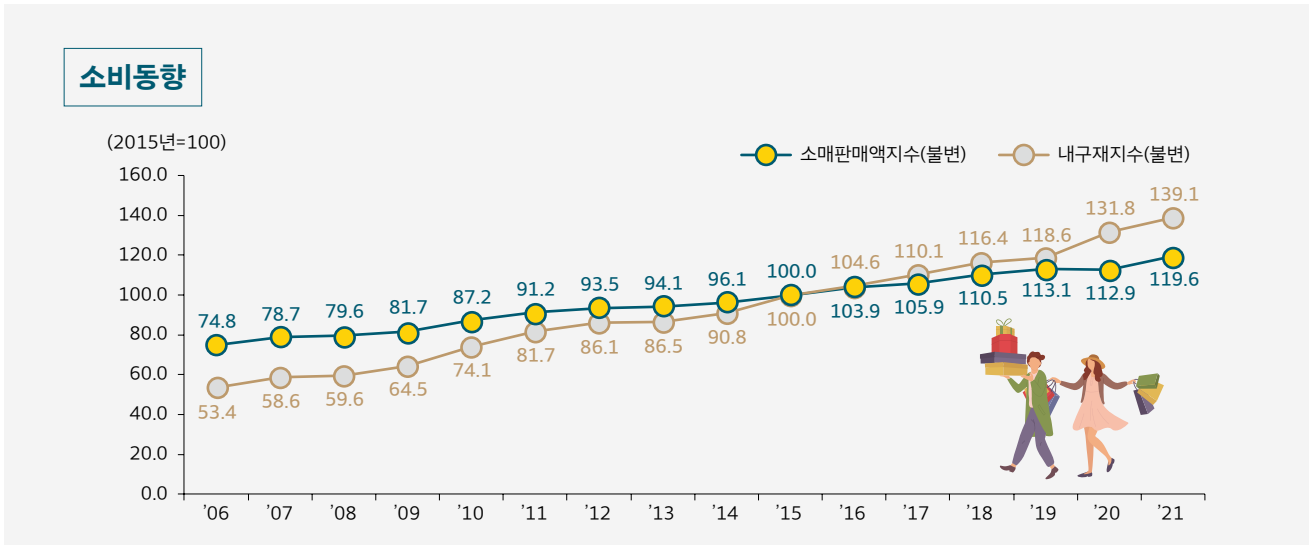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기계수주동향조사, 설비투자지수

### 3. 소비 및 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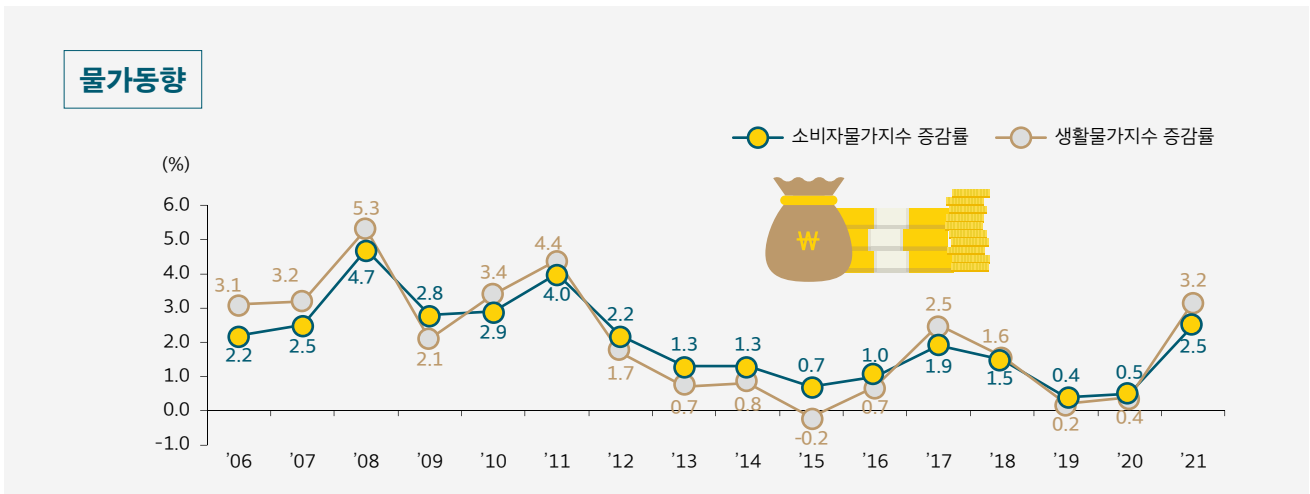
#### 소비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내구재 지수의 증가세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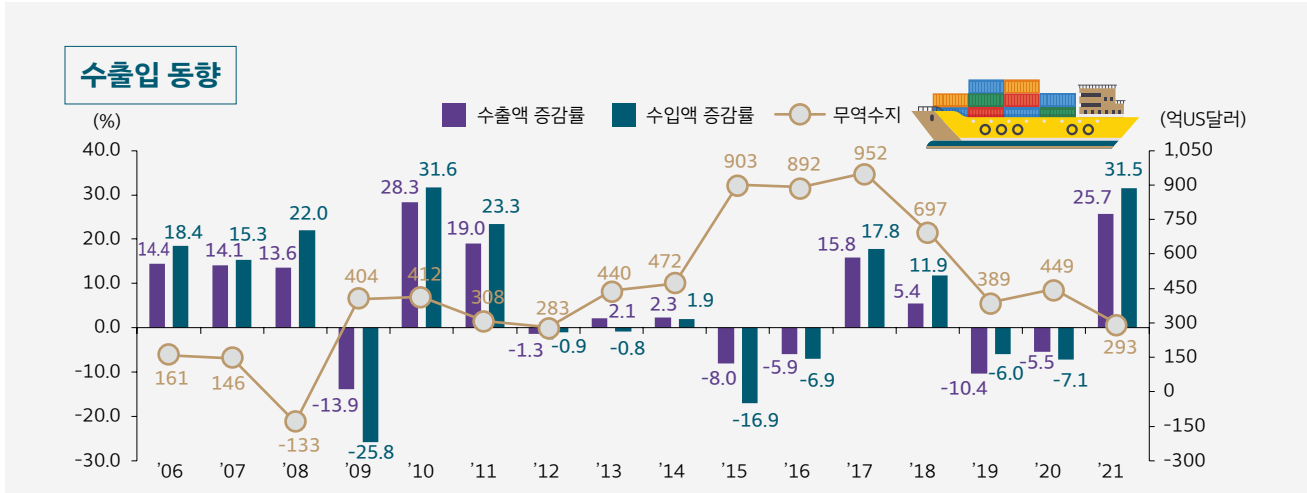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2.5% 상승하였고 생활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3.2% 상승하였다.



## 4. 수출·입 동향

### 수출·입 동향

2021년 수출액과 수입액의 증감률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수출-수입)는 293억 US달러 흑자로 2020년 449억 US달러에 비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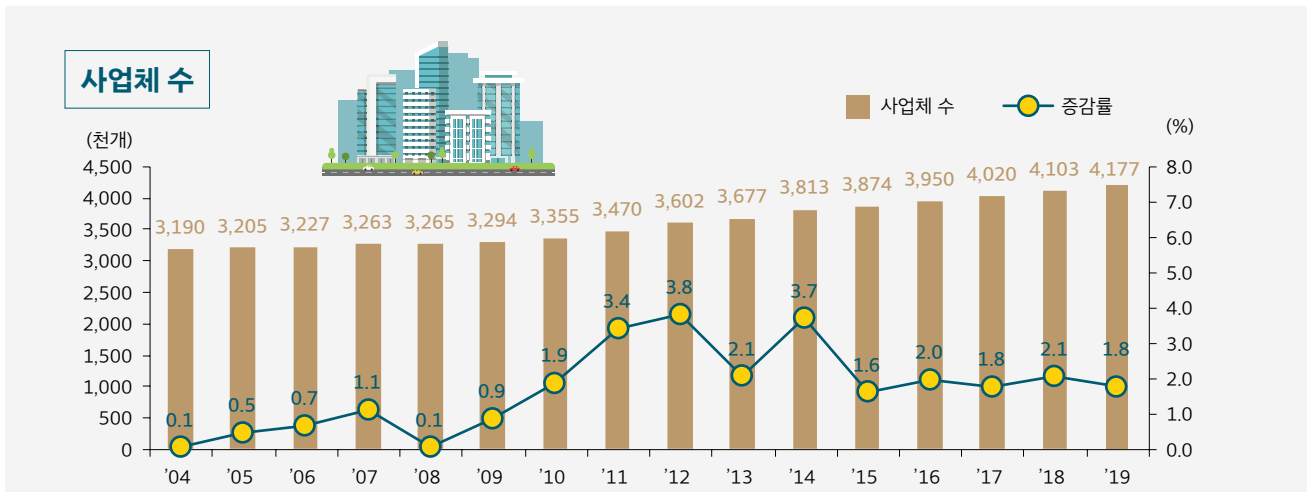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 5. 사업체 동향

###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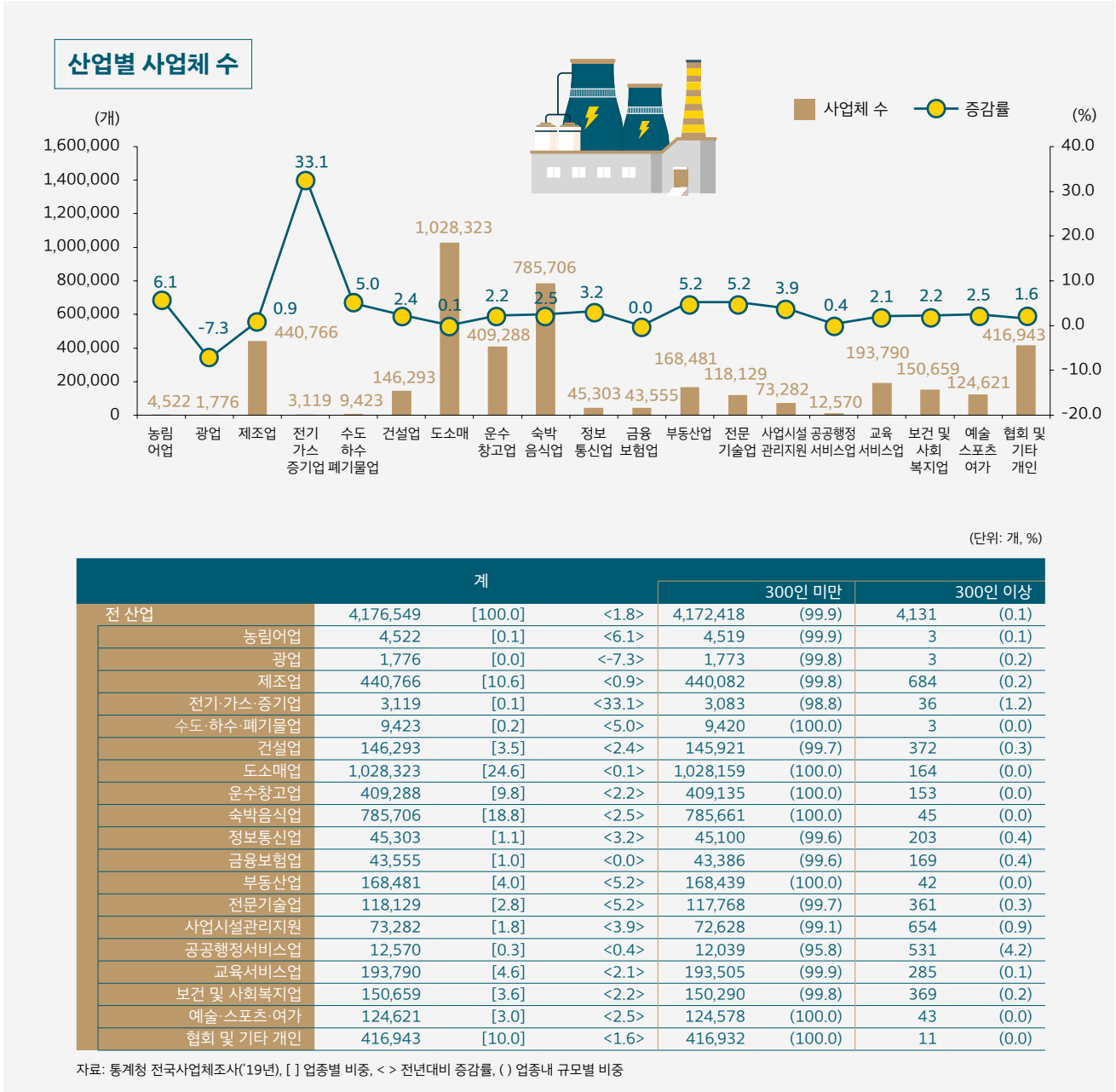
2019년 전국의 사업체 수는 4,177천개소로 전년보다 1.8%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9년)

##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 수

2019년 전국의 사업체 수 비중은 도소매, 숙박음식, 제조업 순으로 많으며 증가율은 전기가스증기업, 농림어업 순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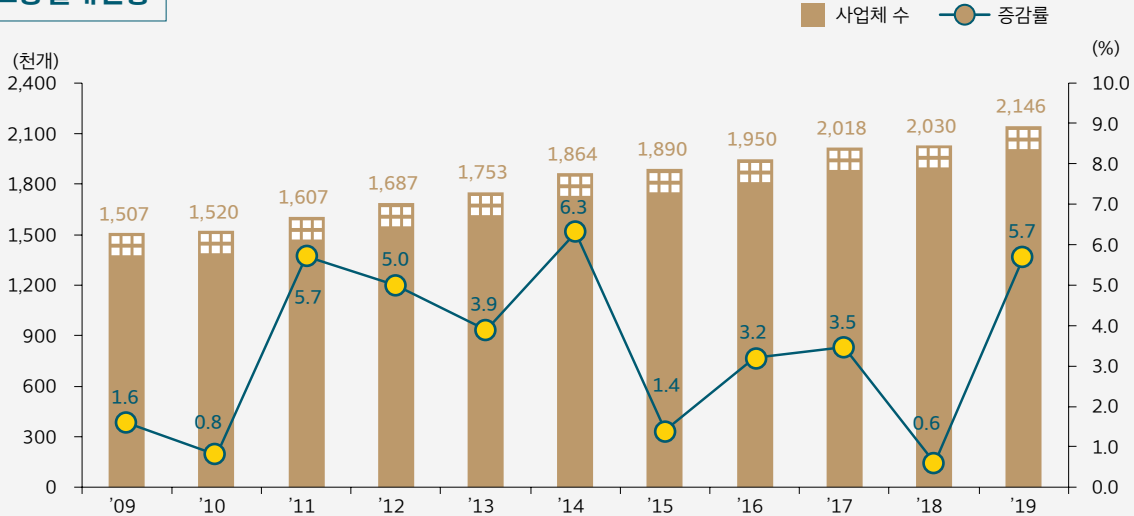




## 종사자 1인 이상 있는 사업체 현황

2019년 종사자(상용, 임시·일용, 기타)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체는 2,146천개로 전년에 비해서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노동실태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19년)

(단위: 개소)

	전 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업	수도·하수·폐기물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전규모	2,146,156	4,330	976	302,086	1,911	7,652	120,110	492,672	46,929	405,652
1~4인	1,320,269	2,262	392	139,326	961	3,131	47,715	356,853	22,988	289,143
5~9인	506,397	1,075	205	92,867	278	1,894	40,653	94,694	9,497	94,243
10~29인	236,469	732	292	48,242	213	1,839	25,232	33,739	8,810	20,210
30~99인	66,074	233	81	17,569	338	734	4,977	6,239	4,162	1,866
100~299인	13,374	25	3	3,398	85	51	1,165	983	1,319	145
300인이상	3,573	3	3	684	36	3	368	164	153	45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관리·지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업	협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규모	35,485	39,701	83,565	91,458	55,309	100,845	141,653	54,929	160,893	
1~4인	19,139	10,902	57,139	51,440	32,567	62,457	51,852	39,800	132,202	
5~9인	7,240	10,714	17,353	23,625	9,482	23,006	50,140	10,761	18,670	
10~29인	5,788	12,869	7,838	11,598	7,476	11,268	28,801	3,211	8,311	
30~99인	2,484	4,604	1,017	3,545	3,694	3,408	8,808	796	1,519	
100~299인	644	445	169	884	1,397	463	1,694	327	177	
300인이상	190	167	49	366	693	243	358	34	14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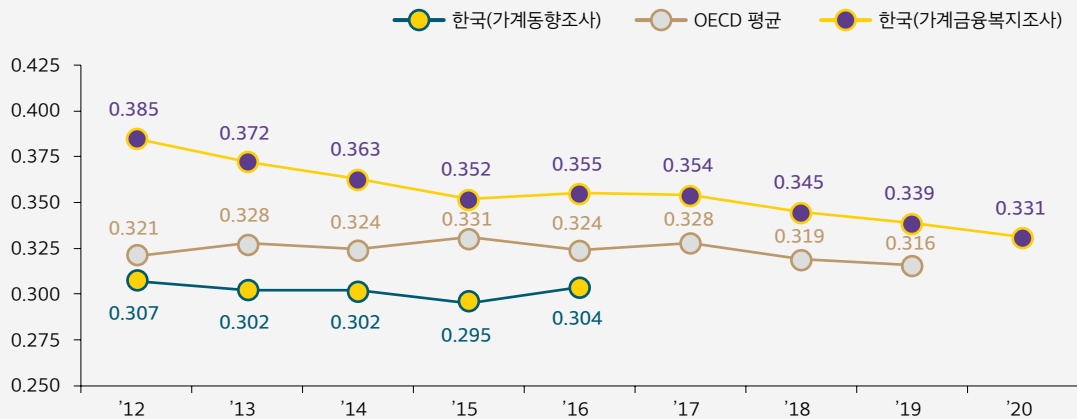
## 6. 분배 동향

### 지니계수

2019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39로 OECD 평균인 0.316보다 높은 편이다.

- OECD 기준에서 한국은 27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

#### 지니계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처분가능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OECD에서 발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순 평균('22.7.22. 발표 기준)

주) 그동안 소득분배지표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나, '16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함.

참고로, OECD는 '12년부터 새로 정의한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어 '11년 이전 자료와는 시계열이 단절되므로 이용 시 주의를 요함 (단위: 0~1, 0=완전평등, 1=완전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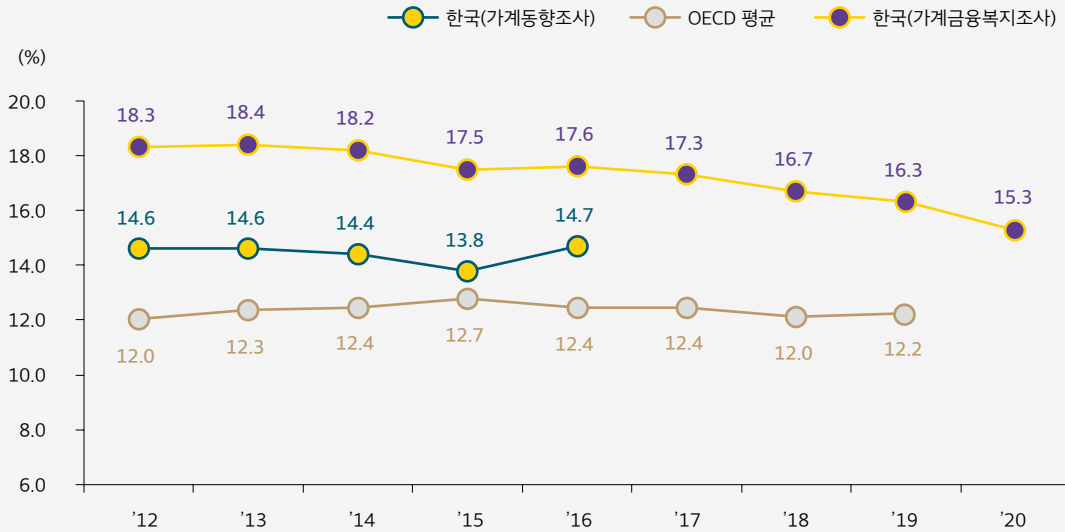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

2020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보다 낮아졌으며, 2019년은 16.3%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상대적 빈곤율

OECD  
27개국 중  
**6**번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처분가능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OECD에서 발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순 평균('22.7.22. 발표 기준)

주) 그동안 소득분배지표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나, '16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함.

참고로, OECD는 '12년부터 새로 정의한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어 '11년 이전 자료와는 시계열이 단절되므로 이용 시 주의를 요함

## 저임금근로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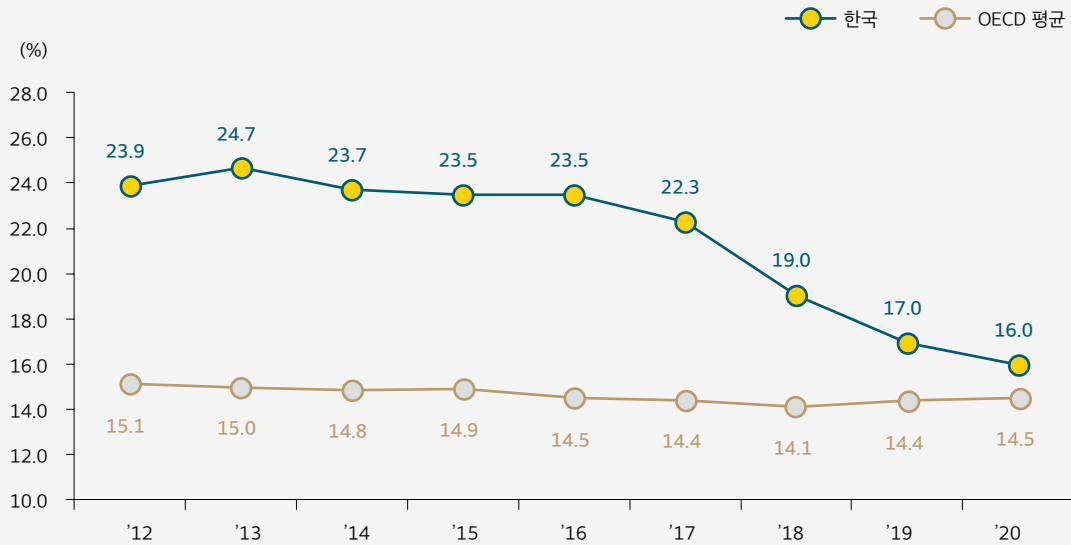
2020년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6%로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감소해왔으며, 2019년은 17%로 OECD 30개국 중 16번째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

### 저임금근로자 비중



OECD  
30개국 중  
**16**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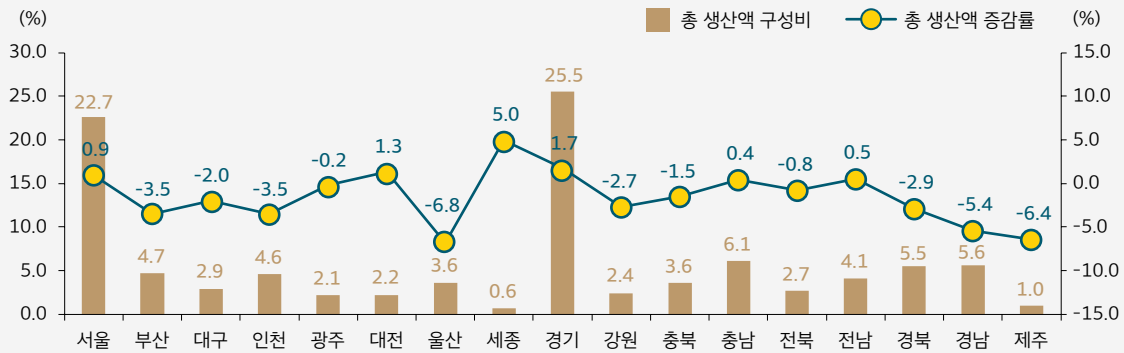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기준), OECD에서 발표하는 국가 평균(22.7.22. 발표 기준)

## 7. 지역별 경제 동향

### 시·도별 총생산액

2020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지역 총생산이 전체의 52.8%를 차지한다.

시·도별 총생산액 구성비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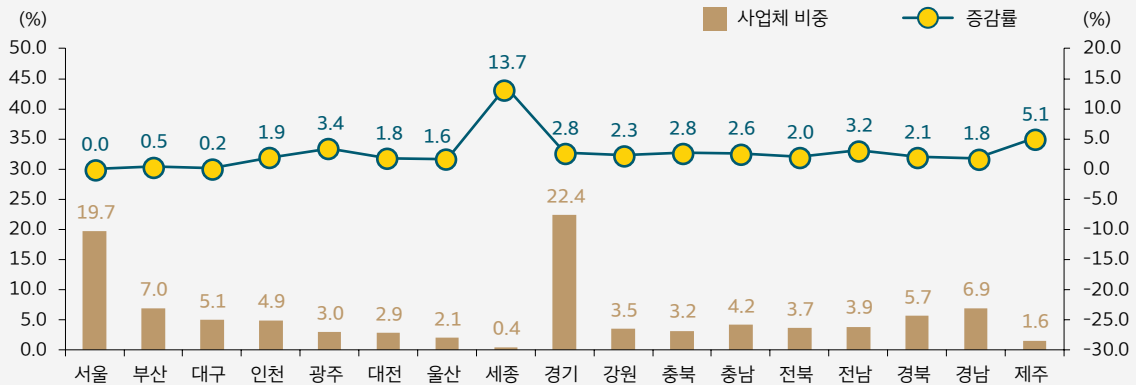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20년)

### 시·도별 사업체 수

사업체 수는 수도권이 47.0%,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이 26.6%로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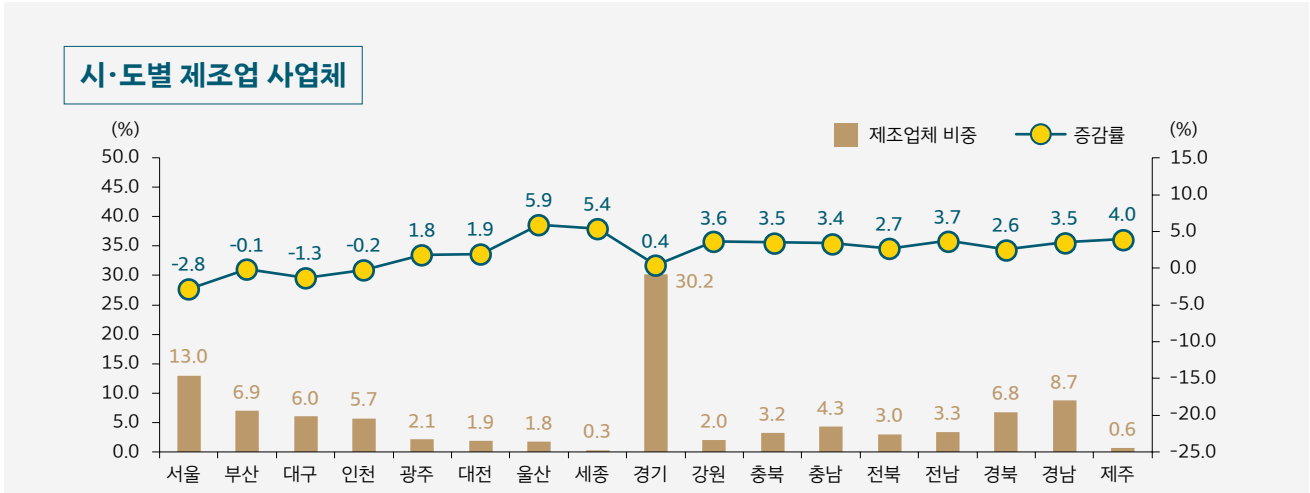
시·도별 사업체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9년)

## 시·도별 제조업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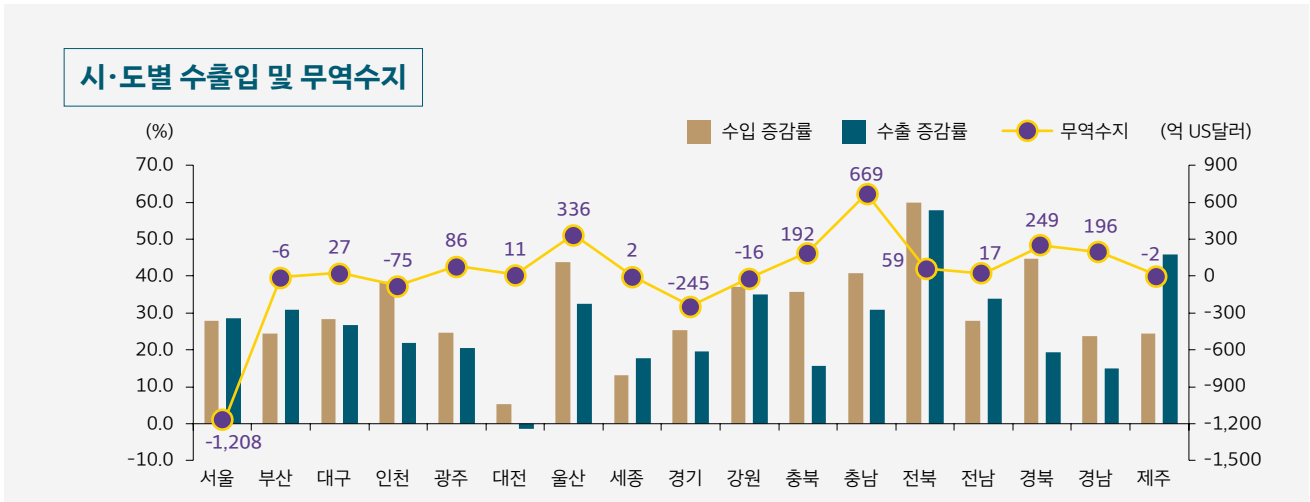
2019년 제조업 사업체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전체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9년)

## 시·도별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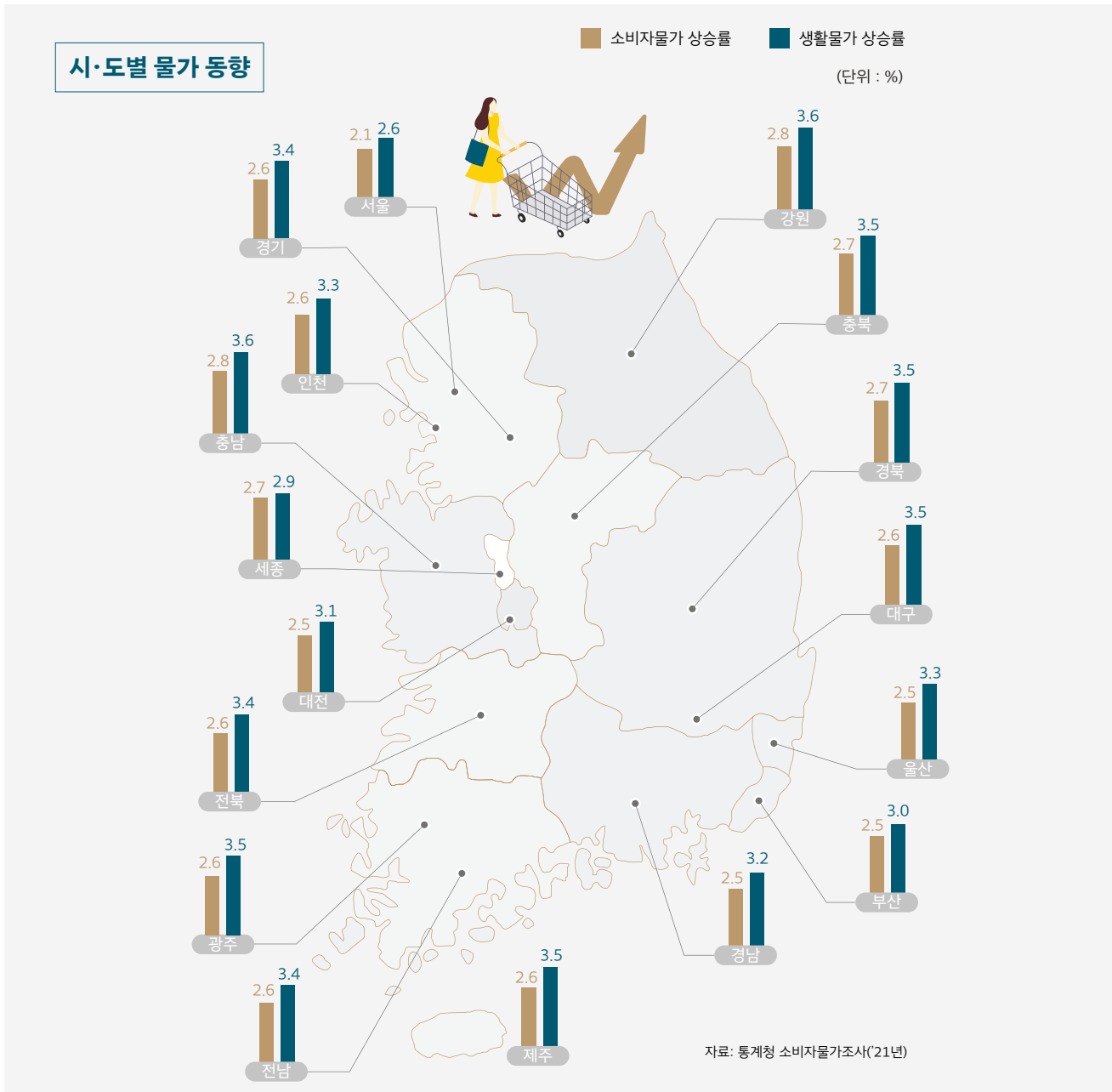
2021년 서울의 무역수지는 크게 적자로 나타난 반면, 충남, 울산, 경북의 무역수지는 큰 흑자를 보여주었다.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21년)

## 시·도별 물가

2021년 시도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높게 증가하였다.









[www.moel.go.kr](http://www.moel.go.kr)

## 03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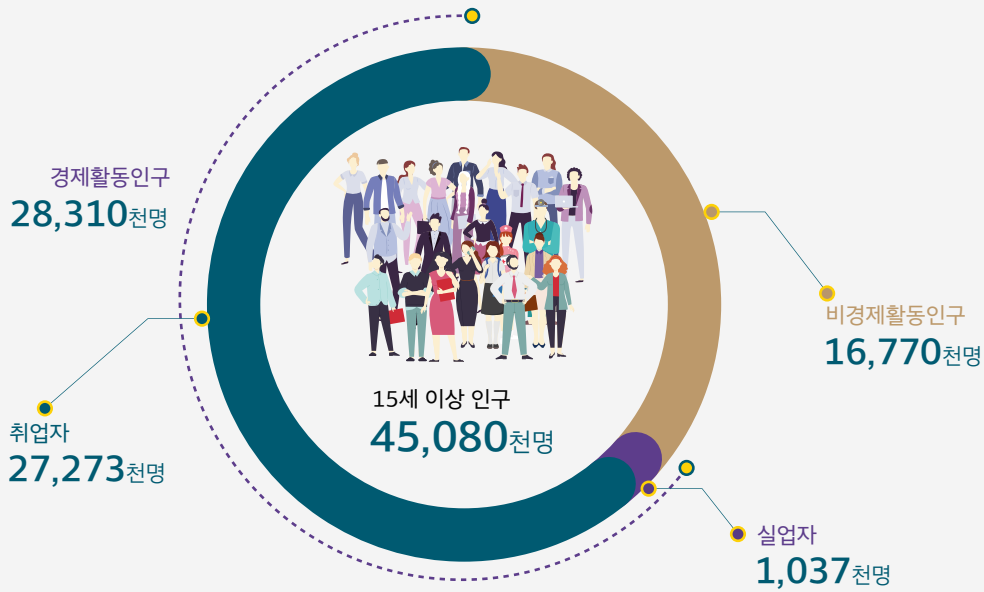
# 1. 노동력 현황

## 15세 이상 인구\*

국내 15세이상 인구는 4,508만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831만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명이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세 이상 인구는 인구추계의 15세 이상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활동상태별 1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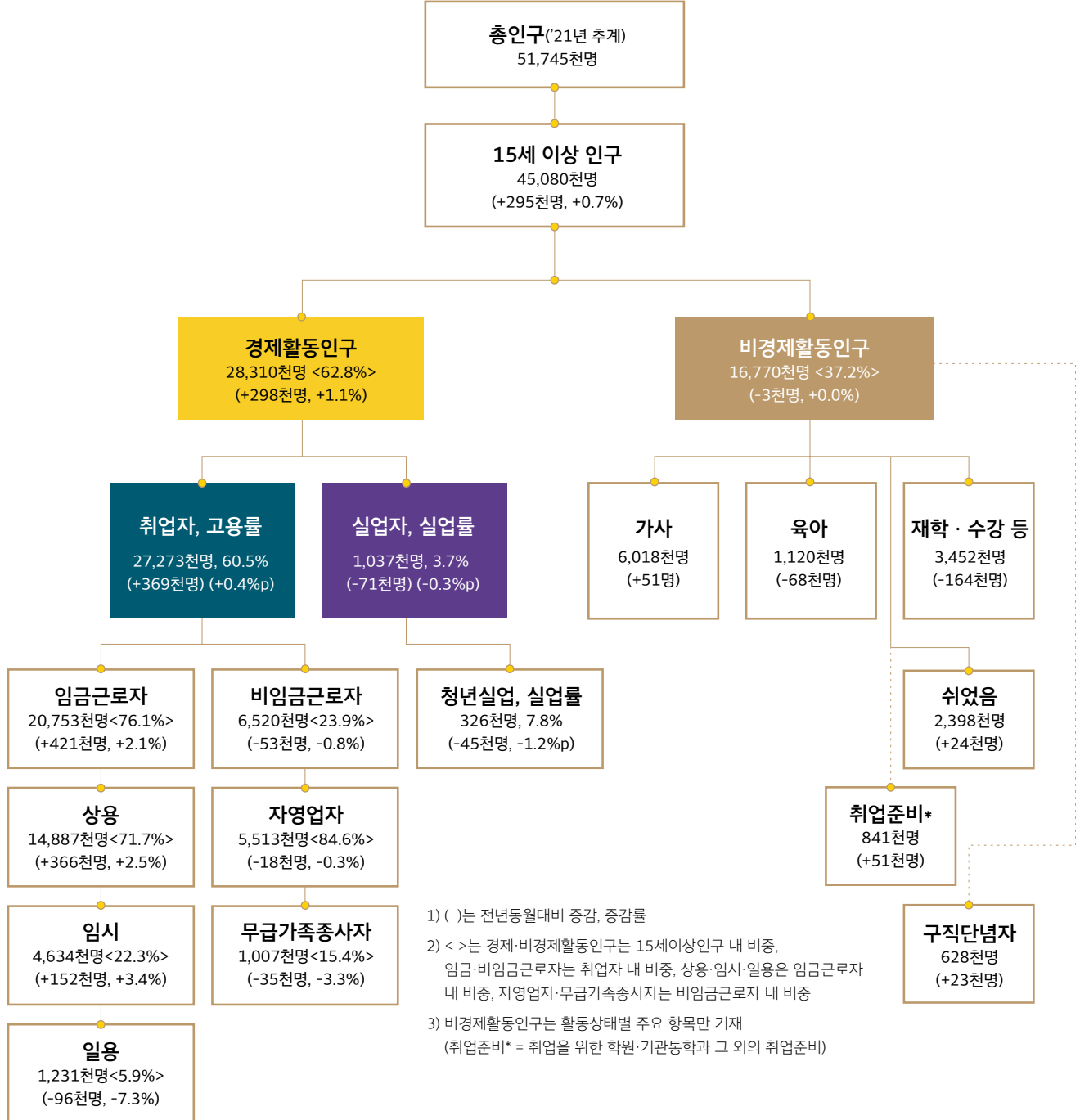
(단위: 천명, %)

	합계		남성		여성	
	천명	(%)	천명	(%)	천명	(%)
15세 이상 인구	45,080	(36,498)	22,198	(18,468)	22,882	(18,030)
경제활동인구	28,310	(25,198)	16,124	(14,400)	12,186	(10,798)
비경제활동인구	16,770	(11,300)	6,074	(4,068)	10,696	(7,232)
경제활동참가율	62.8	(69.0)	72.6	(78.0)	53.3	(59.9)
취업자	27,273	(24,280)	15,548	(13,884)	11,725	(10,397)
실업자	1,037	(918)	576	(516)	461	(402)
실업률	3.7	(3.6)	3.6	(3.6)	3.8	(3.7)
고용률	60.5	(66.5)	70.0	(75.2)	51.2	(5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1년), ( ) 15~64세 기준

+ '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는 28,310천명으로 이 중 취업자 27,273천명, 실업자 1,037천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0천명이다. 고용률은 60.5%(15~64세 66.5%)이며, 실업률은 3.7%이다.

## 2021년 고용동향 (15세 이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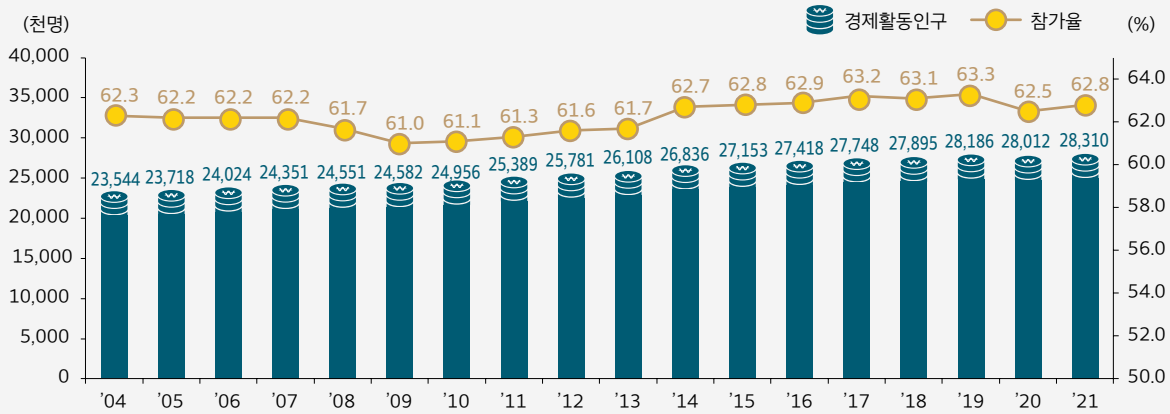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2) < >는 경제·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인구 내 비중, 임금·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내 비중, 상용·임시·일용은 임금근로자 내 비중,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 내 비중
- 3)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상태별 주요 항목만 기재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과 그 외의 취업준비)

##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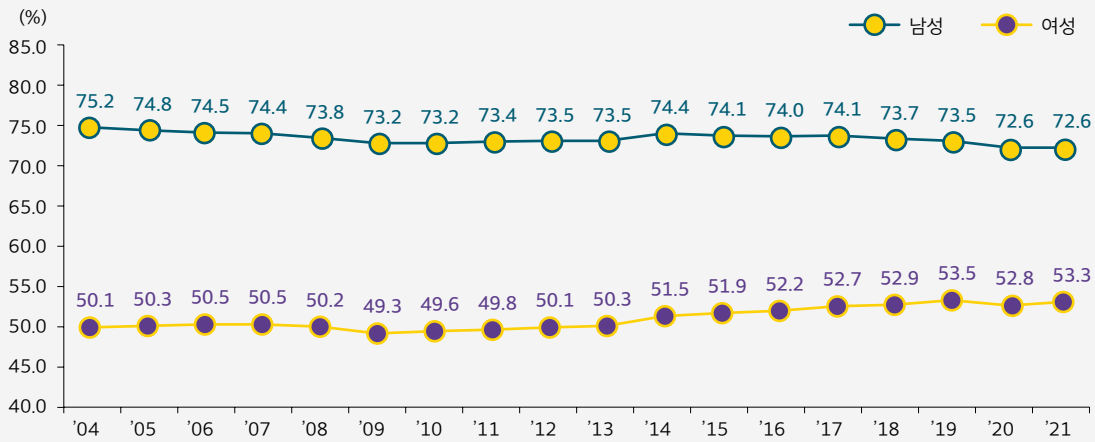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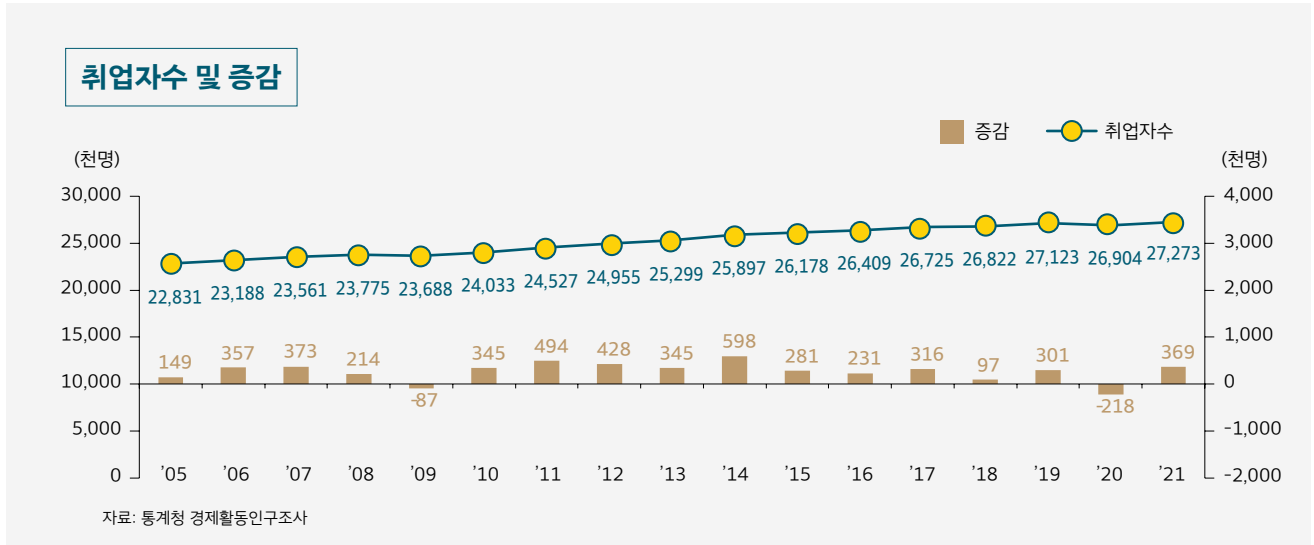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1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2.8%이고 이 중 남성은 72.6%, 여성은 53.3%이다.  
 추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2.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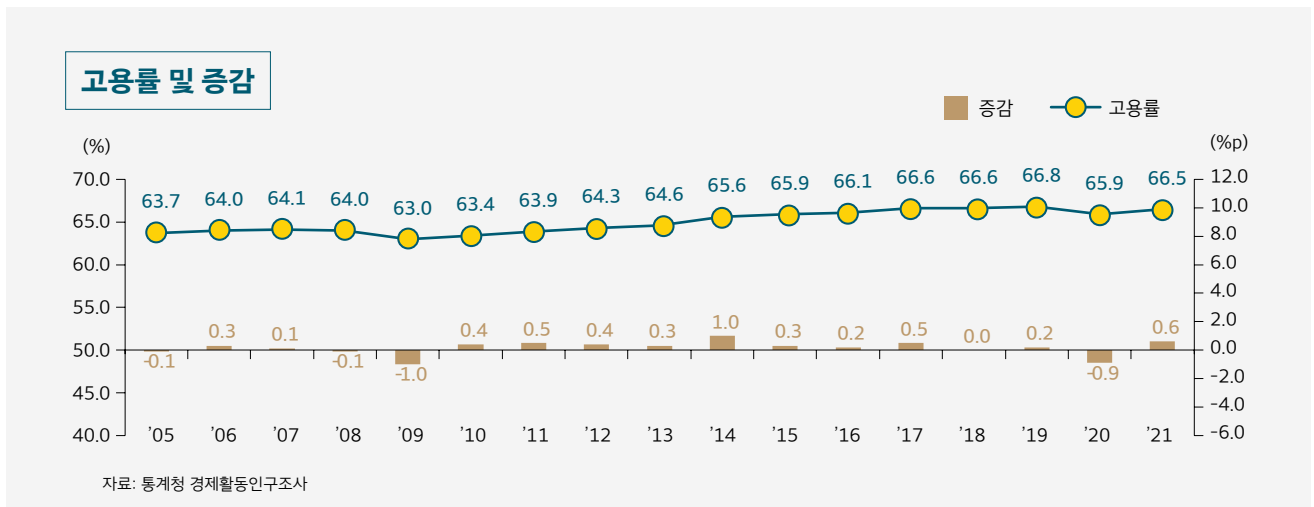
### 취업자(15세 이상)

2021년 우리나라 15세이상 취업자는 27,273천명으로 전년대비 36만 9천명 증가하였다.



### 고용률(15~64세)

2021년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은 66.5%로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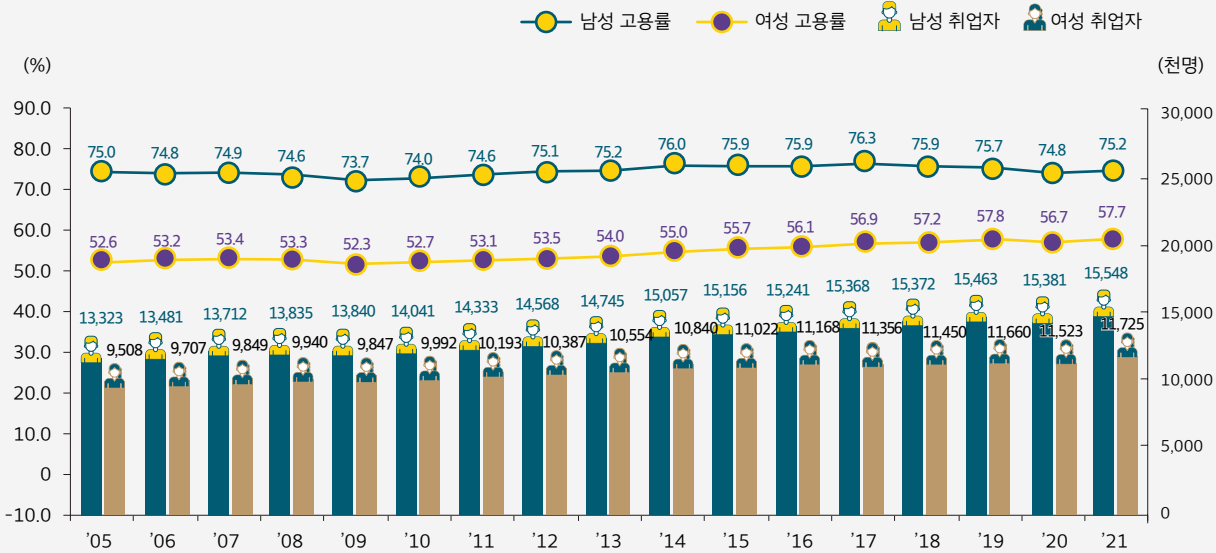


##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13년 이후 여성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상세분석은 「제2편 대상별 현황」 참조

###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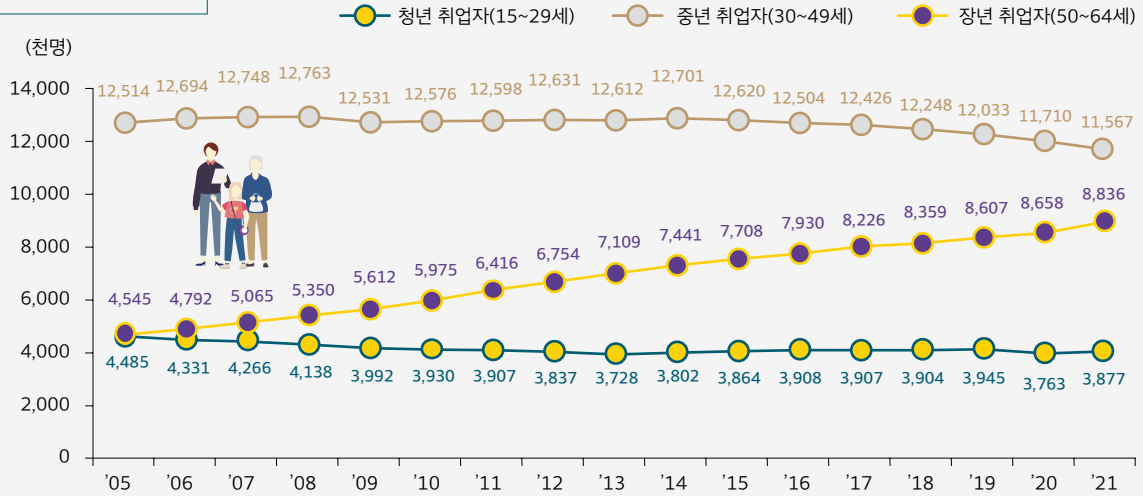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취업자는 15세 이상, 고용률은 15~64세 기준

##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장년(50~64세)의 취업자가 증가하는데 반해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15~29세)과 중년(30~49세)의 취업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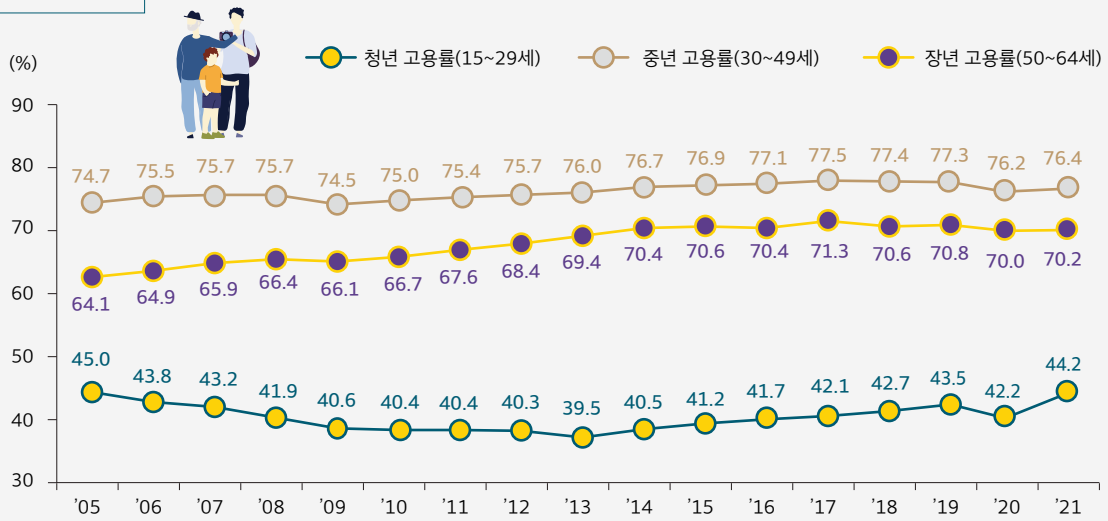
\* 청년 및 장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상세분석은 「제2편 대상별 현황」 참조

### 연령별 취업자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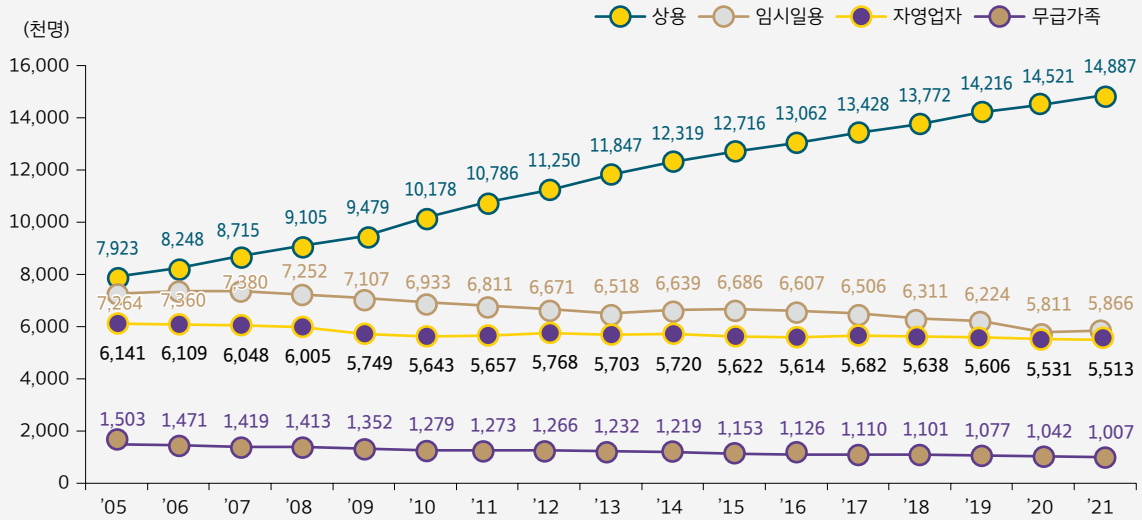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최근 취업자 증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형태인 상용직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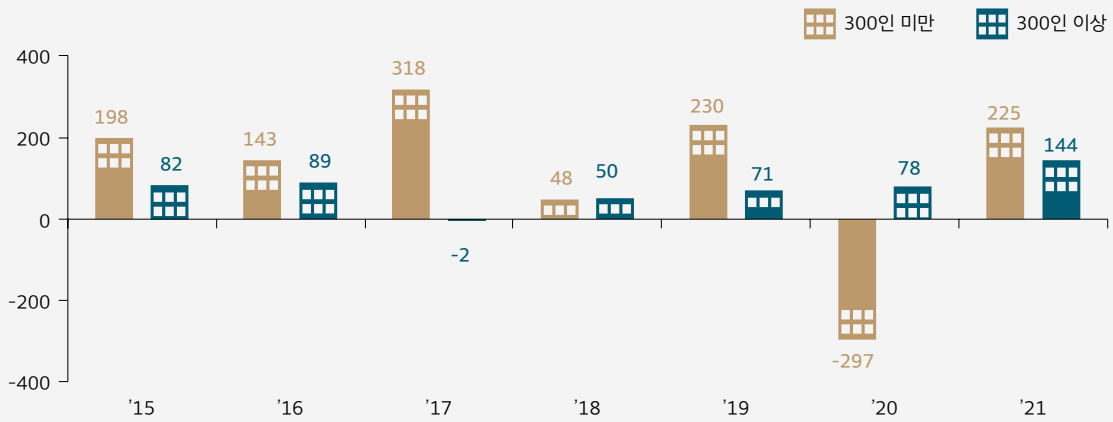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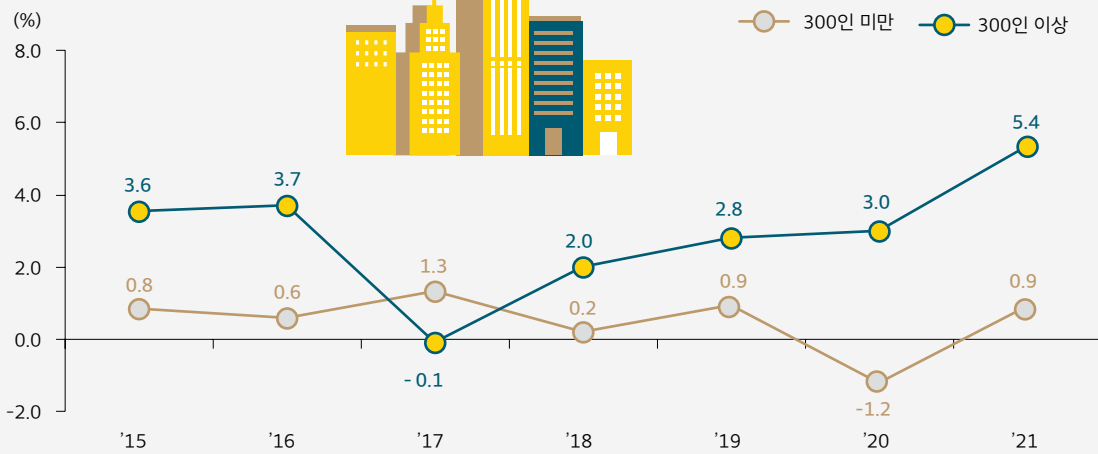
## 규모별 취업자

2021년 전체 취업자(27,273천명)중 약 89.7%는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10.3%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분포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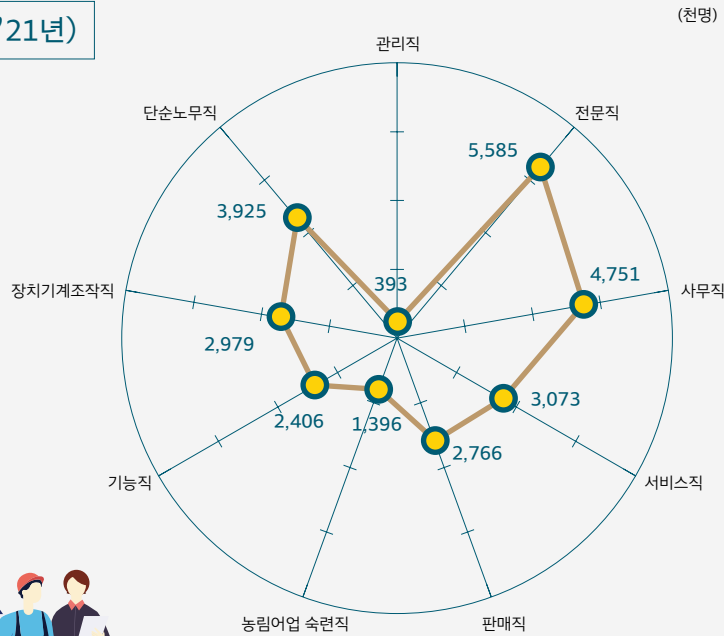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 취업자 증감규모는 대체적으로 300인 미만이 300인 이상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년은 역전되었다. 증감률에서는 '17년을 제외한 연도에서 300인 이상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직종별 취업자

2021년 직종별로는 전문직(20.5%), 사무직(17.4%)의 비중이 높다.  
 추세적으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직종별 취업자('21년)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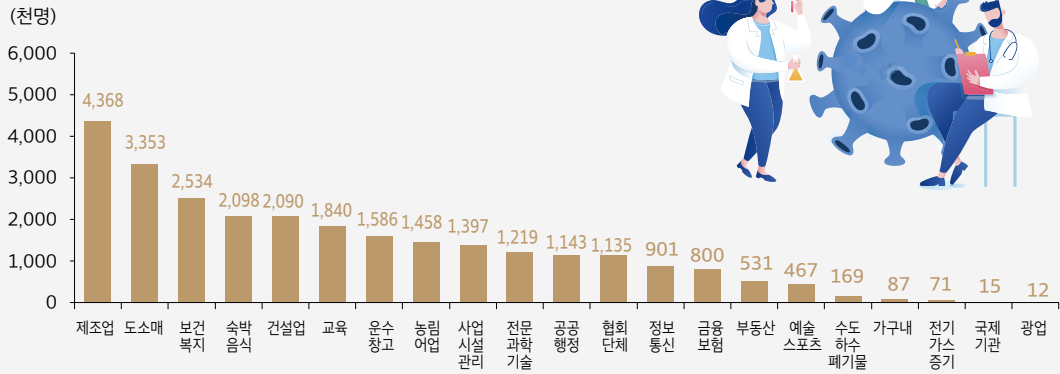
	'17	'18	'19	'20	'21
전 직종	26,725(100.0)	26,822(100.0)	27,123(100.0)	26,904(100.0)	27,273(100.0)
관리직	313(1.2)	371(1.4)	408(1.5)	395(1.5)	393(1.4)
전문직	5,427(20.3)	5,491(20.5)	5,557(20.5)	5,480(20.4)	5,585(20.5)
사무직	4,663(17.4)	4,762(17.8)	4,749(17.5)	4,691(17.4)	4,751(17.4)
서비스직	2,946(11.0)	2,969(11.1)	3,116(11.5)	3,046(11.3)	3,073(11.3)
판매직	3,091(11.6)	3,037(11.3)	3,030(11.2)	2,897(10.8)	2,766(10.1)
농림어업 숙련직	1,198(4.5)	1,266(4.7)	1,332(4.9)	1,383(5.1)	1,396(5.1)
기능직	2,384(8.9)	2,347(8.7)	2,372(8.7)	2,336(8.7)	2,406(8.8)
장치기계조작직	3,171(11.9)	3,098(11.6)	3,026(11.2)	2,957(11.0)	2,979(10.9)
단순노무직	3,533(13.2)	3,483(13.0)	3,534(13.0)	3,718(13.8)	3,925(1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비중

## 산업별 취업자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전문과학기술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21년)



단위: 천명(%)

	'17	'18	'19	'20	'21
전 산업	26,725(100.0)	26,822(100.0)	27,123(100.0)	26,904(100.0)	27,273(100.0)
농림어업(A)	1,279(4.8)	1,340(5.0)	1,395(5.1)	1,445(5.4)	1,458(5.3)
광업(B)	23(0.1)	19(0.1)	15(0.1)	13(0.0)	12(0.0)
제조업(C)	4,566(17.1)	4,510(16.8)	4,429(16.3)	4,376(16.3)	4,368(16.0)
전기가스증기업(D)	72(0.3)	70(0.3)	68(0.3)	74(0.3)	71(0.3)
수도하수폐기물업(E)	115(0.4)	127(0.5)	135(0.5)	153(0.6)	169(0.6)
건설업(F)	1,988(7.4)	2,034(7.6)	2,020(7.4)	2,016(7.5)	2,090(7.7)
도소매업(G)	3,795(14.2)	3,723(13.9)	3,663(13.5)	3,503(13.0)	3,353(12.3)
운수창고업(H)	1,405(5.3)	1,407(5.2)	1,431(5.3)	1,482(5.5)	1,586(5.8)
숙박음식업(I)	2,288(8.6)	2,243(8.4)	2,303(8.5)	2,144(8.0)	2,098(7.7)
정보통신업(J)	783(2.9)	837(3.1)	861(3.2)	847(3.1)	901(3.3)
금융보험업(K)	794(3.0)	840(3.1)	800(2.9)	778(2.9)	800(2.9)
부동산업(L)	540(2.0)	528(2.0)	556(2.0)	517(1.9)	531(1.9)
전문과학기술(M)	1,092(4.1)	1,096(4.1)	1,157(4.3)	1,164(4.3)	1,219(4.5)
사업시설관리지원(N)	1,374(5.1)	1,311(4.9)	1,312(4.8)	1,347(5.0)	1,397(5.1)
공공행정서비스업(O)	1,058(4.0)	1,110(4.1)	1,076(4.0)	1,112(4.1)	1,143(4.2)
교육서비스업(P)	1,907(7.1)	1,847(6.9)	1,883(6.9)	1,798(6.7)	1,840(6.7)
보건 및 사회복지업(Q)	1,921(7.2)	2,046(7.6)	2,206(8.1)	2,336(8.7)	2,534(9.3)
예술·스포츠·여가(R)	428(1.6)	445(1.7)	495(1.8)	496(1.8)	467(1.7)
협회 및 기타 개인(S)	1,222(4.6)	1,236(4.6)	1,233(4.5)	1,189(4.4)	1,135(4.2)
가구내고용활동(T)	64(0.2)	48(0.2)	75(0.3)	98(0.4)	87(0.3)
국제외국기관(U)	12(0.0)	7(0.0)	12(0.0)	17(0.1)	1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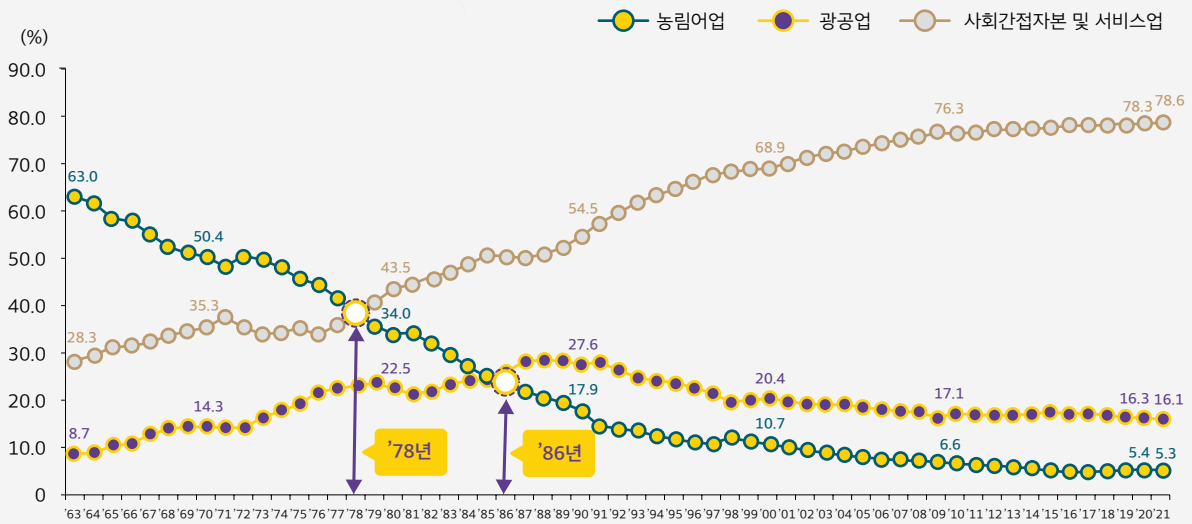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비중

## 60년대 이후 산업별 종사자 비중의 변화

60년대 63%의 생산가능인구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였다.  
 광공업은 '90년 27.6%까지 종사자 비중이 높아졌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

서비스업  
증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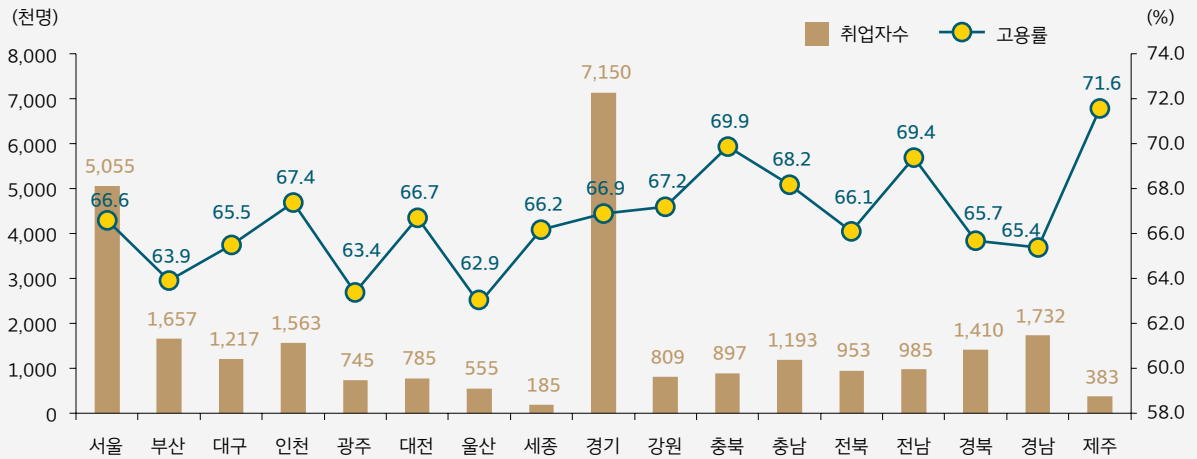
- + 60년대 초반에는 취업자의 60%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했으나, '78년에 서비스업보다 낮아지고, '86년에는 다시 광공업에 역전되면서, '21년 기준 5.3%까지 축소
- + 반면, 서비스업(건설업 등 사회간접자본 포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 기준 78.6%를 차지. 광공업은 '88년 28.5%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1년 기준 16.1%의 비율을 차지(제조업은 16.0%)

## 지역별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는 15세 이상 기준,  
고용률은 15~64세 기준

2021년 취업자수는 경기지역이 가장 많으며 전체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률은 제주지역이 가장 높고, 특·광역시 고용률이 대체로 도지역보다 낮은 편이다.

지역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21년)



단위: 천명(%)

취업자	합계	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국	27,273 (100.0)	3,877 (14.2)	11,567 (42.4)	8,836 (32.4)	2,992 (11.0)	1,458 (5.3)	4,380 (16.1)	2,090 (7.7)	19,345 (70.9)
서울특별시	5,055 (100.0)	904 (17.9)	2,265 (44.8)	1,475 (29.2)	411 (8.1)	5 (0.1)	442 (8.7)	334 (6.6)	4,275 (84.6)
부산광역시	1,657 (100.0)	224 (13.5)	667 (40.2)	570 (34.4)	197 (11.9)	11 (0.7)	240 (14.5)	138 (8.3)	1,269 (76.6)
대구광역시	1,217 (100.0)	172 (14.1)	502 (41.3)	427 (35.1)	116 (9.5)	15 (1.2)	239 (19.7)	89 (7.3)	874 (71.8)
인천광역시	1,563 (100.0)	232 (14.8)	682 (43.6)	519 (33.2)	130 (8.3)	9 (0.6)	313 (20.0)	130 (8.3)	1,111 (71.1)
광주광역시	745 (100.0)	105 (14.1)	330 (44.4)	239 (32.1)	70 (9.4)	12 (1.7)	100 (13.4)	71 (9.5)	562 (75.4)
대전광역시	785 (100.0)	133 (16.9)	334 (42.5)	247 (31.5)	71 (9.1)	8 (1.1)	92 (11.7)	66 (8.5)	618 (78.8)

취업자	합계	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울산광역시	555 (100.0)	64 (11.4)	254 (45.7)	195 (35.1)	43 (7.8)	6 (1.1)	163 (29.4)	41 (7.4)	344 (62.1)
세종자치시	185 (100.0)	22 (12.0)	105 (56.7)	45 (24.5)	13 (6.9)	9 (4.7)	24 (12.9)	9 (5.1)	143 (77.3)
경기도	7,150 (100.0)	1,061 (14.8)	3,268 (45.7)	2,266 (31.7)	554 (7.7)	107 (1.5)	1,344 (18.8)	607 (8.5)	5,091 (71.2)
강원도	809 (100.0)	93 (11.5)	289 (35.6)	289 (35.7)	139 (17.1)	69 (8.5)	62 (7.6)	79 (9.8)	599 (74.0)
충청북도	897 (100.0)	129 (14.4)	350 (39.0)	307 (34.2)	111 (12.4)	96 (10.7)	213 (23.7)	61 (6.8)	527 (58.8)
충청남도	1,193 (100.0)	155 (13.0)	487 (40.9)	372 (31.2)	179 (15.0)	177 (14.8)	257 (21.5)	75 (6.3)	685 (57.4)
전라북도	953 (100.0)	106 (11.1)	346 (36.3)	323 (33.9)	178 (18.7)	169 (17.7)	121 (12.7)	76 (7.9)	588 (61.7)
전라남도	985 (100.0)	90 (9.1)	339 (34.5)	341 (34.6)	215 (21.8)	221 (22.5)	97 (9.8)	78 (7.9)	589 (59.8)
경상북도	1,410 (100.0)	151 (10.7)	493 (35.0)	498 (35.3)	268 (19.0)	274 (19.4)	283 (20.1)	91 (6.4)	762 (54.0)
경상남도	1,732 (100.0)	191 (11.0)	697 (40.2)	598 (34.6)	245 (14.2)	203 (11.7)	377 (21.8)	108 (6.2)	1,043 (60.2)
제주도	383 (100.0)	46 (12.0)	160 (41.8)	125 (32.6)	52 (13.6)	67 (17.5)	15 (3.8)	37 (9.6)	265 (6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1년), ( ) 지역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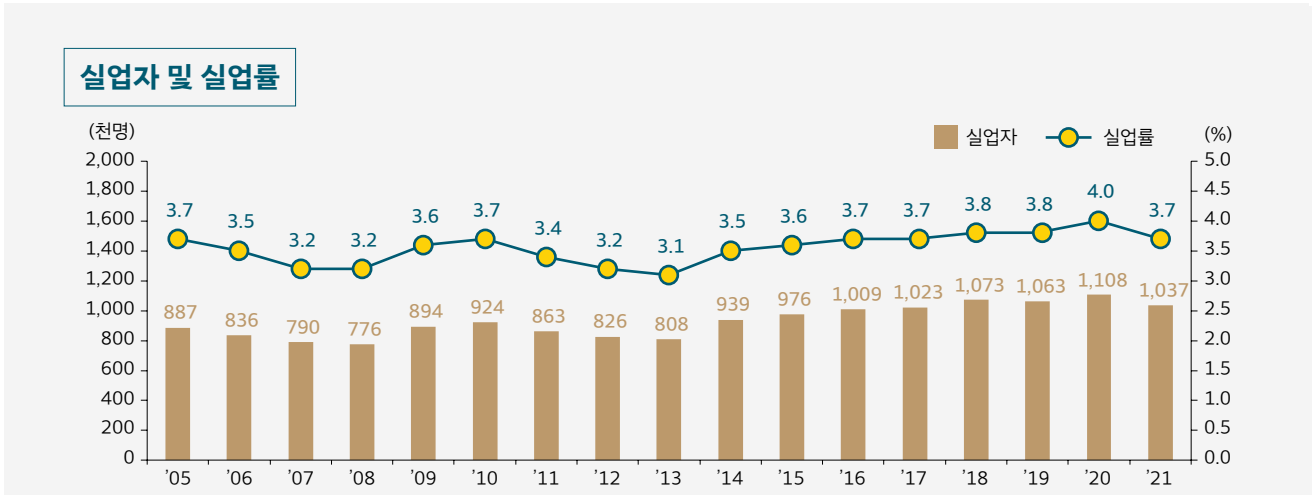
고용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전국	63.9	64.3	64.6	65.6	65.9	66.1	66.6	66.6	66.8	65.9	66.5
서울특별시	64.7	64.7	65.0	65.7	65.5	65.8	66.4	66.0	66.3	65.9	66.6
부산광역시	60.2	61.7	61.8	62.7	62.7	62.6	63.4	62.9	64.2	62.9	63.9
대구광역시	61.5	63.3	63.2	64.3	65.4	65.3	65.0	64.2	64.2	63.0	65.5
인천광역시	65.0	65.7	65.3	65.4	65.9	67.2	67.3	68.6	68.3	66.9	67.4
광주광역시	60.7	60.8	61.6	63.4	63.2	62.5	63.8	64.6	64.5	63.8	63.4
대전광역시	61.1	61.6	62.0	64.1	64.6	64.6	64.0	63.9	65.3	66.2	66.7
울산광역시	63.1	63.1	62.1	61.4	62.5	62.4	63.9	63.6	63.7	62.9	62.9
세종자치시	-	-	-	-	-	-	64.8	65.6	65.9	66.3	66.2
경기도	63.9	64.4	64.8	66.5	66.8	67.0	67.9	67.9	67.6	65.9	66.9
강원도	62.0	62.8	62.6	62.9	64.3	64.6	67.1	66.7	68.3	67.0	67.2
충청북도	64.6	63.7	65.2	67.5	68.3	68.2	69.1	69.1	68.3	69.0	69.9
충청남도	66.5	66.5	67.4	67.4	67.9	67.5	67.9	69.0	69.3	67.8	68.2
전라북도	62.2	62.5	63.9	63.5	64.6	65.5	64.4	63.9	64.4	64.6	66.1
전라남도	67.2	68.0	67.5	67.0	67.9	67.5	66.8	67.6	68.8	69.1	69.4
경상북도	65.9	66.7	66.6	68.2	67.6	67.5	67.9	66.9	67.4	66.4	65.7
경상남도	65.2	64.7	65.2	65.5	66.0	65.9	66.4	66.9	67.0	65.5	65.4
제주도	70.6	71.2	70.7	71.8	72.9	73.8	76.0	73.7	72.5	70.7	7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5-64세 기준), 세종자치시의 고용률은 '17년부터 발표됨

### 3. 실업자 현황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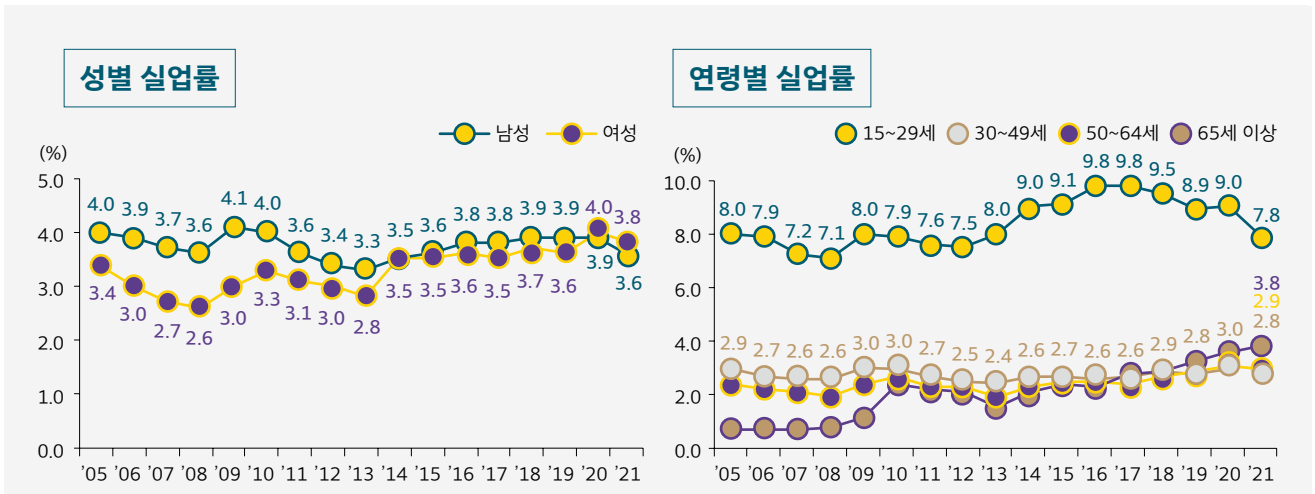
2021년 실업자는 1,037천명으로 전년보다 71천명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7%이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면서 실업률도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감소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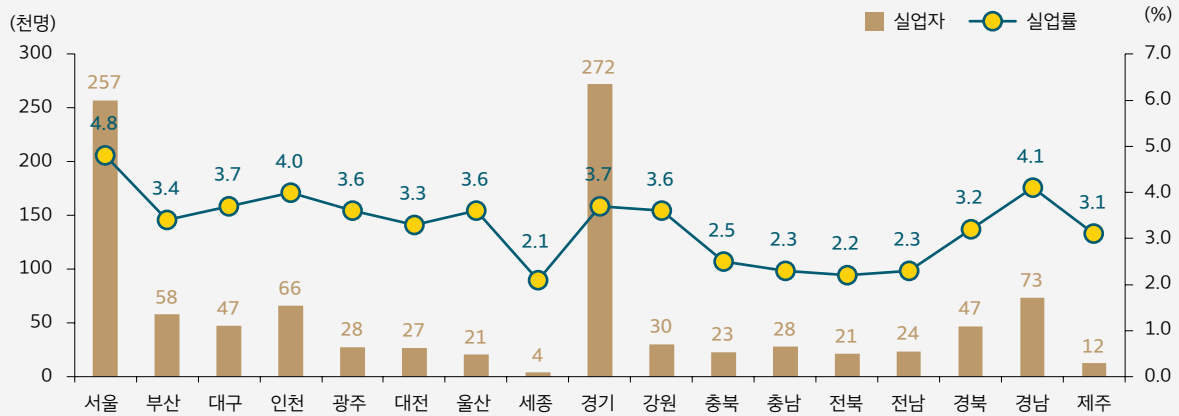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역별 실업자 및 실업률

2021년 실업자는 경기지역이 가장 많으며  
 수도권에 속한 실업자는 전체의 57.4%를 차지한다.  
 실업률은 서울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다.

지역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지역	실업자(률)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합계	1,037 (3.7)	461 (3.8)	576 (3.6)	461 (3.8)	326 (7.8)	329 (2.8)	263 (2.9)	119 (3.8)		
서울특별시	257 (4.8)	121 (5.0)	136 (4.7)	121 (5.0)	90 (9.0)	83 (3.5)	62 (4.0)	23 (5.3)		
부산광역시	58 (3.4)	25 (3.3)	33 (3.4)	25 (3.3)	19 (7.7)	18 (2.7)	14 (2.3)	7 (3.6)		
대구광역시	47 (3.7)	21 (3.8)	26 (3.7)	21 (3.8)	13 (7.1)	14 (2.6)	14 (3.3)	6 (5.0)		
인천광역시	66 (4.0)	27 (3.8)	39 (4.2)	27 (3.8)	20 (7.9)	20 (2.9)	17 (3.2)	9 (6.2)		
광주광역시	28 (3.6)	13 (3.7)	15 (3.4)	13 (3.7)	9 (7.7)	9 (2.7)	6 (2.6)	3 (4.4)		
대전광역시	27 (3.3)	12 (3.5)	14 (3.1)	12 (3.5)	10 (6.9)	8 (2.2)	6 (2.3)	4 (4.7)		
울산광역시	21 (3.6)	9 (3.9)	12 (3.4)	9 (3.9)	6 (8.0)	7 (2.8)	5 (2.6)	3 (5.7)		
세종자치시	4 (2.1)	2 (2.4)	2 (1.8)	2 (2.4)	1 (3.9)	2 (1.6)	1 (1.7)	0 (2.3)		
경기도	272 (3.7)	122 (4.0)	150 (3.4)	122 (4.0)	87 (7.6)	87 (2.6)	75 (3.2)	23 (4.0)		
강원도	30 (3.6)	15 (4.0)	15 (3.3)	15 (4.0)	8 (8.1)	7 (2.3)	6 (2.2)	9 (5.9)		
충청북도	23 (2.5)	9 (2.4)	14 (2.6)	9 (2.4)	8 (6.0)	5 (1.4)	6 (1.8)	4 (3.8)		
충청남도	28 (2.3)	11 (2.2)	17 (2.3)	11 (2.2)	8 (4.9)	9 (1.9)	8 (2.2)	2 (1.2)		
전라북도	21 (2.2)	10 (2.3)	11 (2.1)	10 (2.3)	7 (5.9)	7 (2.0)	3 (0.8)	5 (2.8)		
전라남도	24 (2.3)	10 (2.3)	13 (2.3)	10 (2.3)	7 (6.9)	6 (1.7)	5 (1.5)	6 (2.5)		
경상북도	47 (3.2)	17 (2.8)	30 (3.5)	17 (2.8)	13 (8.1)	16 (3.1)	11 (2.2)	6 (2.3)		
경상남도	73 (4.1)	30 (4.0)	43 (4.1)	30 (4.0)	18 (8.5)	28 (3.9)	20 (3.3)	7 (2.9)		
제주도	12 (3.1)	7 (3.6)	6 (2.8)	7 (3.6)	4 (7.8)	4 (2.3)	2 (1.8)	2 (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1년), ( ) 실업률, 세종자치시의 실업자와 실업률은 '17년부터 발표됨

## 고용보조지표(확장 실업률)

고용보조지표는 실업자를 포함해 취업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인원의 규모를 알기 위한 지표로써 '21년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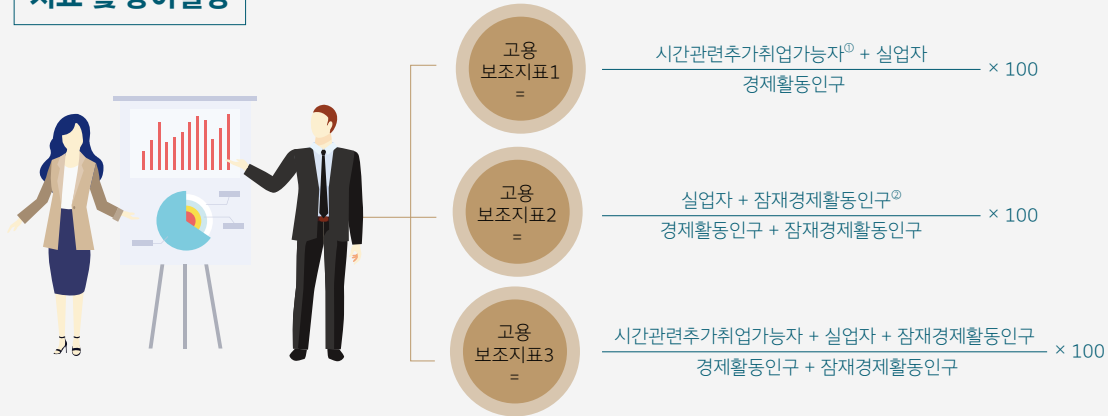
단위: %, 천명

구분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추가자 취업가능자	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			
'19 전연령	6.4	750	9.3	1,703	60	1,643	11.8
15~29세	11.3	102	20.9	657	-	-	22.9
'20 전연령	7.8	1,088	10.0	1,873	65	1,808	13.6
15~29세	12.6	149	22.0	693	-	-	25.1
'21 전연령	7.4	1,070	9.7	1,898	77	1,821	13.3
15~29세	11.2	145	20.1	652	-	-	2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5~29세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잠재구직자에는 구직단념자가 포함되어 있음

### 지표 및 용어설명



①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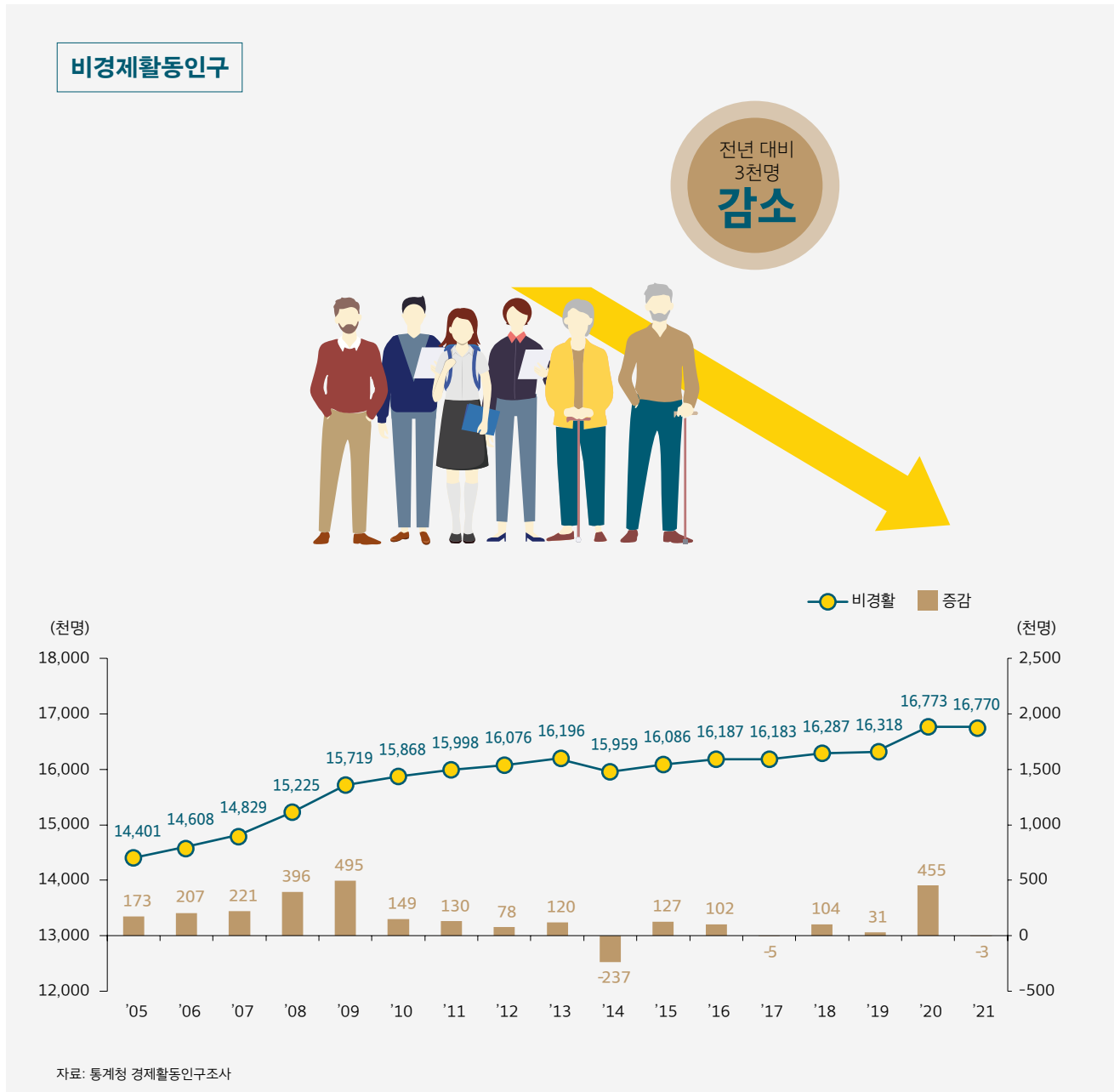
②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 잠재취업가능자(취업가능성 없는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잠재구직자(취업가능성 있는 비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 4.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021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0천명으로 전년보다 3천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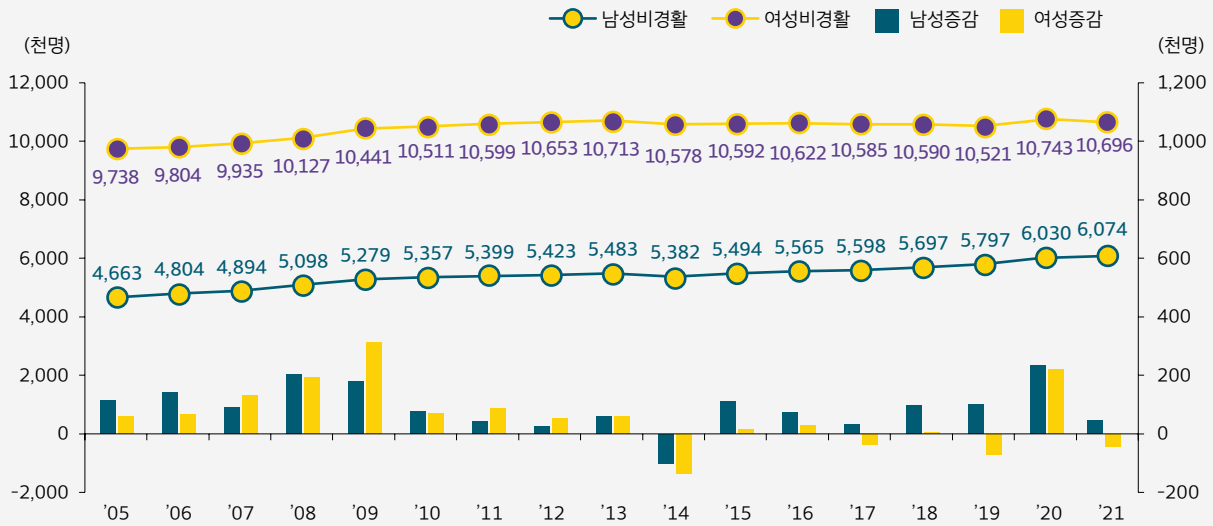


- + 비경제활동인구는 '09년 금융위기와 '20년 코로나19 확산 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05년부터 '1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14년에 감소한 적이 있으나, '15년과 '16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 + 한편, '14년의 감소규모는 '66년 통계작성 이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14년에는 취업자(고용률)와 실업자(실업률)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2배 정도 많은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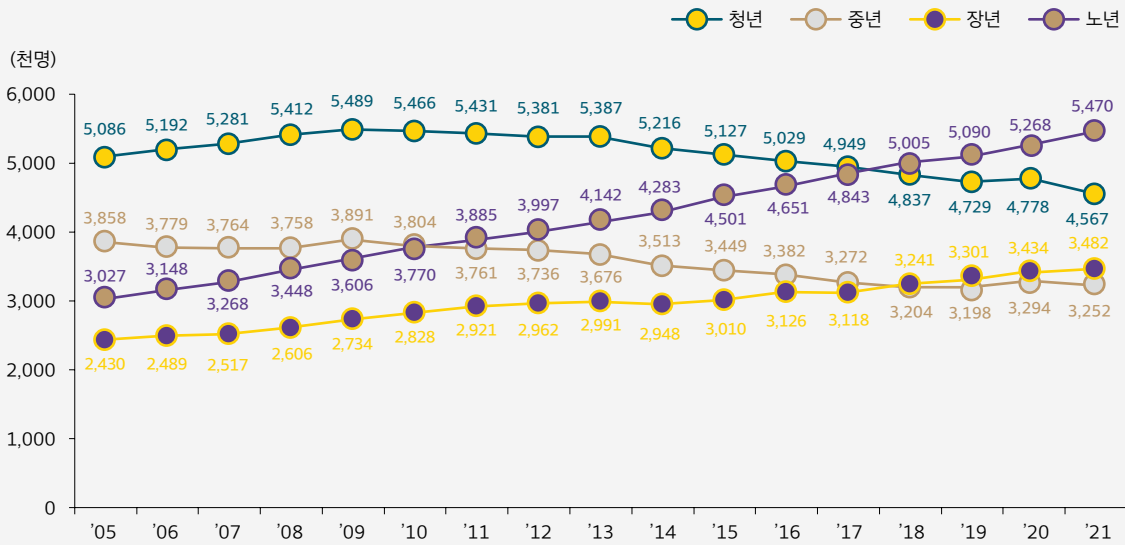
+ '09년 금융위기 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는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년 코로나19 시기에는 남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은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청년층은 감소하고 노년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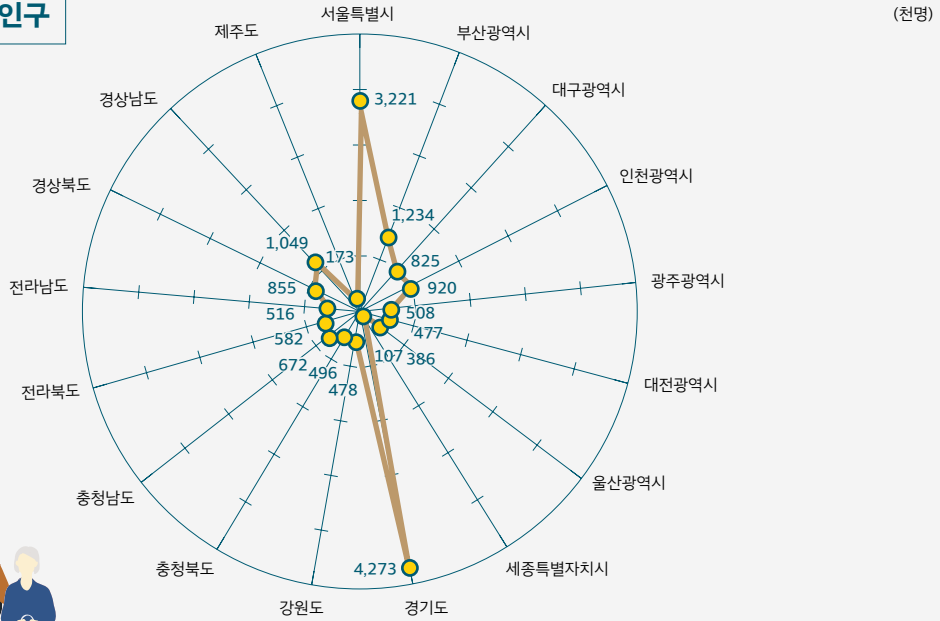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청년(15~29세)과 중년(30~49세)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09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21년에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다.
- + 장년(50~64세)과 노년(64세이상)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

2021년 비경제활동인구는 경기도가 가장 많으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0.2%이다.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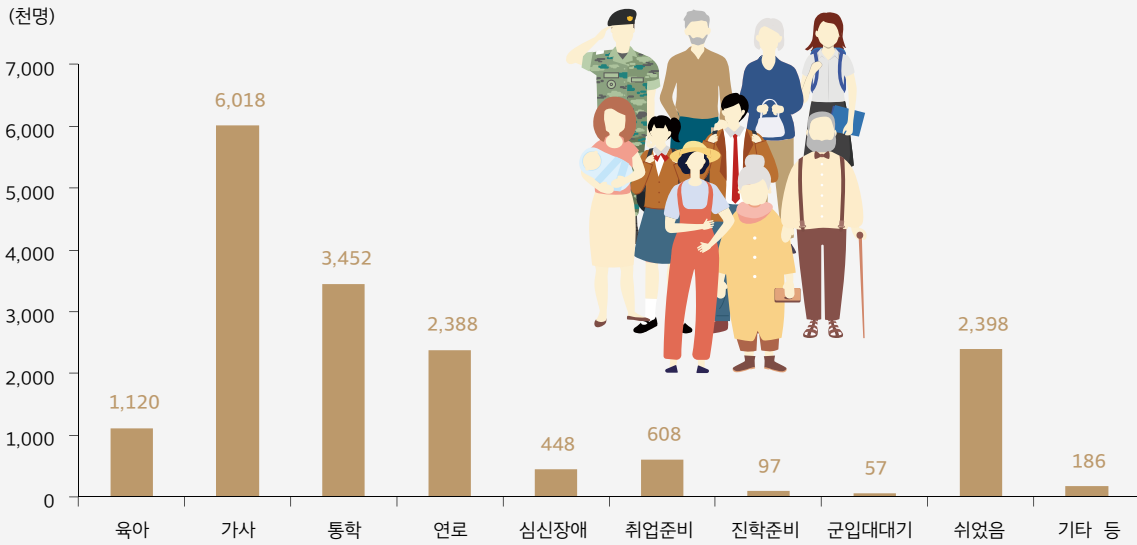
	'15	'16	'17	'18	'19	'20	'21
전국	16,086	16,187	16,183	16,287	16,318	16,773	16,770
서울특별시	3,220	3,211	3,161	3,186	3,159	3,223	3,221
부산광역시	1,238	1,247	1,226	1,247	1,219	1,237	1,234
대구광역시	805	802	817	824	838	859	825
인천광역시	867	863	878	858	876	910	920
광주광역시	498	504	494	483	486	497	508
대전광역시	494	496	505	500	485	471	477
울산광역시	380	378	372	371	370	379	386
세종특별자치시	-	-	79	88	96	102	107
경기도	3,712	3,781	3,806	3,901	4,008	4,263	4,273
강원도	515	517	484	488	462	480	478
충청북도	484	495	495	487	492	489	496
충청남도	684	721	657	639	647	667	672
전라북도	621	609	627	629	610	600	582
전라남도	545	545	553	551	536	528	516
경상북도	820	823	828	828	830	842	855
경상남도	1,055	1,049	1,055	1,044	1,037	1,052	1,049
제주도	149	150	146	164	168	176	1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종자치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7년부터 발표됨

## 비경제활동 사유

2021년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가사와 통학이 전체의 56.5%로 나타난다. 한편, 쉬었음의 사유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천명, (%)

	합계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 등
								(%)	(%)	(%)	(%)	(%)
'15	16,086 (100.0)	1,442 (9.0)	5,815 (36.2)	4,082 (25.4)	2,013 (12.5)	437 (2.7)	2,297 (14.3)	371 (2.3)	123 (0.8)	74 (0.5)	1,594 (9.9)	136 (0.8)
'16	16,187 (100.0)	1,363 (8.4)	5,866 (36.2)	4,032 (24.9)	2,122 (13.1)	447 (2.8)	2,359 (14.6)	398 (2.5)	154 (0.9)	67 (0.4)	1,628 (10.1)	112 (0.7)
'17	16,183 (100.0)	1,266 (7.8)	5,873 (36.3)	3,941 (24.4)	2,203 (13.6)	431 (2.7)	2,469 (15.3)	430 (2.7)	126 (0.8)	71 (0.4)	1,736 (10.7)	106 (0.7)
'18	16,287 (100.0)	1,191 (7.3)	5,949 (36.5)	3,835 (23.5)	2,218 (13.6)	428 (2.6)	2,667 (16.4)	459 (2.8)	116 (0.7)	71 (0.4)	1,855 (11.4)	166 (1.0)
'19	16,318 (100.0)	1,175 (7.2)	5,812 (35.6)	3,708 (22.7)	2,221 (13.6)	427 (2.6)	2,976 (18.2)	484 (3.0)	106 (0.7)	66 (0.4)	2,092 (12.8)	228 (1.4)
'20	16,773 (100.0)	1,188 (7.1)	5,966 (35.6)	3,616 (21.6)	2,257 (13.5)	442 (2.6)	3,304 (19.7)	543 (3.2)	121 (0.7)	63 (0.4)	2,374 (14.2)	203 (1.2)
'21	16,770 (100.0)	1,120 (6.7)	6,018 (35.9)	3,452 (20.6)	2,388 (14.2)	448 (2.7)	3,345 (19.9)	608 (3.6)	97 (0.6)	57 (0.3)	2,398 (14.3)	186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비중







[www.moel.go.kr](http://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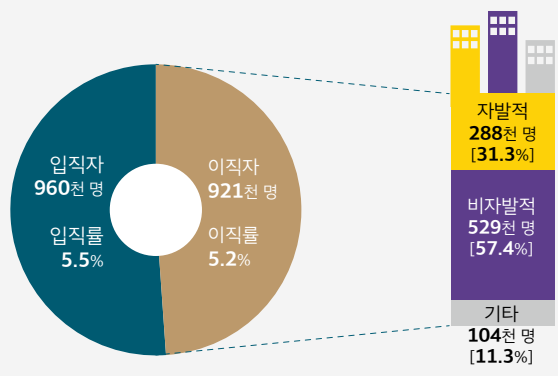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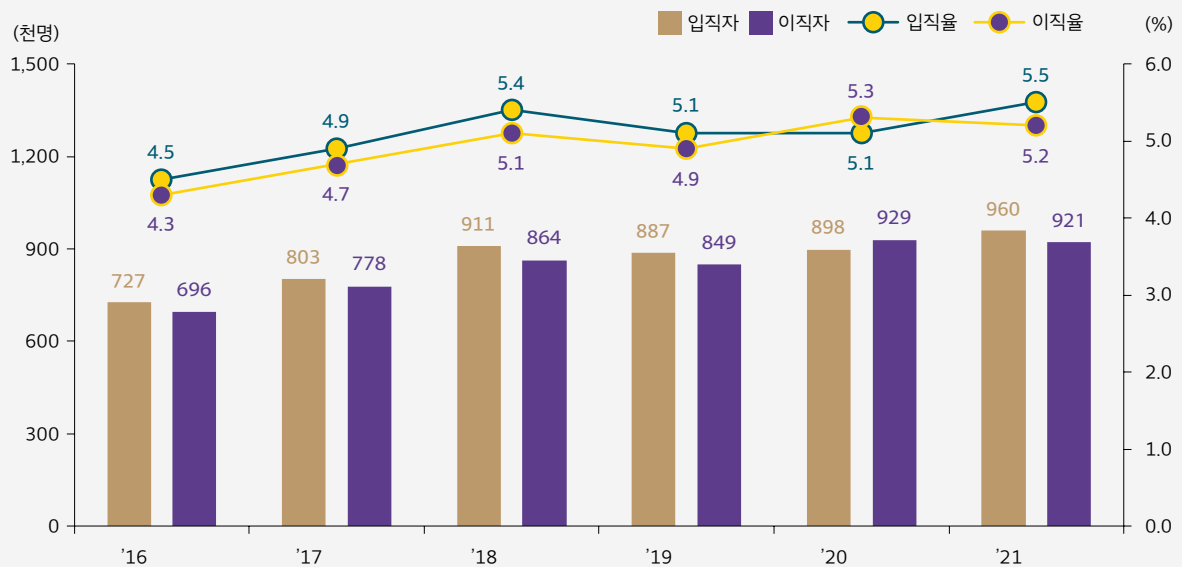
## 04 노동이동

# 1. 입·이직 현황

## 입·이직 및 자발성 여부

2021년 노동이동을 보면 입직자는 960천명, 이직자는 921천명이고 이직자 중 비자발적 이직이 57.4%로 나타난다.

입·이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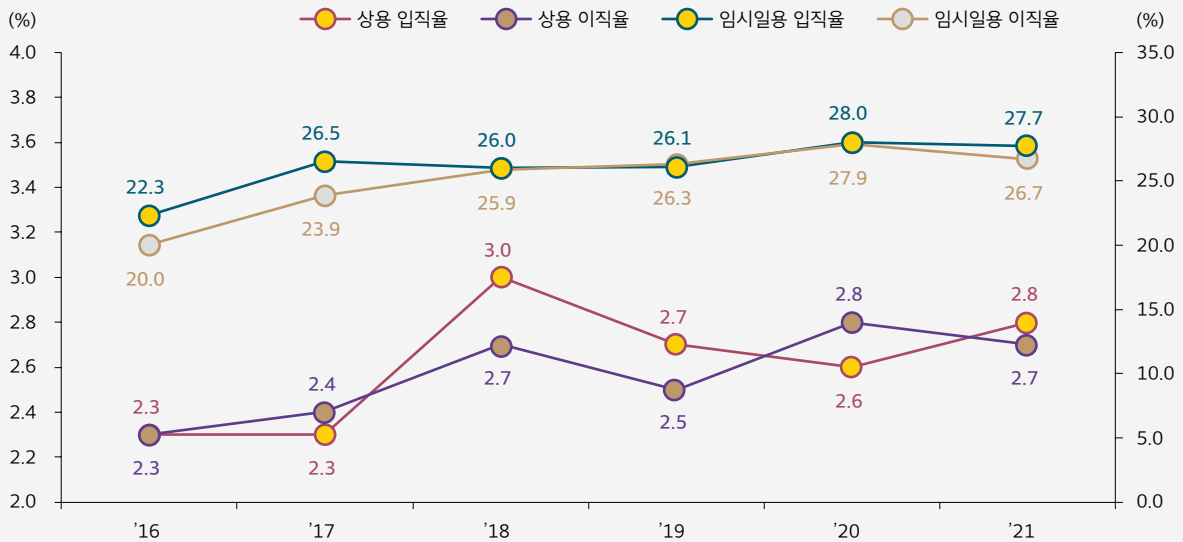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1년, [ ] 이직자내 비율  
주) '22.05.31일 발표 기준

## 종사상 지위별 입·이직

상용근로자의 입·이직율은 2% 수준인데 비해 임시·일용근로자는 27% 수준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 입·이직



단위: 천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용	입직자	325	(2.3)	333	(2.3)	450	(3.0)	430	(2.7)	408	(2.6)	437	(2.8)
	이직자	335	(2.3)	354	(2.4)	405	(2.7)	388	(2.5)	439	(2.8)	418	(2.7)
	자발적	221	[66.1]	232	[65.6]	260	[64.2]	244	[62.9]	223	[50.7]	243	[58.1]
	비자발적	64	[19.0]	72	[20.2]	80	[19.8]	77	[19.9]	91	[20.8]	80	[19.1]
	기타	50	[15.0]	50	[14.2]	65	[16.0]	67	[17.2]	125	[28.5]	95	[22.7]
임시 일용	입직자	402	(22.3)	470	(26.5)	460	(26.0)	458	(26.1)	490	(28.0)	523	(27.7)
	이직자	360	(20.0)	424	(23.9)	459	(25.9)	461	(26.3)	490	(27.9)	504	(26.7)
	자발적	76	[21.2]	65	[15.3]	57	[12.5]	42	[9.0]	43	[8.8]	45	[9.0]
	비자발적	277	[76.8]	351	[82.8]	391	[85.3]	410	[89.0]	430	[87.8]	449	[89.2]
	기타	8	[2.1]	8	[1.8]	11	[2.3]	9	[1.9]	16	[3.3]	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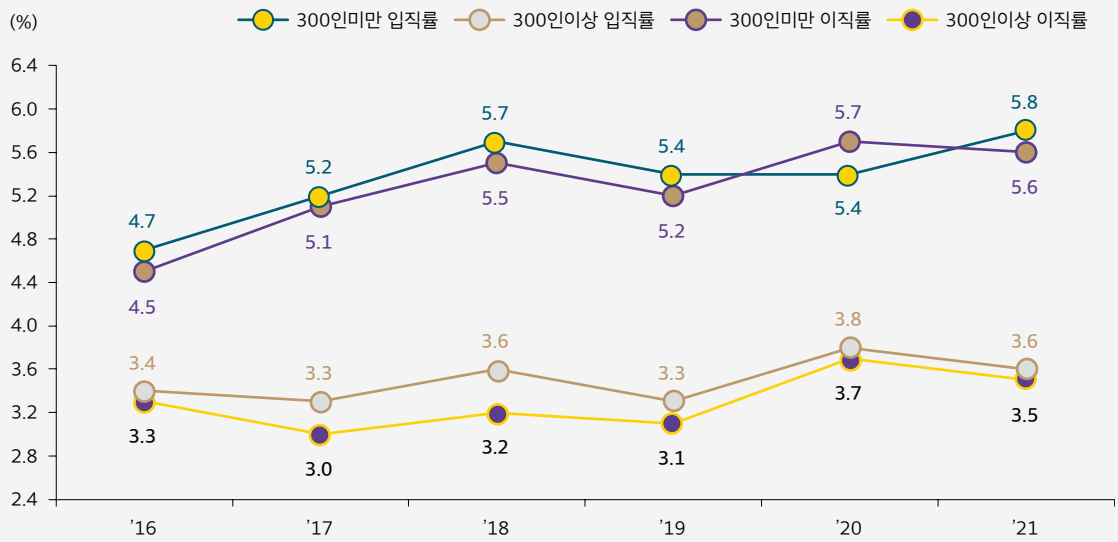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입직률, 이직률, [ ] 이직자내 비율  
주) '22.05.31일 발표 기준

+ '21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약 58.1%인 것에 반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이 약 89.2%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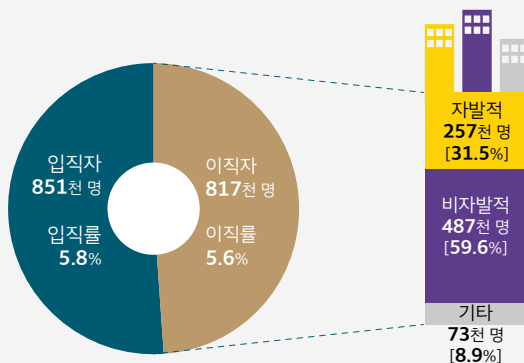
## 규모별 입·이직

300인미만 사업체에서 입·이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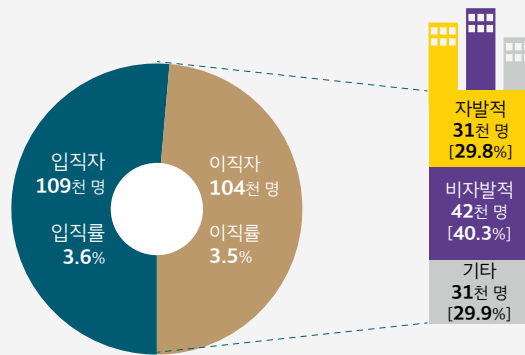
### 입·이직 현황



###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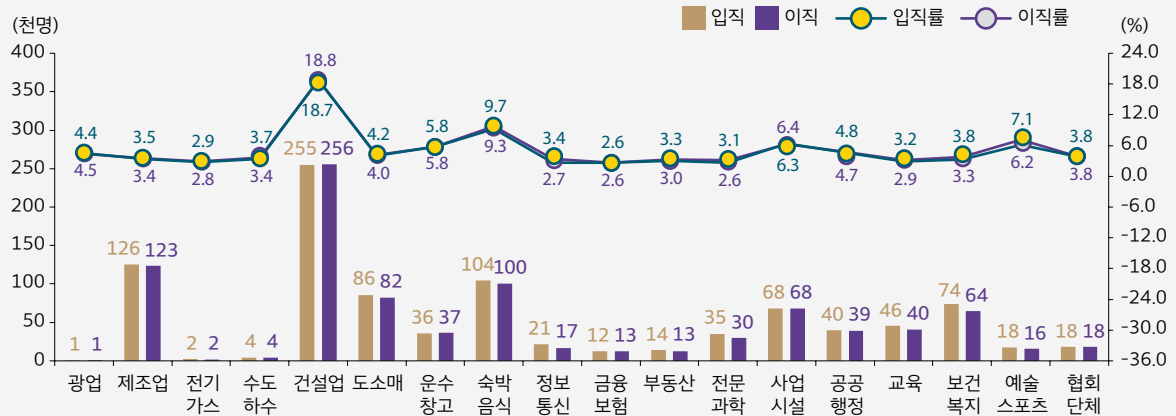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1년), [ ] 이직자내 비율  
주) '22.05.31일 발표 기준

## 산업별 입·이직

2021년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업에서 입·이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산업별 입·이직



단위: 천명(%)

산업	입직		이직		자발적		비자발적		기타	
	인원	률(%)	인원	률(%)	인원	률(%)	인원	률(%)	인원	률(%)
전산업	960	(5.5)	921	(5.2)	288	[31.3]	529	[57.4]	104	[11.3]
광업	1	(4.4)	1	(4.5)	0	[37.1]	0	[53.7]	0	[9.2]
제조업	126	(3.5)	123	(3.4)	58	[47.0]	54	[43.9]	11	[9.2]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2	(2.9)	2	(2.8)	0	[7.4]	1	[31.3]	1	[61.3]
수도, 하수, 폐기물, 재생	4	(3.7)	4	(3.4)	1	[32.9]	2	[49.2]	1	[17.9]
건설업	255	(18.7)	256	(18.8)	17	[6.7]	236	[92.3]	3	[1.1]
도매, 소매업	86	(4.2)	82	(4.0)	40	[48.7]	34	[41.0]	8	[10.4]
운수, 창고업	36	(5.8)	37	(5.8)	9	[24.3]	12	[33.3]	15	[42.3]
숙박, 음식점업	104	(9.7)	100	(9.3)	36	[35.5]	59	[58.7]	6	[5.8]
정보통신업	21	(3.4)	17	(2.7)	10	[59.3]	4	[21.7]	3	[19.0]
금융, 보험업	12	(2.6)	13	(2.6)	3	[23.4]	2	[16.0]	8	[60.5]
부동산업	14	(3.3)	13	(3.0)	7	[56.7]	4	[33.6]	1	[9.8]
전문, 과학, 기술	35	(3.1)	30	(2.6)	16	[52.7]	8	[28.2]	6	[19.1]
사업, 시설관리 및 지원	68	(6.3)	68	(6.4)	26	[38.5]	38	[55.1]	4	[6.4]
공공, 국방, 행정	40	(4.8)	39	(4.7)	2	[5.5]	22	[55.3]	15	[39.2]
교육서비스	46	(3.2)	40	(2.9)	9	[23.4]	19	[47.6]	12	[29.0]
보건, 사회복지	74	(3.8)	64	(3.3)	42	[65.5]	17	[26.5]	5	[8.0]
예술, 스포츠, 여가	18	(7.1)	16	(6.2)	5	[29.1]	9	[54.8]	2	[16.0]
협회, 단체, 수리, 개인	18	(3.8)	18	(3.8)	7	[38.0]	9	[52.6]	2	[9.4]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1년), ( ) 입직률, 이직률, [ ] 이직자내 비율  
 주) '22.05.31일 발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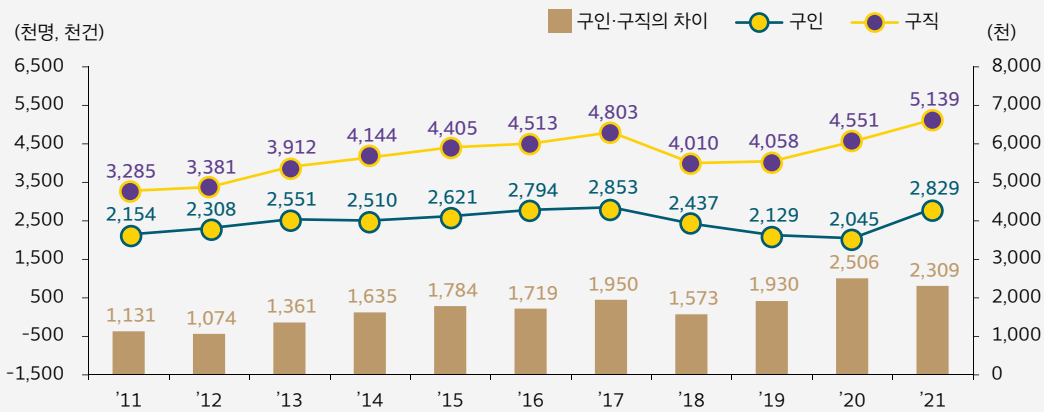
+ 또한 이직자의 자발성 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가 자발적 이직자보다 소폭 많은 가운데, 업종별로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비자발적 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워크넷 구인·구직 현황

### 구인·구직 추이

2021년 구인과 구직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구인·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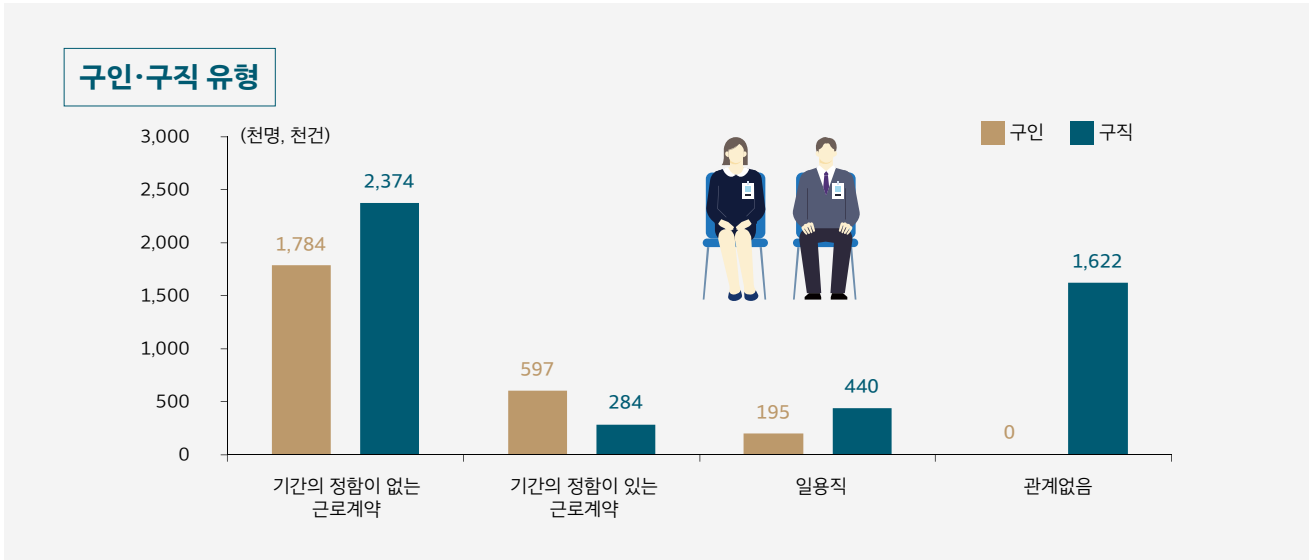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워크넷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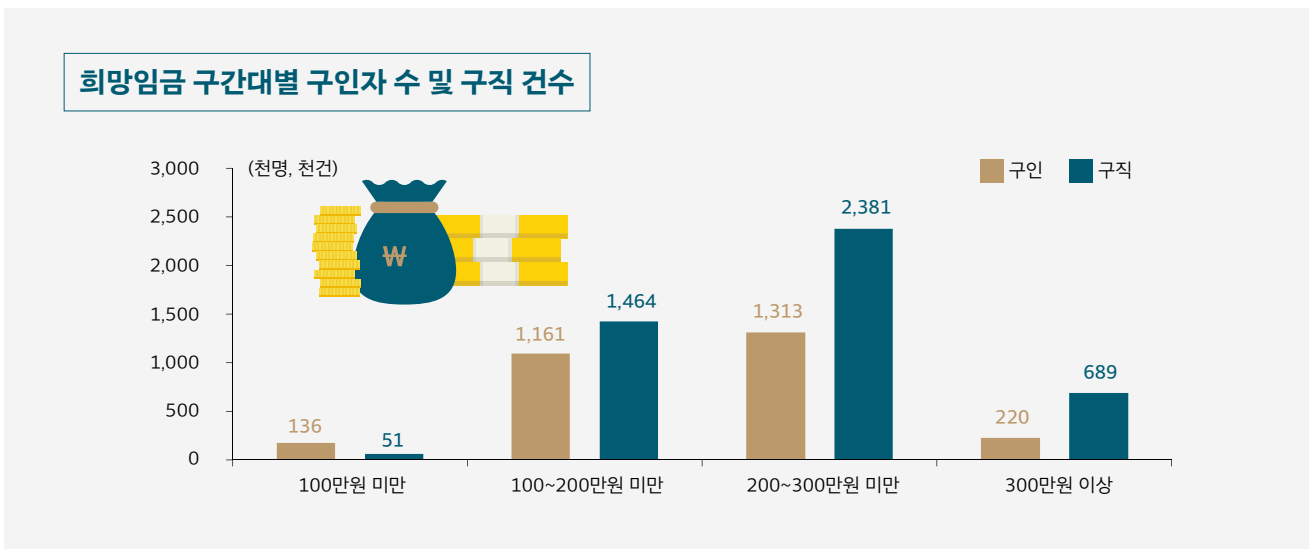
주) 워크넷 구인·구직 현황은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 상황만을 포함하므로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구인·구직 유형

2021년 구인·구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가장 많이 희망했으며 희망임금은 구인·구직 모두 200~300만원 구간을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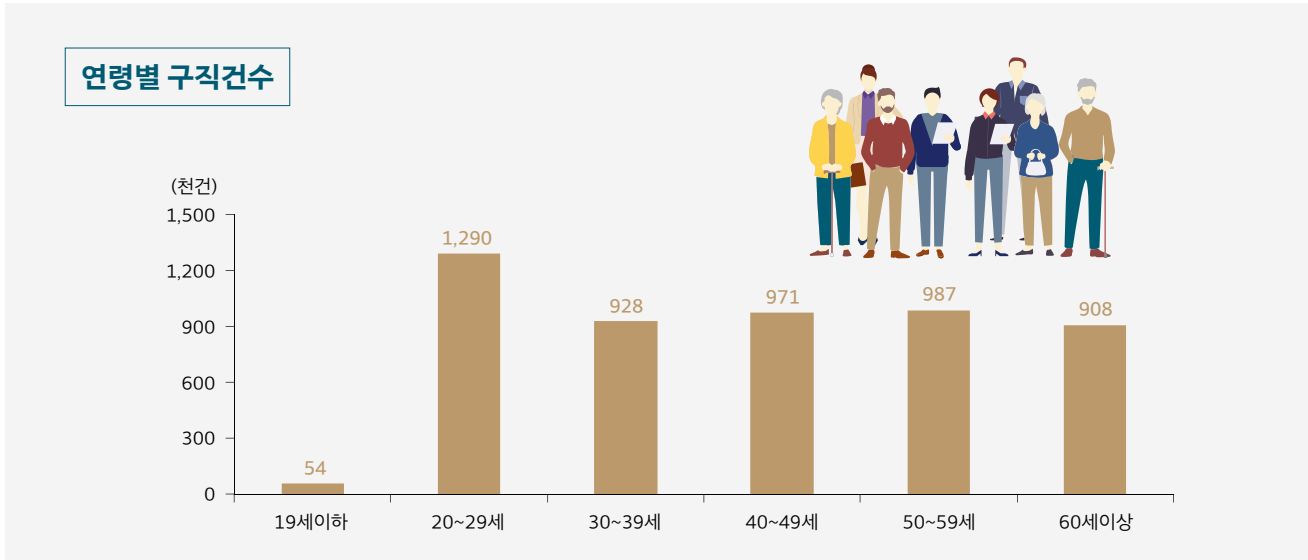
## 구인·구직자의 희망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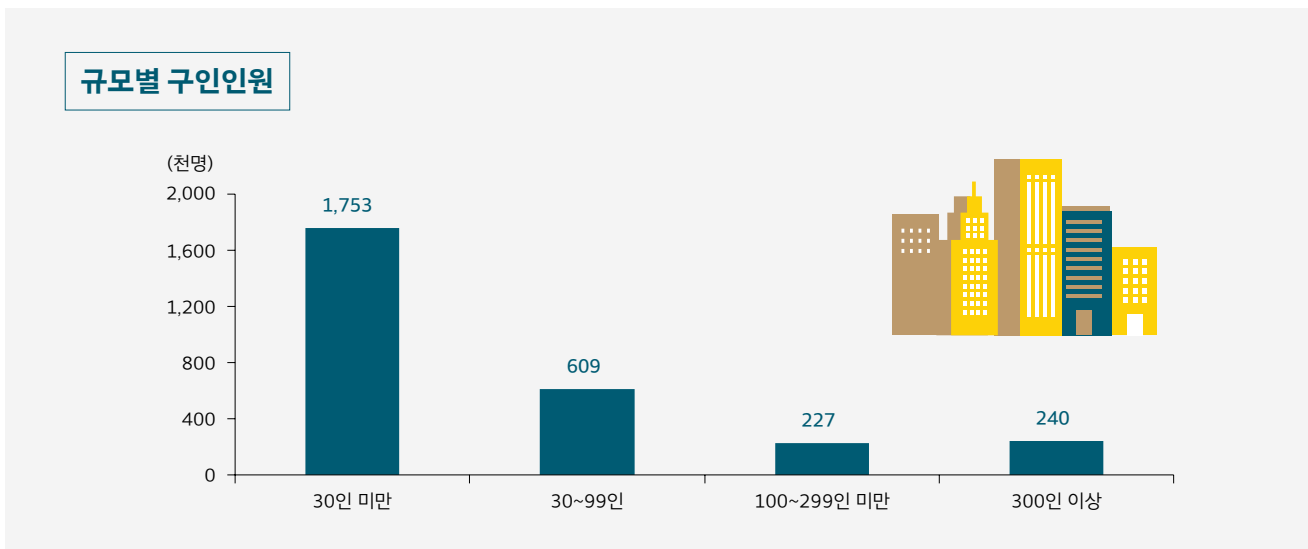


## 연령별 구직건수

2021년 20대의 구직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구인인원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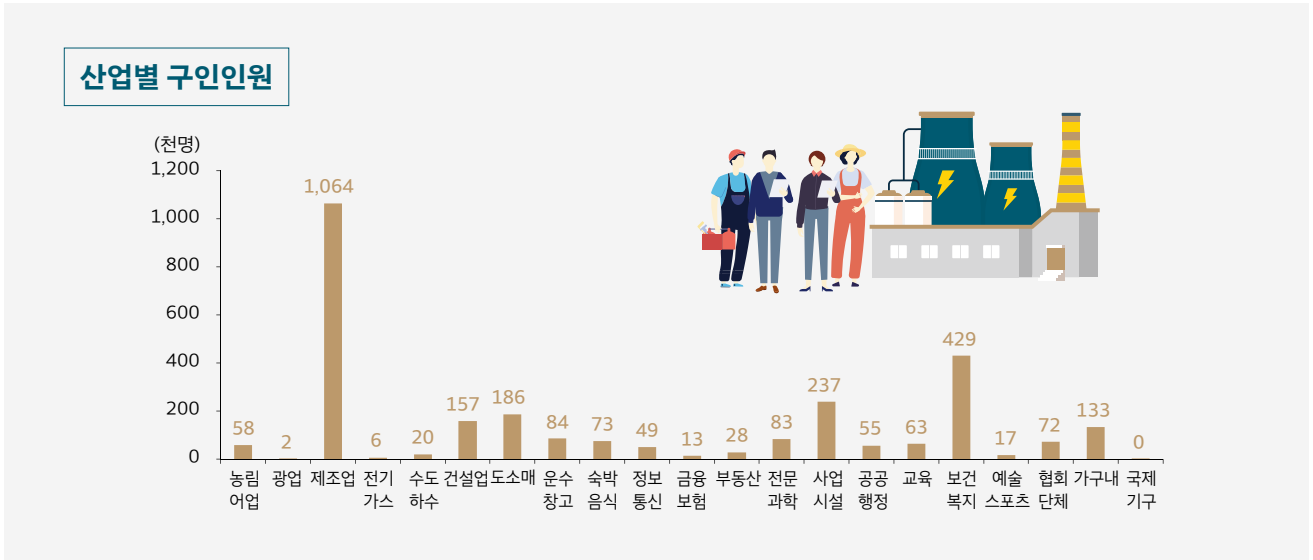


## 규모별 구인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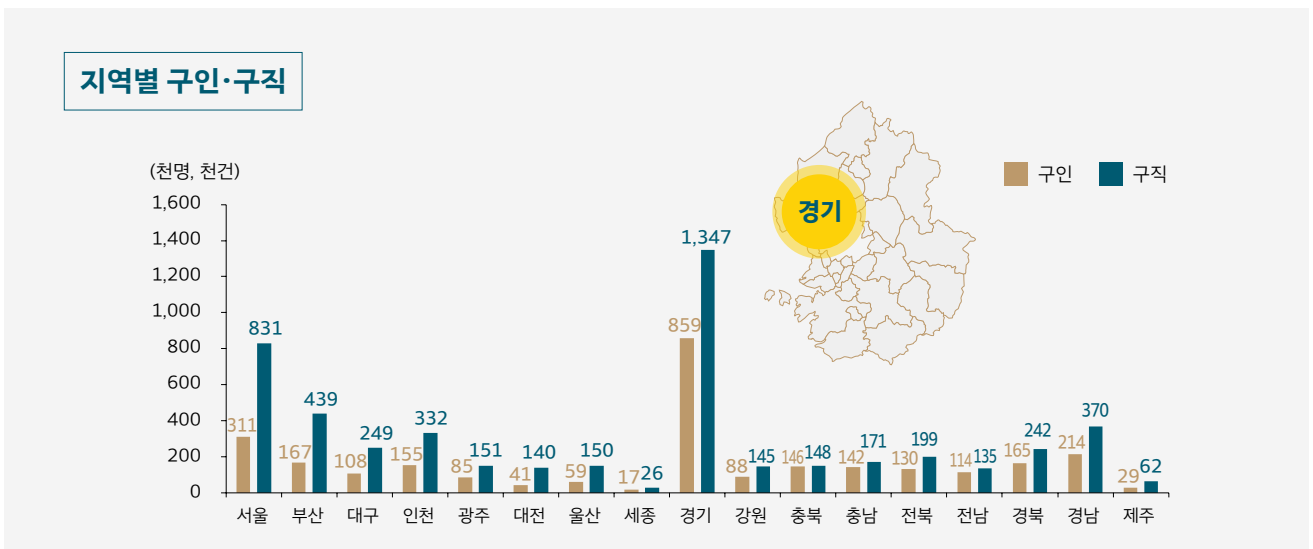
## 산업별 구인인원

2021년 산업별 구인인원은 제조업, 보건복지 등에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구인·구직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자료: 고용노동부 워크넷DB('21년)

## 지역별 구인·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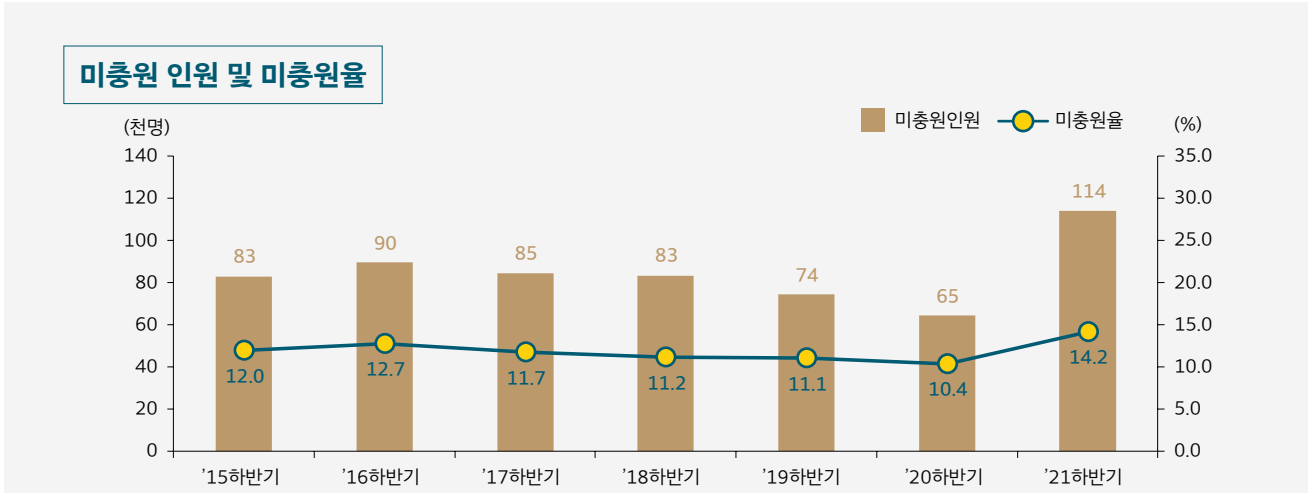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워크넷DB('21년)

### 3. 미충원 인원

### 미충원 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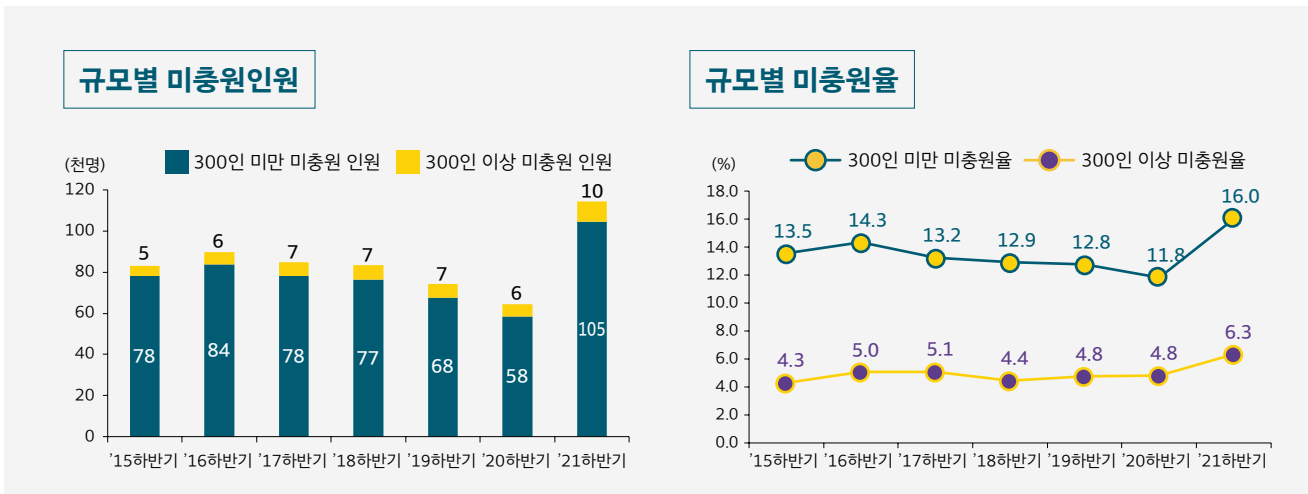
3개월간 구인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의 추이는 '17년(하반기)이후로 계속 감소하다가 '21년(하반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 규모별 미충원 인원

2021년 하반기 기준 규모별 미충원율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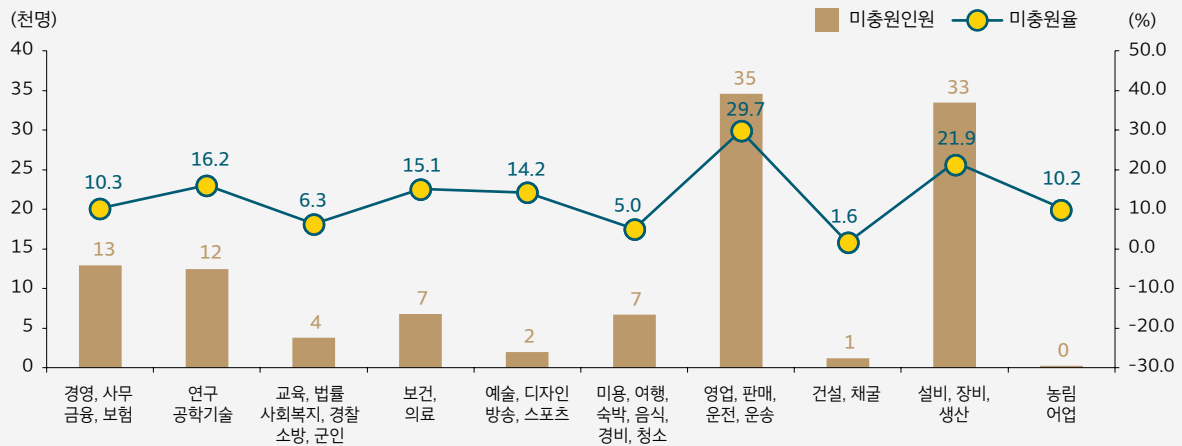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 직종별 미충원 인원

직종별로 볼 때 2021년 하반기 기준 영업·판매·운전·운송직의 미충원율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천명, (%)

직종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이상
전 직종	114	105	10	14.2	16.0	6.3
경영, 사무, 금융, 보험	13	11	2	10.3	11.4	6.6
연구, 공학기술	12	10	2	16.2	18.0	10.8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 군인	4	4	0	6.3	7.8	1.5
보건, 의료	7	5	2	15.1	16.2	12.7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	2	2	0	14.2	14.5	12.1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	7	6	1	5.0	6.1	1.8
영업, 판매, 운전, 운송	35	33	1	29.7	33.9	7.9
건설, 채굴	1	1	0	1.6	1.6	3.0
설치, 정비, 생산	33	32	1	21.9	24.1	5.9
농림어업	0	0	0	10.2	10.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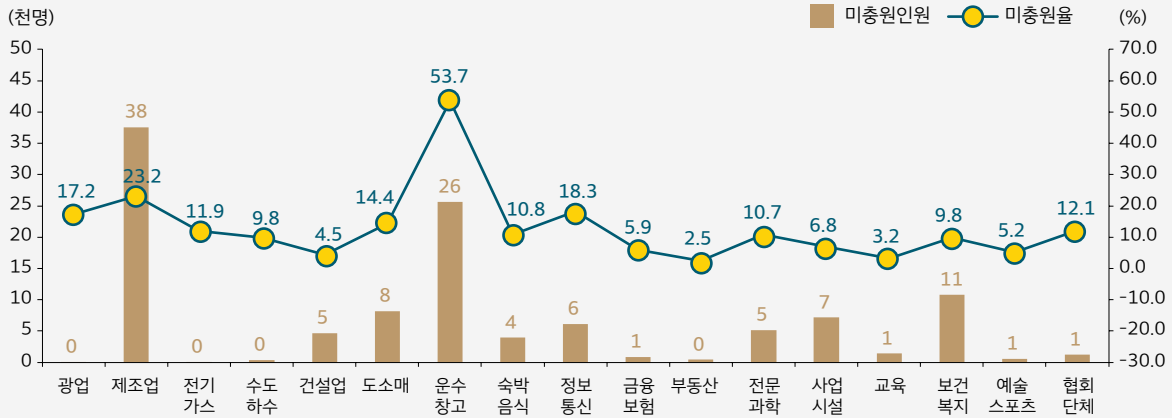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 2020년 자료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표함에 따라 한국고용직업분류2007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산업별 미충원 인원

2021년 하반기 기준 산업별 미충원율은 운수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천명, (%)

전 산업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산업	114	105	10	14.2	16.0	6.3
광업	0	0	0	17.2	17.2	0.0
제조업	38	36	1	23.2	25.7	6.2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0	0	0	11.9	3.7	32.2
수도, 하수-폐기물, 재생	0	0	0	9.8	10.9	3.7
건설업	5	5	0	4.5	4.4	4.9
도매및소매업	8	8	0	14.4	15.2	5.4
운수및창고업	26	25	1	53.7	57.4	17.8
숙박및음식점	4	4	0	10.8	10.8	10.1
정보통신업	6	5	1	18.3	19.3	14.7
금융및보험업	1	1	0	5.9	5.7	6.6
부동산업	0	0	0	2.5	2.8	1.5
전문, 과학, 기술	5	4	1	10.7	11.6	8.5
사업시설관리및지원	7	5	2	6.8	9.7	4.2
교육서비스	1	1	0	3.2	4.1	2.0
보건, 사회복지	11	9	2	9.8	9.5	11.5
예술, 스포츠, 여가	1	1	0	5.2	6.1	0.1
협회, 단체, 수리, 개인	1	1	0	12.1	12.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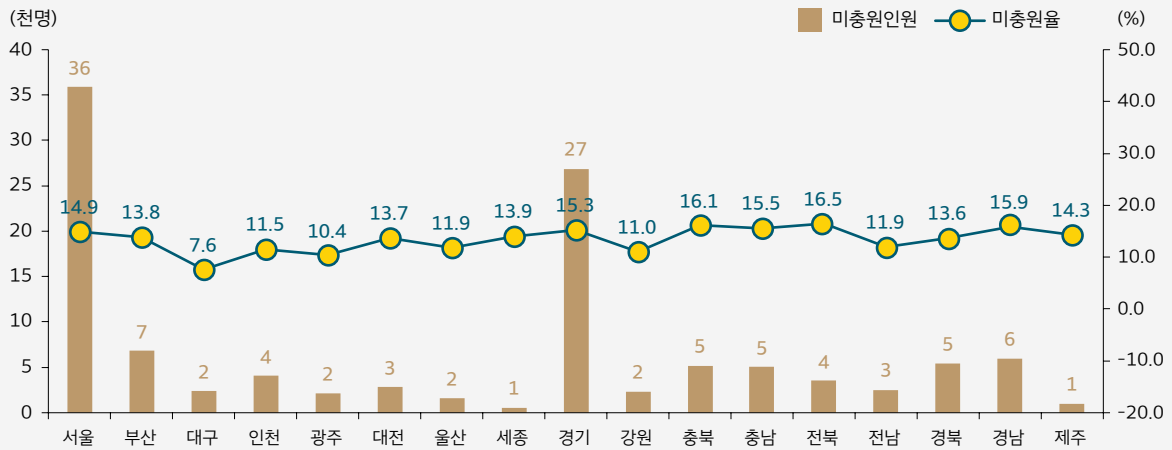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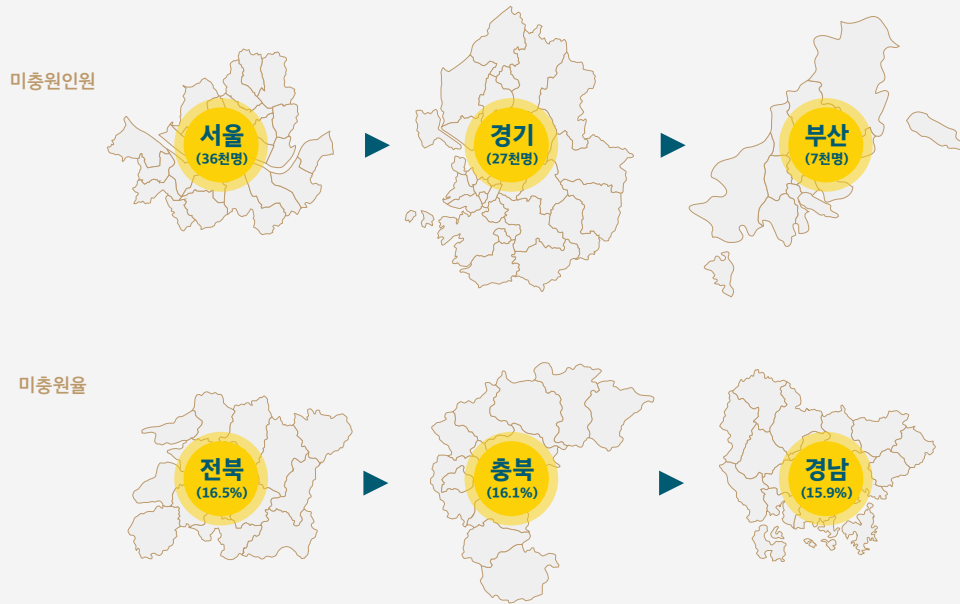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미충원인원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지역별 미충원 인원

2021년 하반기 기준 미충원인원은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많고 미충원율은 전북, 충북, 경남 등에서 높다.

지역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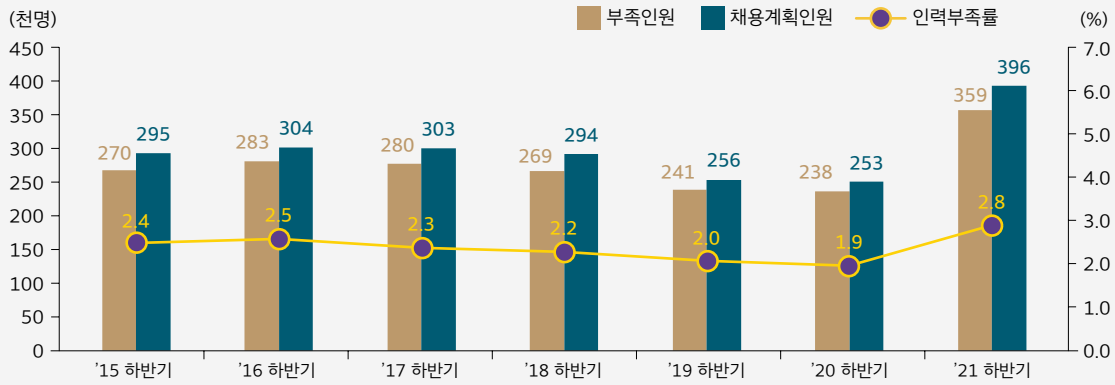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 4.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추이

2021년은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부족인원과 인력부족률이 상승하였고, 특히 인력부족률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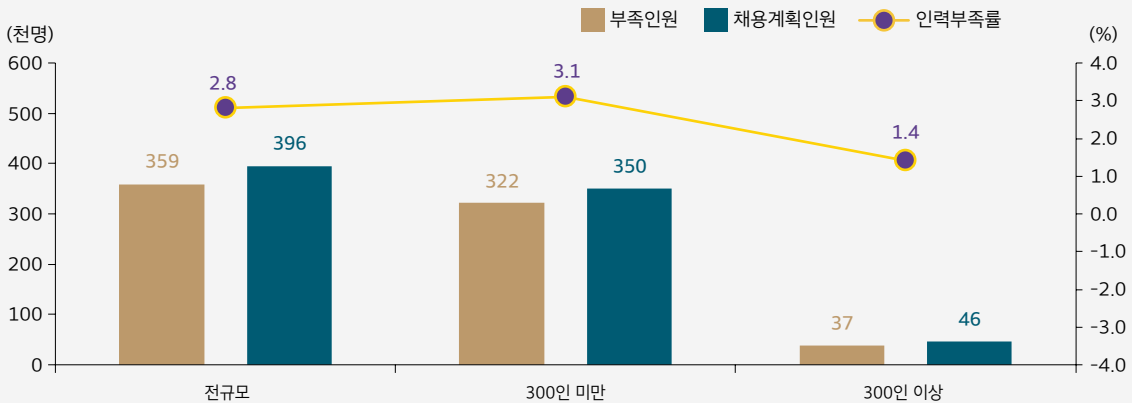
부족 인원 및 인력부족률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 규모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규모별 부족 인원, 부족률 및 채용계획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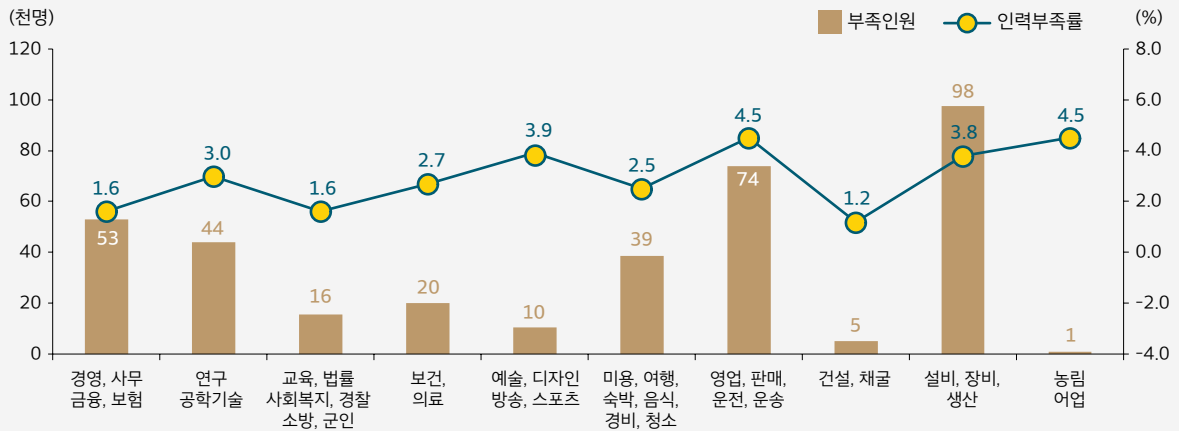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 직종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2021년 10월 1일 기준 부족 인원은 설치·정비·생산직에서 가장 많고  
인력부족률은 영업·판매·운전·운송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직종별 부족 인원 및 인력부족률



단위: 천명, (%)

직종	부족 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직종	359	322	37	2.8	3.1	1.4	396	350	46
경영, 사무, 금융, 보험	53	44	9	1.6	1.7	1.3	56	46	10
연구, 공학기술	44	35	9	3.0	3.8	1.7	46	35	11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 군인	16	15	1	1.6	1.9	0.4	26	23	3
보건, 의료	20	15	6	2.7	3.1	2.1	23	15	7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	10	9	1	3.9	4.3	2.3	10	9	1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	39	35	3	2.5	2.8	1.0	49	46	4
영업, 판매, 운전, 운송	74	70	4	4.5	4.8	2.0	76	72	5
건설, 채굴	5	5	0	1.2	1.2	0.5	6	6	0
설치, 정비, 생산	98	93	5	3.8	4.4	0.9	102	97	5
농림어업	1	1	0	4.5	4.6	1.5	1	1	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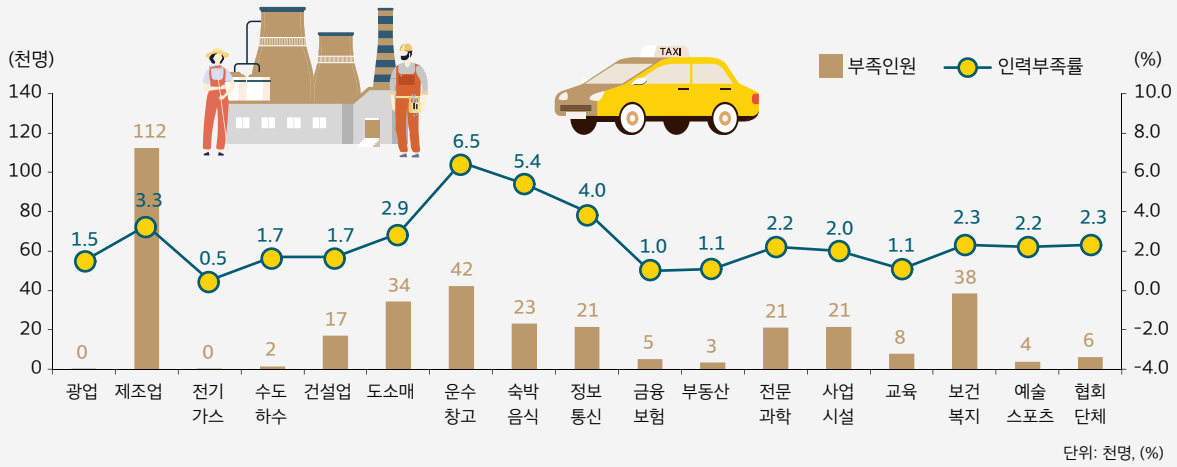
※ 2020년 자료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표함에 따라 한국고용직업분류2007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산업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산업별로 볼 때 2021년 10월 1일 기준 부족 인원은 제조업이 가장 많고 인력부족률은 운수 및 창고업에서 가장 높다.

산업별 부족 인원 및 인력부족률



단위: 천명, (%)

산업	부족 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합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합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합계
전 산업	359	322	37	2.8	3.1	1.4	396	350	46
광업	0	0	0	1.5	1.7	0.2	0	0	0
제조업	112	106	6	3.3	4.1	0.8	115	108	7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0	0	0	0.5	0.7	0.2	1	0	0
수도, 하수, 폐기물, 재생	2	1	0	1.7	1.8	0.4	2	2	0
건설업	17	16	1	1.7	1.7	1.3	19	18	1
도매및소매업	34	31	4	2.9	2.8	3.7	35	31	4
운수및창고업	42	40	2	6.5	7.5	1.8	44	42	2
숙박및음식점	23	23	0	5.4	5.6	2.3	24	23	0
정보통신업	21	16	5	4.0	4.2	3.4	21	16	5
금융및보험업	5	4	1	1.0	1.0	1.0	6	4	2
부동산업	3	3	0	1.1	1.1	1.6	3	3	1
전문, 과학, 기술	21	17	4	2.2	2.7	1.1	23	18	5
사업시설관리및지원	21	15	6	2.0	2.5	1.3	31	24	7
교육서비스	8	7	1	1.1	1.3	0.5	11	8	3
보건, 사회복지	38	32	6	2.3	2.4	2.0	50	42	8
예술, 스포츠, 여가	4	4	0	2.2	2.2	1.9	4	4	0
협회, 단체, 수리, 개인	6	6	0	2.3	2.3	1.2	6	6	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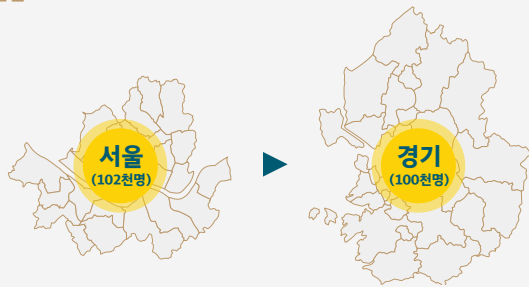
※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지역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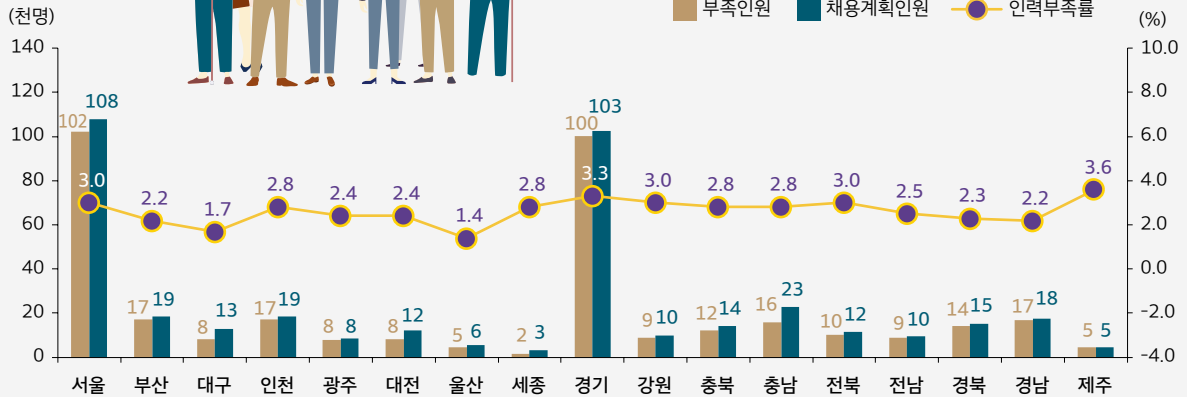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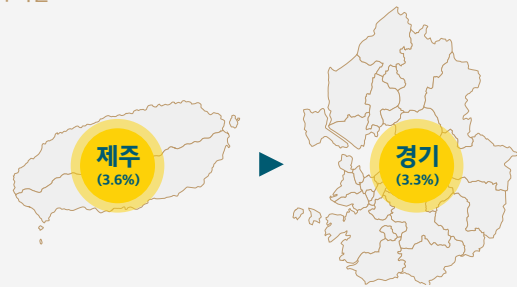
2021년 10월 1일 기준 지역별 부족인원은 서울, 경기지역이 가장 많고 부족률은 제주, 경기지역이 가장 높다.

### 지역별 부족 인원 및 인력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 + '21년 하반기 부족 인원은 서울·경기 지역이 많은 반면, 부족률은 제주(3.6%), 경기(3.3%), 서울(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울산, 대구, 경남은 상대적으로 인력부족률이 낮다.
- + 한편 향후 6개월간의 채용계획 인원은 서울·경기지역이 뚜렷하게 많아 전체 채용계획 인원(359천명)의 53.1%를 차지했다.



[www.moel.go.kr](http://www.moel.go.kr)

## 05 직업훈련

# 1. 직업훈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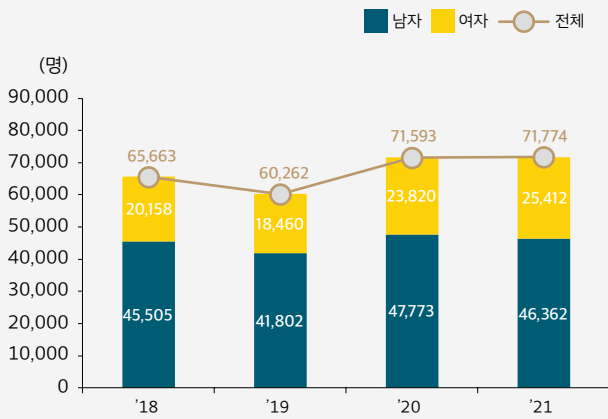
\* 여기에서 직업훈련은 실업자 훈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재직자 훈련은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제시함

## 훈련별 성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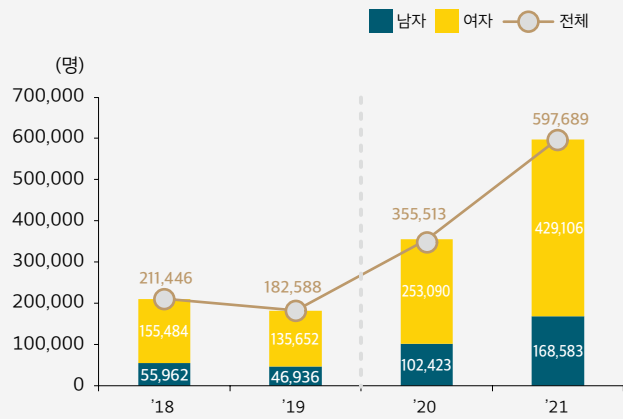
남성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에서의 비중이 높고, 여성은 내일배움카드제에서 높다. 한편 '17년 이후 감소하던 훈련실시인원의 규모는 '2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성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성별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주)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함에 따라 '19년 이전 자료와는 시계열이 단절되므로 이용시 주의를 요함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경우 '21년도 실시인원은 71,774명이며, 남성이 여성의 약 2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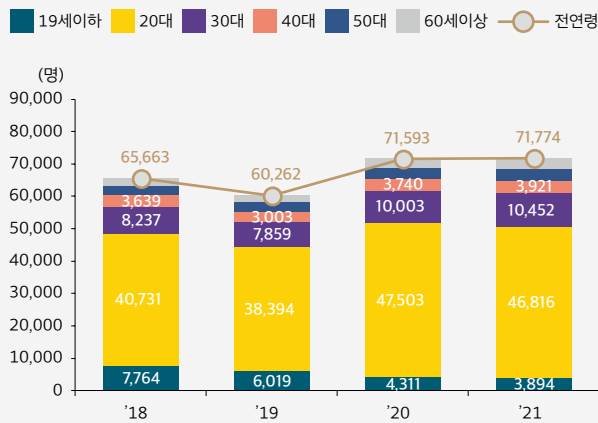
+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21년도 실시인원은 597,689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5배 수준이다.

## 훈련별 연령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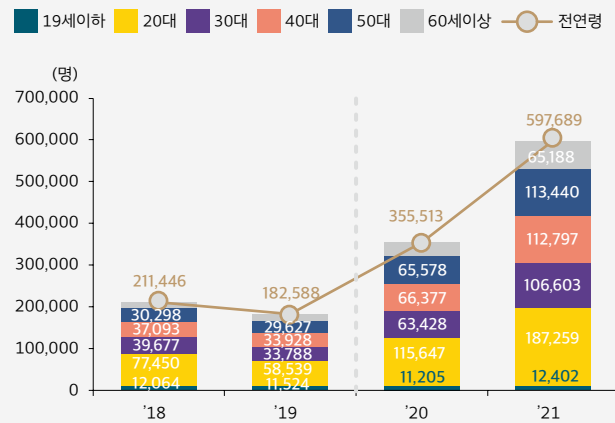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주 참여연령은 20대이며, 내일배움카드제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전 연령대가 유사한 비중이다.



연령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연령별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주)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함에 따라 '19년 이전 자료와는 시계열이 단절되므로 이용시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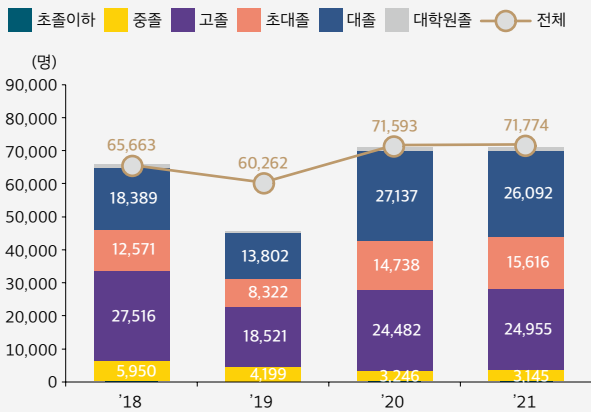
- + '21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에서 20대의 비중은 65.2%로 가장 많다.
- + '21년 내일배움카드제는 모든 연령에서 훈련 실시인원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 훈련별 학력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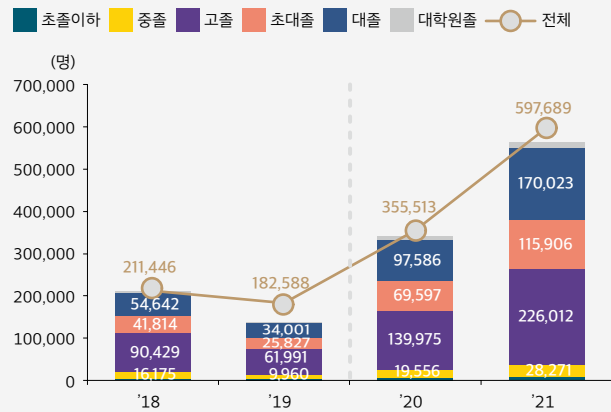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과 내일배움카드제 모두 고졸과 대졸의 비중이 가장 높다.



학력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학력별 내일배움카드제훈련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19년은 학력미분류자료가 다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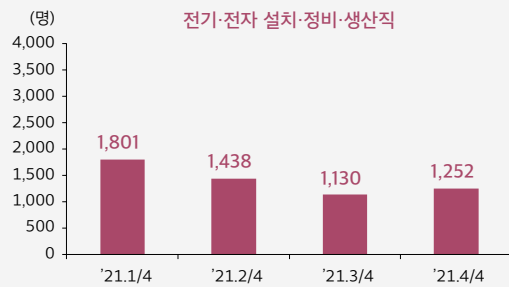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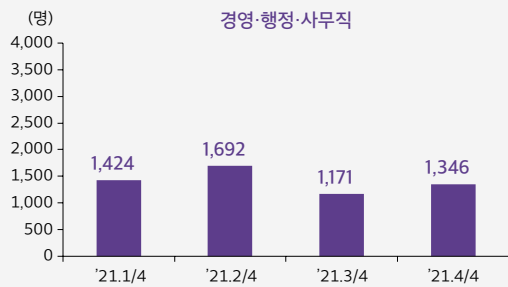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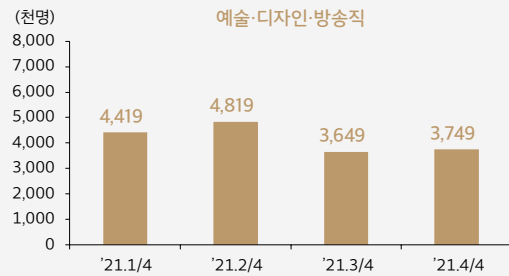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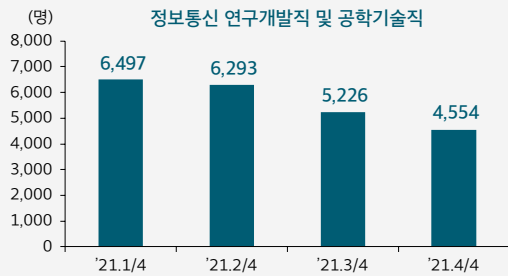
주)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함에 따라 '19년 이전 자료와는 시계열이 단절되므로 이용시 주의를 요함

+ '21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은 대졸, 고졸, 초대졸 순으로 많고,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은 고졸, 대졸, 초대졸 순이다.

## 훈련별 직종별 직업훈련

2021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실시인원에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주요 직종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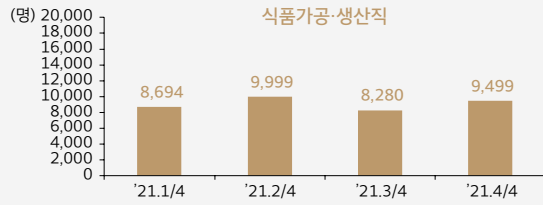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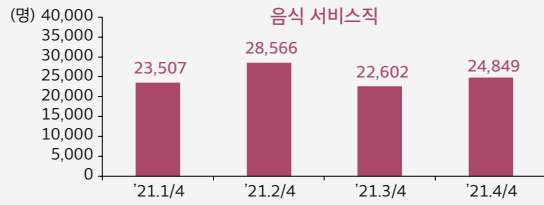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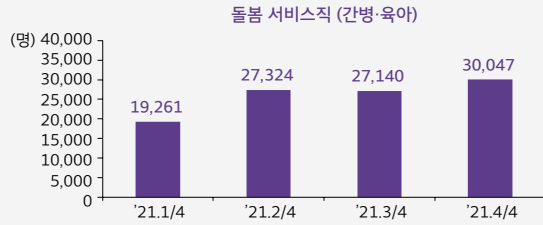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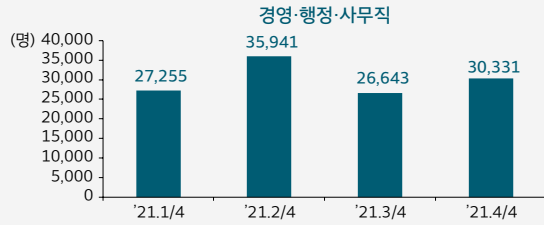
	'21.1/4	'21.2/4	'21.3/4	'21.4/4
전 직종	20,206 (100.0)	19,905 (100.0)	15,657 (100.0)	16,006 (100.0)
경영·행정·사무직	1,424 (7.0)	1,692 (8.5)	1,171 (7.5)	1,346 (8.4)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497 (32.2)	6,293 (31.6)	5,226 (33.4)	4,554 (28.5)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147 (5.7)	1,258 (6.3)	949 (6.1)	1,123 (7.0)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166 (5.8)	1,445 (7.3)	933 (6.0)	1,293 (8.1)
예술·디자인·방송직	4,419 (21.9)	4,819 (24.2)	3,649 (23.3)	3,749 (23.4)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0 (0.2)	47 (0.2)	26 (0.2)	45 (0.3)
운전·운송직	0 (0.0)	18 (0.1)	0 (0.0)	0 (0.0)
건설·채굴직	716 (3.5)	385 (1.9)	616 (3.9)	421 (2.6)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758 (8.7)	1,178 (5.9)	860 (5.5)	1,065 (6.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566 (2.8)	602 (3.0)	445 (2.8)	515 (3.2)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801 (8.9)	1,438 (7.2)	1,130 (7.2)	1,252 (7.8)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68 (0.3)	113 (0.6)	46 (0.3)	82 (0.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46 (0.2)	52 (0.3)	30 (0.2)	51 (0.3)
섬유·의복 생산직	41 (0.2)	19 (0.1)	44 (0.3)	24 (0.1)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13 (1.1)	240 (1.2)	154 (1.0)	236 (1.5)
농림어업직	294 (1.5)	306 (1.5)	378 (2.4)	250 (1.6)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전 직종대비 비중,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2021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실시인원에는  
‘경영·행정·사무직’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주요 직종별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



단위: 명, (%)

	'21.1/4	'21.2/4	'21.3/4	'21.4/4
전 직종	129,495 (100.0)	158,896 (100.0)	138,925 (100.0)	170,373 (100.0)
관리직	310 (0.2)	336 (0.2)	377 (0.3)	374 (0.2)
경영·행정·사무직	27,255 (21.0)	35,941 (22.6)	26,643 (19.2)	30,331 (17.8)
금융·보험직	316 (0.2)	259 (0.2)	224 (0.2)	337 (0.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98 (0.2)	223 (0.1)	297 (0.2)	164 (0.1)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465 (1.9)	3,382 (2.1)	6,646 (4.8)	23,160 (13.6)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53 (1.1)	1,788 (1.1)	1,537 (1.1)	1,637 (1.0)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439 (1.9)	2,419 (1.5)	2,070 (1.5)	2,418 (1.4)
교육직	222 (0.2)	210 (0.1)	422 (0.3)	808 (0.5)
법률직	1,063 (0.8)	1,207 (0.8)	1,240 (0.9)	2,034 (1.2)
사회복지·종교직	1,842 (1.4)	2,600 (1.6)	1,722 (1.2)	2,083 (1.2)
보건·의료직	6,564 (5.1)	6,107 (3.8)	4,612 (3.3)	4,781 (2.8)
예술·디자인·방송직	8,006 (6.2)	9,776 (6.2)	7,939 (5.7)	8,013 (4.7)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0 (0.0)	0 (0.0)	44 (0.0)	87 (0.1)
미용·예술 서비스직	7,860 (6.1)	7,863 (4.9)	7,103 (5.1)	7,595 (4.5)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66 (0.1)	223 (0.1)	178 (0.1)	200 (0.1)
음식 서비스직	23,507 (18.2)	28,566 (18.0)	22,602 (16.3)	24,849 (14.6)
경호·경비직	10 (0.0)	44 (0.0)	86 (0.1)	46 (0.0)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9,261 (14.9)	27,324 (17.2)	27,140 (19.5)	30,047 (17.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763 (0.6)	935 (0.6)	798 (0.6)	847 (0.5)
영업·판매직	934 (0.7)	1,111 (0.7)	997 (0.7)	1,067 (0.6)
운전·운송직	2,546 (2.0)	3,041 (1.9)	2,932 (2.1)	3,414 (2.0)
건설·채굴직	3,871 (3.0)	4,360 (2.7)	3,845 (2.8)	5,052 (3.0)
기계·설치·정비·생산직	863 (0.7)	1,004 (0.6)	993 (0.7)	881 (0.5)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670 (0.5)	645 (0.4)	564 (0.4)	624 (0.4)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	3,514 (2.7)	3,290 (2.1)	2,866 (2.1)	3,600 (2.1)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7 (0.0)	2 (0.0)	30 (0.0)	4 (0.0)
화학·환경·설치·정비·생산직	71 (0.1)	66 (0.0)	208 (0.1)	72 (0.0)
섬유·의복·생산직	895 (0.7)	1,113 (0.7)	937 (0.7)	1,018 (0.6)
식품가공·생산직	8,694 (6.7)	9,999 (6.3)	8,280 (6.0)	9,499 (5.6)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233 (2.5)	4,166 (2.6)	3,314 (2.4)	3,158 (1.9)
농림어업직	397 (0.3)	539 (0.3)	637 (0.5)	439 (0.3)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 전 직종대비 비중,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21년은 분류불능 인원이 일부 존재

## 2. 수료자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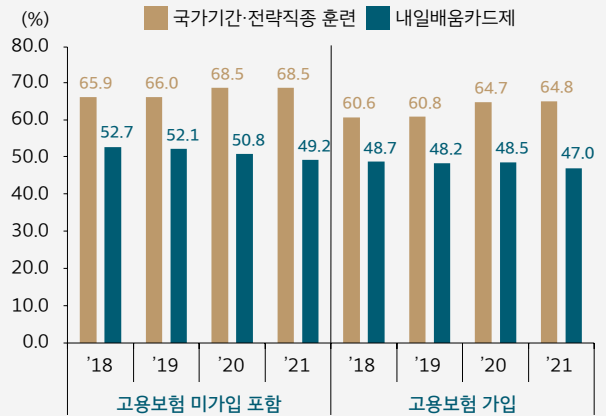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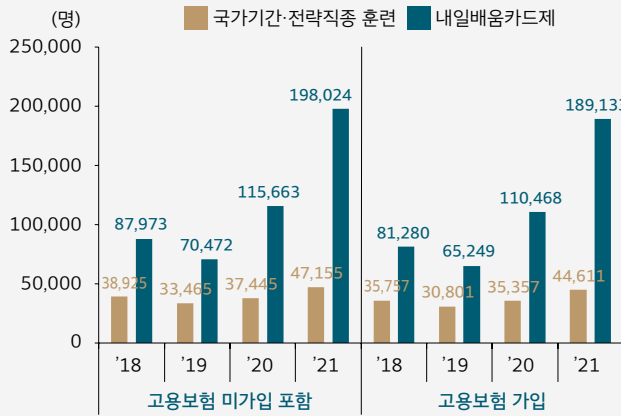
### 훈련별 수료자 취업(률)

훈련 후 전체 취업률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이 68.5%,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은 49.2%이다.

훈련별 수료후 취업인원



훈련별 취업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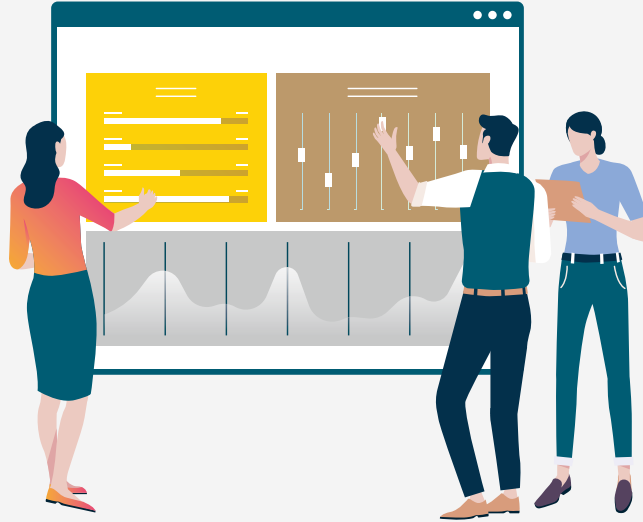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전체	취업률	65.9	66.0	68.5	68.5
		수료후 취업인원	38,925	33,465	37,445	47,155
		수료인원	59,035	50,687	54,656	68,833
	고용보험 가입자	취업률	60.6	60.8	64.7	64.8
		수료후 취업인원	35,757	30,801	35,357	44,611
		수료인원	59,035	50,687	54,656	68,833
내일배움 카드제	전체	취업률	52.7	52.1	50.8	49.2
		수료후 취업인원	87,973	70,472	115,663	198,024
		수료인원	167,047	135,340	227,826	402,805
	고용보험 가입자	취업률	48.7	48.2	48.5	47.0
		수료후 취업인원	81,280	65,249	110,468	189,133
		수료인원	167,047	135,340	227,826	402,805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22.5월 마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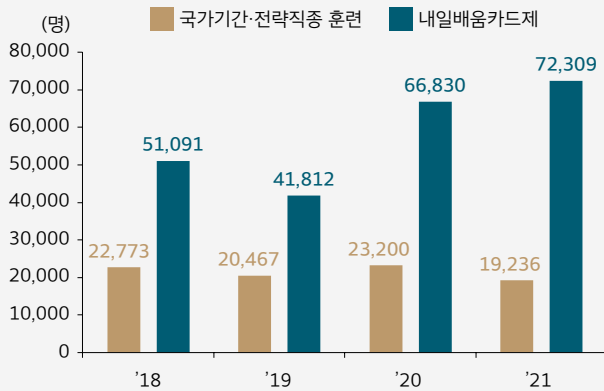
주) 취업률: (수료후 6개월 이내 취업인원/수료인원)\*100

## 훈련별 취업자 고용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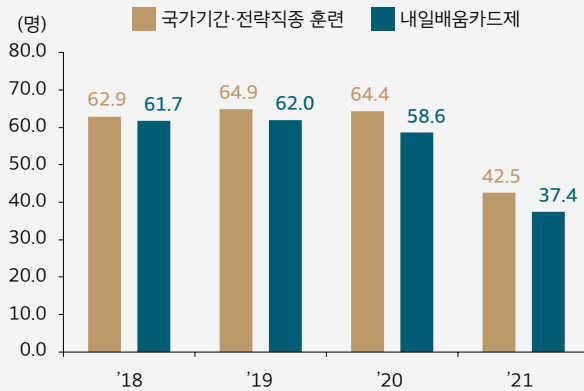
훈련 종료 및 취업되어 6개월 이상 고용된 인원들의 고용유지율은 2020년 훈련인 기준 58~65% 수준이다.



훈련별 고용유지인원



훈련별 고용유지율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22.5월 마감 기준  
 주) 고용유지율: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동일사업장 근속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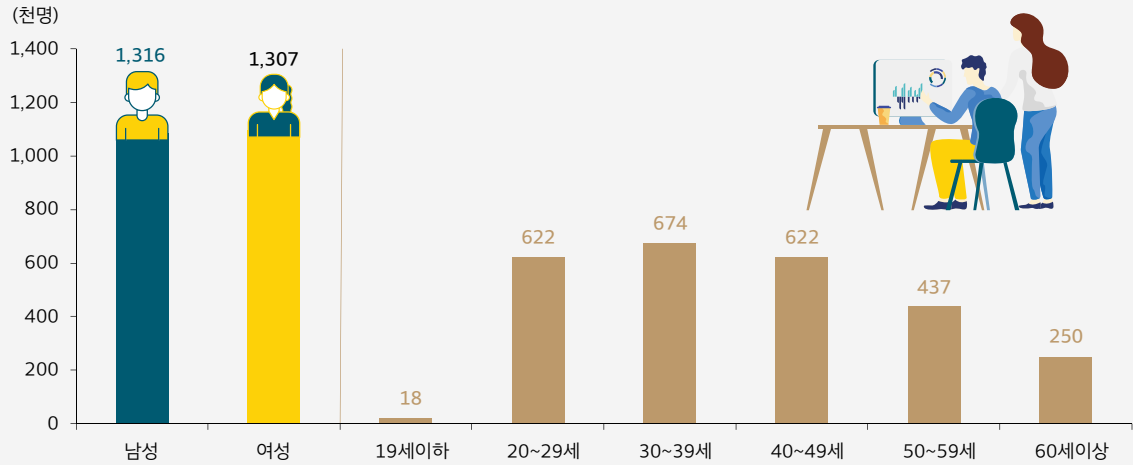
+ '20년 기준 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한 자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의 경우에는 64.4%,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에는 58.6%로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의 고용유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직자 훈련\*

재직자 훈련 참가자는 20~40대, 경영·행정·사무직 중심으로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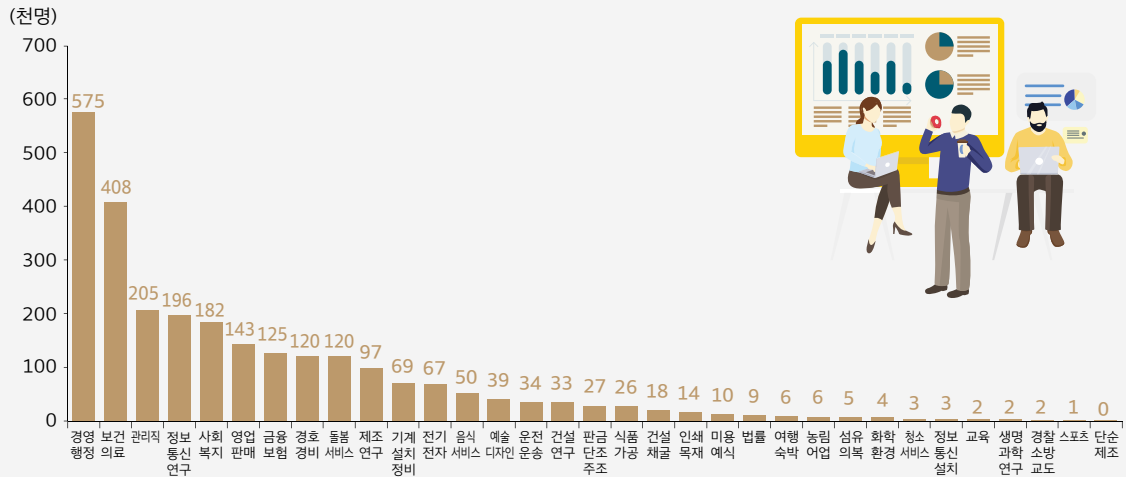
\* 대상 훈련: 사업주지원금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역산업맞춤형, 일학습병행제, 도제학교, IPP(4년제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제), 유니테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재직자 훈련 성·연령별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21년)

### 재직자 훈련 근무 직종별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21년)



[www.moel.go.kr](http://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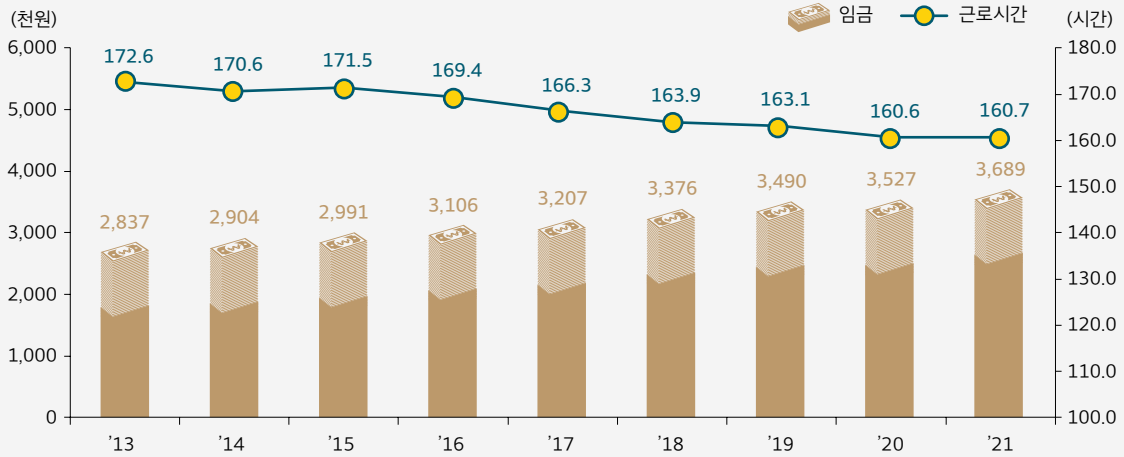
## 06 근로조건

# 1.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 명목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2021년 상용 1인 이상 사업장의 월 평균임금은 3,689천원이고 근로시간은 160.7시간이다. 연도별로 임금은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천원, 시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임금	전체	2,991 (3.0)	3,106 (3.8)	3,207 (3.3)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상용	3,204 (2.8)	3,331 (4.0)	3,418 (2.6)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정액	2,580 (3.0)	2,668 (3.4)	2,764 (3.6)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초과	181 (6.2)	189 (4.2)	190 (0.6)	197 (3.7)	202 (2.7)	200 (-0.9)	208 (3.7)
	특별	443 (0.6)	475 (7.2)	464 (-2.2)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임사·일용	1,281 (2.2)	1,288 (0.6)	1,353 (5.1)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근로시간	전체	171.5 (0.5)	169.4 (-1.2)	166.3 (-1.8)	163.9 (-1.4)	163.1 (-0.5)	160.6 (-1.5)	160.7 (0.1)
	상용	178.7 (0.7)	177.1 (-0.9)	173.3 (-2.1)	171.2 (-1.2)	170.3 (-0.5)	166.9 (-2.0)	167.0 (0.1)
	소정	167.9 (0.9)	166.4 (-0.9)	163.2 (-1.9)	161.6 (-1.0)	161.3 (-0.2)	158.6 (-1.7)	158.7 (0.1)
	초과	10.8 (-1.8)	10.7 (-0.9)	10.1 (-5.6)	9.5 (-5.9)	9.1 (-4.2)	8.3 (-8.8)	8.3 (0.0)
	임사·일용	113.7 (-3.3)	107.2 (-5.7)	104.7 (-2.3)	98.6 (-5.8)	96.0 (-2.6)	97.6 (1.7)	99.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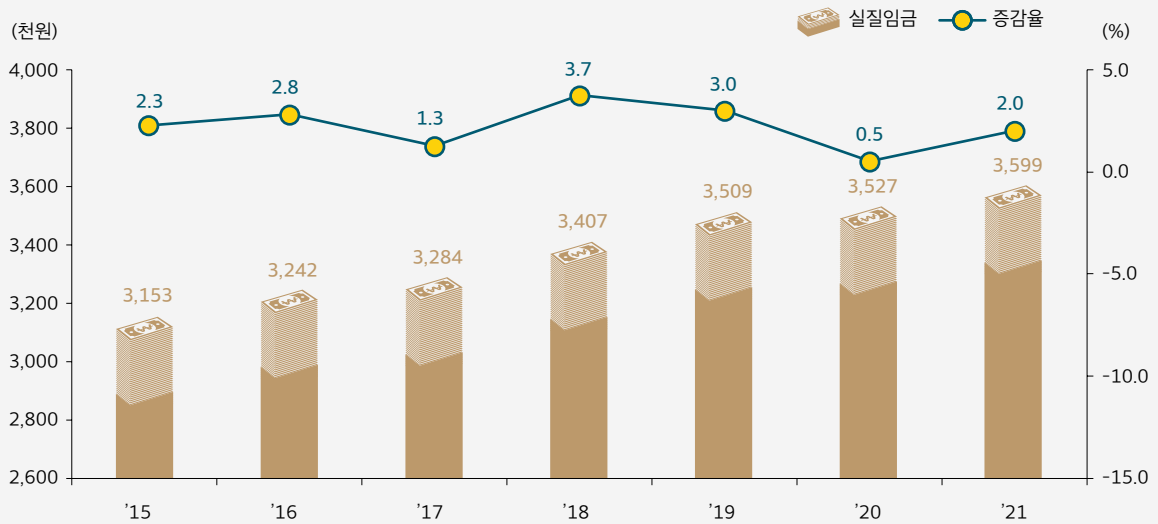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대상(임사일용 포함)

\*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한 분석(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단위의 임금 및 근로시간 총량을 조사하며,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이 가능)

## 실질임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9천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물가를 고려해도 임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질임금 및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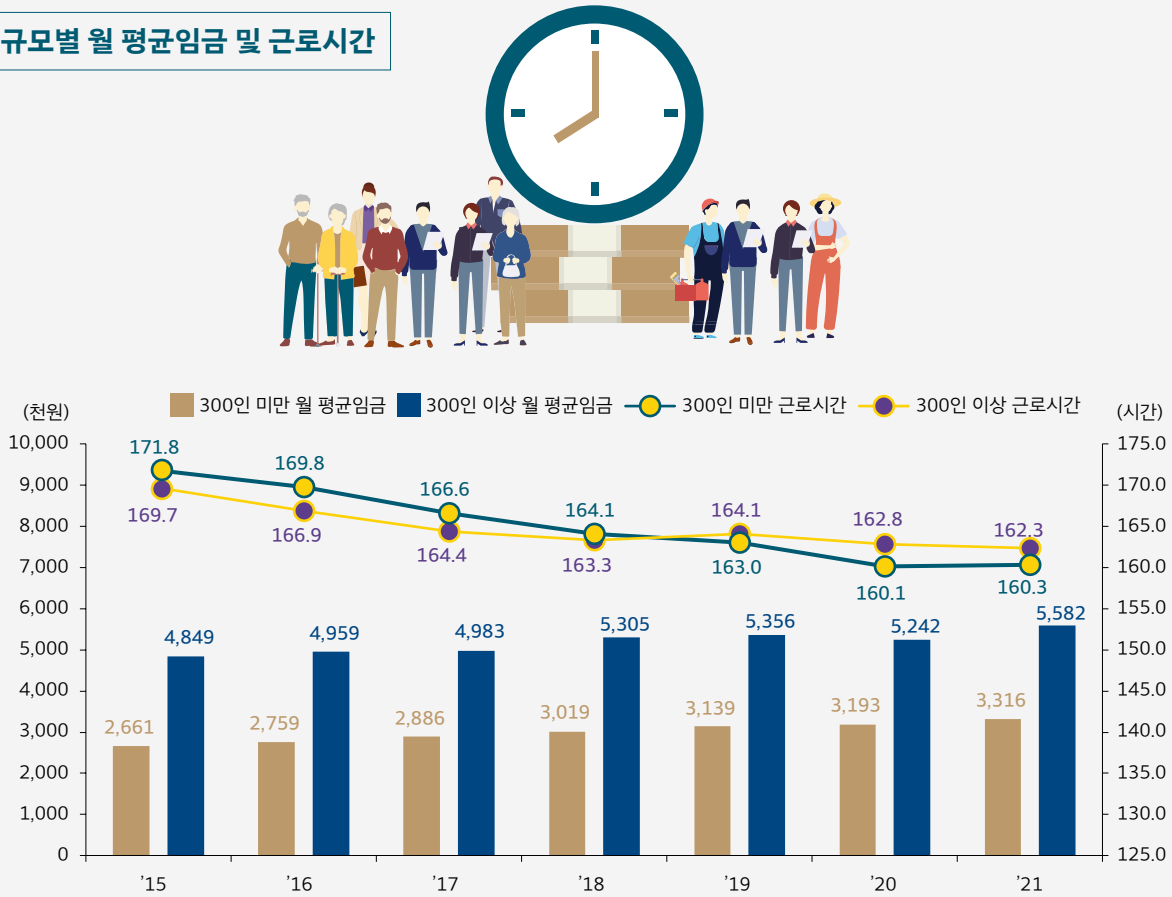




##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임금수준은 59.4%로  
규모별 임금 차이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규모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월 평균임금								월 근로시간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비율	54.9	55.6	57.9	56.9	58.6	60.9	59.4	101.2	101.7	101.3	100.5	99.3	98.3	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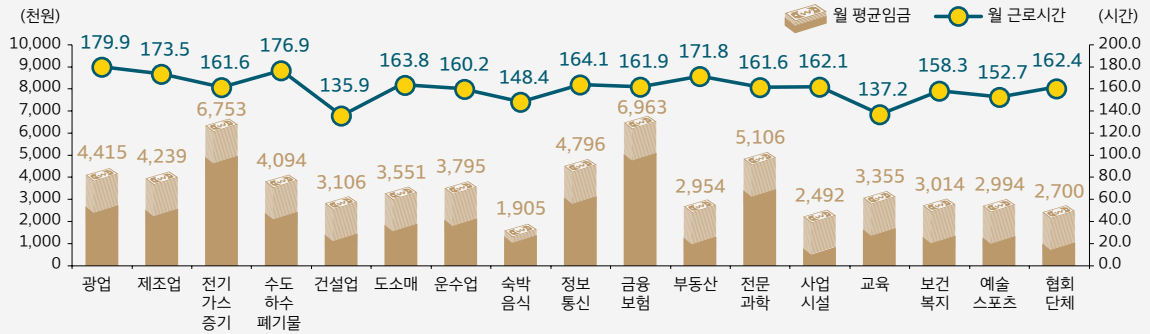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1년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총액은 3,316천원이고, 300인 이상은 5,582천원으로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임금 수준은 59.4%이다.
- + 1~3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은 160.3시간이고, 300인 이상은 162.3시간으로 300인 이상의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이고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업이다. 근로시간은 광업이 가장 길다.

업종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전년대비, 단위: 천원, 시간, %)

산업	월 평균임금				월 근로시간			
	'18	'19	'20	'21	'18	'19	'20	'21
전 산업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163.9 (-1.4)	163.1 (-0.5)	160.6 (-1.5)	160.7 (0.1)
광업	3,835 (3.3)	3,977 (3.7)	4,325 (8.5)	4,415 (2.1)	176.6 (0.5)	175.7 (-0.5)	181.2 (3.1)	179.9 (-0.7)
제조업	3,930 (6.5)	4,017 (2.2)	3,990 (0.2)	4,239 (6.2)	177.1 (-1.5)	175.9 (-0.7)	172.7 (-1.5)	173.5 (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6,733 (3.6)	6,753 (0.3)	162.1 (-1.7)	160.4 (-1.0)	163.7 (2.1)	161.6 (-1.3)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888 (10.5)	4,094 (5.3)	177.8 (0.4)	178.6 (0.4)	176.5 (-1.6)	176.9 (0.2)
건설업	2,784 (6.1)	2,951 (6.0)	3,032 (2.8)	3,106 (2.4)	138.5 (-2.4)	136.3 (-1.6)	136.9 (0.4)	135.9 (-0.7)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423 (1.5)	3,551 (3.7)	165.2 (-1.4)	165.5 (0.2)	163.8 (-1.7)	163.8 (0.0)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30 (1.5)	3,795 (7.5)	166.5 (-1.6)	164.3 (-1.3)	159.0 (-3.0)	160.2 (0.8)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879 (0.2)	1,905 (1.4)	159.7 (-0.4)	158.6 (-0.7)	149.7 (-5.6)	148.4 (-0.9)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613 (3.4)	4,796 (4.0)	161.6 (0.4)	163.9 (1.4)	163.8 (0.0)	164.1 (0.2)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6,526 (4.6)	6,963 (6.7)	160.9 (0.2)	161.5 (0.4)	162.1 (0.3)	161.9 (-0.1)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848 (3.2)	2,954 (3.7)	178.9 (-3.2)	176.4 (-1.4)	173.2 (-1.8)	171.8 (-0.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4,871 (0.6)	5,106 (4.8)	160.4 (0.2)	161.4 (0.6)	161.7 (0.2)	161.6 (-0.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411 (3.4)	2,492 (3.4)	163.2 (-1.2)	162.7 (-0.3)	161.7 (-0.6)	162.1 (0.2)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366 (3.1)	3,355 (-0.3)	142.3 (-1.5)	142.1 (-0.1)	136.6 (-3.9)	137.2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42 (0.6)	3,014 (2.5)	162.5 (-1.2)	162.2 (-0.2)	158.6 (-2.3)	158.3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73 (1.9)	2,994 (4.2)	157.7 (-1.1)	156.1 (-1.0)	149.7 (-4.6)	152.7 (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63 (2.2)	2,700 (5.4)	162.0 (-1.3)	159.9 (-1.3)	160.3 (0.2)	162.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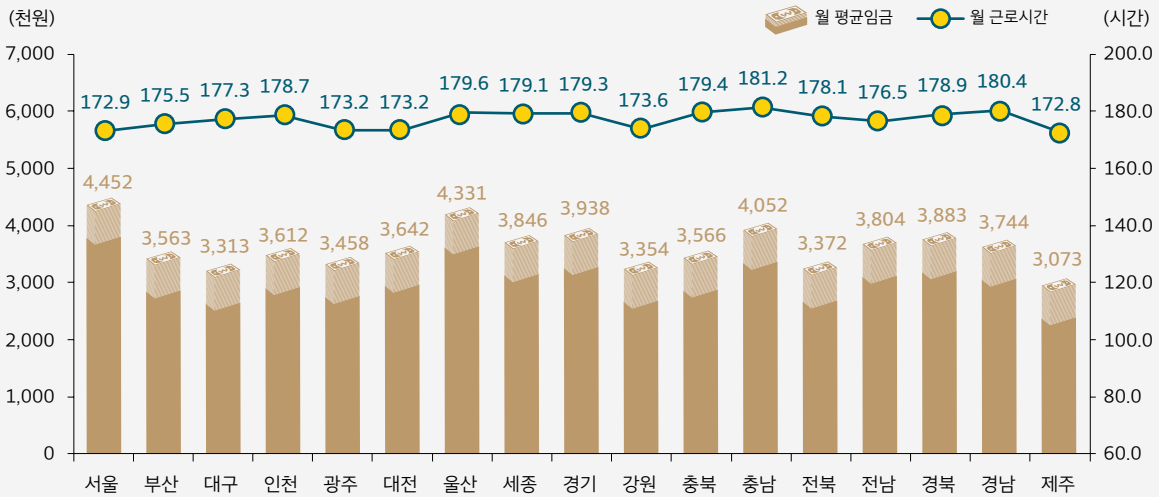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하여야 함

## 지역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4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서울, 울산 순으로 높고, 월 평균근로시간은 충남, 경남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천원, 시간)

시도	월 평균임금				월 근로시간			
	'20.4월	증감률	'21.4월	증감률	'20.4월	증감률	'21.4월	증감률
전국	3,788	(0.2)	3,968	(4.7)	163.4	(-10.1)	177.3	(8.5)
서울	4,178	(-1.1)	4,452	(6.5)	157.1	(-11.5)	172.9	(10.1)
부산	3,382	(2.0)	3,563	(5.4)	160.1	(-11.5)	175.5	(9.6)
대구	3,148	(1.8)	3,313	(5.2)	159.4	(-13.7)	177.3	(11.2)
인천	3,443	(1.5)	3,612	(4.9)	164.0	(-10.4)	178.7	(9.0)
광주	3,273	(-0.2)	3,458	(5.7)	160.3	(-10.6)	173.2	(8.0)
대전	3,526	(-2.1)	3,642	(3.3)	159.2	(-9.5)	173.2	(8.8)
울산	4,166	(-4.3)	4,331	(4.0)	168.1	(-8.8)	179.6	(6.8)
세종	3,756	-	3,846	(2.4)	165.6	-	179.1	(8.2)
경기	3,792	(2.5)	3,938	(3.9)	166.4	(-9.7)	179.3	(7.8)
강원	3,238	(-1.7)	3,354	(3.6)	160.1	(-11.1)	173.6	(8.4)
충북	3,512	(0.9)	3,566	(1.5)	168.7	(-8.7)	179.4	(6.3)
충남	3,748	(-0.8)	4,052	(8.1)	168.1	(-10.3)	181.2	(7.8)
전북	3,327	(-1.6)	3,372	(1.4)	167.2	(-9.6)	178.1	(6.5)
전남	3,661	(-1.9)	3,804	(3.9)	165.7	(-9.6)	176.5	(6.5)
경북	3,704	(0.1)	3,883	(4.8)	165.5	(-10.5)	178.9	(8.1)
경남	3,538	(-1.2)	3,744	(5.8)	168.4	(-10.4)	180.4	(7.1)
제주	2,890	(0.0)	3,073	(6.3)	153.5	(-13.5)	172.8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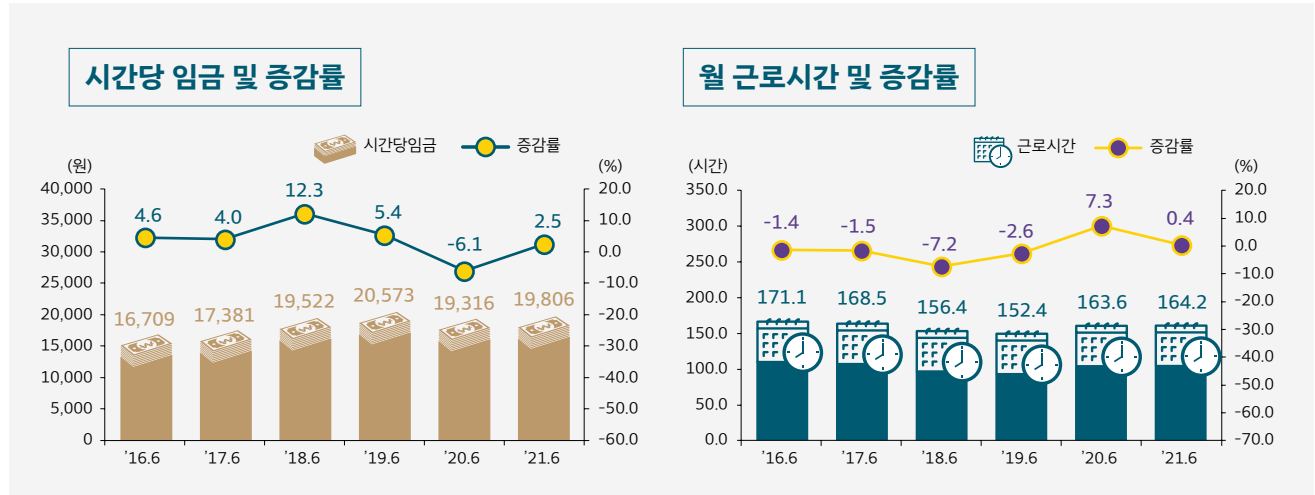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세종특별자치시의 임금 및 근로시간은 2020년도부터 발표됨

\* 매월 시행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매년 4월 기준으로 연 1회 시·도 단위의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를 생산하는데, 이 통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또한 월 평균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되는데, 통상적으로 특별급여는 연초, 연말 또는 명절 전후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월 단위로는 변동성이 큼.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4월의 임금(정액, 초과, 특별급여)을 조사한 것임

## 2.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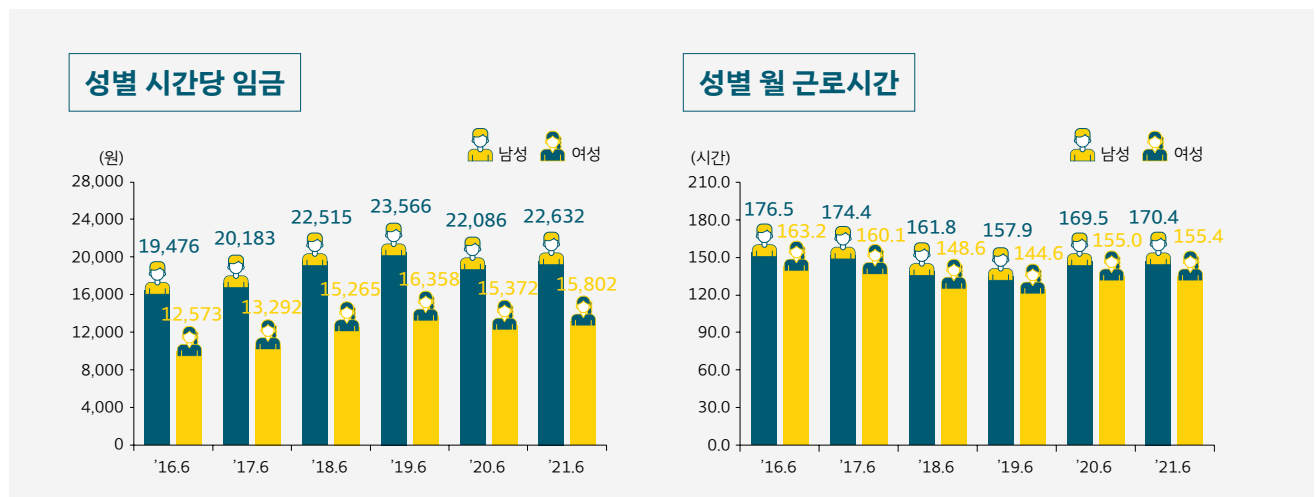
2021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19,806원이고, 월 근로시간은 164.2시간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년은 6월 근로일수가 전년에 비해 3일 증가하며 근로시간이 증가해 시간당임금이 감소함

### 성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6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5,802원으로 남성의 69.8% 수준이다. 여성의 근로시간은 남성의 91.2%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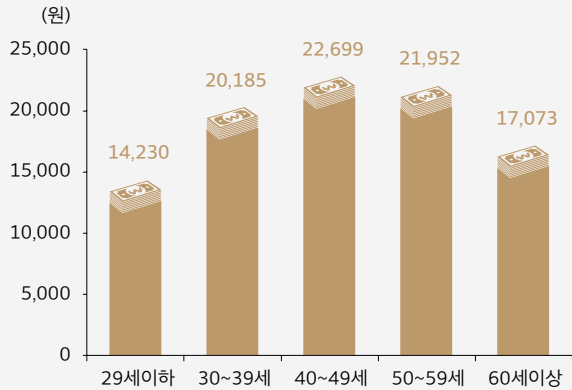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자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 기준으로 연 1회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며, 직종, 고용형태, 연령대 등 개인 특성별 분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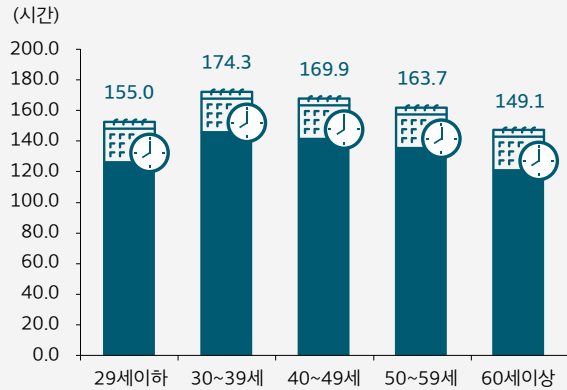
## 연령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낮아진다.  
근로시간은 30대가 가장 길다.

연령별 시간당 임금



연령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6.6	'17.6	'18.6	'19.6	'20.6	'21.6
전체	16,709 (4.6)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29세이하	11,674 (4.9)	12,179 (4.3)	13,935 (14.4)	14,917 (7.0)	13,899 (-6.8)	14,230 (2.4)
30~39세	17,749 (5.1)	18,280 (3.0)	20,530 (12.3)	21,451 (4.5)	19,708 (-8.1)	20,185 (2.4)
40~49세	19,575 (3.8)	20,279 (3.6)	22,730 (12.1)	23,750 (4.5)	22,278 (-6.2)	22,699 (1.9)
50~59세	17,860 (4.5)	18,923 (6.0)	21,043 (11.2)	22,410 (6.5)	21,312 (-4.9)	21,952 (3.0)
60세이상	12,874 (6.4)	13,722 (6.6)	15,552 (13.3)	16,760 (7.8)	16,419 (-2.0)	17,073 (4.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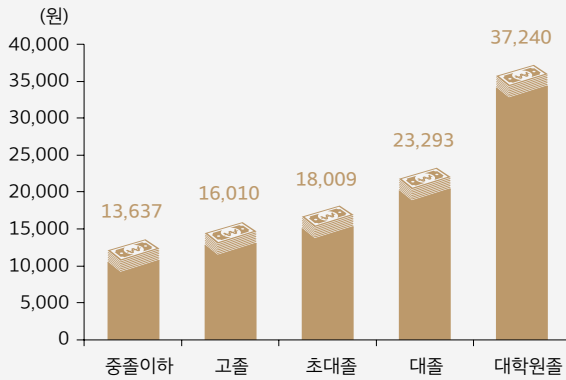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16.6	'17.6	'18.6	'19.6	'20.6	'21.6
전체	171.1 (-1.4)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29세이하	163.1 (-0.9)	159.5 (-2.2)	149.1 (-6.5)	145.3 (-2.5)	155.7 (7.2)	155.0 (-0.4)
30~39세	177.8 (-1.3)	175.8 (-1.1)	162.5 (-7.6)	158.9 (-2.2)	173.4 (9.1)	174.3 (0.5)
40~49세	174.7 (-1.0)	172.1 (-1.5)	159.2 (-7.5)	156.1 (-1.9)	168.8 (8.1)	169.9 (0.7)
50~59세	170.4 (-1.6)	168.2 (-1.3)	157.1 (-6.6)	152.8 (-2.7)	162.0 (6.0)	163.7 (1.0)
60세이상	159.6 (-2.6)	157.7 (-1.2)	146.1 (-7.4)	140.9 (-3.6)	148.4 (5.3)	149.1 (0.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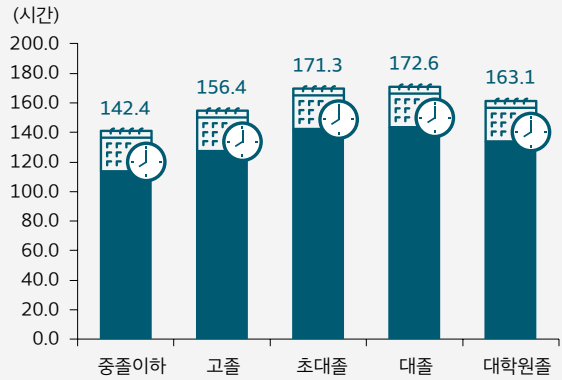
## 학력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은 고학력일수록 높아진다. 고졸임금은 대졸임금의 68.7% 수준이다. 한편, 근로시간은 대졸이 가장 길다.

학력별 시간당 임금



학력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6.6	'17.6	'18.6	'19.6	'20.6	'21.6
전 학력	16,709 (4.6)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중졸이하	10,592 (5.8)	11,268 (6.4)	12,916 (14.6)	13,670 (5.8)	13,443 (-1.7)	13,637 (1.4)
고졸	12,939 (5.3)	13,715 (6.0)	15,369 (12.1)	16,368 (6.5)	15,720 (-4.0)	16,010 (1.8)
초대졸	15,364 (4.6)	15,795 (2.8)	17,959 (13.7)	18,988 (5.7)	17,511 (-7.8)	18,009 (2.8)
대졸	21,140 (5.0)	21,453 (1.5)	23,958 (11.7)	24,974 (4.2)	22,900 (-8.3)	23,293 (1.7)
대학원졸	32,940 (-2.2)	34,800 (5.6)	37,397 (7.5)	38,313 (2.4)	36,268 (-5.3)	37,240 (2.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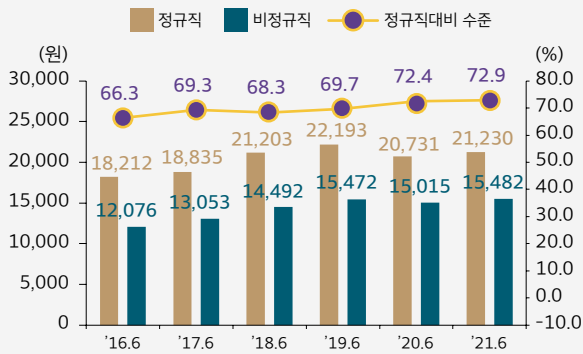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16.6	'17.6	'18.6	'19.6	'20.6	'21.6
전 학력	171.1 (-1.4)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중졸이하	156.3 (-1.1)	156.7 (0.3)	143.6 (-8.4)	141.0 (-1.8)	139.7 (-0.9)	142.4 (1.9)
고졸	170.6 (-1.4)	166.9 (-2.2)	155.4 (-6.9)	149.6 (-3.7)	155.6 (4.0)	156.4 (0.5)
초대졸	177.7 (-1.2)	175.0 (-1.5)	162.5 (-7.1)	158.5 (-2.5)	171.8 (8.4)	171.3 (-0.3)
대졸	172.5 (-1.8)	170.9 (-0.9)	157.6 (-7.8)	155.3 (-1.5)	172.1 (10.8)	172.6 (0.3)
대학원졸	161.9 (-0.1)	159.2 (-1.7)	148.1 (-7.0)	147.6 (-0.3)	165.3 (12.0)	163.1 (-1.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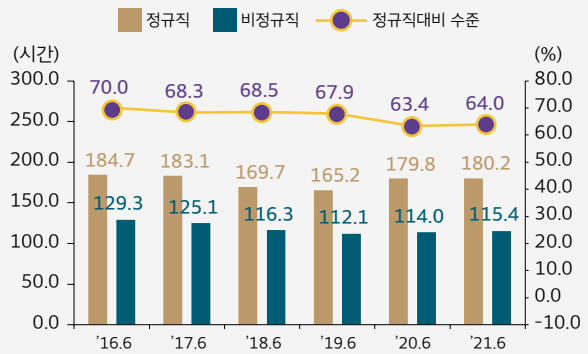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6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5,482원으로, 정규직의 72.9% 수준이다. 추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이가 감소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6.6	'17.6	'18.6	'19.6	'20.6	'21.6
전체	16,709 (4.6)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정규직	18,212 (4.2)	18,835 (3.4)	21,203 (12.6)	22,193 (4.7)	20,731 (-6.6)	21,230 (2.4)
비정규직	12,076 (5.4)	13,053 (8.1)	14,492 (11.0)	15,472 (6.8)	15,015 (-3.0)	15,482 (3.1)
재택/가내 근로자	10,513 (0.8)	11,009 (4.7)	12,694 (15.3)	14,288 (12.6)	13,744 (-3.8)	12,945 (-5.8)
파견/용역 근로자	9,512 (5.1)	10,708 (12.6)	12,021 (12.3)	12,809 (6.6)	12,338 (-3.7)	12,421 (0.7)
일일 근로자	14,905 (13.3)	15,804 (6.0)	17,180 (8.7)	18,297 (6.5)	18,499 (1.1)	19,283 (4.2)
단시간 근로자	11,270 (-2.2)	12,242 (8.6)	13,402 (9.5)	14,423 (7.6)	13,594 (-5.7)	14,220 (4.6)
기간제 근로자	12,028 (3.9)	12,878 (7.1)	14,680 (14.0)	15,501 (5.6)	14,719 (-5.0)	15,069 (2.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16.6	'17.6	'18.6	'19.6	'20.6	'21.6
전체	171.1 (-1.4)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정규직	184.7 (-1.4)	183.1 (-0.9)	169.7 (-7.3)	165.2 (-2.7)	179.8 (8.8)	180.2 (0.2)
비정규직	129.3 (-1.7)	125.1 (-3.2)	116.3 (-7.0)	112.1 (-3.6)	114.0 (1.7)	115.4 (1.2)
재택/가내 근로자	115.3 (-17.1)	124.8 (8.2)	123.2 (-1.3)	112.5 (-8.7)	116.7 (3.7)	117.2 (0.4)
파견/용역 근로자	185.5 (0.3)	181.8 (-2.0)	165.4 (-9.0)	163.7 (-1.0)	173.5 (6.0)	173.3 (-0.1)
일일 근로자	97.1 (-3.2)	93.9 (-3.3)	90.8 (-3.3)	85.0 (-6.4)	79.6 (-6.4)	80.2 (0.8)
단시간 근로자	82.6 (-1.5)	82.1 (-0.6)	79.2 (-3.5)	76.0 (-4.0)	79.4 (4.5)	78.6 (-1.0)
기간제 근로자	183.9 (-0.5)	182.6 (-0.7)	170.3 (-6.7)	160.6 (-5.7)	172.7 (7.5)	175.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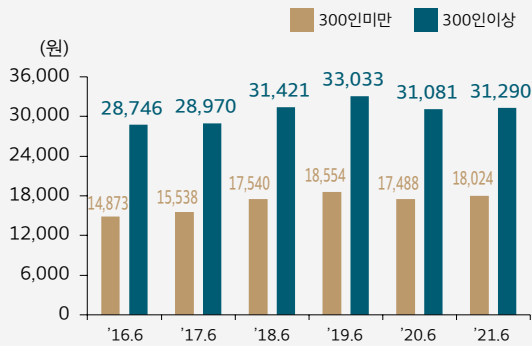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 규모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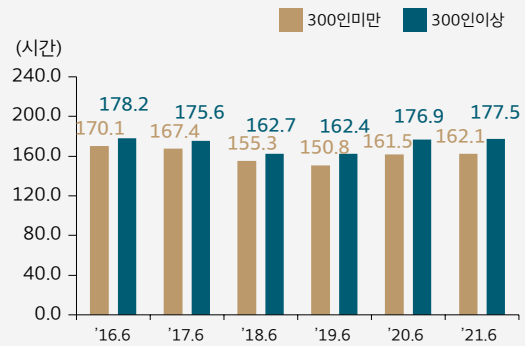
2021년 6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31,290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1.7배 수준이다.

근로시간은 300인 이상이 177.5시간으로 300인 미만의 1.1배 수준이다.

규모별 시간당 임금



규모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6.6	'17.6	'18.6	'19.6	'20.6	'21.6
전 규모	16,709 (4.6)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300인 미만	14,873 (6.1)	15,538 (4.5)	17,540 (12.9)	18,554 (5.8)	17,488 (-5.7)	18,024 (3.1)
5인 미만	10,967 (6.6)	11,736 (7.0)	13,369 (13.9)	14,319 (7.1)	13,851 (-3.3)	14,331 (3.5)
5-29인	15,177 (6.3)	15,956 (5.1)	18,131 (13.6)	19,281 (6.3)	18,282 (-5.2)	18,776 (2.7)
30-299인	17,676 (4.2)	18,507 (4.7)	20,744 (12.1)	21,637 (4.3)	19,951 (-7.8)	20,626 (3.4)
300인 이상	28,746 (-0.6)	28,970 (0.8)	31,421 (8.5)	33,033 (5.1)	31,081 (-5.9)	31,290 (0.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16.6	'17.6	'18.6	'19.6	'20.6	'21.6
전 규모	171.1 (-1.4)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300인 미만	170.1 (-1.6)	167.4 (-1.6)	155.3 (-7.2)	150.8 (-2.9)	161.5 (7.1)	162.1 (0.4)
5인 미만	157.2 (-1.7)	151.0 (-3.9)	140.4 (-7.0)	136.1 (-3.1)	143.2 (5.2)	143.6 (0.3)
5-29인	169.8 (-2.5)	169.3 (-0.3)	156.7 (-7.4)	152.0 (-3.0)	165.1 (8.6)	165.0 (-0.1)
30-299인	180.7 (-1.1)	180.2 (-0.3)	167.6 (-7.0)	163.0 (-2.7)	174.2 (6.9)	176.1 (1.1)
300인 이상	178.2 (0.4)	175.6 (-1.5)	162.7 (-7.3)	162.4 (-0.2)	176.9 (8.9)	177.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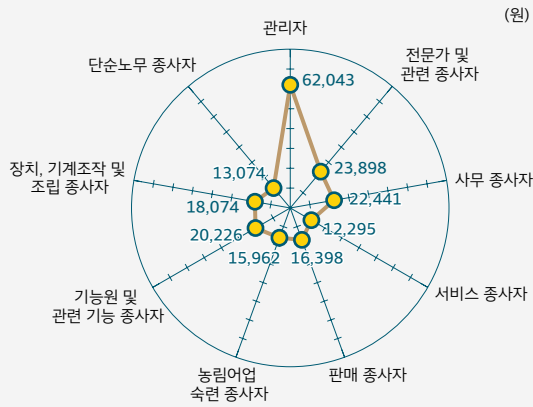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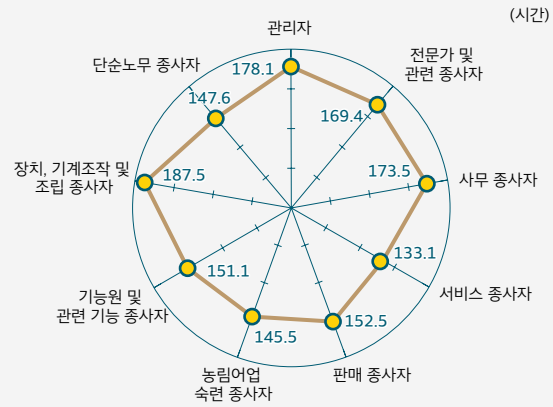
## 직종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6월 직종별 시간당 임금은 관리자가 가장 높고  
근로시간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가장 길다.

직종별 시간당 임금



직종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직종	시간당 임금	'16.6	'17.6	'18.6	'19.6	'20.6	'21.6
전 직종	16,709 (4.6)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관리자	48,134 (9.4)	48,393 (0.5)	55,651 (15.0)	62,734 (12.7)	59,024	62,043 (5.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858 (2.6)	21,812 (4.6)	24,088 (10.4)	25,128 (4.3)	23,446	23,898 (1.9)	
사무 종사자	19,310 (4.5)	19,774 (2.4)	22,683 (14.7)	23,824 (5.0)	21,777	22,441 (3.0)	
서비스 종사자	9,196 (4.6)	9,802 (6.6)	11,043 (12.7)	12,011 (8.8)	11,837	12,295 (3.9)	
판매 종사자	13,538 (6.8)	13,734 (1.4)	15,651 (14.0)	16,813 (7.4)	16,131	16,398 (1.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046 (9.5)	13,098 (0.4)	14,408 (10.0)	16,212 (12.5)	15,447	15,962 (3.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251 (6.0)	17,109 (5.3)	18,960 (10.8)	19,849 (4.7)	19,495	20,226 (3.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654 (2.6)	15,775 (7.6)	17,505 (11.0)	18,639 (6.5)	17,904	18,074 (0.9)	
단순노무 종사자	10,212 (9.1)	11,166 (9.3)	12,603 (12.9)	13,259 (5.2)	13,131	13,074 (-0.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직종	월 근로시간	'16.6	'17.6	'18.6	'19.6	'20.6	'21.6
전 직종	171.1 (-1.4)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관리자	175.3 (-2.4)	174.4 (-0.5)	161.7 (-7.3)	159.2 (-1.5)	176.9	178.1 (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7.9 (-1.4)	167.3 (-0.4)	154.7 (-7.5)	152.8 (-1.2)	170.3	169.4 (-0.5)	
사무 종사자	174.7 (-2.2)	172.9 (-1.0)	159.5 (-7.8)	156.8 (-1.7)	173.4	173.5 (0.1)	
서비스 종사자	148.0 (-2.8)	142.4 (-3.8)	136.2 (-4.4)	132.5 (-2.7)	132.6	133.1 (0.4)	
판매 종사자	166.1 (-2.5)	161.9 (-2.5)	151.1 (-6.7)	147.3 (-2.5)	154.8	152.5 (-1.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62.2 (-2.5)	150.8 (-7.0)	145.0 (-3.8)	137.2 (-5.4)	153.8	145.5 (-5.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4.7 (-4.1)	163.2 (-0.9)	152.5 (-6.6)	146.5 (-3.9)	151.3	151.1 (-0.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6.1 (0.9)	193.9 (-1.1)	180.8 (-6.8)	173.7 (-3.9)	183.5	187.5 (2.2)	
단순노무 종사자	163.0 (1.4)	158.8 (-2.6)	144.9 (-8.8)	139.3 (-3.9)	144.6	147.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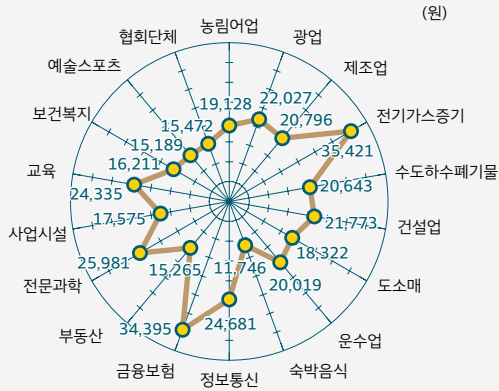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주) 2020년 자료부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6차 직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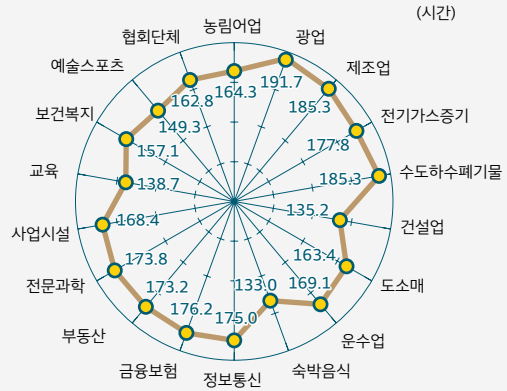
## 산업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6월 산업별 시간당 임금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이 가장 높고 근로시간은 광업이 가장 길다.

산업별 시간당 임금



산업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6.6	'17.6	'18.6	'19.6	'20.6	'21.6
전 산업	16,709 (4.6)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농림어업	16,830 (5.2)	16,133 (-4.1)	19,097 (18.4)	19,784 (3.6)	18,321 (-7.1)	19,128 (4.4)
광업	20,061 (2.7)	20,600 (2.7)	22,815 (10.8)	23,365 (2.4)	21,561 (-7.7)	22,027 (2.2)
제조업	18,286 (1.7)	18,584 (1.6)	20,966 (12.8)	22,011 (5.0)	20,358 (-7.5)	20,796 (2.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2,049 (3.0)	31,382 (-2.1)	34,894 (11.2)	35,159 (0.8)	34,879 (-0.7)	35,421 (1.6)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6,120 (2.9)	17,427 (8.1)	19,989 (14.7)	21,507 (7.6)	19,800 (-7.9)	20,643 (4.3)
건설업	17,795 (8.0)	18,836 (5.8)	20,677 (9.8)	21,404 (3.5)	20,944 (-2.1)	21,773 (4.0)
도매 및 소매업	14,535 (6.2)	15,137 (4.1)	17,207 (13.7)	18,635 (8.3)	17,903 (-3.9)	18,322 (2.3)
운수 및 창고업	16,281 (4.1)	17,258 (6.0)	18,829 (9.1)	19,867 (5.5)	18,908 (-4.8)	20,019 (5.9)
숙박 및 음식점업	8,689 (6.0)	9,176 (5.6)	10,399 (13.3)	11,306 (8.7)	11,435 (1.1)	11,746 (2.7)
정보통신업	21,619 (6.7)	22,579 (4.4)	25,819 (14.3)	27,219 (5.4)	24,735 (-9.1)	24,681 (-0.2)
금융 및 보험업	30,632 (10.5)	30,600 (-0.1)	35,140 (14.8)	36,699 (4.4)	33,370 (-9.0)	34,395 (3.1)
부동산업	12,078 (12.3)	13,205 (9.3)	15,402 (16.6)	15,850 (2.9)	15,199 (-4.1)	15,265 (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207 (6.1)	24,357 (5.0)	27,591 (13.3)	28,683 (4.0)	26,078 (-9.1)	25,981 (-0.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4,355 (5.3)	14,996 (4.5)	17,259 (15.1)	18,532 (7.4)	17,164 (-7.3)	17,575 (2.4)
교육서비스업	20,968 (-1.8)	24,057 (14.7)	25,220 (4.8)	26,447 (4.9)	23,505 (-11.0)	24,335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290 (3.0)	14,356 (8.0)	16,168 (12.6)	17,251 (6.7)	16,036 (-7.0)	16,211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029 (5.7)	12,969 (7.8)	14,348 (10.6)	15,354 (7.0)	14,872 (-3.2)	15,189 (2.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991 (6.1)	12,808 (6.8)	14,429 (12.7)	15,545 (7.7)	15,062 (-3.1)	15,472 (2.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16.6	'17.6	'18.6	'19.6	'20.6	'21.6
전 산업	171.1 (-1.4)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농림어업	165.3 (-0.6)	166.3 (0.6)	156.3 (-6.0)	151.1 (-3.3)	164.0	164.3 (0.2)
광업	190.4 (-0.7)	193.9 (1.8)	183.6 (-5.3)	182.1 (-0.8)	194.4	191.7 (-1.4)
제조업	189.4 (-0.4)	188.8 (-0.3)	175.2 (-7.2)	170.3 (-2.8)	182.0	185.3 (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82.0 (4.7)	179.8 (-1.2)	167.5 (-6.8)	163.9 (-2.1)	178.7	177.8 (-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86.5 (-0.1)	184.6 (-1.0)	173.1 (-6.2)	167.8 (-3.1)	185.7	185.3 (-0.2)
건설업	145.6 (-4.5)	143.5 (-1.4)	133.1 (-7.2)	130.3 (-2.1)	134.1	135.2 (0.8)
도매 및 소매업	174.9 (-1.4)	170.1 (-2.7)	158.9 (-6.6)	154.0 (-3.1)	164.2	163.4 (-0.5)
운수 및 창고업	181.4 (1.5)	178.2 (-1.8)	162.7 (-8.7)	158.1 (-2.8)	170.0	169.1 (-0.5)
숙박 및 음식점업	152.8 (0.7)	144.2 (-5.6)	138.9 (-3.7)	134.3 (-3.3)	135.2	133.0 (-1.6)
정보통신업	167.4 (-3.1)	167.7 (0.2)	154.9 (-7.6)	153.6 (-0.8)	175.8	175.0 (-0.5)
금융 및 보험업	170.4 (-2.4)	169.6 (-0.5)	153.9 (-9.3)	152.2 (-1.1)	176.3	176.2 (-0.1)
부동산업	188.3 (-2.2)	183.1 (-2.8)	166.8 (-8.9)	162.9 (-2.3)	174.6	173.2 (-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1.1 (-2.3)	168.5 (-1.5)	155.0 (-8.0)	154.3 (-0.5)	173.9	173.8 (-0.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69.5 (-2.5)	169.8 (0.2)	156.4 (-7.9)	152.5 (-2.5)	166.6	168.4 (1.1)
교육서비스업	142.5 (2.7)	139.8 (-1.9)	128.1 (-8.4)	124.3 (-3.0)	139.9	138.7 (-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7.3 (-2.1)	166.2 (-0.7)	154.1 (-7.3)	150.0 (-2.7)	157.7	157.1 (-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6.4 (0.4)	148.8 (-4.9)	139.4 (-6.3)	137.4 (-1.4)	148.3	149.3 (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8.4 (-2.8)	157.8 (-0.4)	148.0 (-6.2)	146.3 (-1.1)	161.6	162.8 (0.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률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통계조사별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우리나라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는 대표통계는 총 3종

- ①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총임금 및 총근로시간을 매월 조사하며, 산업별 규모별 분석이 가능
- ②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표본사업체의 근로자별 월임금 및 월근로시간을 연간 1회 조사하여, 개인 특성별 분석이 가능하며(성, 연령 근속년수 등), 시간당 임금 산출이 가능
- ③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가구를 방문하여 각 근로자별 3개월 평균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을 연간 1회 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1.8)
임금	월평균 3,689천원	월 3,271천원(시간당 19,806원)	월 2,734천원
근로시간	월평균 160.7시간	월 164.2시간	주당 평균 35.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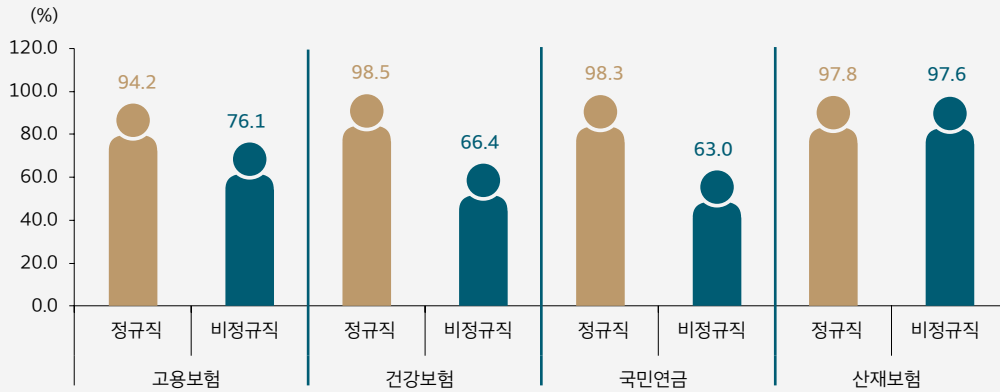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 우리나라의 임금 및 근로시간의 대표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며, 개인 특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을 위해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3.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형태별 4대 보험 가입률 (고용형태별)

2021년 6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4% 이상이고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60~70%대의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별 4대 보험 가입률



(단위: %, %p)

		'16.6	'17.6	'18.6	'19.6	'20.6	'21.6
고용보험	전체	90.7 (1.6)	89.1 (-1.8)	89.6 (0.6)	90.3 (0.8)	90.3 (0.0)	90.5 (0.2)
	정규직	95.7 (0.3)	94.7 (-1.0)	94.6 (-0.1)	94.4 (-0.2)	94.4 (0.0)	94.2 (-0.2)
	비정규직	72.1 (8.1)	68.7 (-4.7)	70.8 (3.1)	74.0 (4.5)	74.4 (0.4)	76.1 (1.7)
건강보험	전체	89.7 (1.5)	88.9 (-0.9)	89.4 (0.6)	90.9 (1.7)	91.1 (0.2)	91.5 (0.4)
	정규직	98.3 (0.4)	98.0 (-0.3)	98.1 (0.1)	98.2 (0.1)	98.5 (0.3)	98.5 (0.0)
	비정규직	59.4 (7.0)	58.1 (-2.2)	59.5 (2.4)	64.2 (7.9)	64.9 (0.7)	66.4 (1.5)
국민연금	전체	90.1 (1.6)	89.1 (-1.1)	89.7 (0.7)	91.1 (1.6)	91.3 (0.2)	91.7 (0.4)
	정규직	98.2 (0.4)	97.8 (-0.4)	97.9 (0.1)	98.0 (0.1)	98.3 (0.3)	98.3 (0.0)
	비정규직	56.7 (7.6)	54.9 (-3.2)	56.5 (2.9)	61.0 (8.0)	61.7 (0.7)	63.0 (1.3)
산재보험	전체	98.1 (0.5)	97.6 (-0.5)	97.4 (-0.2)	97.7 (0.3)	97.8 (0.1)	97.8 (0.0)
	정규직	98.3 (0.3)	97.8 (-0.5)	97.5 (-0.3)	97.8 (0.3)	97.9 (0.1)	97.8 (-0.1)
	비정규직	97.4 (1.0)	96.8 (-0.6)	96.7 (-0.1)	97.3 (0.6)	97.5 (0.2)	97.6 (0.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전년대비 증감

주) 가입률 = 가입근로자수 ÷ 가입대상 근로자수 × 100.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 통계조사별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

(단위: %)

구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90.5	91.5	91.7	97.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1.8월)	75.2	77.0	69.4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험별로 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모수(분모)에서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①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②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③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④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미만 농림어업 제외

+ 「경향 부가조사」에서는 사회보험별로 가입대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임금근로자를 모수(분모)로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①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 ②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만 집계 하였으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포함
- ③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만 집계







[www.moel.go.kr](http://www.moel.go.kr)

## 07 노사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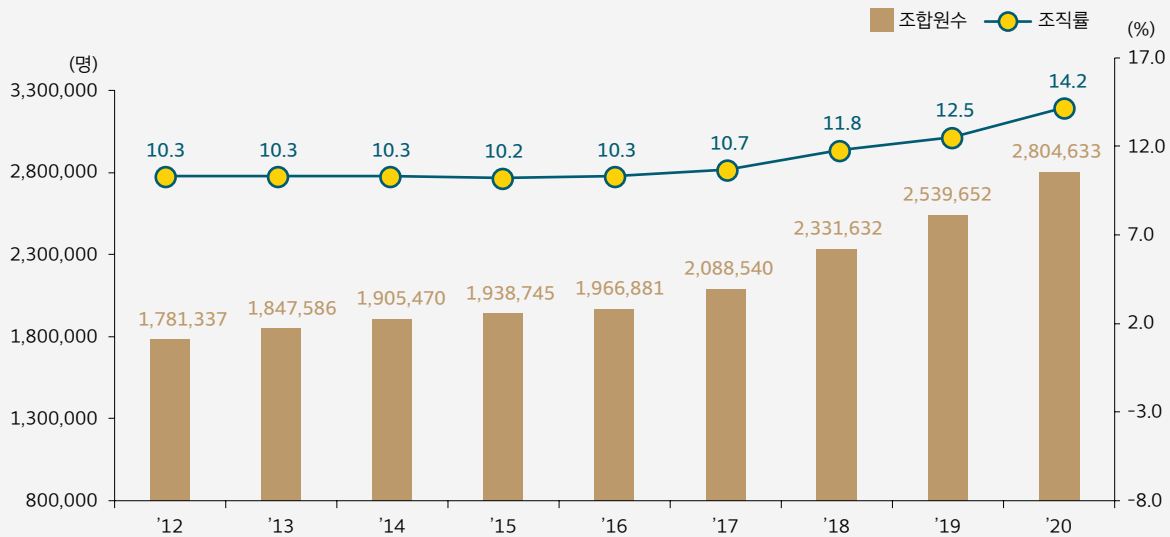


# 1.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황

2020년 전체 노동조합은 6,564개, 조합원수는 2,805천명으로  
 노조조직률은 14.2%이다. 모든 지표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합원수 및 조직률



(단위: 개소, 명, %, %p)

	노동조합 수			조합원수			조직률
	연합단체	단위노조	합계	남성	여성	합계	
'12	5,177 (1.1)	5,122 (1.1)	55 (3.8)	1,781,337 (3.6)	1,358,699 (2.3)	422,638 (7.9)	10.3 [0.2]
'13	5,305 (2.5)	5,247 (2.4)	58 (5.5)	1,847,586 (3.7)	1,404,821 (3.4)	442,765 (4.8)	10.3 [0.0]
'14	5,445 (2.6)	5,386 (2.6)	59 (1.7)	1,905,470 (3.1)	1,452,619 (3.4)	452,851 (2.3)	10.3 [0.0]
'15	5,794 (6.4)	5,736 (6.5)	58 (-1.7)	1,938,745 (1.7)	1,456,255 (0.3)	482,490 (6.5)	10.2 [-0.1]
'16	6,164 (6.4)	6,103 (6.4)	61 (5.2)	1,966,881 (1.5)	1,525,322 (4.7)	441,559 (-8.5)	10.3 [0.1]
'17	6,239 (1.2)	6,177 (1.2)	62 (1.6)	2,088,540 (6.2)	1,600,226 (4.9)	488,314 (10.6)	10.7 [0.4]
'18	5,868 (-5.9)	5,802 (-6.1)	66 (6.5)	2,331,632 (11.6)	1,806,706 (12.9)	524,926 (7.5)	11.8 [1.1]
'19	6,156 (4.9)	6,090 (5.0)	66 (0.0)	2,539,652 (8.9)	1,948,237 (7.8)	591,415 (12.7)	12.5 [0.7]
'20	6,564 (6.6)	6,497 (6.7)	67 (1.5)	2,804,633 (10.4)	2,128,425 (9.2)	676,208 (14.3)	14.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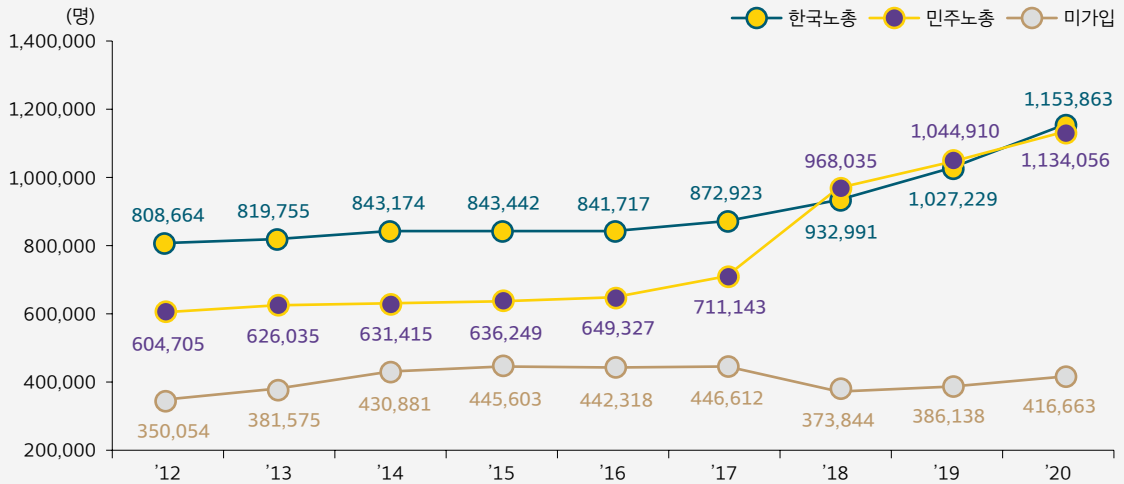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 전년대비 증감률, [ ] 전년대비 증감  
 노조조직률(%) = (전체 조합원수 / 조직대상 근로자수) × 100

## 상급단체별 노동조합 현황

2020년 기준 노동조합 가입인원의 상급단체별 비중은 한국노총 41.1%, 민주노총 40.4%, 미가입 14.9%, 공공노총 2.8% 순이다.

3년만에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민주노총을 상회했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현황



(단위: 명, %)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입	공공노총	그외
'12	1,781,337 (100.0)	808,664 (45.4)	604,705 (33.9)	350,054 (19.7)	0 (0.0)	17,914 (1.0)
'13	1,847,586 (100.0)	819,755 (44.4)	626,035 (33.9)	381,575 (20.7)	0 (0.0)	20,221 (1.1)
'14	1,905,470 (100.0)	843,174 (44.3)	631,415 (33.1)	430,881 (22.6)	0 (0.0)	0 (0.0)
'15	1,938,745 (100.0)	843,442 (43.5)	636,249 (32.8)	445,603 (23.0)	0 (0.0)	13,451 (0.7)
'16	1,966,881 (100.0)	841,717 (42.8)	649,327 (33.0)	442,318 (22.5)	0 (0.0)	33,519 (1.7)
'17	2,088,540 (100.0)	872,923 (41.8)	711,143 (34.0)	446,612 (21.4)	25,091 (1.2)	32,771 (1.6)
'18	2,331,632 (100.0)	932,991 (40.0)	968,035 (41.5)	373,844 (16.0)	35,202 (1.5)	21,560 (0.9)
'19	2,539,652 (100.0)	1,027,229 (40.4)	1,044,910 (41.1)	386,138 (15.2)	47,516 (1.9)	33,859 (1.3)
'20	2,804,633 (100.0)	1,153,863 (41.1)	1,134,056 (40.4)	416,663 (14.9)	77,422 (2.8)	22,629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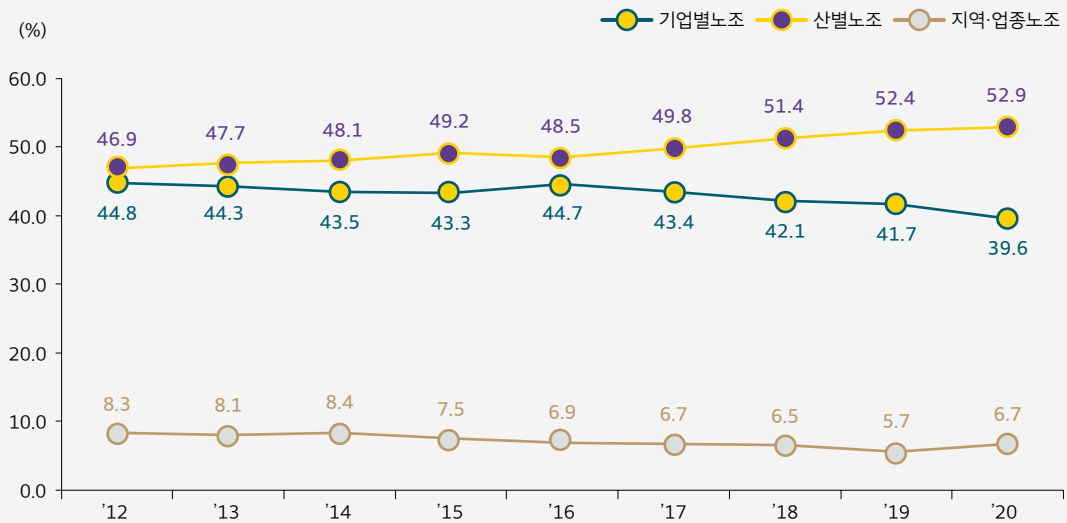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주) 그 외의 자료는 '11년~'13년은 국민노총('11.11.1 출범 ~ '14.12.3 한국노총과 통합), '15년~'16년은 전국노총('15.9.25 출범)

## 조직형태별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별 가입비중에서 기업별 노조는 '16년 이후 연도별로 하락하는 한편 산별노조는 상승하고 있다.

조직형태별 비중



(단위: 명, %)

연도	조합원수 (명)		기업별노조		지역·업종노조		초기업노조	
	조합원수	비중 (%)	조합원수	비중 (%)	조합원수	비중 (%)	초기업노조	
							조합원수	비중 (%)
'12	1,781,337	(100.0)	797,630	(44.8)	147,724	(8.3)	835,983	(46.9)
'13	1,847,586	(100.0)	817,799	(44.3)	149,231	(8.1)	880,556	(47.7)
'14	1,905,470	(100.0)	828,517	(43.5)	160,203	(8.4)	916,750	(48.1)
'15	1,938,745	(100.0)	839,725	(43.3)	144,938	(7.5)	954,082	(49.2)
'16	1,966,881	(100.0)	878,531	(44.7)	135,275	(6.9)	953,075	(48.5)
'17	2,088,540	(100.0)	907,007	(43.4)	140,941	(6.7)	1,040,592	(49.8)
'18	2,331,632	(100.0)	982,261	(42.1)	151,516	(6.5)	1,197,855	(51.4)
'19	2,539,652	(100.0)	1,058,273	(41.7)	144,076	(5.7)	1,330,755	(52.4)
'20	2,804,633	(100.0)	1,109,480	(39.6)	187,920	(6.7)	1,483,634	(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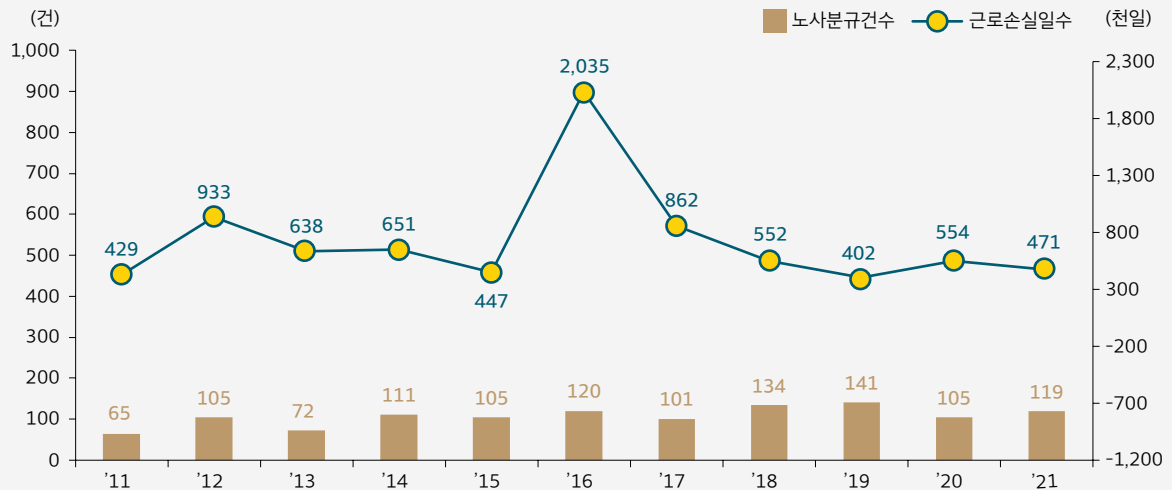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비중

## 2. 노사분규

###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21년 노사분규건수는 119건으로 전년대비 14건 증가, 근로손실일수는 2016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주: 노사분규건수: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다만,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 등은 노사분규 발생건수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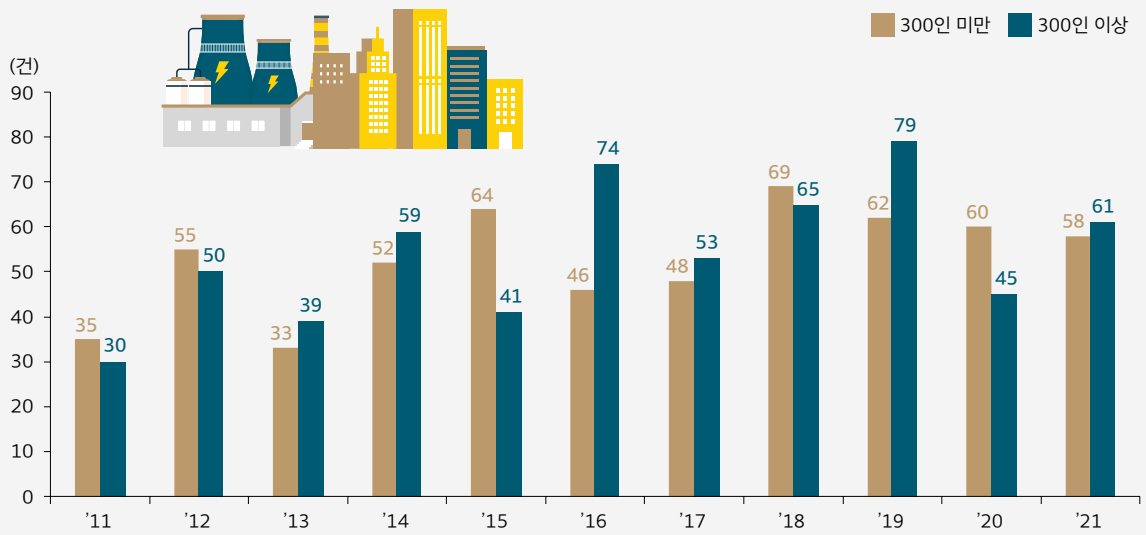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 중단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 규모별 노사분규건수

2021년 노사분규 중 48.7%가 300인미만 사업장(58건)이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전년대비 9건(+33.3%) 증가했다.

규모별 노사분규건수



(단위: 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65	105	72	111	105	120	101	134	141	105	119
300인미만	35	55	33	52	64	46	48	69	62	60	58
50인미만	9	15	13	11	16	16	18	15	18	20	21
50~99인	8	15	6	17	14	11	8	23	17	16	6
100~299인	18	25	14	24	34	19	22	31	27	24	31
300인 이상	30	50	39	59	41	74	53	65	79	45	61
300~499인	7	8	7	7	5	14	14	18	13	13	12
500~999인	6	12	13	13	10	13	10	21	20	5	13
1000인 이상	17	30	19	39	26	47	29	26	46	27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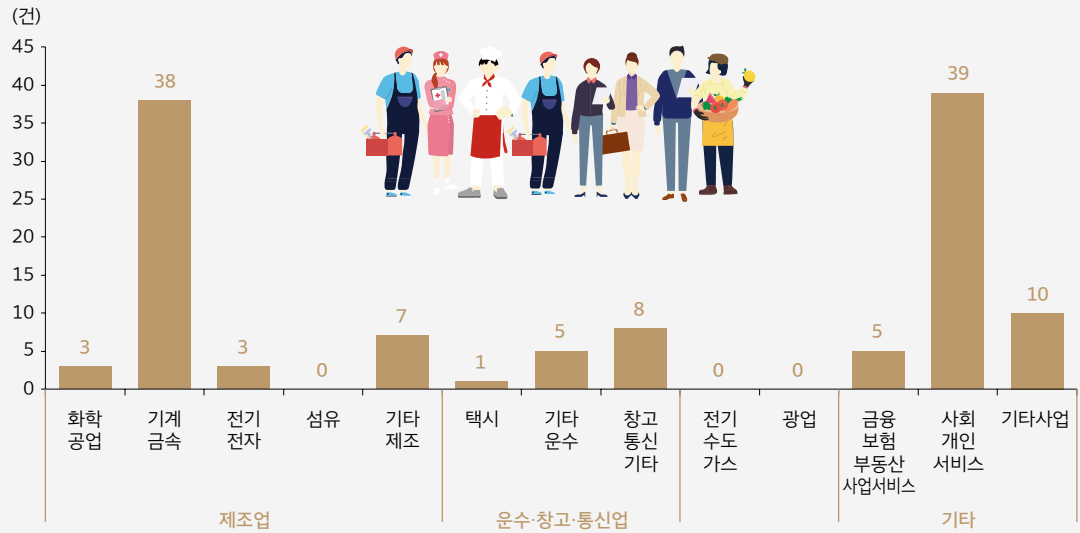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 업종별 노사분규건수

2021년 업종별 노사분규건수는 사회·개인서비스업(39건)과 기계·금속업(38건)이 가장 많았다.

기계금속업은 전년대비 노사분규건수가 10건(최대) 증가했다.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



(단위: 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65	105	72	111	105	120	101	134	141	105	119
제조업	22	46	24	45	47	40	45	55	52	40	51
화학공업	1	2	1	4	6	1	5	1	1	4	3
기계·금속	13	30	19	28	27	33	26	43	32	28	38
전기·전자	0	1	3	3	2	2	0	0	2	3	3
섬유	0	1	0	0	0	0	0	0	0	1	0
기타제조	8	12	1	10	12	4	14	11	17	4	7
운수·창고·통신업	11	13	10	10	10	16	15	24	22	14	14
택시	6	0	0	1	0	2	1	0	1	0	1
기타운수	3	11	6	9	10	14	7	24	12	10	5
창고·통신·기타	2	2	4	0	-	0	7	0	9	4	8
전기·수도·가스	1	2	0	0	0	1	0	0	1	0	0
광업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31	0	0	0	0	0	0	55	66	51	54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4	7	2	6	2	12	2	0	4	0	5
사회·개인서비스	21	35	32	39	36	39	20	44	48	39	39
기타사업	6	2	4	11	10	12	19	11	14	12	10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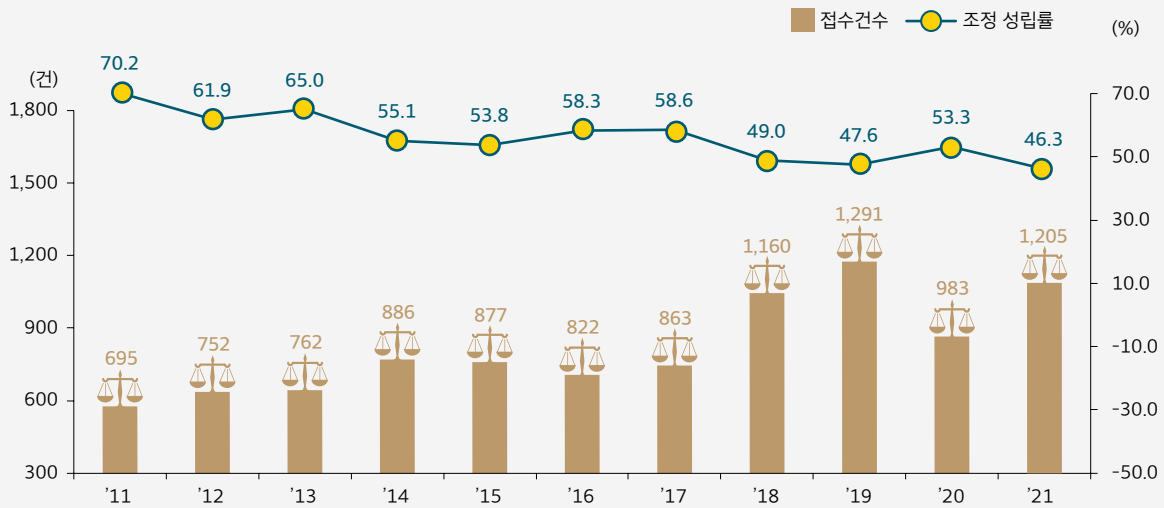
### 3. 노사분쟁 사건

#### 조정사건

조정사건 접수는 2020년 98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1,205건)에는 2018년~2019년 수준(1천건 상회)으로 증가했다.

반면, 조정 성립률은 46.3%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조정사건



(단위: 건, %)

연도	접수	처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소계 (A)	합의 취하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1	695	681	405	153	252	172	68	104	52	52	0	14	70.2
'12	752	741	394	179	215	243	92	151	38	66	0	11	61.9
'13	762	739	414	252	162	223	71	152	34	68	0	23	65.0
'14	886	864	401	169	232	327	43	284	45	91	0	22	55.1
'15	877	858	382	148	234	328	51	277	42	106	0	19	53.8
'16	822	796	410	161	249	293	32	261	14	79	0	26	58.3
'17	863	839	443	188	255	313	47	266	16	67	0	24	58.6
'18	1,160	1,130	503	209	294	524	37	487	17	86	0	30	49.0
'19	1,291	1,244	527	198	329	581	39	542	27	109	0	42	47.6
'20	983	957	454	170	284	397	19	378	14	92	0	26	53.3
'21	1,205	1,169	482	198	284	559	33	526	18	110	0	33	46.3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건수 / (조정성립건수 + 조정불성립건수) × 100, 성립건수 = 조정안수락건수 + 지도합의건수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사건

(단위: 건, %)

	접수	처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1	62	61	24	11	13	26	7	19	6	5	0	1	48.0
'12	64	63	28	9	19	30	16	14	2	3	0	1	48.3
'13	75	70	27	11	16	38	21	17	2	3	0	5	41.5
'14	107	103	27	8	19	62	10	52	3	11	0	4	30.3
'15	119	116	41	14	27	53	10	43	5	17	0	3	43.6
'16	110	110	35	17	18	67	10	57	3	5	0	0	34.3
'17	98	97	40	18	22	47	8	39	3	7	0	1	46.0
'18	134	131	44	16	28	75	6	69	2	10	0	3	37.0
'19	165	162	49	24	25	95	4	91	7	11	0	3	34.0
'20	109	103	34	15	19	52	2	50	4	13	0	6	39.5
'21	168	161	34	21	13	103	8	95	4	20	0	7	24.8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단위: 건, %)

	접수	처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1	633	620	381	142	239	146	61	85	46	47	0	13	72.3
'12	688	678	366	170	196	213	76	137	36	63	0	10	63.2
'13	687	669	387	241	146	185	50	135	32	65	0	18	67.7
'14	779	761	374	161	213	265	33	232	42	80	0	18	58.5
'15	758	742	341	134	207	275	41	234	37	89	0	16	55.4
'16	712	686	375	144	231	226	22	204	11	74	0	26	62.4
'17	765	742	403	170	233	266	39	227	13	60	0	23	60.2
'18	1,026	999	459	193	266	449	31	418	15	76	0	27	50.6
'19	1,126	1,082	478	174	304	486	35	451	20	98	0	39	49.6
'20	874	854	420	155	265	345	17	328	10	79	0	20	54.9
'21	1,037	1,008	448	177	271	456	25	431	14	90	0	26	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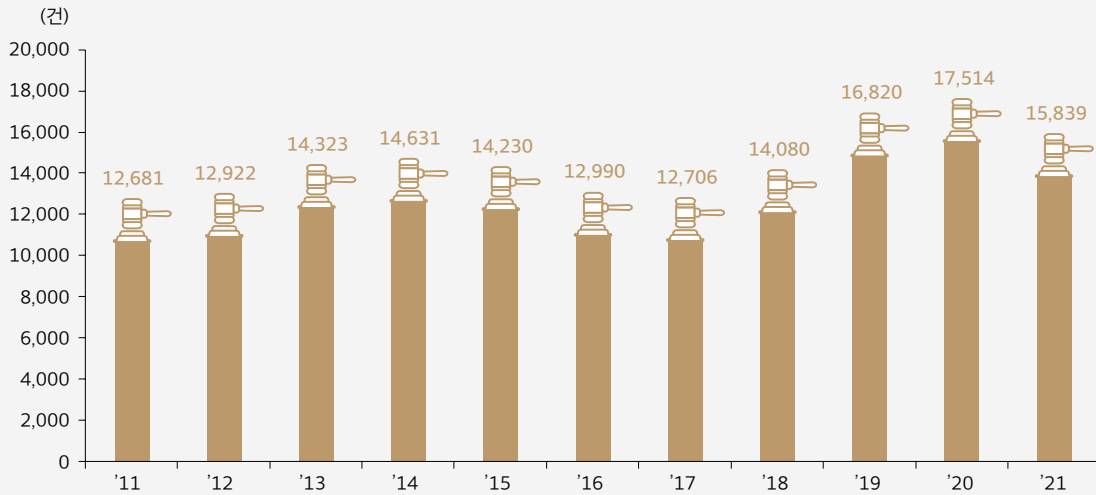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 심판사건

심판사건은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21년 15,839건으로 감소했다.(-9.6%)

### 심판사건



(단위: 건)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1	12,681	11,418	967	149	2,601	620	3,438	3,643	1,263
'12	12,922	11,352	1,040	209	1,993	614	3,589	3,907	1,570
'13	14,323	12,769	1,095	255	1,989	757	4,396	4,277	1,554
'14	14,631	13,068	1,172	255	2,130	756	5,185	3,570	1,563
'15	14,230	12,489	1,347	233	2,005	844	4,923	3,137	1,741
'16	12,990	11,381	1,453	232	1,984	792	4,229	2,691	1,609
'17	12,706	11,104	1,248	193	1,919	760	3,916	3,068	1,602
'18	14,080	12,205	1,388	214	2,098	823	4,075	3,607	1,874
'19	16,820	14,816	1,783	175	2,770	920	5,197	3,971	2,041
'20	17,514	15,243	1,678	215	3,113	855	5,348	4,034	2,246
'21	15,839	13,960	1,723	239	3,087	746	4,509	3,656	1,885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단위: 건)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1	2,320	2,073	290	56	1,192	109	370	56	247
'12	1,901	1,304	274	32	542	126	280	50	597
'13	2,052	1,707	309	135	669	181	319	94	345
'14	1,969	1,562	309	81	571	128	363	110	407
'15	2,089	1,636	371	100	533	182	358	92	453
'16	2,167	1,748	421	86	513	178	410	140	419
'17	1,967	1,636	358	81	591	193	277	136	331
'18	2,039	1,575	317	71	583	189	257	158	464
'19	2,497	2,034	449	58	801	188	324	214	464
'20	2,731	2,165	435	75	960	167	334	194	561
'21	2,583	2,184	521	94	967	144	274	184	39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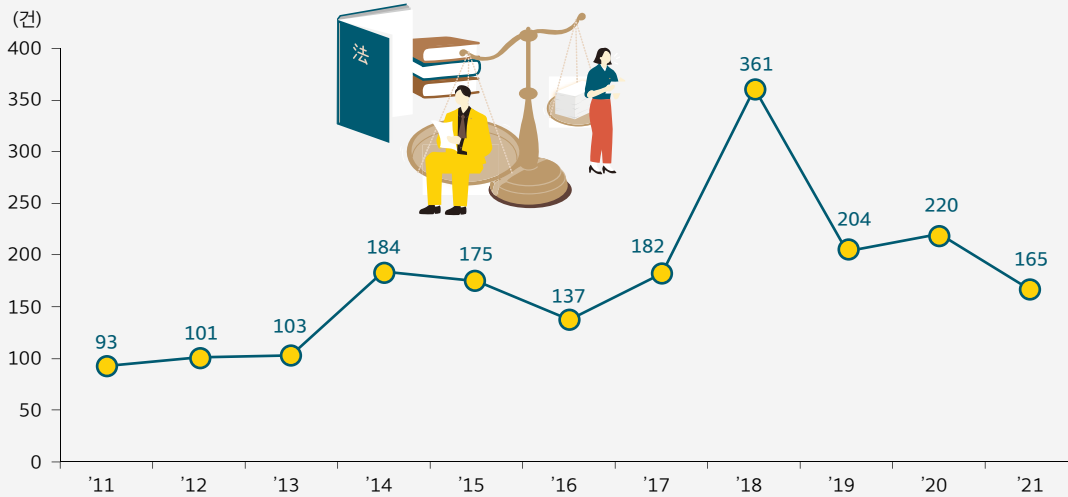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1	10,361	9,345	677	93	1,409	511	3,068	3,587	1,016
'12	11,021	10,048	766	177	1,451	488	3,309	3,857	973
'13	12,271	11,062	786	120	1,320	576	4,077	4,183	1,209
'14	12,662	11,506	863	174	1,559	628	4,822	3,460	1,156
'15	12,141	10,853	976	133	1,472	662	4,565	3,045	1,288
'16	10,823	9,633	1,032	146	1,471	614	3,819	2,551	1,190
'17	10,739	9,468	890	112	1,328	567	3,639	2,932	1,271
'18	12,041	10,630	1,071	143	1,515	634	3,818	3,449	1,410
'19	14,323	12,782	1,334	117	1,969	732	4,873	3,757	1,577
'20	14,783	13,078	1,243	140	2,153	688	5,014	3,840	1,685
'21	13,256	11,776	1,202	145	2,120	602	4,235	3,472	1,486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 차별시정사건

2021년 차별시정사건 접수건수는 165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55건)

###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연도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총계	전부시정	일부시정	기각	각하	조정성립	중재결정		취하
'11	93	88	37	4	8	4	20	0	15	5
'12	101	78	3	4	13	14	17	0	27	23
'13	103	99	8	15	13	6	20	0	37	4
'14	184	161	4	2	33	10	11	0	101	23
'15	175	138	19	18	26	3	18	0	54	37
'16	137	115	8	27	17	10	12	0	41	22
'17	182	155	12	53	13	13	18	0	46	27
'18	361	321	12	22	46	12	133	0	96	39
'19	204	170	10	30	30	20	32	0	49	33
'20	220	162	8	19	29	11	60	0	35	33
'21	165	122	9	26	20	7	13	0	47	42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총계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11	12	11	0	2	4	1	0	0	4	1
'12	15	13	1	1	7	4	0	0	0	2
'13	17	15	3	6	1	3	0	0	2	2
'14	15	11	1	1	4	0	4	0	1	4
'15	49	33	12	3	3	0	8	0	7	16
'16	39	32	3	15	6	3	1	0	4	7
'17	48	37	5	22	5	2	2	0	1	11
'18	64	46	7	6	16	5	0	0	12	17
'19	47	41	4	17	11	3	0	0	6	6
'20	41	23	2	8	6	4	0	0	3	15
'21	28	22	6	6	7	2	0	0	1	5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총계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11	81	77	37	2	4	3	20	0	11	4
'12	86	65	2	3	6	10	17	0	27	21
'13	86	84	5	9	12	3	20	0	35	2
'14	169	150	3	1	29	10	7	0	100	19
'15	126	105	7	15	23	3	10	0	47	21
'16	98	83	5	12	11	7	11	0	37	15
'17	134	118	7	31	8	11	16	0	45	16
'18	297	275	5	16	30	7	133	0	84	22
'19	157	129	6	13	19	17	32	0	43	27
'20	179	139	6	11	23	7	60	0	32	18
'21	137	100	3	20	13	5	13	0	4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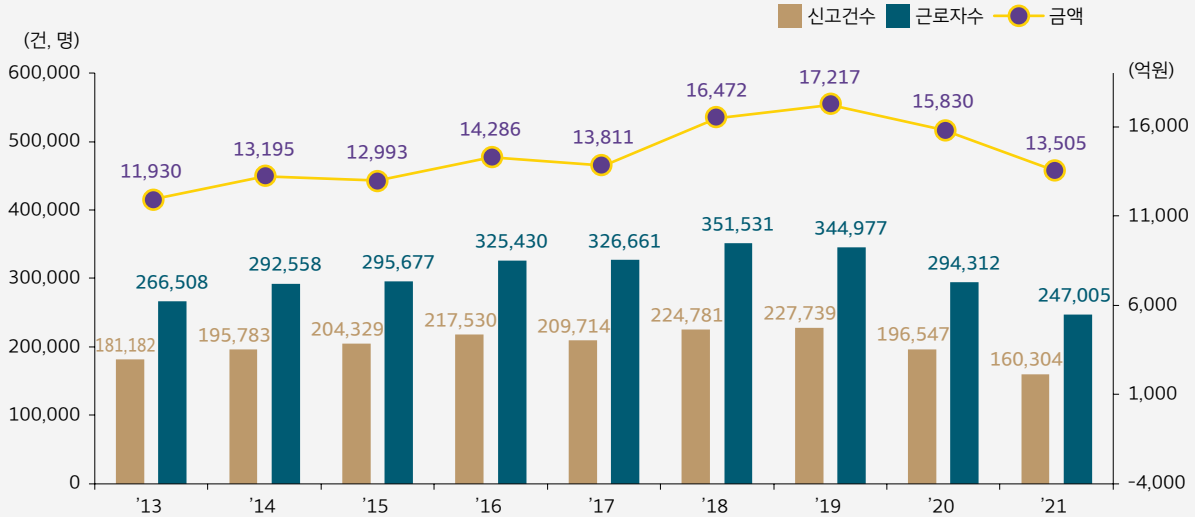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 4. 근로감독 현황

## 체불임금

체불임금 신고건수와 체불금액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다. 2021년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16만건, 근로자수는 24만 7천명, 금액은 1조3천억원 수준이다.

체불임금



체불임금 신고건수

(단위: 건, %)

연도	신고건수	처리			처리중
		합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3	181,182	175,041 (100.0)	114,064 (65.2)	60,977 (34.8)	6,141
'14	195,783	190,077 (100.0)	131,052 (68.9)	59,025 (31.1)	5,706
'15	204,329	197,393 (100.0)	141,171 (69.1)	56,222 (30.9)	6,936
'16	217,530	211,241 (100.0)	152,290 (72.1)	58,951 (27.9)	6,289
'17	209,714	202,215 (100.0)	149,464 (73.9)	52,751 (26.1)	7,499
'18	224,781	217,958 (100.0)	151,504 (69.5)	66,454 (30.5)	6,823
'19	227,739	222,618 (100.0)	150,798 (67.7)	71,820 (32.3)	5,121
'20	196,547	192,813 (100.0)	134,170 (69.6)	58,643 (30.4)	3,734
'21	160,304	157,864 (100.0)	111,001 (70.3)	46,863 (29.7)	2,440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 )는 처리대비 비중

### 체불임금 근로자수

(단위: 명, %)

	근로자수	처리						처리중
		합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3	266,508	257,842	(100.0)	157,644	(61.1)	100,198	(38.9)	8,666
'14	292,558	283,824	(100.0)	176,209	(62.1)	107,615	(37.9)	8,734
'15	295,677	284,534	(100.0)	178,926	(62.9)	105,608	(37.1)	11,143
'16	325,430	312,654	(100.0)	198,392	(63.5)	114,262	(36.5)	12,776
'17	326,661	312,338	(100.0)	203,902	(65.3)	108,436	(34.7)	14,323
'18	351,531	336,857	(100.0)	203,243	(60.3)	133,614	(39.7)	14,674
'19	344,977	336,019	(100.0)	203,374	(60.5)	132,645	(39.5)	8,958
'20	294,312	287,976	(100.0)	181,113	(62.9)	106,863	(37.1)	6,336
'21	247,005	242,541	(100.0)	157,782	(65.1)	84,759	(34.9)	4,464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 )는 처리대비 비중

### 체불임금 금액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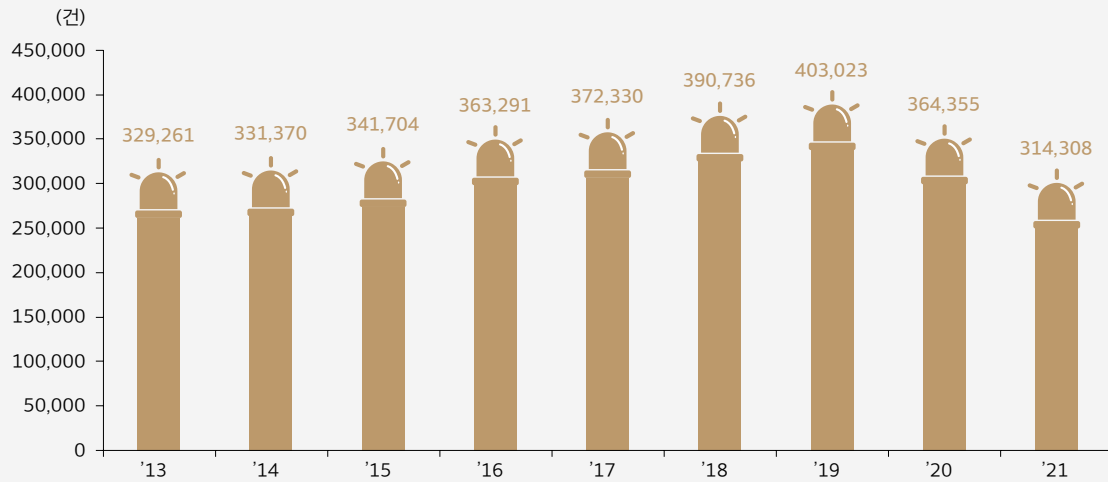
	금액	처리						처리중
		합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3	11,930	11,391	(100.0)	5,565	(48.9)	5,826	(51.1)	539
'14	13,195	12,716	(100.0)	6,452	(50.7)	6,264	(49.3)	479
'15	12,993	12,329	(100.0)	6,020	(48.8)	6,309	(51.2)	664
'16	14,286	13,489	(100.0)	6,866	(50.9)	6,623	(49.1)	797
'17	13,811	12,890	(100.0)	6,751	(52.4)	6,139	(47.6)	921
'18	16,472	15,509	(100.0)	7,292	(47.0)	8,217	(53.0)	963
'19	17,217	16,561	(100.0)	8,260	(49.9)	8,301	(50.1)	656
'20	15,830	15,374	(100.0)	8,307	(54.0)	7,067	(46.0)	456
'21	13,505	13,141	(100.0)	7,403	(56.3)	5,738	(43.7)	364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 )는 처리대비 비중

## 신고사건

노동법위반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는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다. 2021년은 31만 4천건으로 전년대비 -13.7%(5만건) 감소했다.

### 신고사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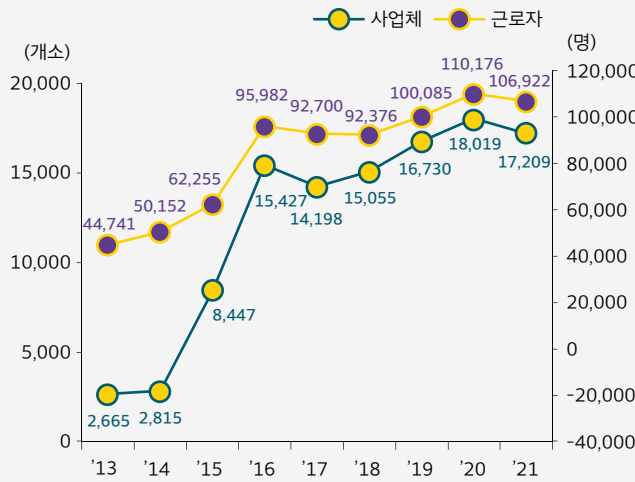
연도	접수	처리	행정종결		사법처리	
'13	329,261	334,007	244,844	(73.3)	89,163	(26.7)
'14	331,370	336,308	248,680	(73.9)	87,628	(26.1)
'15	341,704	343,731	259,611	(75.5)	84,120	(24.5)
'16	363,291	334,584	279,698	(76.3)	86,663	(23.7)
'17	372,330	374,006	294,525	(78.7)	79,481	(21.3)
'18	390,736	399,207	318,153	(79.7)	81,054	(20.3)
'19	403,023	417,708	335,764	(80.4)	81,944	(19.6)
'20	364,355	380,138	313,462	(82.5)	66,676	(17.5)
'21	314,308	322,994	271,119	(83.9)	51,875	(16.1)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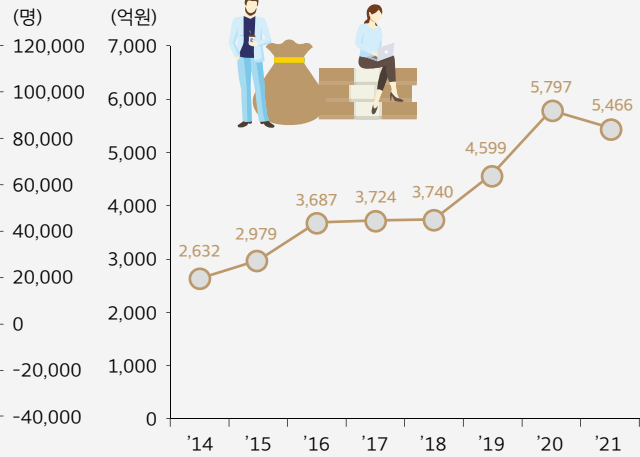
## 체당금

2021년 체당금 대상 근로자는 약 10.7만명이고 금액은 5천5백억원으로 체당금 대상 사업체, 근로자, 금액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체당금 사업체 및 근로자수



체당금 금액



(단위: 개소, 명, 억원)

	사업체	근로자	금액
'13	2,665	44,741	2,239
'14	2,815	50,152	2,632
'15	8,447	62,255	2,979
'16	15,427	95,982	3,687
'17	14,198	92,700	3,724
'18	15,055	92,376	3,740
'19	16,730	100,085	4,599
'20	18,019	110,176	5,797
'21	17,209	106,922	5,466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주) 2010년도 9월 통계부터 신규사업장 기준이 '사업장 관리번호'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연도별 자료(사업장 수 등) 일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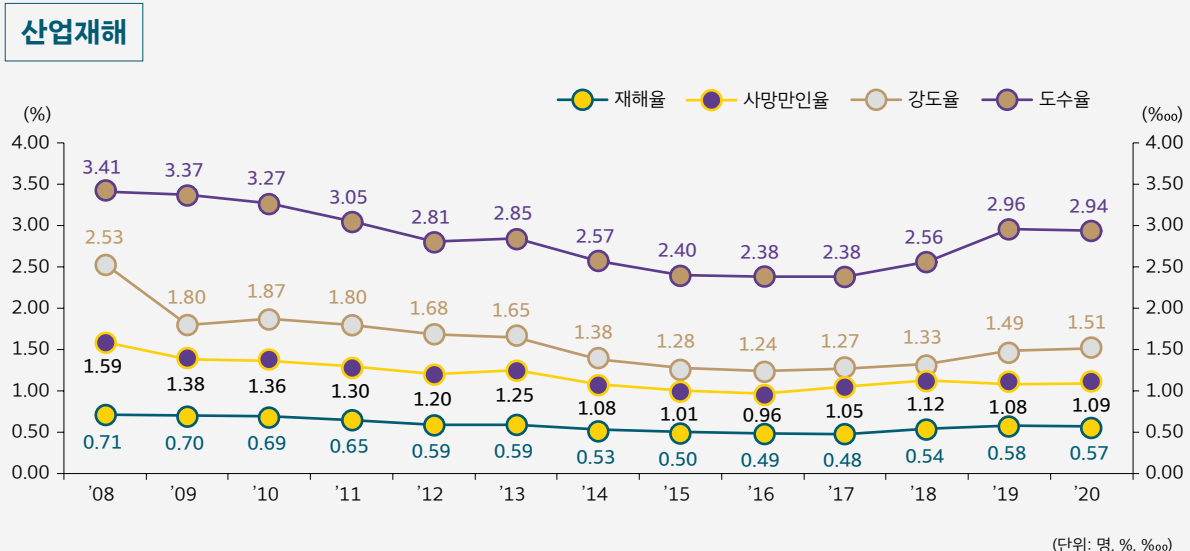
[www.moel.go.kr](http://www.moel.go.kr)

## 08 산업안전

# 1. 산업재해

## 산업재해 추이

2020년 재해자수는 10만8천명, 재해율은 0.57%이고 사망자는 2,062명이다. 전년에 비해 사망만인율, 강도율은 소폭 상승했으나 재해율, 도수율은 하락했다.



(단위: 명, %, ‰)

	대상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사망자	사망 만인율	강도율	도수율
'09	13,884,927 (2.93)	97,821 (2.1)	0.70	1,916 (-10.7)	1.38	1.80	3.37
'10	14,198,748 (2.26)	98,645 (0.8)	0.69	1,931 (0.8)	1.36	1.87	3.27
'11	14,362,372 (1.15)	93,292 (-5.4)	0.65	1,860 (-3.7)	1.30	1.80	3.05
'12	15,548,423 (8.26)	92,256 (-1.1)	0.59	1,864 (0.2)	1.20	1.68	2.81
'13	15,449,228 (-0.64)	91,824 (-0.5)	0.59	1,929 (3.5)	1.25	1.65	2.85
'14	17,062,308 (10.44)	90,909 (-1.0)	0.53	1,850 (-4.1)	1.08	1.38	2.57
'15	17,968,931 (5.31)	90,129 (-0.9)	0.50	1,810 (-2.2)	1.01	1.28	2.40
'16	18,431,716 (2.58)	90,656 (0.6)	0.49	1,777 (-1.8)	0.96	1.24	2.38
'17	18,560,142 (0.70)	89,848 (-0.9)	0.48	1,957 (10.1)	1.05	1.27	2.38
'18	19,073,438 (2.77)	102,305 (13.9)	0.54	2,142 (9.5)	1.12	1.33	2.56
'19	18,725,160 (-1.8)	109,242 (6.8)	0.58	2,020 (-5.7)	1.08	1.49	2.96
'20	18,974,513 (1.3)	108,379 (-0.8)	0.57	2,062 (2.1)	1.09	1.51	2.94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주) 재해율(%): 재해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사망만인율(‰): 연간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비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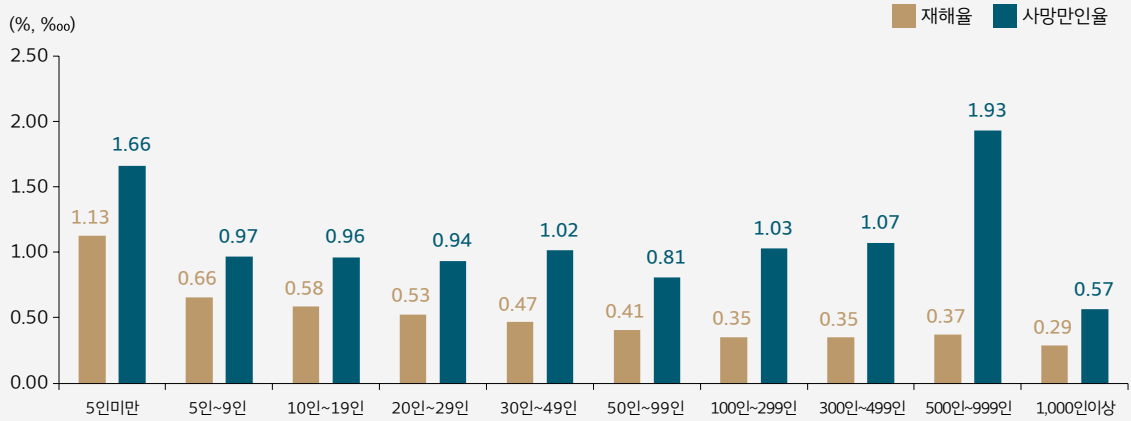
도수율: 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

강도율: 재해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 규모별 산업재해

2020년 300인미만 규모 사업장의 재해율(0.62%)이 300인이상 보다 약1.9배 높고, 사망만인율은 500~999인 규모가 1.93‰으로 가장 높다.

규모별 산업재해



(단위: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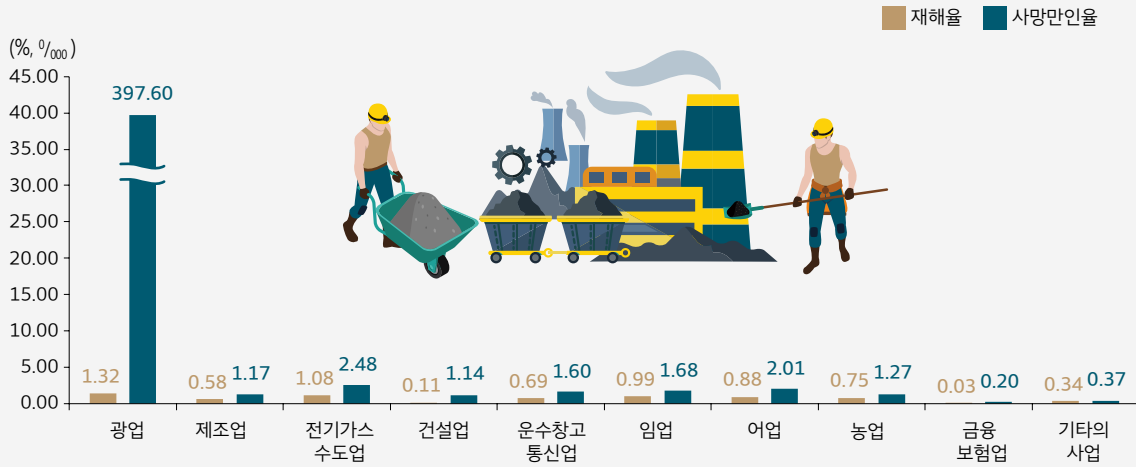
	대상 사업장수	대상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전체	2,719,308	18,974,513	108,379 (100.0)	0.57	2,062 (100.0)	1.09
300인미만	2,715,191	15,781,690	97,916 (90.3)	0.62	1,723 (83.6)	1.09
5인미만	2,001,222	3,005,960	33,862 (31.2)	1.13	500 (24.2)	1.66
5인~9인	362,138	2,354,605	15,480 (14.3)	0.66	228 (11.1)	0.97
10인~19인	193,785	2,577,249	15,066 (13.9)	0.58	248 (12.0)	0.96
20인~29인	65,750	1,561,488	8,224 (7.6)	0.53	146 (7.1)	0.94
30인~49인	47,506	1,779,557	8,278 (7.6)	0.47	181 (8.8)	1.02
50인~99인	29,076	1,979,709	8,073 (7.4)	0.41	160 (7.8)	0.81
100인~299인	15,714	2,523,122	8,933 (8.2)	0.35	260 (12.6)	1.03
300인이상	4,117	3,192,823	10,463 (9.7)	0.33	339 (16.4)	1.06
300인~499인	2,298	867,851	3,054 (2.8)	0.35	93 (4.5)	1.07
500인~999인	1,231	840,249	3,126 (2.9)	0.37	162 (7.9)	1.93
1,000인이상	588	1,484,723	4,283 (4.0)	0.29	84 (4.1)	0.57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 비중

## 업종별 산업재해

2020년 광업의 재해율이 1.32로 가장 높고 이어 전기가스수도업(1.08)과 임업(0.99) 순이다. 사망만인율 역시 광업이 가장 높다.

### 업종별 산업재해



(단위: 명, %, %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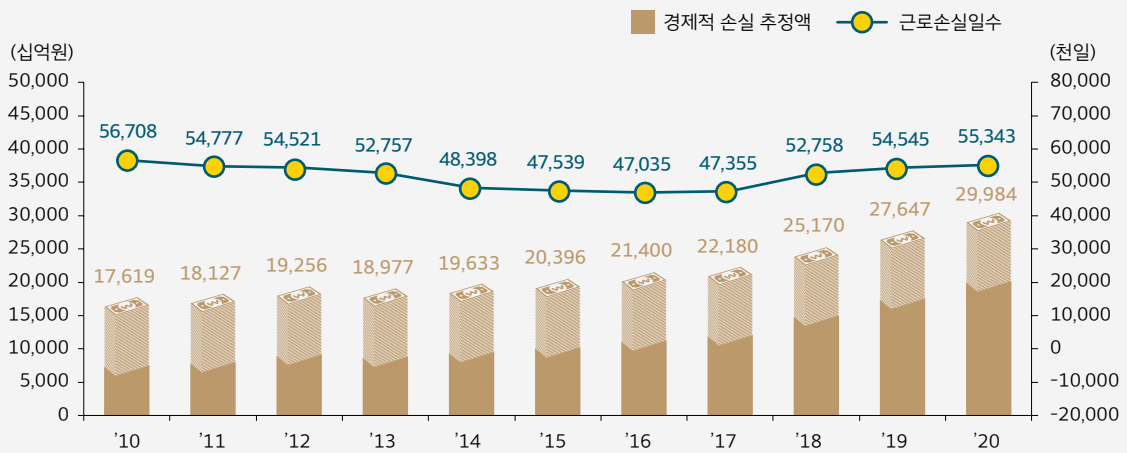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총계	2,719,308	18,974,513	92,383 (100.0)	0.49	2,062 (100.0)	1.09
광업	1,087	10,664	141 (0.2)	1.32	424 (20.6)	397.60
제조업	395,141	4,012,541	23,127 (25.0)	0.58	469 (22.7)	1.1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29,279	2,284,916	24,617 (26.6)	1.08	567 (27.5)	2.48
건설업	3,103	79,034	87 (0.1)	0.11	9 (0.4)	1.14
운수창고 및 통신업	87,059	936,449	6,504 (7.0)	0.69	150 (7.3)	1.60
임업	12,919	101,404	1,004 (1.1)	0.99	17 (0.8)	1.68
어업	1,898	4,973	44 (0.0)	0.88	1 (0.0)	2.01
농업	19,382	78,940	593 (0.6)	0.75	10 (0.5)	1.27
금융 및 보험업	42,858	782,173	258 (0.3)	0.03	16 (0.8)	0.20
기타사업	1,826,582	10,683,419	36,008 (39.0)	0.34	399 (19.4)	0.37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 비중

## 2. 경제적 손실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30조원으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부터 증가추세이다.

경제적 손실액 및 손실일수



(단위: 백만원, 일)

연도	경제적 손실액	경제적 손실액		근로 손실일수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	
'10	17,618,670	3,523,734	14,094,936	56,707,886
'11	18,126,985	3,625,397	14,501,588	54,776,539
'12	19,256,435	3,851,287	15,405,148	54,520,730
'13	18,977,170	3,795,434	15,181,736	52,757,034
'14	19,632,795	3,926,559	15,706,236	48,398,387
'15	20,395,540	4,079,108	16,316,432	47,538,877
'16	21,400,275	4,280,055	17,120,220	47,035,222
'17	22,180,190	4,436,038	17,744,152	47,355,044
'18	25,169,507	5,033,901	20,135,606	52,757,858
'19	27,646,799	5,529,360	22,117,440	54,544,623
'20	29,984,095	5,996,819	23,987,276	55,343,49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주) 경제적 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 간접손실액

간접손실액: 산재보상금 이외에 재해로 인한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액 등 재해로 인해 회사가 입는 유·무형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 총액

근로손실일수 =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못한 일수

##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

(단위: 명, 개소, %, %oo)

	'17년	'18년	'19년	'20년
사업장수	2,507,364	2,654,107	2,680,874	2,719,308
(전년대비)	(2.04)	(5.85)	(1.01)	(1.43)
근로자수	18,560,142	19,073,438	18,725,160	18,974,513
(전년대비)	(0.70)	(2.77)	(-1.83)	(1.33)
재해자수	89,848	102,305	109,242	108,379
(전년대비)	(-0.89)	(13.9)	(6.78)	(-0.79)
사망자수	1,957	2,142	2,020	2,062
(전년대비)	(10.13)	(9.5)	(-5.70)	(2.08)
부상자수	79,449	89,588	92,932	91,237
(전년대비)	(-2.57)	(25.79)	(3.73)	(-1.82)
업무상질병요양자수	8,190	10,302	14,030	14,816
(전년대비)	(15.87)	(12.76)	(36.19)	(5.60)
재해율(%)	0.48	0.54	0.58	0.57
(전년대비, %p)	(-2.03)	(0.06)	(0.04)	(-0.01)
사망만인율(%oo)	1.05	1.12	1.08	1.09
(전년대비, %ooP)	(0.09)	(0.07)	(-0.04)	(0.01)
경제적 손실액	21조 1,802억원	25조 1,695억원	27조 6,467억원	29조 9,841억원
(전년대비)	(3.64)	(13.48)	(9.84)	(8.45)
근로손실 일수(천일)	47,355	52,758	54,545	55,345
(전년대비)	(0.686)	(11.41)	(3.39)	(1.46)
도수율	2.38	2.56	2.96	2.94
(전년대비, %p)	(0.00)	(0.18)	(0.40)	(-0.02)
감도율	1.27	1.33	1.49	1.51
(전년대비, %p)	(0.03)	(0.06)	(0.16)	(0.02)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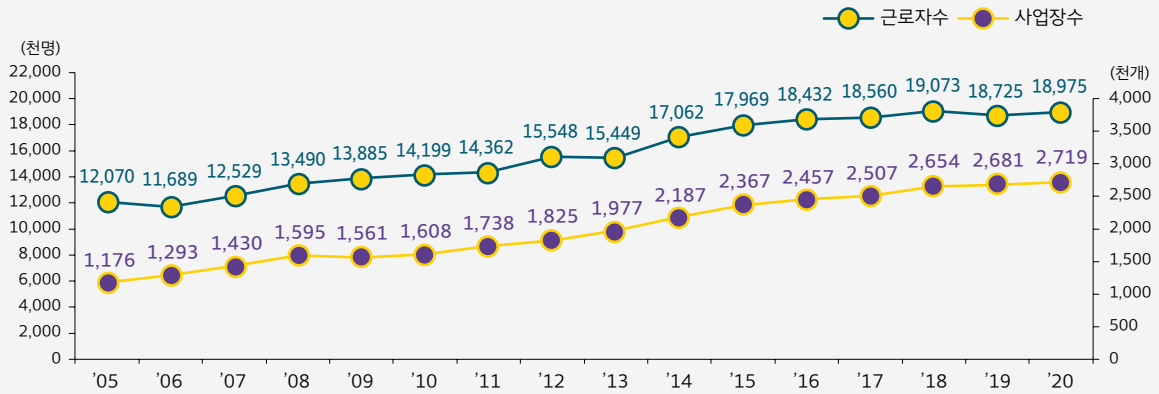
주) 사망자수는 사고사망자수와 재해사망자를 포함하며,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3.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와 근로자수,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적용근로자 및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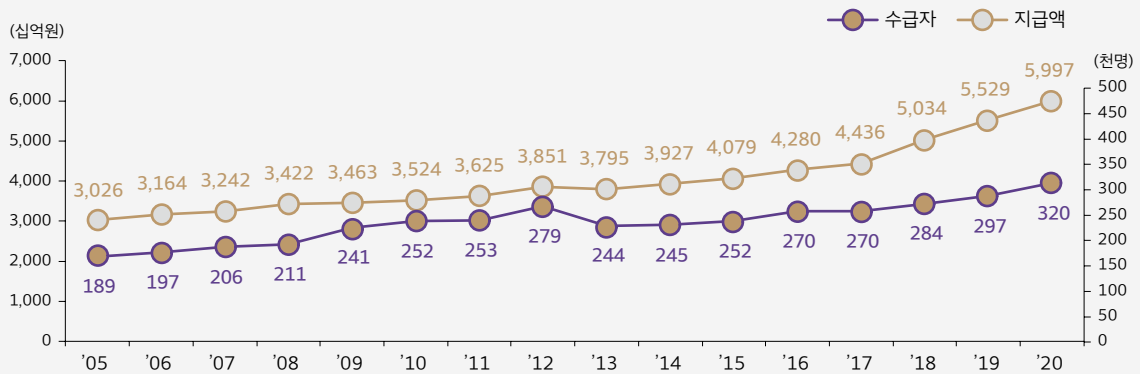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및 사업장수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 보험급여 지급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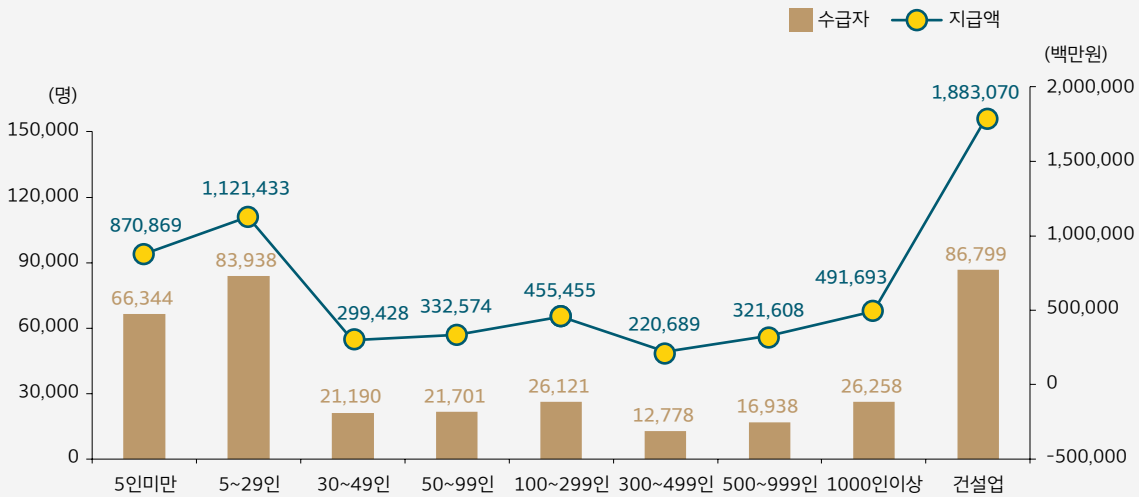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 규모별 보험급여 지급

5~29인 규모 사업체의 산재보험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장 많으며, 전년대비 증가했다.

규모별 산재보험료 지급액 및 수급자



(단위: 개소, 명, 건,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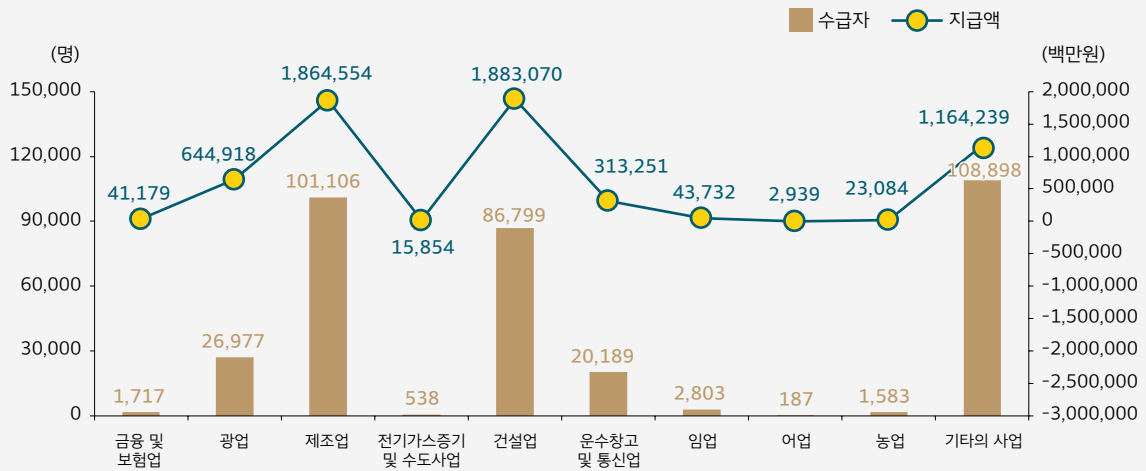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		지급건수		지급액	
합계	2,719,308	(1.4)	18,974,513	(1.3)	350,363	(9.4)	4,339,121	(15.6)	5,996,819	(8.5)
5인미만	1,737,848	(4.5)	2,665,310	(1.9)	66,344	(8.5)	725,733	(15.7)	870,869	(11.0)
5~29인	566,625	(1.9)	5,899,793	(2.2)	83,938	(8.7)	938,913	(14.8)	1,121,433	(7.4)
30~49인	43,138	(2.9)	1,616,058	(2.9)	21,190	(8.5)	231,693	(16.5)	299,428	(6.9)
50~99인	26,106	(3.0)	1,775,063	(3.1)	21,701	(9.9)	251,354	(14.9)	332,574	(5.7)
100~299인	13,141	(3.5)	2,084,145	(3.7)	26,121	(12.4)	311,734	(20.6)	455,455	(14.3)
300~499인	1,714	(2.5)	647,988	(2.8)	12,778	(9.2)	134,666	(8.2)	220,689	(-0.1)
500~999인	952	(3.9)	654,645	(4.6)	16,938	(14.0)	195,168	(14.7)	321,608	(10.1)
1000인이상	505	(6.8)	1,346,595	(4.2)	26,258	(20.1)	364,727	(36.7)	491,693	(16.2)
건설업	329,279	(-13.0)	2,284,916	(-8.2)	86,799	(6.4)	1,185,134	(10.6)	1,883,070	(6.4)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 ) 전년대비 증감률

##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

2020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수, 지급건수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지급액은 건설업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 산재보험료 지급액 및 수급자



(단위: 개소, 명, 건, 백만원, %)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	지급건수	지급액
합계	2,719,308 (1.4)	18,974,513 (1.3)	350,363 (9.4)	4,339,121 (15.6)	5,996,819 (8.5)
금융 및 보험업	42,858 (1.3)	782,173 (0.6)	1,717 (7.6)	20,869 (16.3)	41,179 (10.6)
광업	1,087 (0.5)	10,664 (-4.0)	26,977 (0.0)	312,955 (2.5)	644,918 (6.0)
제조업	395,141 (2.3)	4,012,541 (-0.8)	101,106 (7.4)	1,360,856 (16.7)	1,864,554 (9.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103 (10.3)	79,034 (3.1)	538 (3.5)	6,530 (9.3)	15,854 (10.0)
건설업	329,279 (-13.0)	2,284,916 (-8.2)	86,799 (6.4)	1,185,134 (10.6)	1,883,070 (6.4)
운수창고 및 통신업	87,059 (6.9)	936,449 (2.8)	20,189 (18.3)	244,446 (21.1)	313,251 (11.4)
임업	12,919 (5.1)	101,404 (10.6)	2,803 (3.8)	34,645 (7.4)	43,732 (9.1)
어업	1,898 (2.2)	4,973 (-2.9)	187 (1.1)	2,251 (-13.4)	2,939 (-5.6)
농업	19,382 (3.2)	78,940 (-0.7)	1,583 (6.5)	19,117 (19.5)	23,084 (13.5)
기타의 사업	1,826,582 (4.0)	10,683,419 (4.3)	108,898 (15.5)	1,152,318 (23.3)	1,164,239 (11.3)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 ) 전년대비 증감률



[www.moel.go.kr](http://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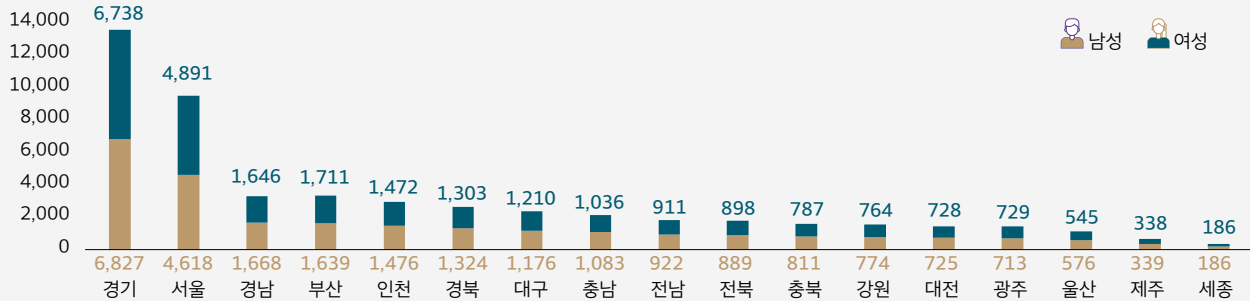
## 09 시도별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비교

# 1. 지역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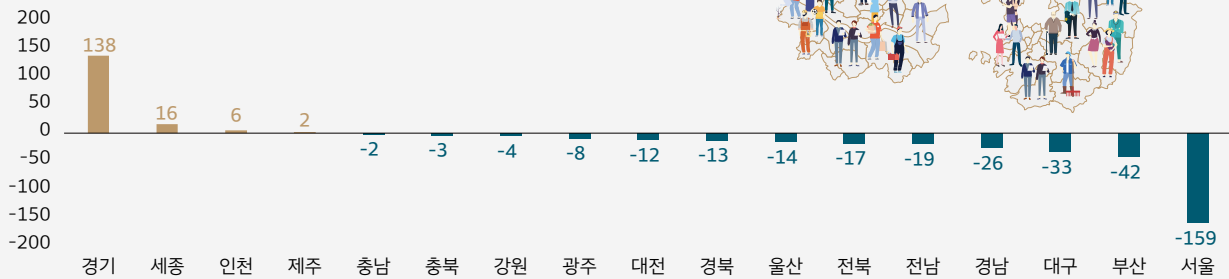
## 주민등록인구 현황(2021년, 행정안전부)

2021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64만명으로 최초작성년도인 1992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두 해 연속 감소하였다. '21년 경기, 세종, 인천, 제주의 인구는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이외 지역은 감소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11년부터 10년이상 인구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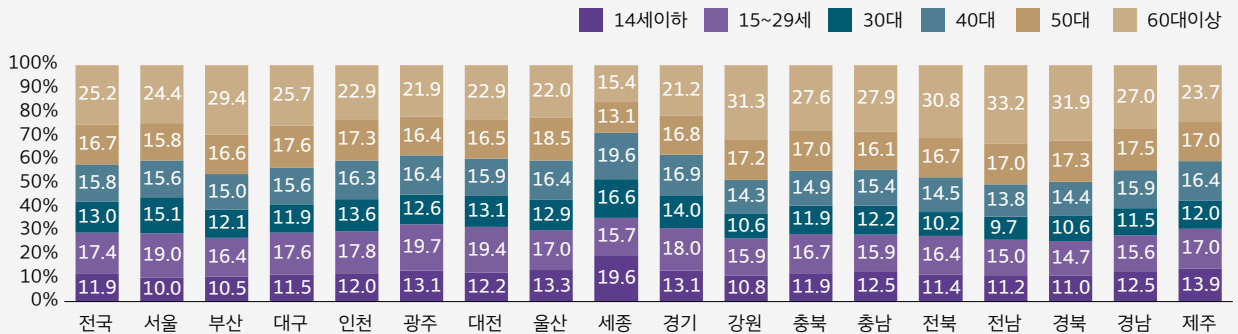
지역별 성별 주민등록인구(천명)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증감(천명, 전년대비)



지역 내 인구의 연령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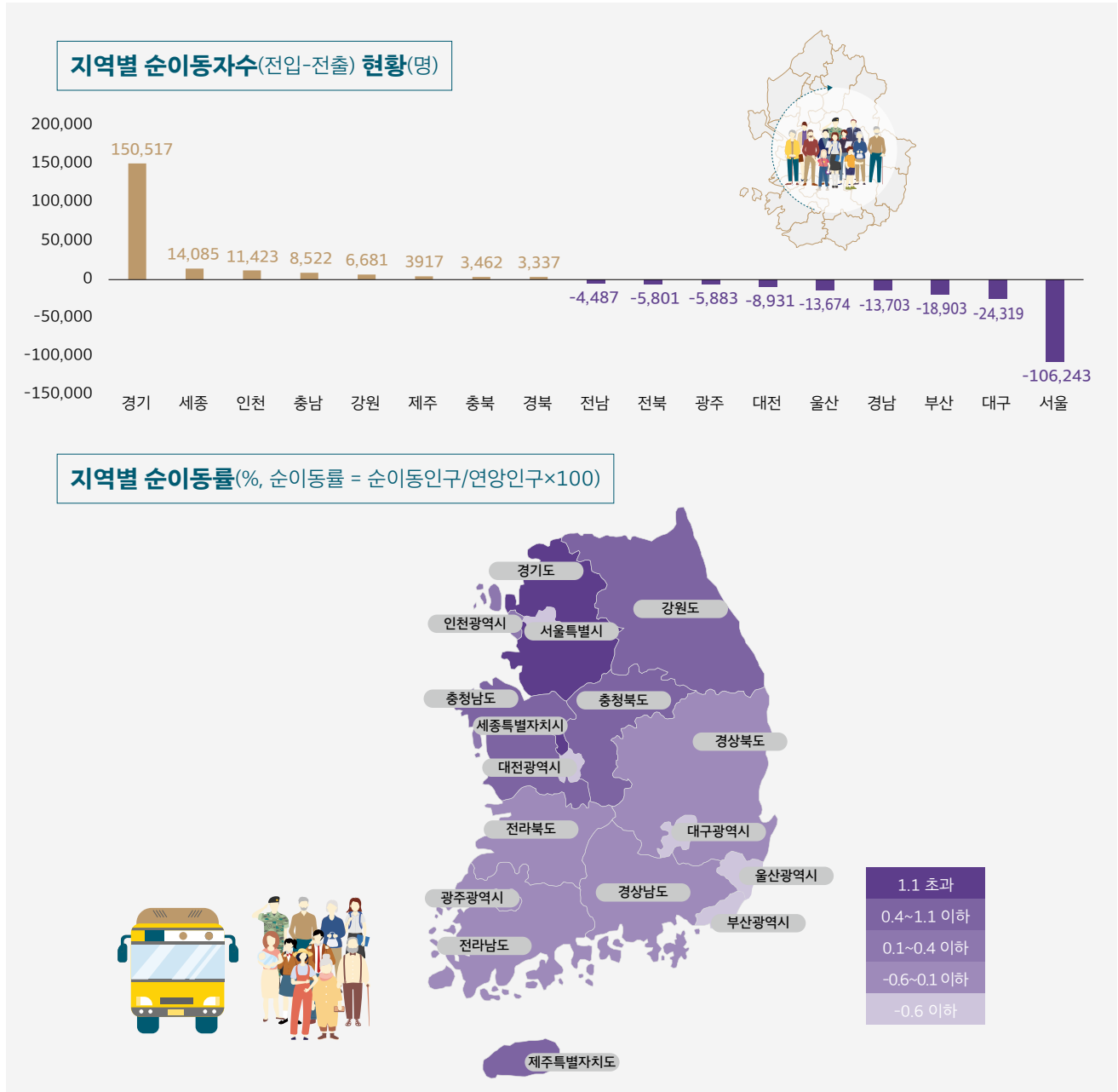
+ 지역 내 인구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51.4%)이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세종, 대전의 여성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시(48.6%)의 여성 비율이 가장 낮았다.

+ 청년 비율은 광주(19.7%), 대전(19.4%), 서울(19.0%) 등 특광역시 상대적으로 높았고, 60대이상 비율은 전남(33.2%), 경북(31.9%), 강원(3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은 특광역시 중 60대이상 비율(29.4%)이 가장 높고,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15.7%) 비율이 60대이상(15.4%) 비율보다 높았다.

## 2. 인구 이동 현황

### 국내인구이동통계(2021년, 통계청)

2021년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경기, 세종, 인천, 충남, 강원, 제주, 충북, 경북은 순유입(전입>전출)이 발생했고, 서울, 대구, 부산 등 9개 시도는 순유출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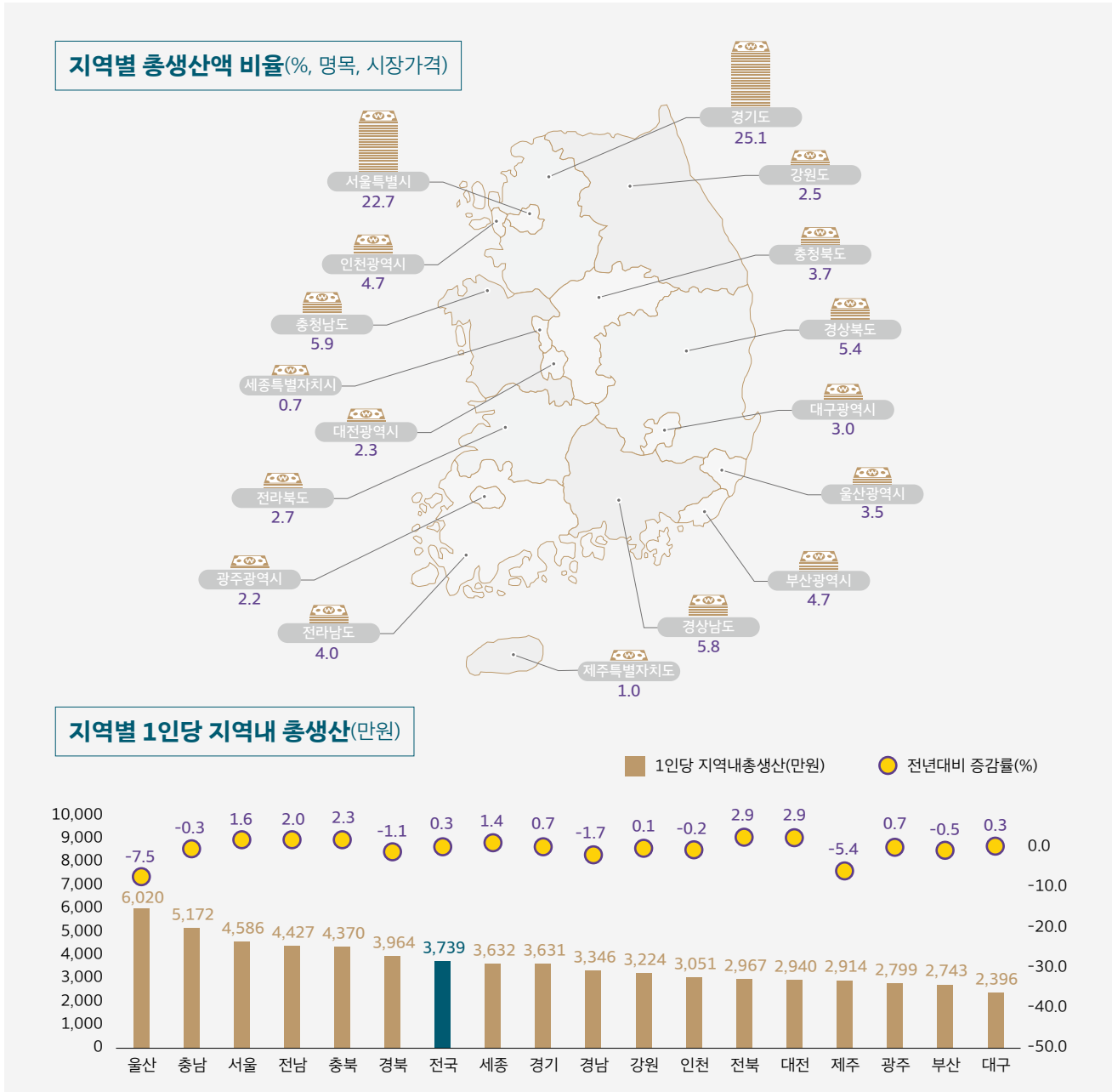


- + 순유출인구가 -10만6천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은 주택난, 직장이동 등으로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제주, 충남으로 인구유출이 발생한 반면, 이외 지역으로부터 통근·통학을 위한 유입이 발생했다.
- + 세종시의 순이동률은 3.9%로 전국에서 순유입이 가장 높으나 2015년 29.0%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세종이외로는 경기, 강원, 충북·충남, 제주도에서 인구 순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 3. 지역내총생산 (GDP)

#### 지역소득(2020년, 통계청)

2020년 전국 총생산은 1,936조원으로 경기(487조원)와 서울(440조원)이 절반에 가까운 47.9%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총생산 성장률(잠정)은 +0.4%로 외환위기(1998년 -0.7%)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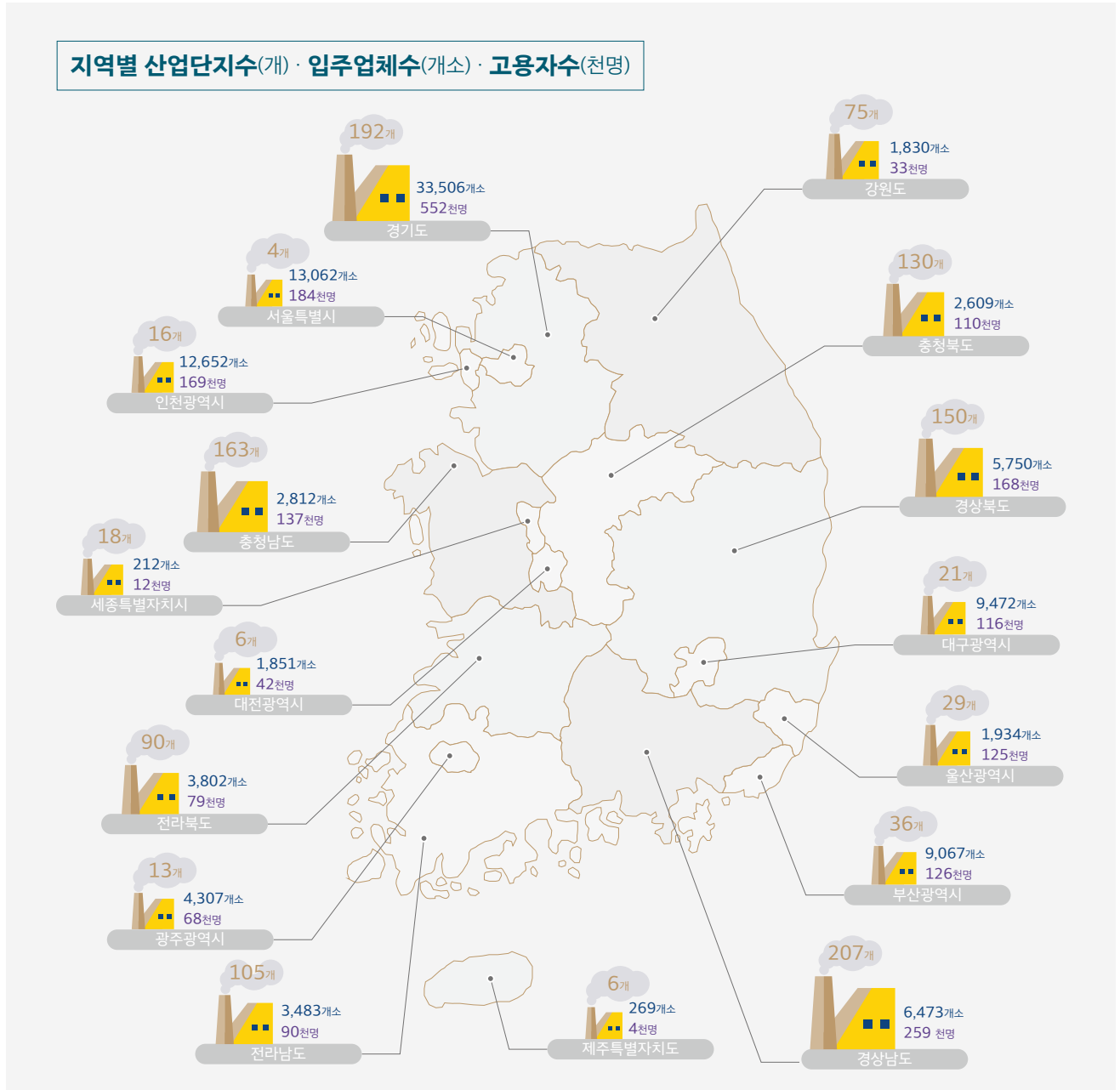
+ 산업별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숙박음식, 문화 및 기타서비스, 운수창고, 도소매업, 교육서비스, 제조업 부문 생산액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정보통신, 금융보험, 보건복지, 공공행정·국방등 부문에서 생산액이 증가했다.

+ 울산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6,02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전년대비 -7.5% 감소했다. 울산에 이어 충남, 서울, 전남, 충북, 경북 순이며, 6개 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평균(3,739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산업단지 분포 현황

### 전국 산업단지 시도별 현황(2021년, 한국산업단지공단)

2021년 4분기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1,257개로 11만3천개 사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 고용 규모는 227만2천명이다.



+ 지역별 산업단지수는 경남이 207개로 가장 많으나, 입주업체수는 경기(33,506개소), 서울(13,062개소), 인천(12,652개소) 등 수도권과 대구, 부산, 경남 등에 집중되어 있다.

+ 산업단지 내 고용자 규모는 경기(552천명), 경남(259천명), 서울(184천명), 인천(169천명), 경북(168천명), 충남(137천명) 등의 순으로 크며, 부산(+21천명), 경기(+13천명), 서울(+11천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고용자수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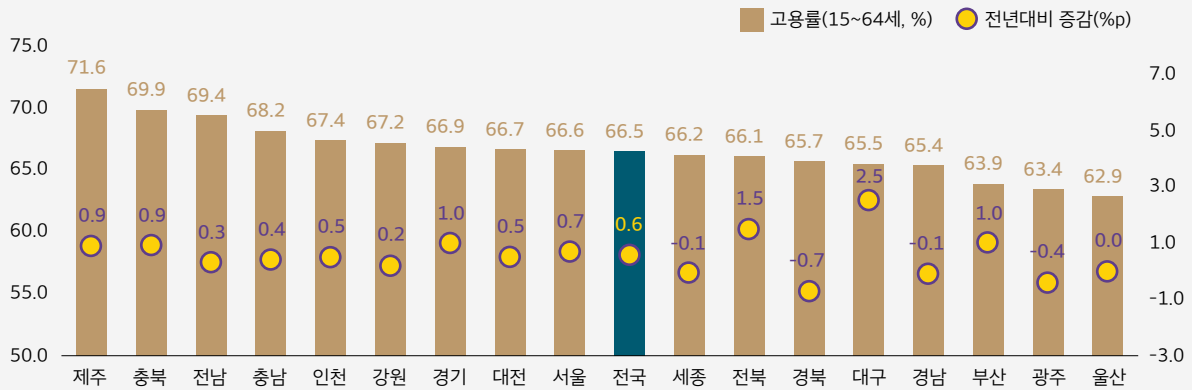


## 5.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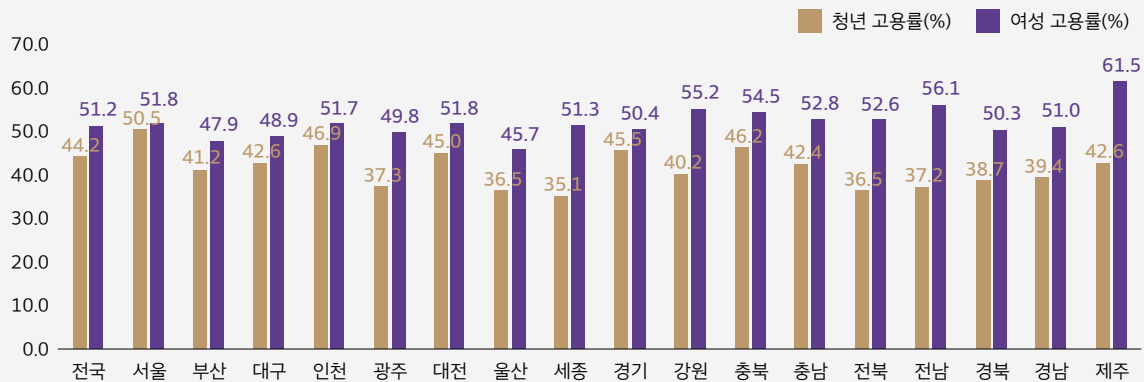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통계청)

2021년 전국 평균 고용률(15~64세)은 66.5%이며, 전년대비 0.6%p 상승했다. 제주의 고용률이 71.6%로 가장 높고,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과 수도권(인천, 경기, 서울)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15~64세 고용률(%) 및 전년대비 증감(%p)



지역별 여성 및 청년 고용률(%)



+ 경북(-0.7%p), 광주(-0.4%p), 세종(-0.1%p), 경남(-0.1%p)에서 전년대비 고용률이 하락했으나, 대구(+2.5%p), 전북(+1.5%p), 경기(+1.0%p), 부산(+1.0%p), 충북(+0.9%p)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하며 전국 평균 고용률(15~64세)은 +0.6%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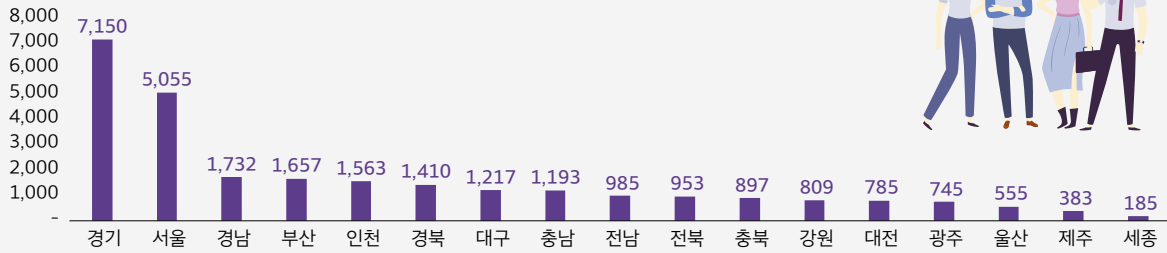
+ 여성 고용률은 제주, 전남, 강원, 충북, 충남 등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청년 고용률은 수도권과 충북,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6.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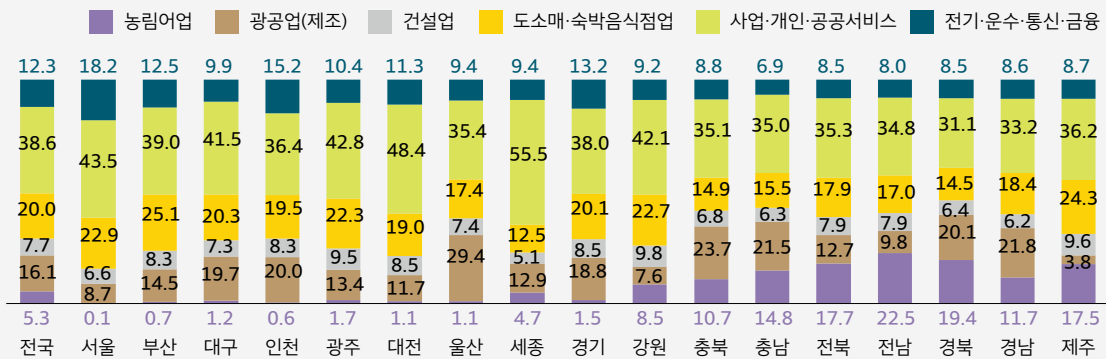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통계청)

2021년 취업자수는 2,727만 3천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지난해보다 경기(+241천명), 대구(+33천명), 전북(+20천명), 부산(+18천명) 등을 중심으로 36만9천명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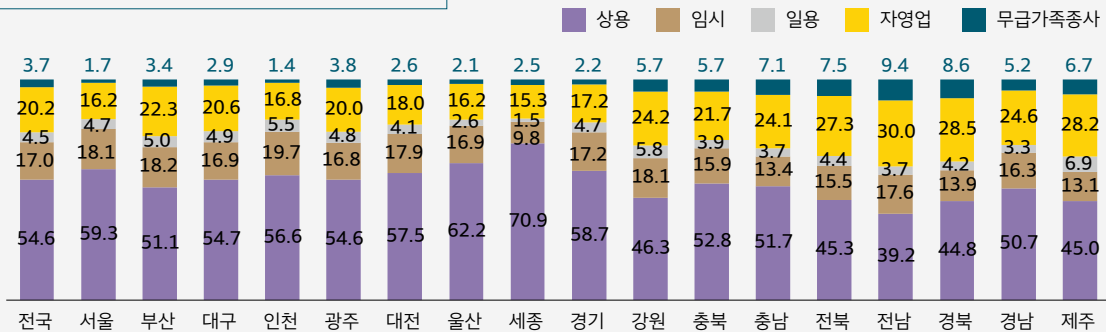
지역별 취업자수(천명)



지역별 취업자의 산업별 비율(%)



지역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율(%)



+ 취업자 중 제조업 비율(전국평균 16.0%)은 울산(29.4%), 충북(23.6%), 경남(21.8%), 충남(21.5%), 경북(20.1%), 인천(20.0%) 순으로 높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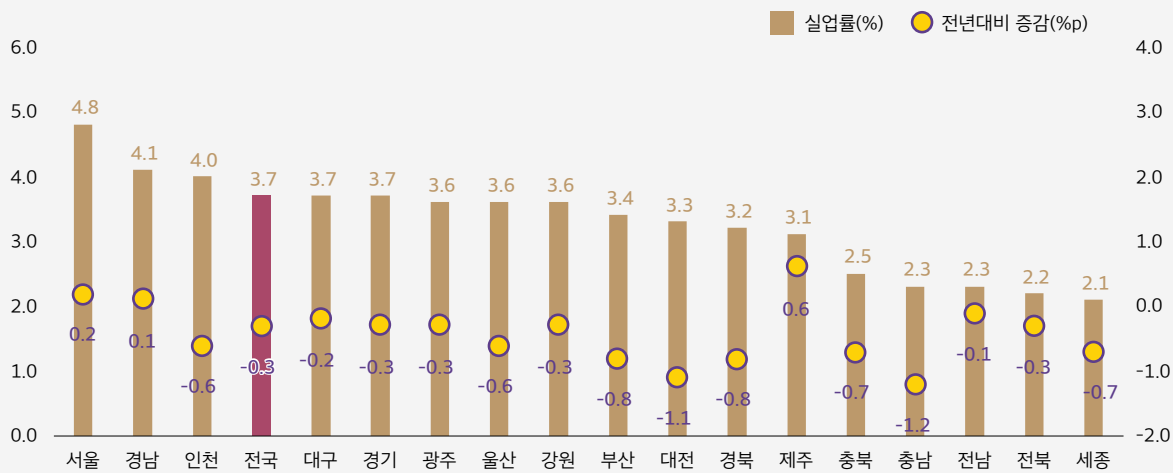
+ 취업자 중 종사상지위별 비율을 보면, 상용직은 공공행정 및 제조업 비율이 높은 세종(70.9%), 울산(62.2%), 서울(59.3%)에서, 임시·일용직은 인천(25.2%), 강원(23.8%), 부산(23.2%), 서울(22.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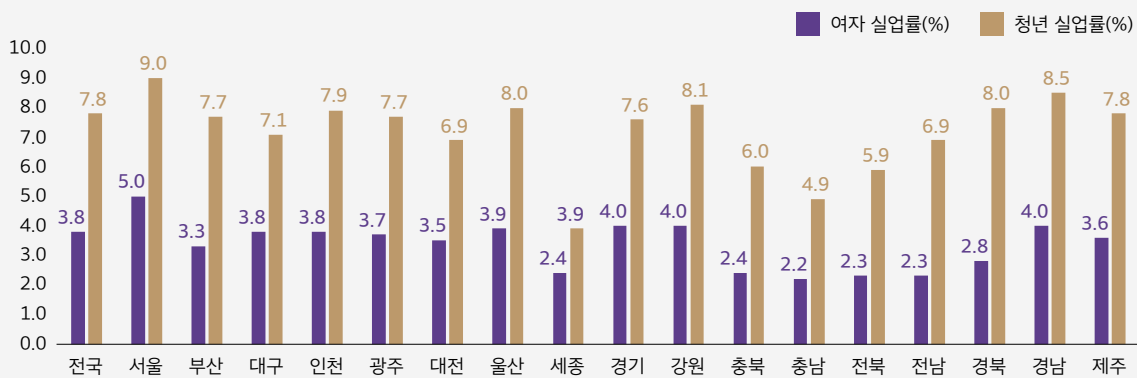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통계청)

2021년 전국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3%p 하락했으며, 서울(4.8%), 경남(4.1%), 인천(4.0%)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역별 실업률(%) 및 전년대비 증감(%p)



지역별 여성 및 청년 실업률(%)



+ 제주(+0.6%p), 서울(+0.2%p), 경남(+0.1%p)은 전년대비 실업률이 상승한 반면, 나머지 14개시도는 하락하였다.

+ '20년에 이어 2년 연속 여성 실업률이 남자를 상회했다.(남자 3.6%, 여자 3.8%)  
지역별로는 부산, 인천,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여성 실업률이 남자를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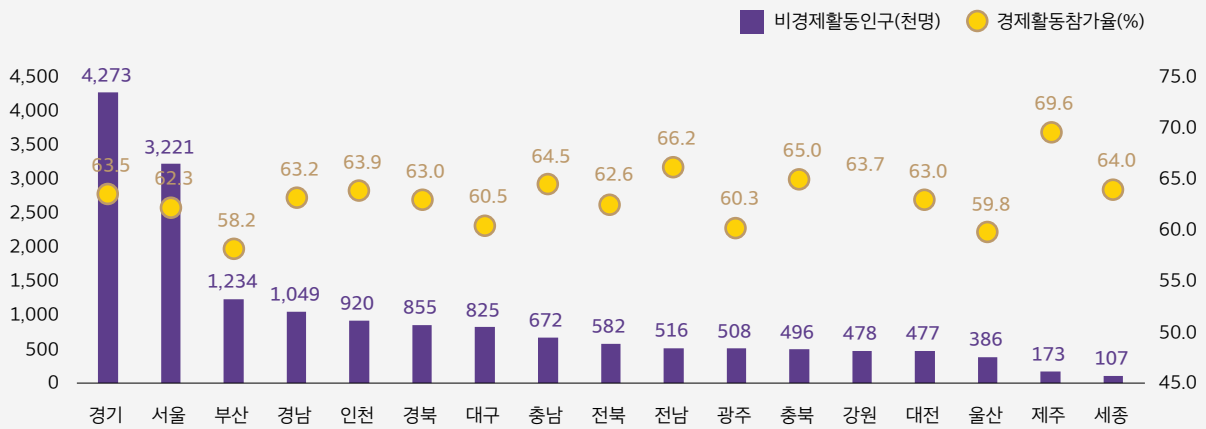
+ 청년 실업률(7.8%)은 전년대비 -1.2%p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1.0%p)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  
'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7개 시도 중 4개 시도(울산, 부산, 경북, 경남)의 청년 실업률이 10%를 초과했으나,  
'21년에는 서울 청년 실업률이 9.0%로 가장 높았다.

## 8.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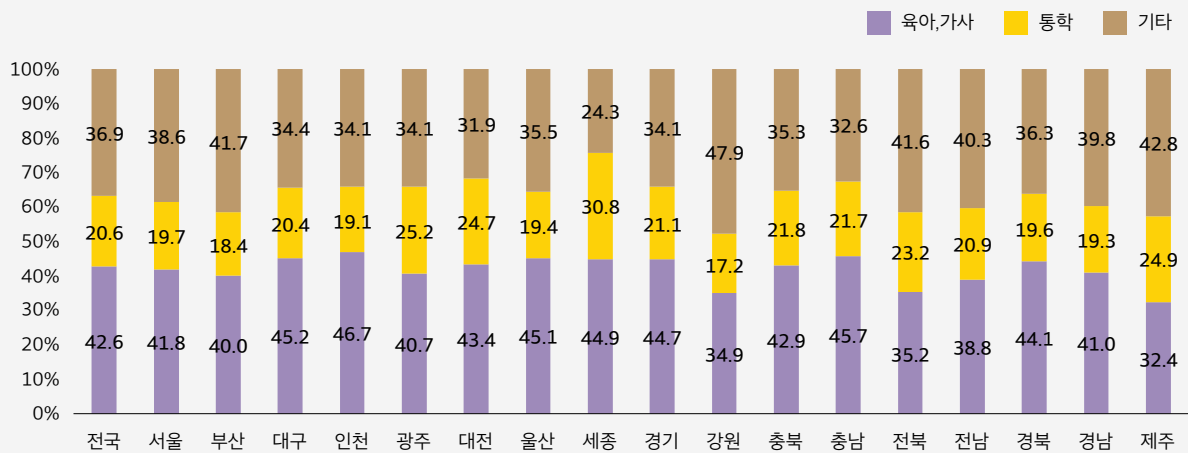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통계청)

2021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명으로 '18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다 소폭 감소 전환했다.(-3천명) 지역별로는 대구(-33천명), 전북(-18천명), 전남(-12천명)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202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다.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천명) 및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상태 비율(%)



+ 전북,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62.8%)보다 낮으며, 특히 울산(59.8%), 부산(58.2%)은 6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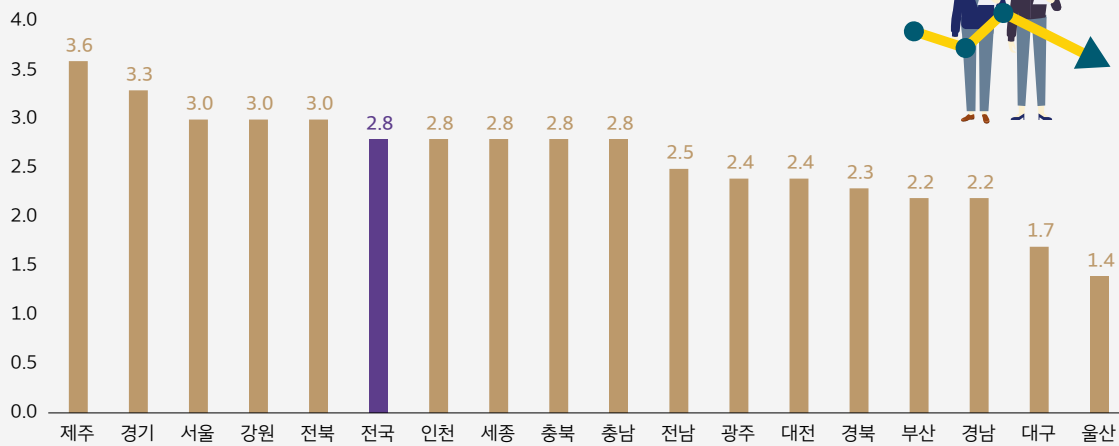
+ 대부분 지역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 비중이 40%를 상회하나, 강원(34.9%), 전북(35.2%), 전남(38.8%), 제주(32.4%)는 상대적으로 낮아 4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 9.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021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21년 하반기(10.1기준) 부족인원은 35만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만1천명(+51.0%) 증가하였고, 인력부족률도 2.8%로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했다. 채용계획인원은 39만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만3천명(+56.4%) 증가했다.

지역별 인력부족률(%), 인력부족률=[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지역별 채용계획인원(천명, '21.10 ~ '22.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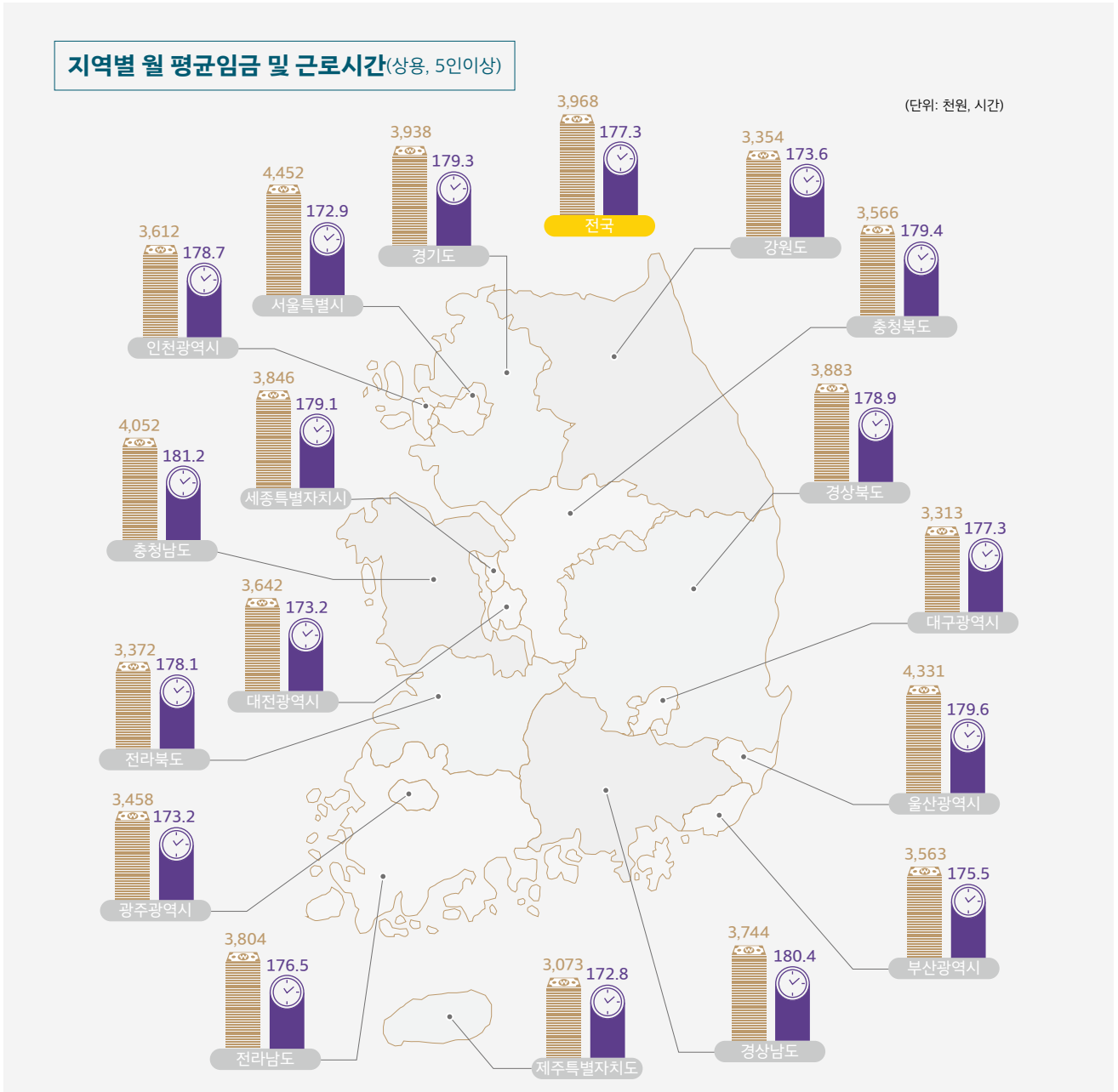
+ 전국적으로 농림어업직(4.5%)과 영업·판매·운전·운송직(4.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3.9%), 설치·정비·생산직(3.8%)의 부족률이 높은 가운데, 지역별로는 제주, 경기, 서울, 강원, 전북의 부족률이 전국 평균(2.8%)을 상회했다.

+ 지역별 채용계획인원은 서울(108천명)과 경기(103천명)가 전국의 53.1%를 차지하고, 이어 충남(23천명), 인천(19천명), 부산(19천명), 경남(18천명), 경북(15천명) 등의 순으로 규모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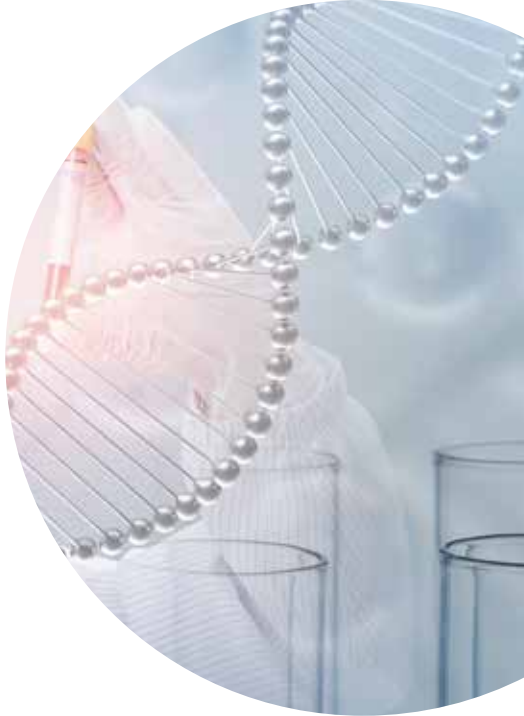
## 10. 근로조건

### 사업체노동력조사(2021년, 고용노동부)

2021년(4월기준) 상용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8천원이며, 근로시간은 177.3시간이다.



- + '21.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서울(4,452천원), 울산(4,331천원), 충남(4,052천원) 순으로 많고, 제주(3,073천원)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 +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은 충남(+8.1%), 서울(+6.5%) 순으로 높고, 전북(+1.4%), 충북(+1.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 '21.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충남(181.2시간), 경남(180.4시간) 순으로 길고, 제주(172.8시간), 서울(172.9시간) 순으로 짧다.
- +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근로시간은 제주(+19.3시간), 대구(+17.9시간)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충북(+10.7시간), 전남(+10.8시간) 순으로 적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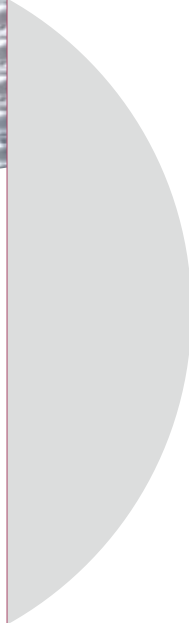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1년 기준

# 02

## 대상별 현황







[www.moel.go.kr](http://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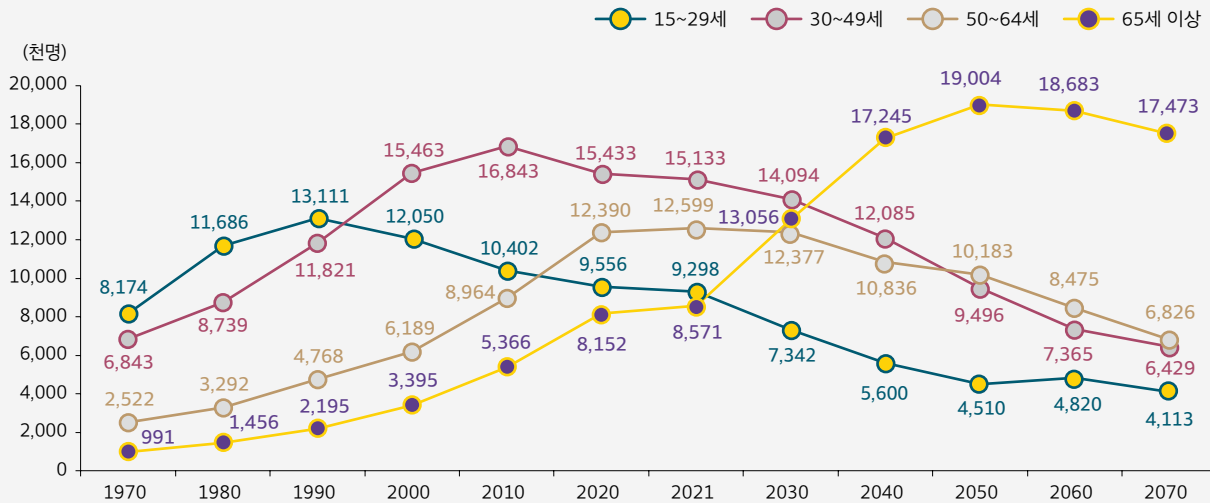
# 이 청년

#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 청년 인구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15~29세)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연령별 인구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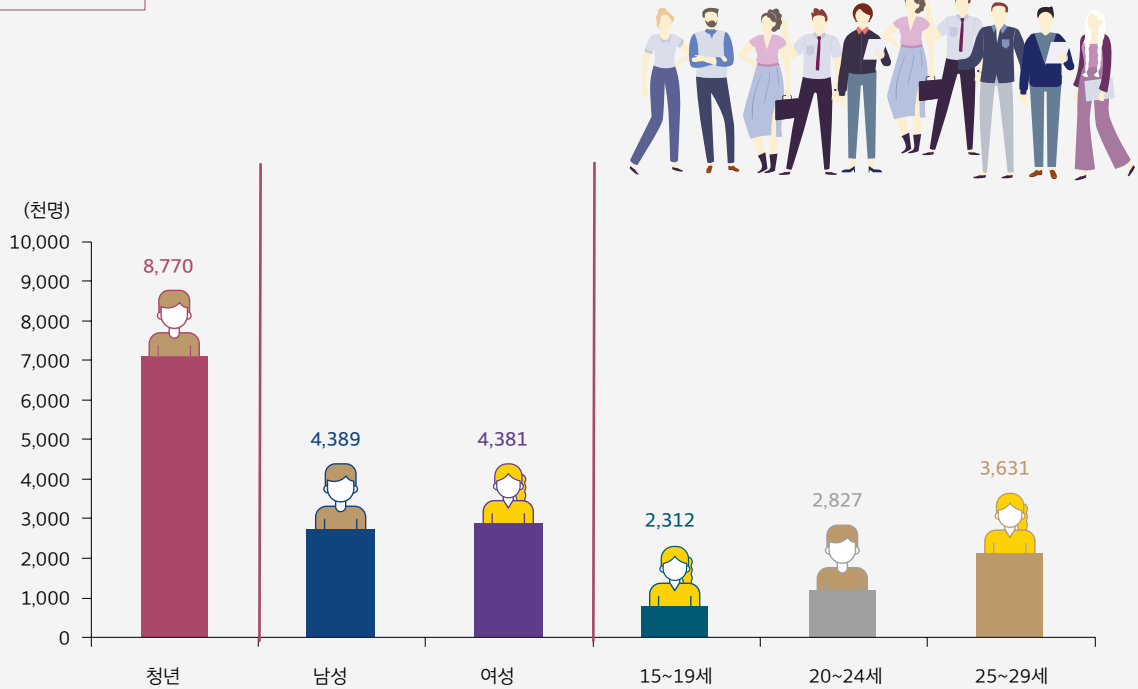
+ 1990년의 청년인구(13,111천명)를 100으로 한다면 '21년(9,298천명)은 70.9% 수준이고, '70년(4,113천명)에는 3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 노동력\*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인구는 8,770천명이고, 남녀 비중은 동일하다. 연령별로는 15~19세가 가장 적고 전년대비 감소폭도 가장 크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인구'는 「인구추계」의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 청년층 노동력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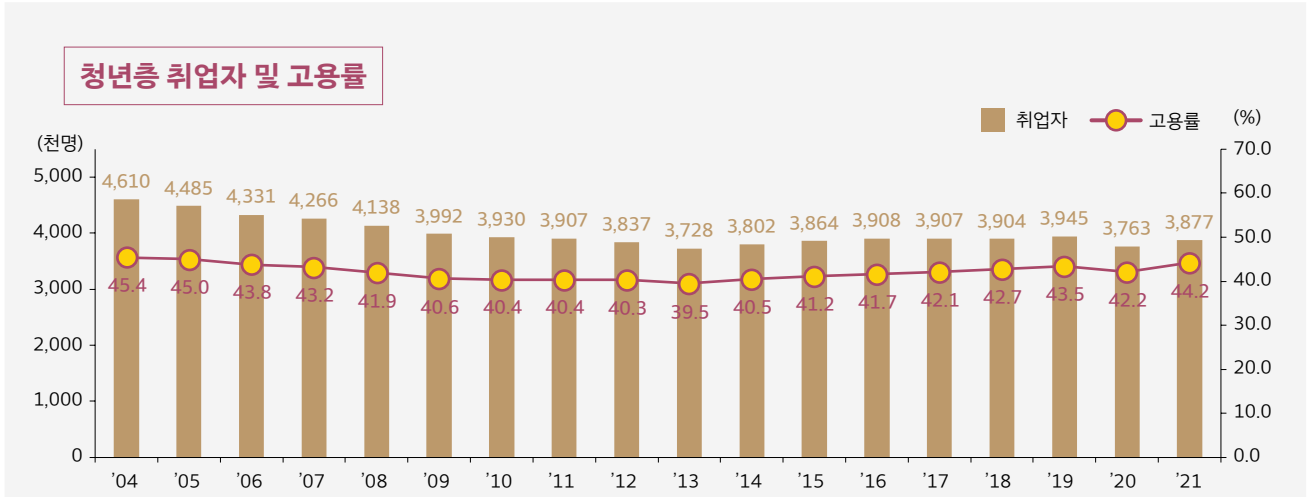
합계		남성	여성	15~19세	20~24세	25~29세
15~29세	8,770	4,389	4,381	2,312	2,827	3,631
	[-141]	[-66]	[-75]	[-141]	[-50]	[49]
	(100.0)	(50.0)	(50.0)	(26.4)	(32.2)	(4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1년), [ ] 전년대비 증감, ( ) 비중

## 2.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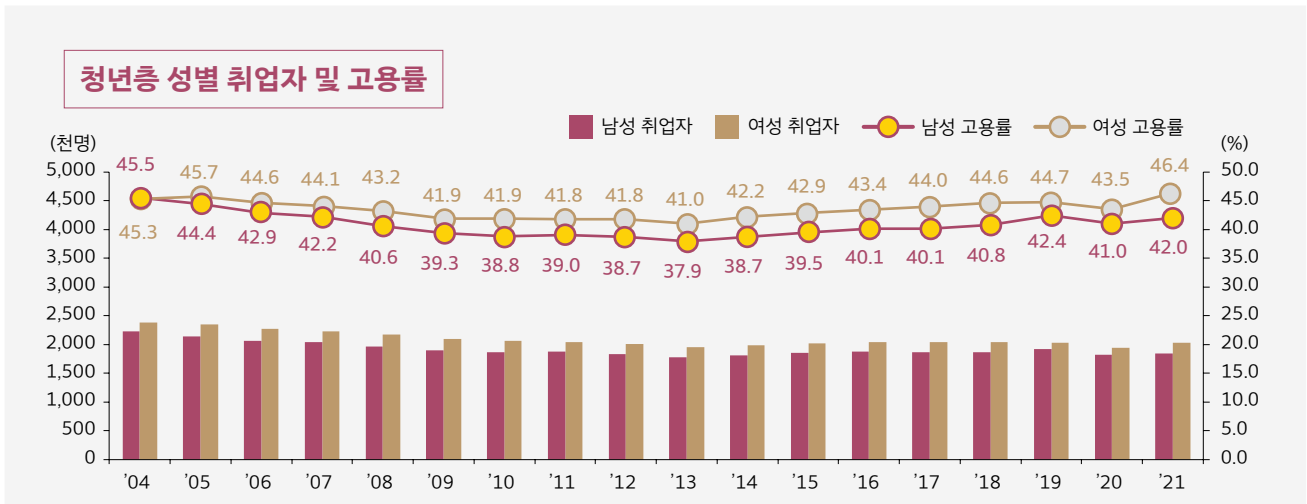
2021년 청년인구 중 취업자는 3,877천명이고 고용률은 44.2%이다.  
연도별로 청년고용률은 '13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감소로 전환 되었다 '21년 회복되면서 증가로 전환 하였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1년 청년층 남성 취업자는 1,844천명, 고용률은 42.0%이고 여성 취업자는 2,033천명, 고용률은 46.4%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남녀 모두 '21년 증가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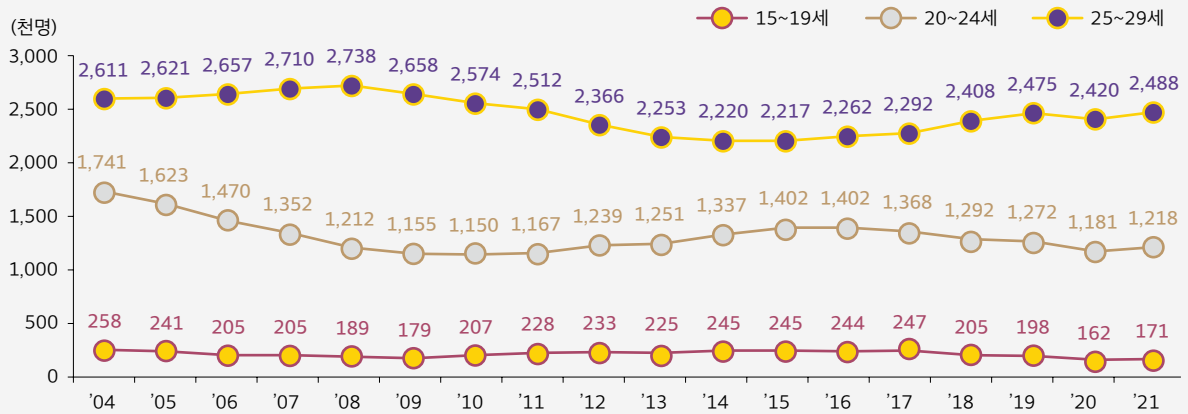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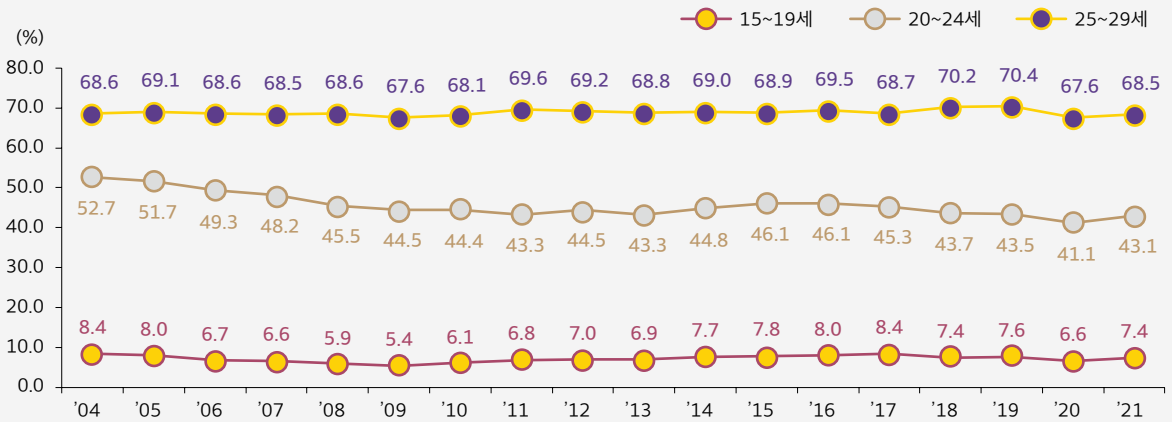
2021년 청년층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전연령에서 증가하였다.

### 청년층 연령별 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연령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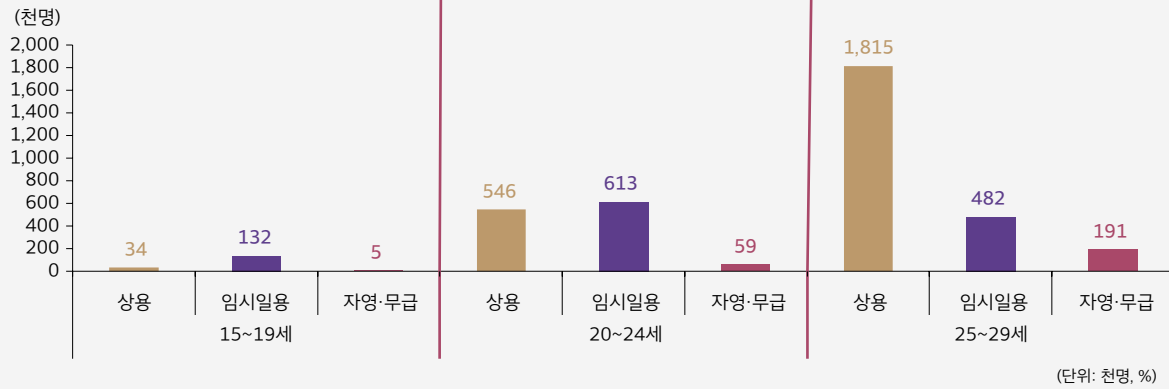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2021년 청년층 취업자 중 상용직은 61.8%, 임시·일용직은 31.7%,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6.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청년층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16	'17	'18	'19	'20	'21
15~29세	취업자	3,908 (100.0)	3,907 (100.0)	3,904 (100.0)	3,945 (100.0)	3,763 (100.0)	3,877 (100.0)
	상용	2,273 (58.2)	2,300 (58.9)	2,331 (59.7)	2,356 (59.7)	2,293 (60.9)	2,396 (61.8)
	임시일용	1,396 (35.7)	1,381 (35.4)	1,355 (34.7)	1,360 (34.5)	1,222 (32.5)	1,228 (31.7)
	자영·무급	239 (6.1)	226 (5.8)	219 (5.6)	230 (5.8)	248 (6.6)	254 (6.6)
15~19세	취업자	244 (100.0)	247 (100.0)	205 (100.0)	198 (100.0)	162 (100.0)	171 (100.0)
	상용	37 (15.1)	48 (19.4)	39 (19.1)	34 (17.0)	27 (16.6)	34 (20.0)
	임시일용	196 (80.4)	189 (76.7)	161 (78.4)	157 (79.0)	127 (78.5)	132 (77.0)
	자영·무급	11 (4.6)	10 (3.9)	5 (2.6)	8 (4.0)	8 (4.9)	5 (3.0)
20~24세	취업자	1,402 (100.0)	1,368 (100.0)	1,292 (100.0)	1,272 (100.0)	1,181 (100.0)	1,218 (100.0)
	상용	663 (47.3)	640 (46.8)	575 (44.5)	563 (44.2)	523 (44.3)	546 (44.8)
	임시일용	679 (48.4)	667 (48.7)	660 (51.1)	651 (51.2)	603 (51.1)	613 (50.3)
	자영·무급	61 (4.3)	61 (4.5)	56 (4.3)	58 (4.6)	55 (4.7)	59 (4.8)
25~29세	취업자	2,262 (100.0)	2,292 (100.0)	2,408 (100.0)	2,475 (100.0)	2,420 (100.0)	2,488 (100.0)
	상용	1,573 (69.6)	1,612 (70.3)	1,717 (71.3)	1,759 (71.1)	1,743 (72.0)	1,815 (73.0)
	임시일용	521 (23.0)	525 (22.9)	534 (22.2)	553 (22.3)	492 (20.3)	482 (19.4)
	자영·무급	167 (7.4)	155 (6.8)	157 (6.5)	163 (6.6)	185 (7.7)	191 (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대비 비중

- + 10대후반의 상용직비중이 낮은 이유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 + 연도별로 청년층 전반에서 상용직 비중은 높아지고 임시·일용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청년층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 청년층 정규직, 비정규직 수 및 비중



(단위: 천명, %)

		'15.8	'16.8	'17.8	'18.8	'19.8	'20.8	'21.8
15~29세	임금근로자	3,670	3,717	3,741	3,681	3,749	3,562	3,711
	정규	2,381	2,408	2,405	2,406	2,236	2,142	2,149
	비정규	1,288 (35.1)	1,309 (35.2)	1,336 (35.7)	1,275 (34.6)	1,513 (40.4)	1,421 (39.9)	1,561 (42.1)
15~19세	임금근로자	257	262	244	204	194	164	174
	정규	66	65	64	53	42	25	26
	비정규	191 (74.4)	197 (75.3)	179 (73.6)	151 (74.0)	151 (78.0)	138 (84.5)	148 (85.1)
20~24세	임금근로자	1,361	1,365	1,338	1,219	1,235	1,182	1,220
	정규	759	758	704	638	556	520	514
	비정규	603 (44.3)	607 (44.5)	634 (47.4)	581 (47.7)	679 (54.9)	662 (56.0)	705 (57.8)
25~29세	임금근로자	2,051	2,090	2,160	2,258	2,320	2,217	2,318
	정규	1,557	1,585	1,637	1,716	1,637	1,596	1,609
	비정규	494 (24.1)	505 (24.2)	523 (24.2)	543 (24.0)	683 (29.4)	621 (28.0)	708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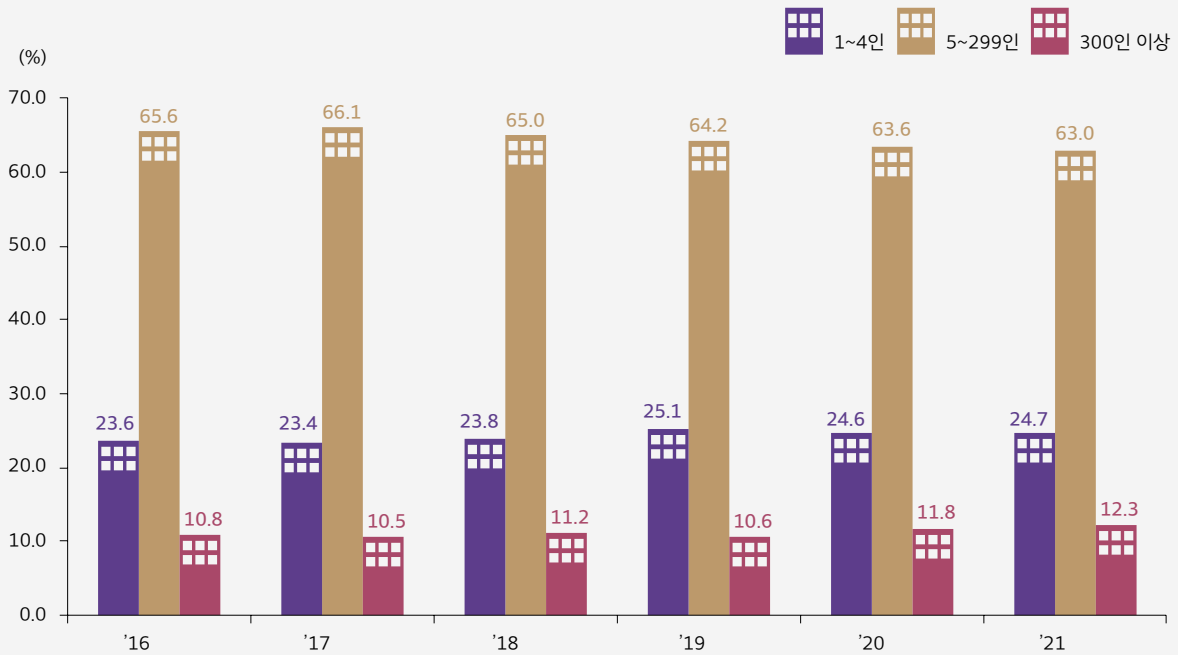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 규모별 취업자

2021년 청년층 취업자의 63%가 5~299인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300인미만 사업장에 약 90%가 종사하는데, 이러한 분포는 연도별로도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다.

청년층 규모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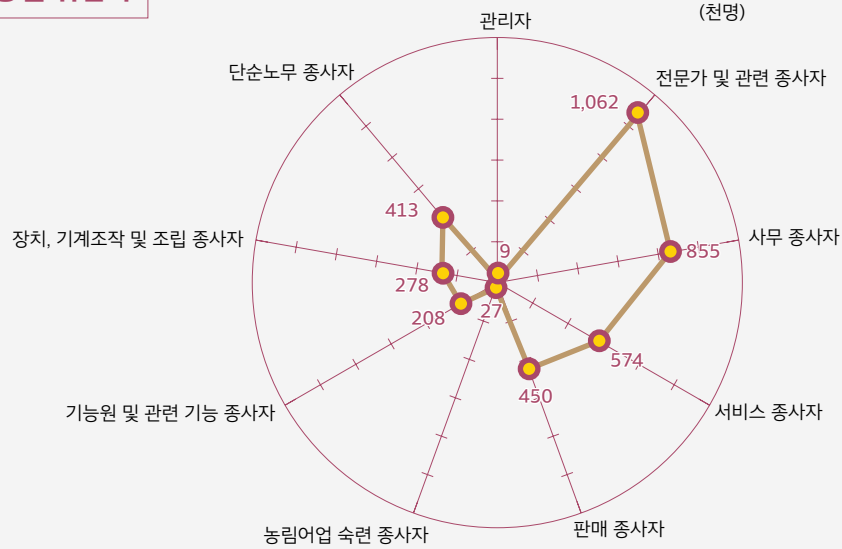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종별 취업자

2021년 청년층 취업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 연도별로 보면 서비스종사자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청년층 직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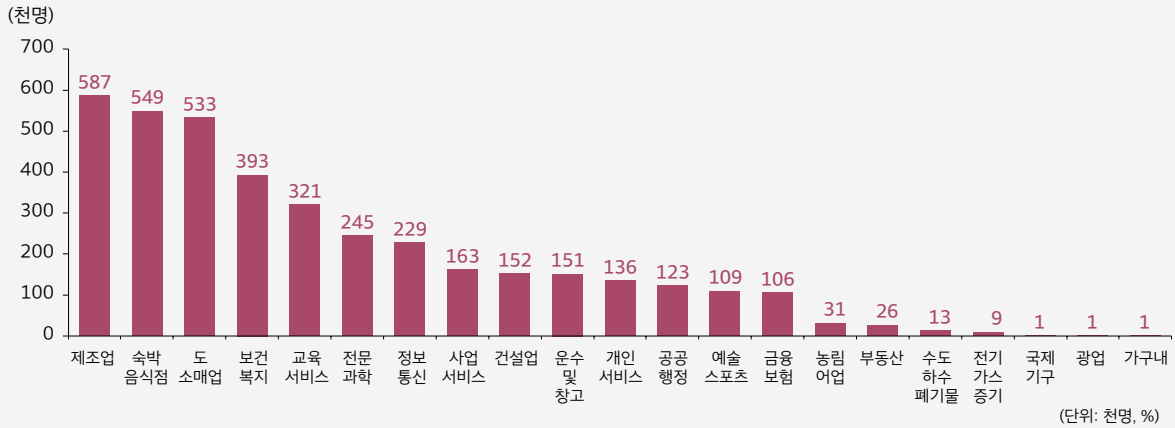
	'17	'18	'19	'20	'21
전체	3,907 (100.0)	3,904 (100.0)	3,945 (100.0)	3,763 (100.0)	3,877 (100.0)
관리자	7 (0.2)	7 (0.2)	7 (0.2)	5 (0.1)	9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88 (27.8)	1,076 (27.6)	1,064 (27.0)	1,023 (27.2)	1,062 (27.4)
사무 종사자	898 (23.0)	910 (23.3)	872 (22.1)	809 (21.5)	855 (22.1)
서비스 종사자	611 (15.6)	618 (15.8)	673 (17.1)	606 (16.1)	574 (14.8)
판매 종사자	497 (12.7)	472 (12.1)	486 (12.3)	467 (12.4)	450 (11.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0.5)	14 (0.4)	23 (0.6)	31 (0.8)	27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73 (4.4)	192 (4.9)	201 (5.1)	184 (4.9)	208 (5.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98 (7.6)	286 (7.3)	285 (7.2)	267 (7.1)	278 (7.2)
단순노무 종사자	318 (8.1)	329 (8.4)	335 (8.5)	371 (9.9)	413 (1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대비 비중

## 산업별 취업자

2021년 청년층 취업자는 제조업, 숙박음식점, 도소매업 순으로 많다.  
연도별로 보면 도소매업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



	'17	'18	'19	'20	'21
전 산업	3,907 (100.0)	3,904 (100.0)	3,945 (100.0)	3,763 (100.0)	3,877 (100.0)
농림어업	23 (0.6)	24 (0.6)	35 (0.9)	36 (1.0)	31 (0.8)
광업	1 (0.0)	1 (0.0)	1 (0.0)	2 (0.0)	1 (0.0)
제조업	652 (16.7)	623 (15.9)	566 (14.3)	548 (14.6)	587 (15.1)
전기가스증기	9 (0.2)	9 (0.2)	11 (0.3)	8 (0.2)	9 (0.2)
수도하수폐기물	8 (0.2)	11 (0.3)	9 (0.2)	10 (0.3)	13 (0.3)
건설업	118 (3.0)	142 (3.6)	152 (3.8)	156 (4.2)	152 (3.9)
도소매업	586 (15.0)	586 (15.0)	564 (14.3)	534 (14.2)	533 (13.7)
운수 및 창고	90 (2.3)	99 (2.5)	108 (2.7)	130 (3.4)	151 (3.9)
숙박음식점	581 (14.9)	571 (14.6)	619 (15.7)	561 (14.9)	549 (14.2)
정보통신	188 (4.8)	199 (5.1)	201 (5.1)	178 (4.7)	229 (5.9)
금융보험	113 (2.9)	115 (3.0)	102 (2.6)	102 (2.7)	106 (2.7)
부동산	31 (0.8)	19 (0.5)	25 (0.6)	24 (0.6)	26 (0.7)
전문과학	227 (5.8)	230 (5.9)	235 (6.0)	232 (6.2)	245 (6.3)
사업서비스	165 (4.2)	153 (3.9)	163 (4.1)	158 (4.2)	163 (4.2)
공공행정	94 (2.4)	120 (3.1)	113 (2.9)	105 (2.8)	123 (3.2)
교육서비스	337 (8.6)	320 (8.2)	340 (8.6)	310 (8.2)	321 (8.3)
보건복지	419 (10.7)	420 (10.8)	413 (10.5)	407 (10.8)	393 (10.1)
예술스포츠	129 (3.3)	132 (3.4)	152 (3.9)	130 (3.5)	109 (2.8)
개인서비스	136 (3.5)	132 (3.4)	137 (3.5)	130 (3.5)	136 (3.5)
가구내	0 (0.0)	0 (0.0)	1 (0.0)	1 (0.0)	1 (0.0)
국제기구	0 (0.0)	1 (0.0)	1 (0.0)	1 (0.0)	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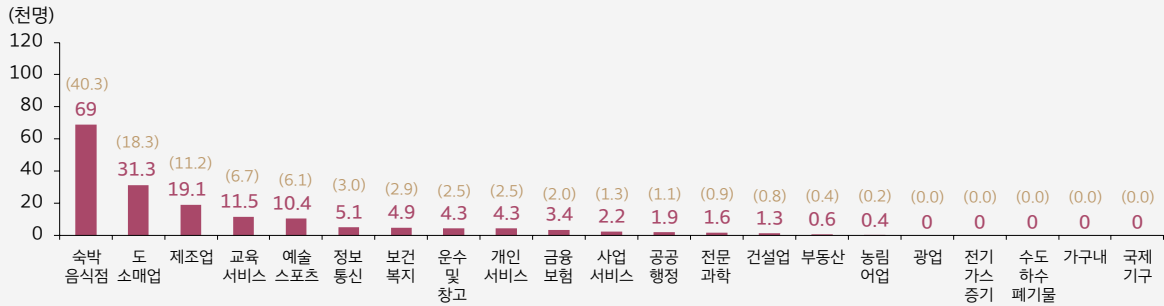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대비 비중

## 청년층 연령별 산업별 취업 현황('21년)

15~19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58.6%, 제조업에 11.2% 종사, 20~24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37.1%, 제조업에 12.5% 종사, 25~29세는 제조업에 16.7%, 도매 및 소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23.5%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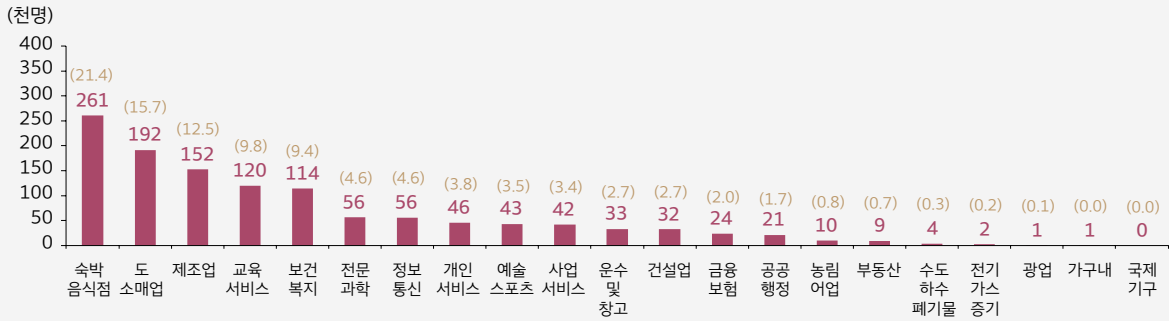
### 15~19세 산업별 취업자 및 비중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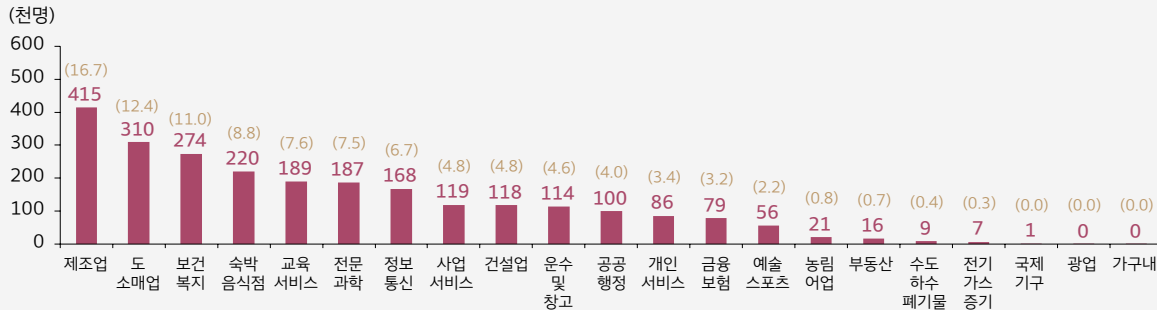
### 20~24세 산업별 취업자 및 비중

(단위: 천명, %)



### 25~29세 산업별 취업자 및 비중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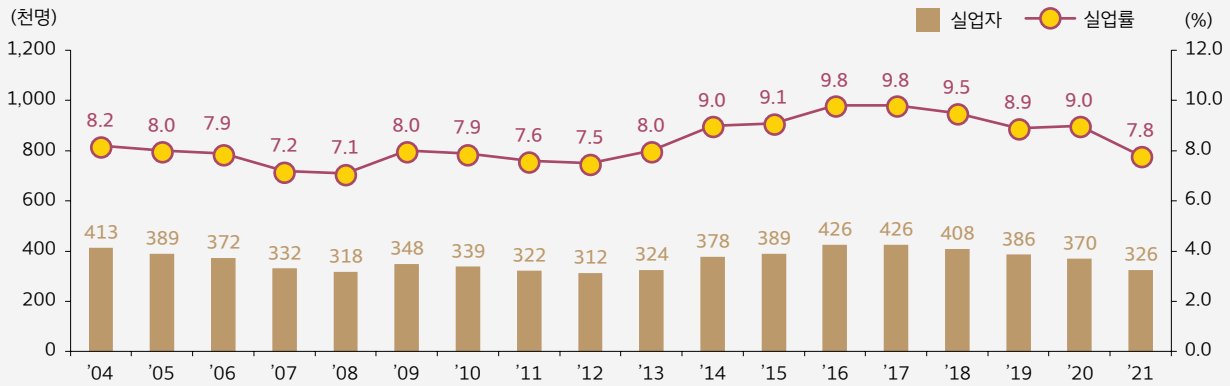


### 3.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및 실업률

2021년 청년층 실업률은 7.8%로 최근 '17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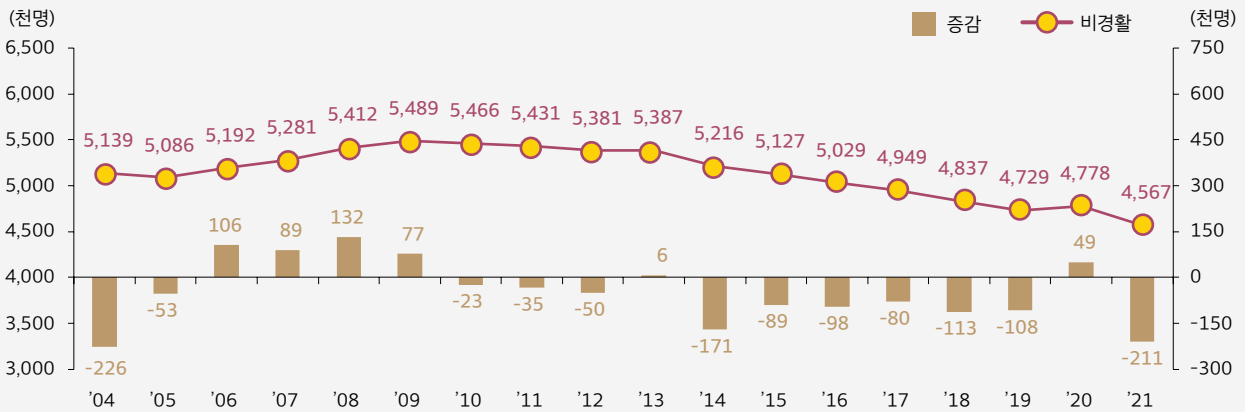
청년층 실업자 및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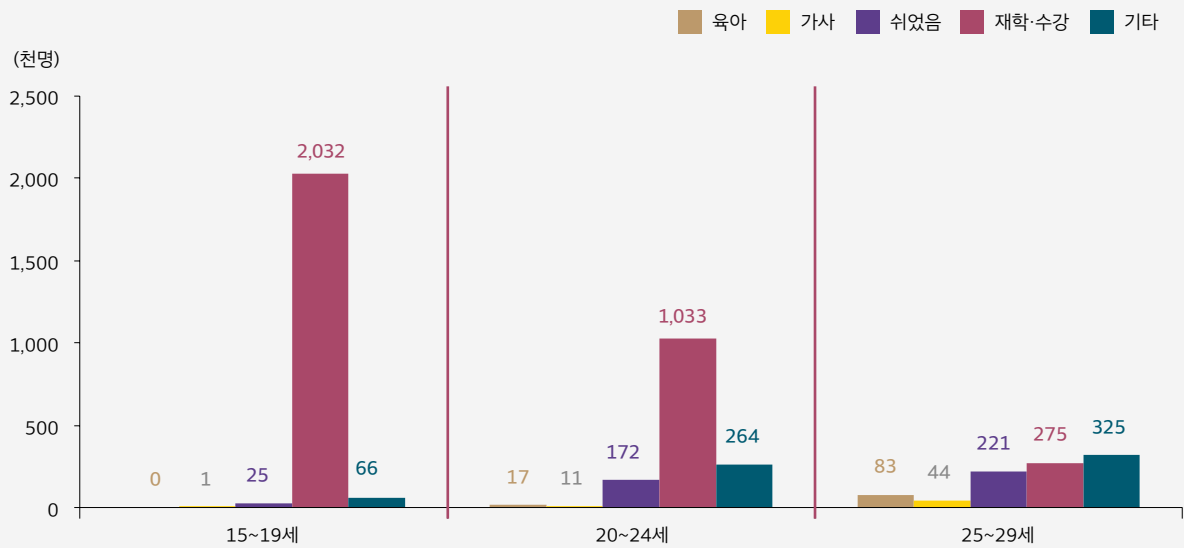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 사유

2021년 청년층 비경제활동 사유를 보면 재학·수강이 3,339천명으로 가장 많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학·수강은 줄어들고 취업준비는 증가한다.

청년층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천명, %)

연령대	비경제 활동인구	비경제활동사유					취업준비	기타
		육아	가사	쉬었음	재학·수강			
15~29세	4,567 (100.0)	99 (2.2)	56 (1.2)	418 (9.2)	3,339 (73.1)	583 (12.8)	654 (14.3)	
15~19세	2,124 (100.0)	0 (0.0)	1 (0.1)	25 (1.2)	2,032 (95.7)	9 (0.4)	66 (3.1)	
20~24세	1,496 (100.0)	17 (1.1)	11 (0.7)	172 (11.5)	1,033 (69.0)	214 (14.3)	264 (17.6)	
25~29세	947 (100.0)	83 (8.7)	44 (4.6)	221 (23.4)	275 (29.0)	360 (38.0)	325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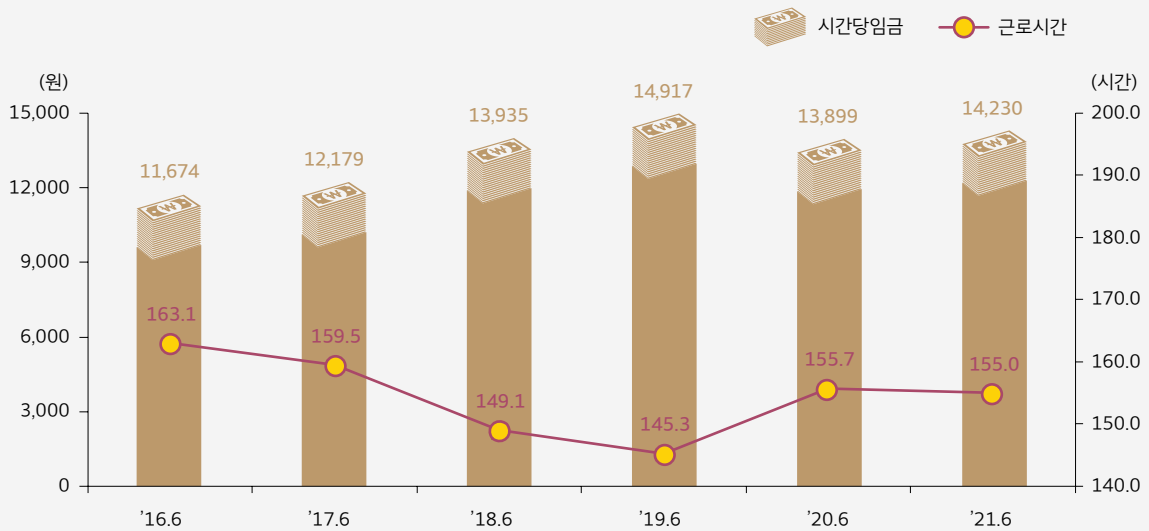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 )는 연령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  
 주)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  
 '취업준비'는 '재학·수강'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과 '기타' 중 학원·기관 외 취업준비의 합계

## 4. 청년 근로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청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4,230원이고 월 근로시간은 155시간이다. 연도별로 보면 '21년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은 감소하였다.

\* 청년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청년층 시간당 임금 및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

		'16.6	'17.6	'18.6	'19.6	'20.6	'21.6
전 연령	시간당 임금	16,709	17,381	19,522	20,573	19,316	19,806
	월 근로시간	171.1	168.5	156.4	152.4	163.6	164.2
15~29세	시간당 임금	11,674	12,179	13,935	14,917	13,899	14,230
	월 근로시간	163.1	159.5	149.1	145.3	155.7	155.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5. 취업 활동 과정 첫 취업 소요기간

최근 청년들의 졸업 또는 중퇴후 첫취업까지 소요기간은 10.1개월이다.

(단위: 개월)

	'12.5	'13.5	'14.5	'15.5	'16.5	'17.5	'18.5	'19.5	'20.5	'21.5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	10.0	9.5	10.4	10.6	10.0	10.2	10.6	10.7	10.0	1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취업 경험 및 취업소요기간 분포

취업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단위: 천명)

		'12.5	'13.5	'14.5	'15.5	'16.5	'17.5	'18.5	'19.5	'20.5	'21.5
취업 유경험자		4,037	3,857	3,827	3,926	4,033	4,101	4,140	4,168	4,070	4,056
임금 근로자		3,904	3,754	3,708	3,788	3,909	4,012	4,054	4,070	3,963	3,953
첫 취업 소요 기간	3개월 미만	2,041	1,918	1,888	1,950	1,998	2,006	2,011	2,015	1,950	1,874
	3~6개월 미만	562	477	484	497	511	542	487	522	532	556
	6개월~1년 미만	360	382	364	341	355	352	438	405	449	470
	1~2년 미만	410	414	414	440	420	465	468	476	471	464
	2~3년 미만	204	215	214	236	283	258	282	266	251	267
	3년 이상	327	349	343	325	343	389	368	387	309	323
비임금 근로자		133	103	119	137	124	89	86	98	107	1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직업선택 기준

직업선택기준으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경제적 보상	성취	고용안정	심신의 안녕	인정	자율
4.25	4.14	4.10	4.05	4.04	4.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년, 5점척도)



## 취업 희망기업

최근 청년들의 취업희망기업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었다.

(단위: %)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	일반중소기업	전문중소기업	창업
전체	28.8	47.6	6.3	6.0	7.4	3.9
남성	31.4	45.2	6.4	4.5	7.8	4.7
여성	25.6	50.5	6.1	8.0	7.0	2.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년)

## 희망임금 및 첫 직장 근로소득

희망임금은 연 2,902만원이었다.

(단위: 만원)

	전체	성별		대학별	
		남성	여성	2~3년제	4년제
의중임금(A)	2,902	2,958	2,850	2,587	3,061
첫 직장 근로소득(B)	2,612	2,860	2,392	2,391	2,725
차이(A-B)	290	97	458	196	33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19년 졸업자)

## 취업 애로사항

취업준비에서의 애로사항은 취업정보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취업정보 부족	적성파악 미흡	경력 부족	요구자격 부적합	수입·보수 부적합	근무환경 부적합	서류·면접 탈락 부담	자격증 미보유	기타
전체	29.7	10.8	17.9	13.1	8.4	5.7	5.9	6.5	1.9
남성	28.9	10.7	17.2	15.3	6.9	3.3	7.6	7.5	2.6
여성	30.6	10.8	18.8	10.4	10.2	8.6	3.6	5.2	1.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년)

## 6. 청년 대졸자의 전공계열별 현황

### 전공과 현 직업과의 일치도

청년 대졸자중 전공과 현 직업과의 일치도는 특수 계열인 교육, 의약계열의 일치도가 높고, 인문계열은 불일치가 높게 나타났다.

(단위: %)

		전혀 맞지 않음	잘 맞지 않음	보통	잘 맞음	매우 잘 맞음
'16년 졸업자	전체	15.7	13.2	21.1	31.2	18.8
	인문계열	28.2	19.9	22.9	19.7	9.3
	사회계열	17.7	17.3	25.9	28.3	10.8
	교육계열	7.8	5.5	9.9	30.5	46.4
	공학계열	13.5	13.5	21.8	34.4	16.7
	자연계열	16.2	11.8	21.2	32.3	18.5
	의약계열	5.6	4.7	13.6	40.1	36.0
	예체능계열	19.3	11.9	19.9	30.8	18.1
'17년 졸업자	전체	15.7	12.6	21.8	31.4	18.4
	인문계열	29.3	20.4	23.0	17.8	9.4
	사회계열	16.8	16.7	26.4	28.6	11.5
	교육계열	7.0	5.3	13.2	32.4	42.0
	공학계열	14.3	12.4	23.0	34.1	16.2
	자연계열	16.3	11.3	23.7	31.5	17.1
	의약계열	5.9	4.5	15.3	39.4	34.8
	예체능계열	20.4	11.5	18.5	32.8	16.9
'18년 졸업자	전체	14.2	12.4	23.1	32.2	18.2
	인문계열	26.1	20.3	25.4	20.7	7.5
	사회계열	16.7	15.7	28.2	29.1	10.3
	교육계열	7.9	7.5	11.2	32.5	40.9
	공학계열	13.7	12.2	23.2	34.7	16.3
	자연계열	13.5	11.5	21.1	33.8	20.1
	의약계열	4.4	5.0	17.2	40.5	32.9
	예체능계열	16.2	11.4	24.3	30.9	17.2
'19년 졸업자	전체	14.2	11.0	26.3	29.2	19.3
	인문계열	31.2	16.8	27.7	15.8	8.5
	사회계열	15.7	14.8	31.5	27.5	10.5
	교육계열	6.9	5.7	13.8	30.6	43.0
	공학계열	12.1	10.7	30.8	29.3	17.1
	자연계열	14.0	11.4	27.1	30.8	16.7
	의약계열	4.5	4.0	15.7	35.7	40.1
	예체능계열	19.8	10.5	23.0	31.5	15.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대졸자 중 30세 미만인 자 기준  
 주) '일의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대한 주관적 응답 비율임

## 전공별 고용률 및 실업률

2021년 대졸자의 전공별 고용률에서 의학계열 78.0%, 사범계열 74.7%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고용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전 체	73.9	73.7	73.6	73.4	72.6	72.8	72.4	72.7	72.4	70.1	72.1
인문사회계열	70.8	69.4	70.5	71.3	68.5	68.2	69.4	69.5	67.9	64.4	67.4
사범계열	76.9	77.5	78.8	74.4	76.1	75	72.5	76.1	73.4	71.9	74.7
공학계열	75.6	75.7	75.6	73.5	76.5	76	72.4	72	72.8	71.6	73.2
자연계열	73.6	74.3	69.7	71.1	70.2	73.5	71.8	71.1	71.5	68.6	67.2
의약계열	82.6	79.3	81	81.5	77.2	81	81.6	83.5	77.9	78.1	78
예체능계열	74.1	75.9	74.7	75.7	75	73.4	74	74.4	72.1	69	70.9
서비스계열										69.6	7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년 이후 한국교육표준분류를 적용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교육계열이 변화하였음.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교육계열을 정리하여 사용함.

1. 인문사회계열(022인문학,030사회과학,040경영행정), 2. 예체능계열(021예술), 3. 교육사범계열(010교육),
4. 자연계열(050자연과학,080농림어업수의학), 5. 공학계열(060정보통신기술,070공학제조건설), 6. 의약계열(091보건,092복지),
7. 서비스(2019년신규계열)

## 전공별 실업률

실업률은 공학계열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실업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전 체	6.8	7.1	7.4	8.5	8.5	9.6	10.2	9.4	8.9	8.7	7.6
인문사회계열	7.6	8.7	8	9.1	10.3	12.9	12.3	11	11.3	10.6	8.3
사범계열	3.9	3.3	2.8	4.5	4.5	6	5.5	5.8	7.5	6.9	4.9
공학계열	6.8	7.4	8.3	9.5	8.6	9.5	11.3	10.4	9.3	8.6	8.7
자연계열	6.7	7.1	10.7	11	9.3	7.8	9.1	9.8	6.4	7.8	7.8
의약계열	4.5	3.1	3.3	3.4	4.6	4.3	4.8	4.6	7	6.2	5.5
예체능계열	7	6.3	6.2	8.1	7.5	8.1	10	8.6	8.4	10.1	8.3
서비스계열									7.7	9.1	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년 이후 한국교육표준분류를 적용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교육계열이 변화하였음.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교육계열을 정리하여 사용함.

1. 인문사회계열(022인문학,030사회과학,040경영행정), 2. 예체능계열(021예술), 3. 교육사범계열(010교육),
4. 자연계열(050자연과학,080농림어업수의학), 5. 공학계열(060정보통신기술,070공학제조건설), 6. 의약계열(091보건,092복지),
7. 서비스(2019년신규계열)

## 7. 일자리 이동

### 종사상 지위 변동

2007년 당시의 청년들이 2020년 어떤 상태로 변동되었는지를 보면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77.1%, 실업과 비경황 상태로 이동한 경우는 1.6%, 21.3%이다.

(단위: 명, %)

'07 \ '20	전체	취업자	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황
			상용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전체	6,791 (100.0)	5,234 (77.1)	4,700 (69.2)	4,300 (63.3)	306 (4.5)	94 (1.4)	498 (7.3)	36 (0.5)	149 (2.2)	1,408 (20.7)
취업자	1,394 (100.0)	1,075 (77.1)	909 (65.2)	834 (59.8)	52 (3.7)	23 (1.6)	158 (11.3)	8 (0.6)	22 (1.6)	297 (21.3)
임금근로자	1,324 (100.0)	1,019 (77.0)	888 (67.1)	816 (61.6)	51 (3.9)	21 (1.6)	124 (9.4)	7 (0.5)	22 (1.7)	283 (21.4)
상용	1,000 (100.0)	791 (79.1)	698 (69.8)	655 (65.5)	30 (3.0)	13 (1.3)	90 (9.0)	3 (0.3)	15 (1.5)	194 (19.4)
임시	309 (100.0)	217 (70.2)	181 (58.6)	153 (49.5)	21 (6.8)	7 (2.3)	33 (10.7)	3 (1.0)	6 (1.9)	86 (27.8)
일용	15 (100.0)	11 (73.3)	9 (60.0)	8 (53.3)	0 (0.0)	1 (6.7)	1 (6.7)	1 (6.7)	1 (6.7)	3 (20.0)
자영업자	66 (100.0)	55 (83.4)	20 (30.3)	17 (25.8)	1 (1.5)	2 (3.0)	34 (51.5)	1 (1.5)	0 (0.0)	11 (16.7)
무급가족	4 (100.0)	1 (25.0)	1 (25.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3 (75.0)
실업자	212 (100.0)	159 (75.0)	125 (59.0)	113 (53.3)	6 (2.8)	6 (2.8)	31 (14.6)	3 (1.4)	3 (1.4)	50 (23.6)
비경황	5,185 (100.0)	4,000 (77.1)	3,666 (70.7)	3,353 (64.7)	248 (4.8)	65 (1.3)	309 (6.0)	25 (0.5)	124 (2.4)	1,061 (20.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주) 자영업자에는 고용주 포함, '07년에는 만15~29세이고, '20년에는 패널의 연령이 증가하여 만28~42세임

## 학력별 종사상지위 변동

고졸이하의 경우에는 '07년 대부분 비경활(학생)이었으나, '20년엔 이중 78.2%가 취업자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

'07년 \ '20년	전체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실업자	비경활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245 (100.0)	4,091 (78.0)	3,713 (70.8)	3,398 (64.8)	243 (4.6)	72 (1.4)	351 (6.7)	27 (0.5)	128 (2.4)	1,026 (19.6)
취업자	505 (100.0)	388 (76.8)	315 (62.4)	271 (53.7)	27 (5.3)	17 (3.4)	71 (14.1)	2 (0.4)	10 (2.0)	107 (21.2)
실업자	69 (100.0)	51 (73.9)	34 (49.3)	29 (42.0)	3 (4.4)	2 (2.9)	14 (20.3)	3 (4.4)	2 (2.9)	16 (23.2)
비경활	4,671 (100.0)	3,652 (78.2)	3,364 (72.0)	3,098 (66.3)	213 (4.6)	53 (1.1)	266 (5.7)	22 (0.5)	116 (2.5)	903 (19.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07년 최종학력에서 무응답(모름, 응답거절)은 제외

전문대졸 이상은 '07년 당시 취업자중 '20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77.2%이다. 실업에서 취업상태로의 이동은 75.5%이다.

(단위: 명, %)

'07년 \ '20년	전체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실업자	비경활
			상용	임시	일용					
전체	1,488 (100.0)	1,085 (72.9)	929 (62.4)	899 (60.4)	63 (4.2)	22 (1.5)	147 (9.9)	9 (0.6)	21 (1.4)	382 (25.7)
취업자	886 (100.0)	684 (77.2)	591 (66.7)	560 (63.2)	25 (2.8)	6 (0.7)	87 (9.8)	6 (0.7)	12 (1.4)	190 (21.4)
임금근로자	846 (100.0)	654 (77.3)	581 (68.7)	550 (65.0)	25 (3.0)	6 (0.7)	67 (7.9)	6 (0.7)	12 (1.4)	180 (21.3)
상용	673 (100.0)	535 (79.5)	481 (71.5)	461 (68.5)	15 (2.2)	5 (0.7)	51 (7.6)	3 (0.4)	9 (1.3)	129 (19.2)
임시	169 (100.0)	116 (68.6)	97 (57.4)	86 (50.9)	10 (5.9)	1 (0.6)	16 (9.5)	3 (1.8)	3 (1.8)	50 (29.6)
일용	4 (100.0)	3 (75.0)	3 (75.0)	3 (75.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자영업자	38 (100.0)	30 (78.9)	10 (26.3)	10 (26.3)	0 (0.0)	0 (0.0)	20 (52.6)	0 (0.0)	0 (0.0)	8 (21.1)
무급가족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실업자	143 (100.0)	108 (75.5)	91 (63.6)	84 (58.7)	3 (2.1)	4 (2.8)	17 (11.9)	0 (0.0)	1 (0.7)	34 (23.8)
비경활	514 (100.0)	348 (67.7)	302 (58.8)	255 (49.6)	35 (6.8)	12 (2.3)	43 (8.4)	3 (0.6)	8 (1.6)	158 (3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07년 최종학력에서 무응답(모름, 응답거절)은 제외

## 동일일자리 유지 및 변동

2007년 당시 취업자중 '20년에도 동일 일자리 유지한 경우는 18.7%로 이들의 평균임금은 371.6만원이다. 일자리를 이동한 경우는 326.8만원을 받고 일자리 만족도 동일일자리 유지보다 낮은 3.66이다.

### 일자리 이동 현황



(단위: 명, %, 만원, 점)

'07년	'20년	취업자		'07년	'20년	취업자	
		일자리 유지	일자리 이동				
	취업자	1,075	201 (18.7)	874 (81.3)		비경활	4,000
	평균임금(만원)	335.2	371.6	326.8		평균임금(만원)	301.8
	일자리 만족도(점)	3.68	3.77	3.66		일자리 만족도(점)	3.68
	실업			159		학생	3,505
	평균임금(만원)			302.3		평균임금(만원)	306.0
	일자리 만족도(점)			3.60		일자리 만족도(점)	3.6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평균임금=월 평균임금, 만족도(현 직장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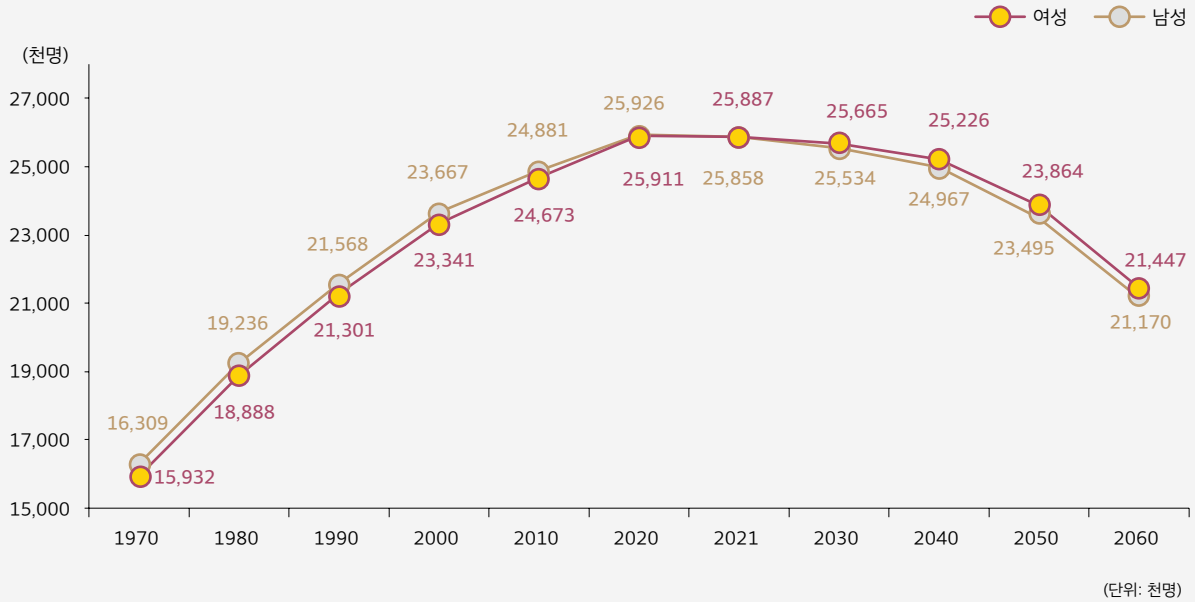




#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 여성 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여성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1년부터 남성보다 많아진다. 한편 '30년 이후부터 여성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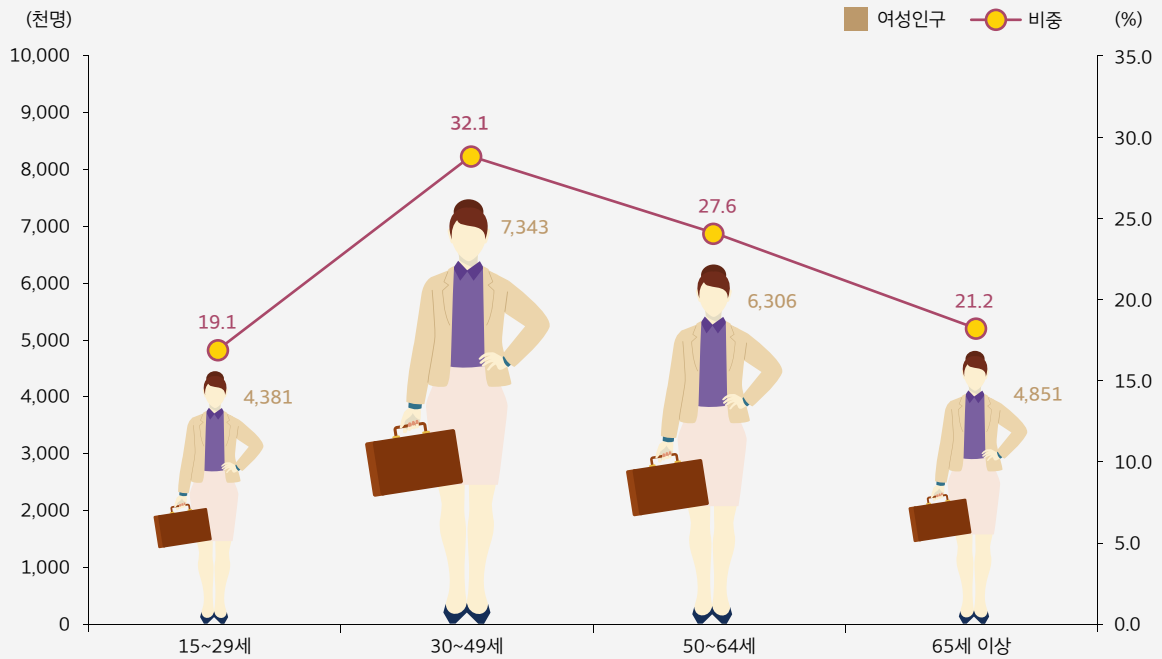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1	2030	2040	2050	2060
전연령	남성	16,309	19,236	21,568	23,667	24,881	25,926	25,858	25,534	24,967	23,495	21,170
	여성	15,932	18,888	21,301	23,341	24,673	25,911	25,887	25,665	25,226	23,864	21,447
14세 이하	남성	7,113	6,708	5,708	5,245	4,156	3,241	3,155	2,218	2,268	2,134	1,677
	여성	6,596	6,243	5,266	4,667	3,823	3,065	2,988	2,111	2,160	2,032	1,597
15~64세	남성	8,787	11,984	15,039	17,122	18,531	19,164	18,980	17,416	14,772	12,566	10,677
	여성	8,753	11,733	14,662	16,580	17,677	18,215	18,050	16,398	13,749	11,623	9,983
65세 이상	남성	408	545	822	1,300	2,194	3,521	3,723	5,901	7,928	8,795	8,816
	여성	583	911	1,373	2,095	3,172	4,631	4,849	7,156	9,317	10,209	9,86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여성 노동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1년 15세이상 인구 중 여성은 50.8%이다. 여성인구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30~49세(32.1%)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인구"는 「인구추계」의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단위: 천명, %)

	합계	남성	여성	여성인구 대비 비중 (%)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인구	45,080	22,198	22,882	4,381	7,343	6,306	4,851
	(100.0)	(49.2)	(50.8)	[19.1]	[32.1]	[27.6]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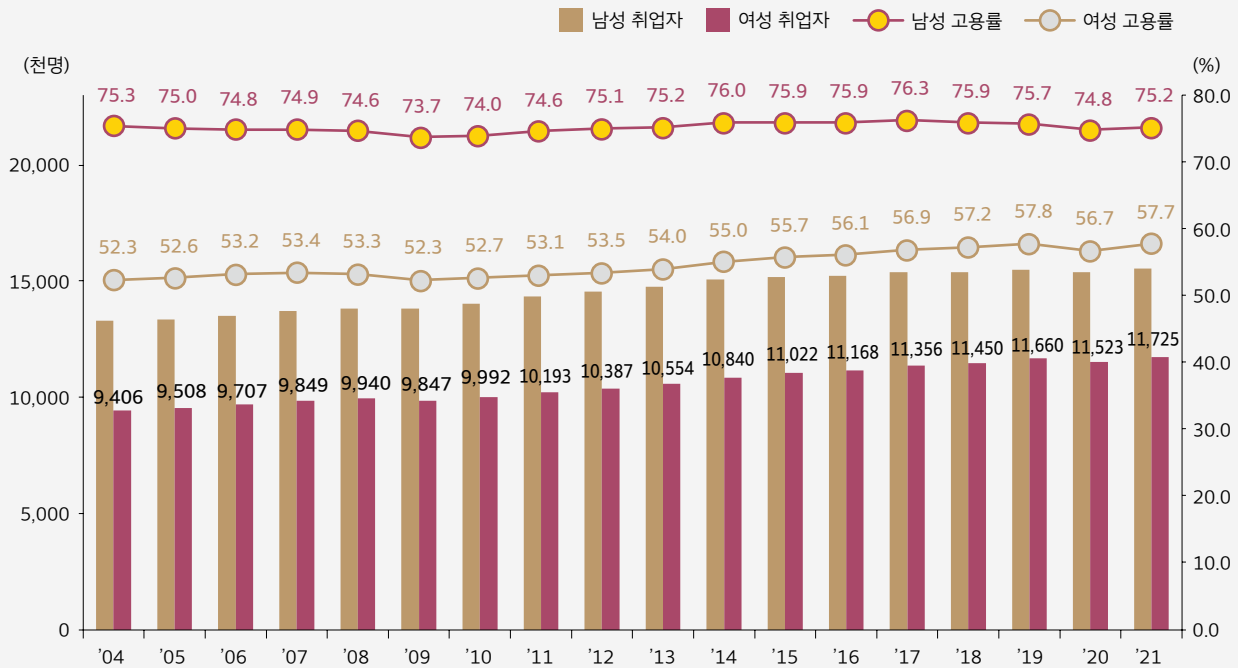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1년), ( ) 전체인구 대비 비중, [ ] 여성인구 대비 비중

## 2.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 취업자 및 고용률

2021년 15세이상의 여성 취업자는 11,725천명이며, 15~64세 고용률은 57.7%이다. 여성 취업자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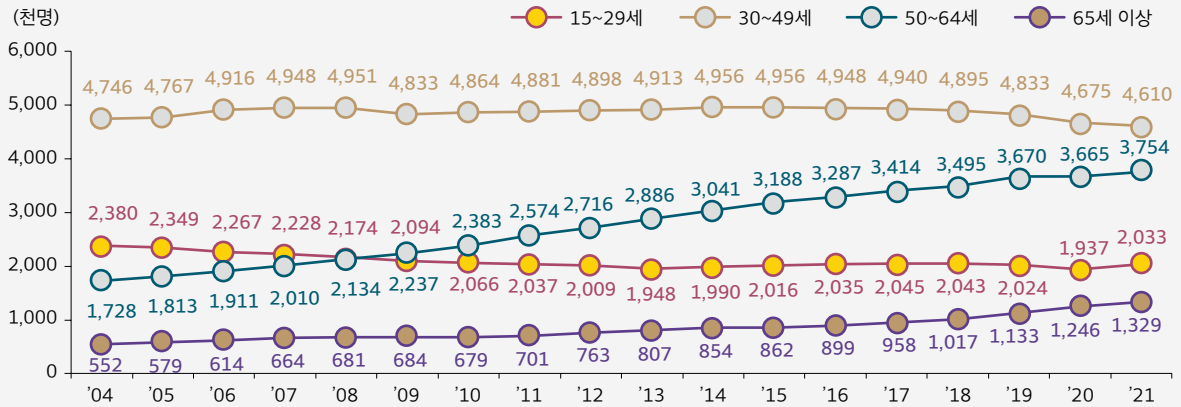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는 15세 이상, 고용률은 15~64세 기준

##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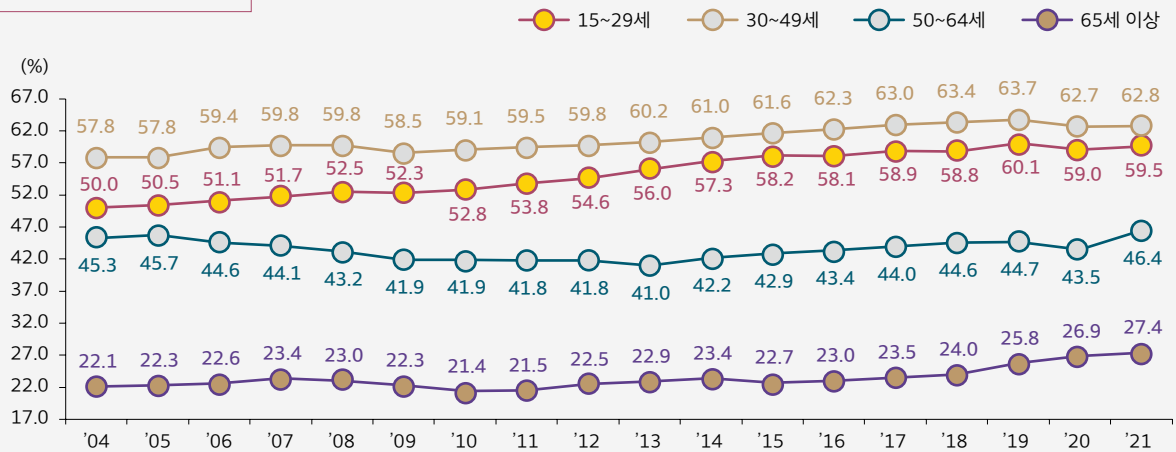
2021년 여성 취업자 중 30~49세 연령의 취업자는 4,610천명이고 고용률은 62.8%로 가장 높다. 연도별로는 50세이상 취업자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여성 연령별 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 연령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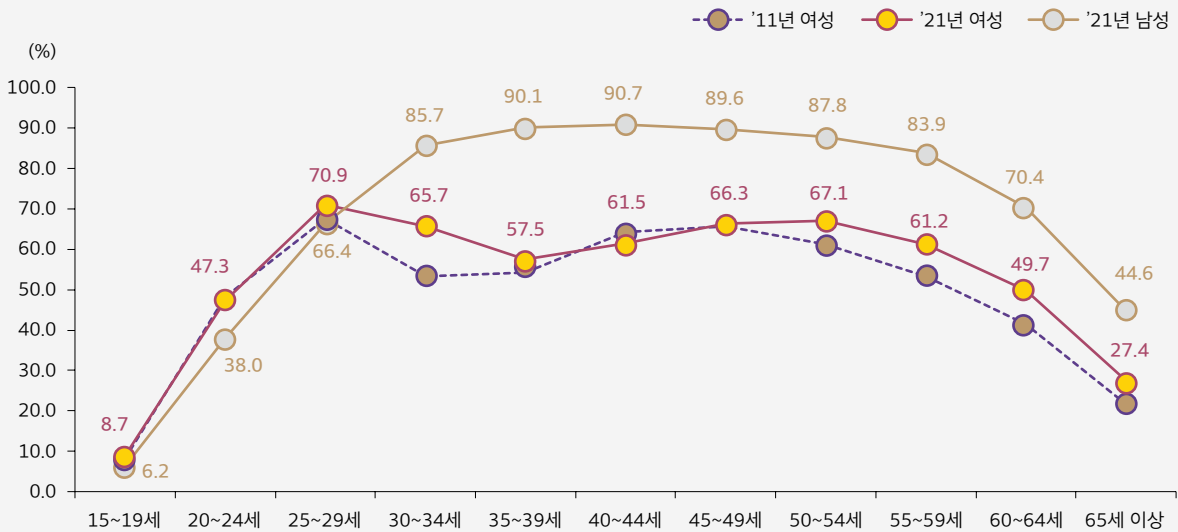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여성 고용률(M-커브)

성별로 5세 단위의 고용률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와 같음

성별 연령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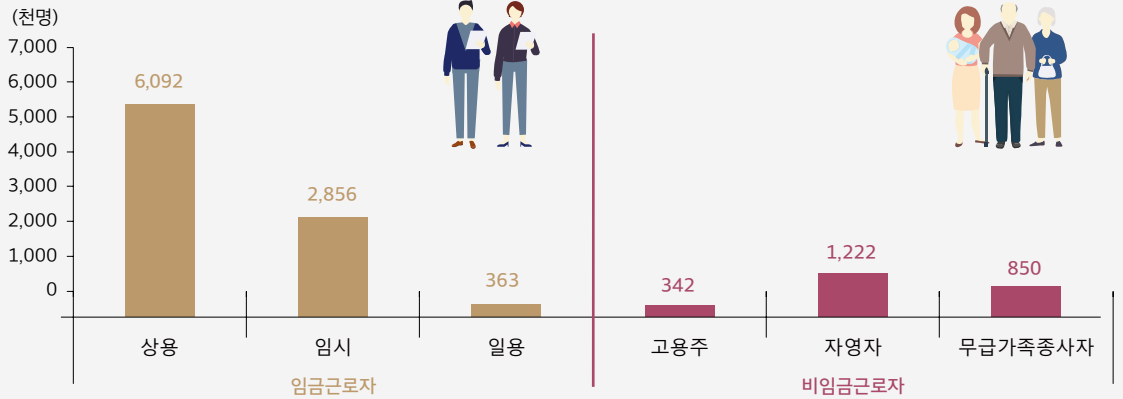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1년, '21년)

- + 남성의 군복무 등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빠르기 때문에 20대 초반까지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높음
- + 그러나 30대에 들어서면서 남성 고용률은 급속히 증가하여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9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 여성 고용률은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했다 감소하는 M-커브 모양을 보임
- + 한편, '21년 M-커브를 '11년 M-커브와 비교해 보면, 우상향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여성의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도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2021년 여성 취업자중 상용직은 52.0%, 임시·일용은 27.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20.6%로 분포한다. 연도별로 상용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임시·일용 및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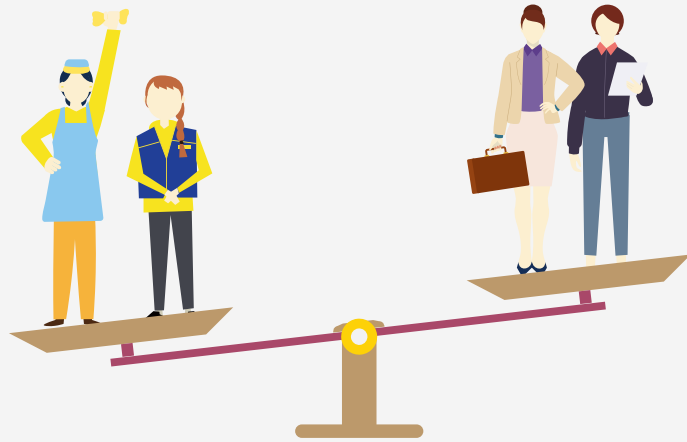
(단위: 천명, %)

	'16	'17	'18	'19	'20	'21
전체	11,168 (100.0)	11,356 (100.0)	11,450 (100.0)	11,660 (100.0)	11,523 (100.0)	11,725 (100.0)
임금근로자	8,622 (77.2)	8,763 (77.2)	8,858 (77.4)	9,085 (77.9)	9,028 (78.3)	9,312 (79.4)
상용	4,980 (44.6)	5,196 (45.7)	5,425 (47.4)	5,680 (48.7)	5,855 (50.8)	6,092 (52.0)
임시	3,073 (27.5)	3,003 (26.4)	2,916 (25.5)	2,901 (24.9)	2,730 (23.7)	2,856 (24.4)
일용	570 (5.1)	565 (5.0)	517 (4.5)	504 (4.3)	443 (3.8)	363 (3.1)
비임금근로자	2,546 (22.8)	2,594 (22.8)	2,592 (22.6)	2,575 (22.1)	2,495 (21.7)	2,413 (20.6)
자영업자	1,571 (14.1)	1,637 (14.4)	1,631 (14.2)	1,641 (14.1)	1,611 (14.0)	1,564 (13.3)
고용주	385 (3.5)	412 (3.6)	424 (3.7)	405 (3.5)	364 (3.2)	342 (2.9)
자영자	1,186 (10.6)	1,225 (10.8)	1,207 (10.5)	1,236 (10.6)	1,247 (10.8)	1,222 (10.4)
무급가족종사자	975 (8.7)	957 (8.4)	961 (8.4)	935 (8.0)	884 (7.7)	850 (7.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 여성의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여성 정규직·비정규직 수 및 비중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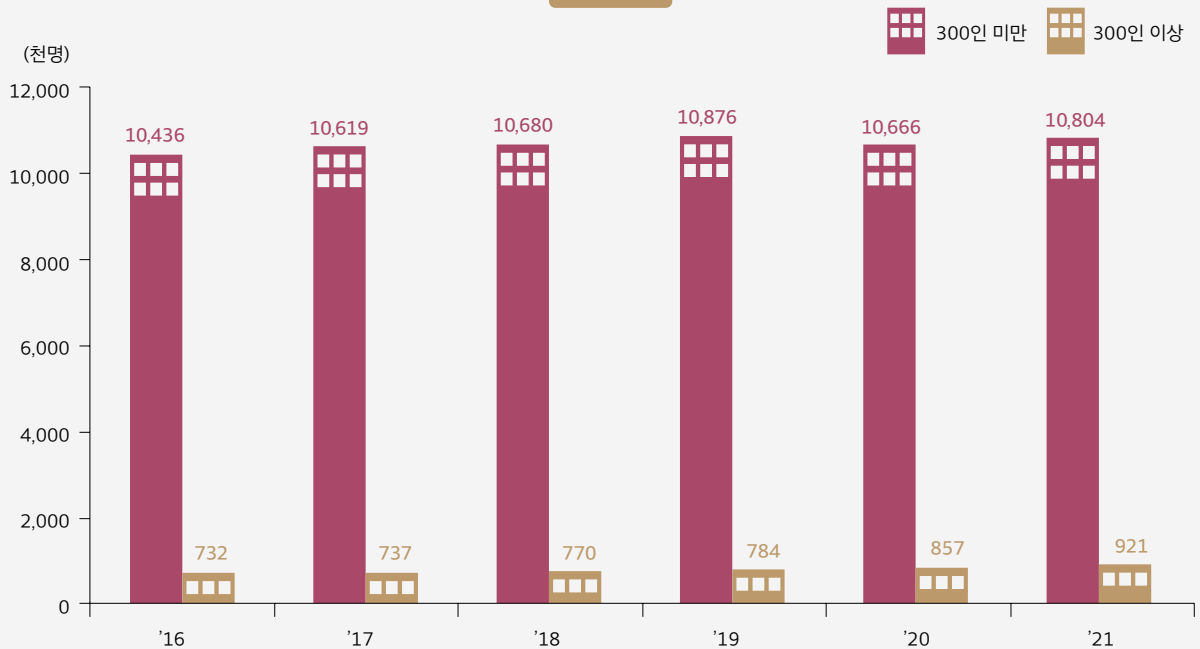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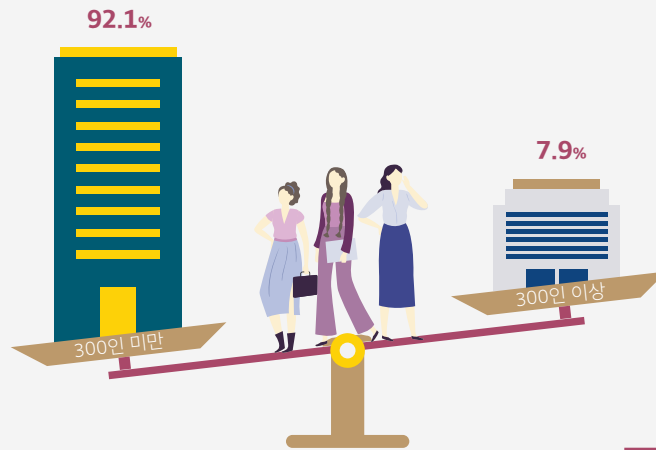
	'15.8	'16.8	'17.8	'18.8	'19.8	'20.8	'21.8
임금근로자	8,468 (100.0)	8,658 (100.0)	8,818 (100.0)	8,874 (100.0)	9,163 (100.0)	9,085 (100.0)	9,476 (100.0)
정규	5,063 (59.8)	5,096 (58.9)	5,186 (58.8)	5,195 (58.5)	5,038 (55.0)	4,994 (55.0)	4,985 (52.6)
비정규	3,405 (40.2)	3,562 (41.1)	3,632 (41.2)	3,678 (41.4)	4,125 (45.0)	4,091 (45.0)	4,491 (47.4)
한시적	1,895	1,958	1,996	2,075	2,547	2,529	2,938
- 기간제	1,495	1,567	1,578	1,616	2,013	2,133	2,573
시간제	1,553	1,780	1,902	1,971	2,310	2,337	2,502
비전형	1,079	1,060	954	923	920	861	9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 규모별 취업자

2021년 여성 취업자는 300인 미만에 92.1%, 300인 이상에 7.9%로 분포한다.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300인 미만의 비중이 높다.

### 여성 규모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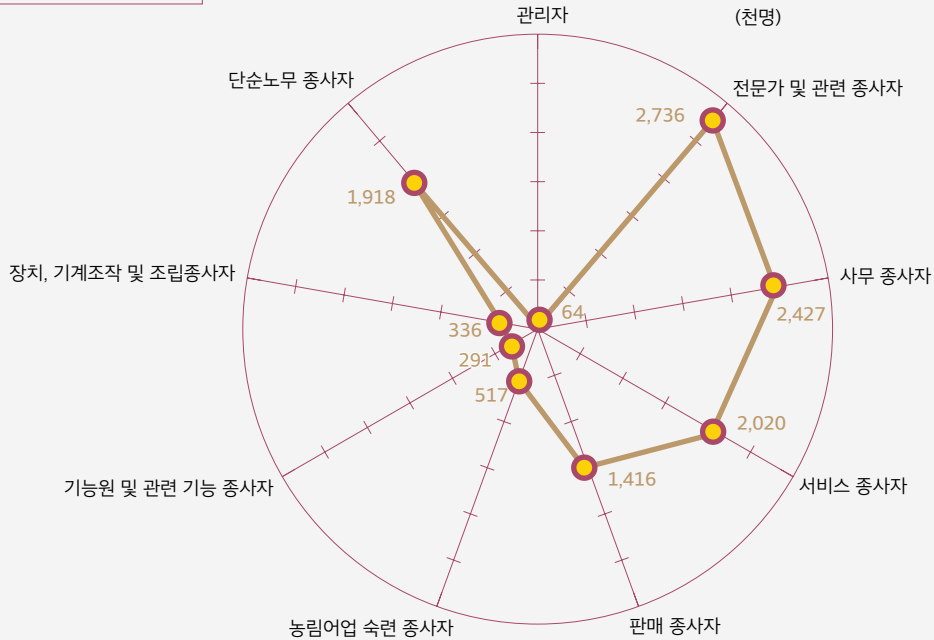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종별 취업자

2021년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다만, 여성관리자는 0.5%수준으로 매우 적다.

여성 직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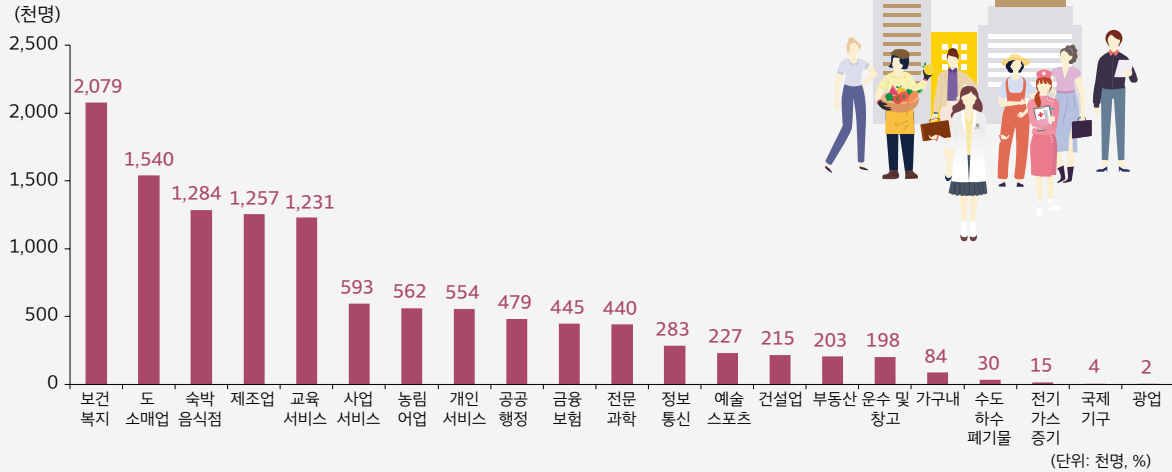
	'17	'18	'19	'20	'21
전체	11,356 (100.0)	11,450 (100.0)	11,660 (100.0)	11,523 (100.0)	11,725 (100.0)
관리자	39 (0.3)	54 (0.5)	63 (0.5)	62 (0.5)	64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25 (23.1)	2,652 (23.2)	2,718 (23.3)	2,626 (22.8)	2,736 (23.3)
사무 종사자	2,212 (19.5)	2,312 (20.2)	2,351 (20.2)	2,377 (20.6)	2,427 (20.7)
서비스 종사자	1,956 (17.2)	1,985 (17.3)	2,072 (17.8)	2,030 (17.6)	2,020 (17.2)
판매 종사자	1,581 (13.9)	1,542 (13.5)	1,522 (13.0)	1,449 (12.6)	1,416 (12.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441 (3.9)	482 (4.2)	511 (4.4)	521 (4.5)	517 (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31 (2.9)	318 (2.8)	301 (2.6)	283 (2.5)	291 (2.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94 (3.5)	382 (3.3)	363 (3.1)	336 (2.9)	336 (2.9)
단순노무 종사자	1,778 (15.7)	1,723 (15.0)	1,760 (15.1)	1,839 (16.0)	1,918 (1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대비 비중  
 주) 7차 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3년 이후의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하면서 '13년 이전자료와 시계열이 단절됨

## 산업별 취업자

2021년 여성은 보건복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보건복지업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 산업별 취업자



	'17	'18	'19	'20	'21
전 산업	11,356 (100.0)	11,450 (100.0)	11,660 (100.0)	11,523 (100.0)	11,725 (100.0)
농림어업	509 (4.5)	544 (4.8)	565 (4.8)	570 (4.9)	562 (4.8)
광업	4 (0.0)	3 (0.0)	2 (0.0)	2 (0.0)	2 (0.0)
제조업	1,351 (11.9)	1,310 (11.4)	1,271 (10.9)	1,239 (10.8)	1,257 (10.7)
전기가스증기	10 (0.1)	8 (0.1)	8 (0.1)	13 (0.1)	15 (0.1)
수도하수폐기물	21 (0.2)	22 (0.2)	22 (0.2)	23 (0.2)	30 (0.3)
건설업	180 (1.6)	210 (1.8)	202 (1.7)	208 (1.8)	215 (1.8)
도소매업	1,748 (15.4)	1,711 (14.9)	1,680 (14.4)	1,604 (13.9)	1,540 (13.1)
운수 및 창고	147 (1.3)	144 (1.3)	167 (1.4)	189 (1.6)	198 (1.7)
숙박음식점	1,426 (12.6)	1,420 (12.4)	1,432 (12.3)	1,323 (11.5)	1,284 (11.0)
정보통신	221 (1.9)	250 (2.2)	252 (2.2)	226 (2.0)	283 (2.4)
금융보험	424 (3.7)	456 (4.0)	439 (3.8)	421 (3.7)	445 (3.8)
부동산	211 (1.9)	202 (1.8)	207 (1.8)	197 (1.7)	203 (1.7)
전문과학	365 (3.2)	380 (3.3)	407 (3.5)	410 (3.6)	440 (3.8)
사업서비스	585 (5.1)	553 (4.8)	562 (4.8)	575 (5.0)	593 (5.1)
공공행정	394 (3.5)	439 (3.8)	439 (3.8)	477 (4.1)	479 (4.1)
교육서비스	1,280 (11.3)	1,249 (10.9)	1,264 (10.8)	1,198 (10.4)	1,231 (10.5)
보건복지	1,595 (14.0)	1,660 (14.5)	1,802 (15.5)	1,912 (16.6)	2,079 (17.7)
예술스포츠	197 (1.7)	212 (1.8)	236 (2.0)	239 (2.1)	227 (1.9)
개인서비스	626 (5.5)	631 (5.5)	626 (5.4)	597 (5.2)	554 (4.7)
가구내	64 (0.6)	47 (0.4)	72 (0.6)	95 (0.8)	84 (0.7)
국제기구	2 (0.0)	3 (0.0)	4 (0.0)	6 (0.0)	4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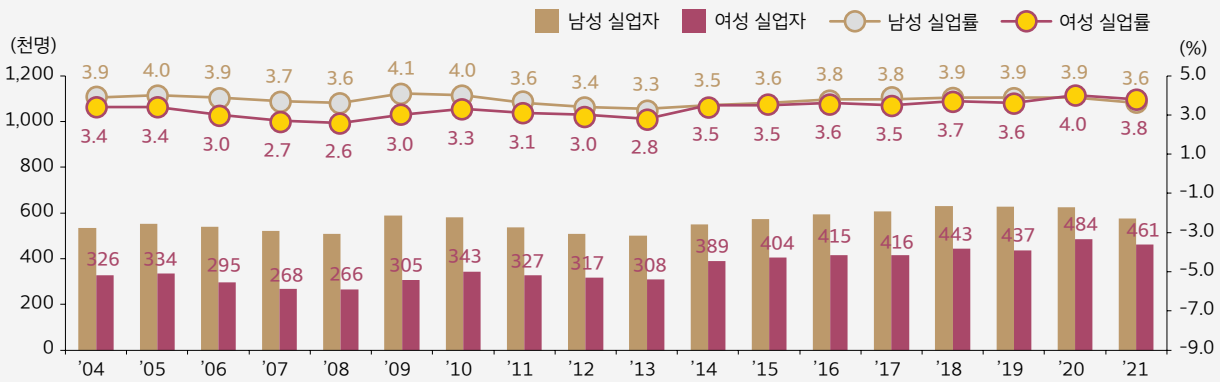
주) 10차 표준산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3년 이후의 원계열 자료를 소급 보정하면서 '13년 이전자료와 시계열이 단절됨

### 3.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및 실업률

2021년 여성 실업자는 461천명, 실업률은 3.8%이고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 3.6%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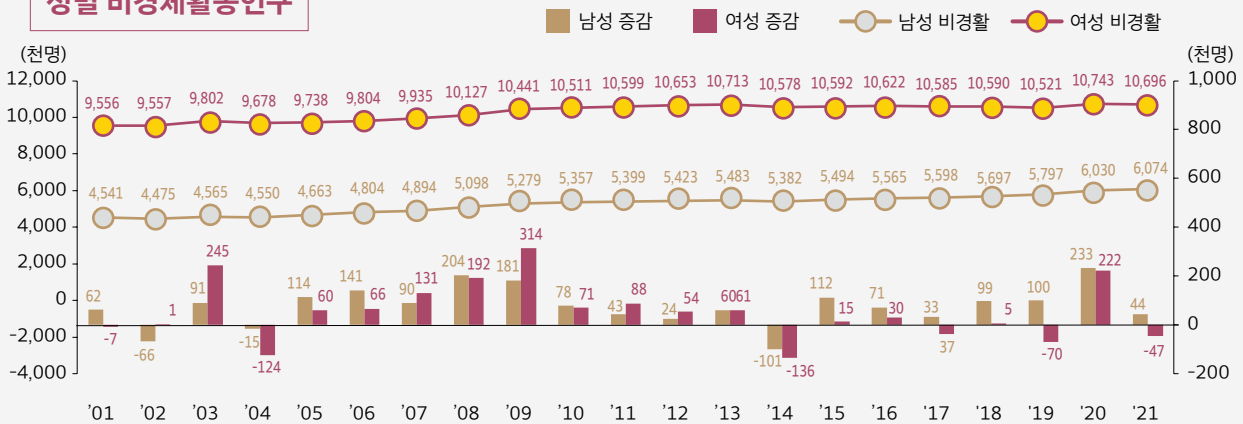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인구

통상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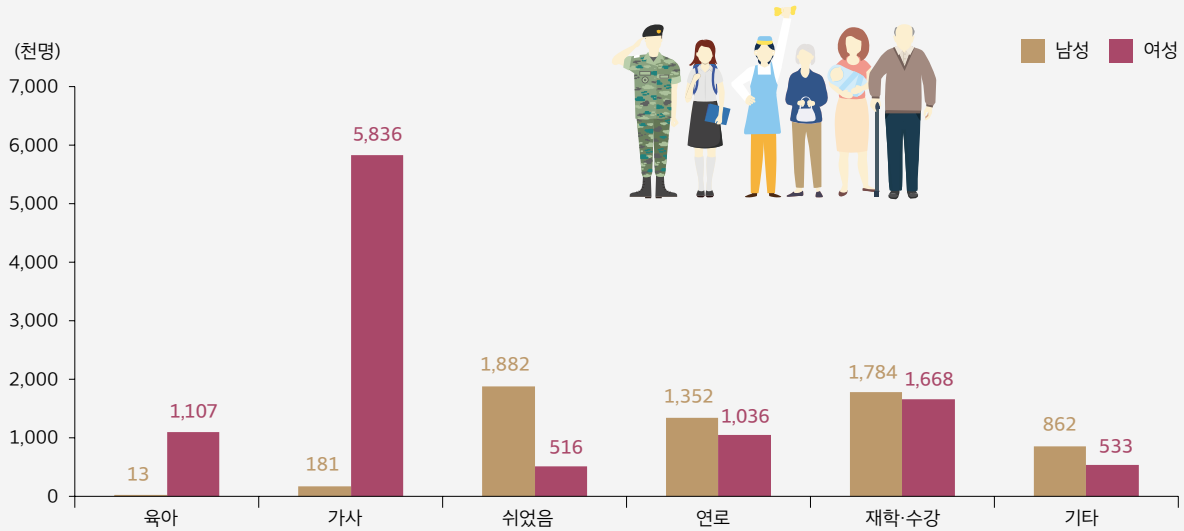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의 비경활 인구는 '98년 외환위기, '03년 카드사태, '09년 금융위기 시 남성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마다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비경제활동 사유

2021년 여성 비경제활동 사유를 보면 가사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재학수강, 육아의 순이다. 남성과 비교시 여성은 주로 가사와 육아사유로 비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육아	가사	쉬었음	연로	재학·수강		기타
						취업준비		
전체	16,770 (100.0)	1,120 (6.7)	6,018 (35.9)	2,398 (14.3)	2,388 (14.2)	3,452 (20.6)	841 (5.0)	1,394 (8.3)
남성	6,074 (100.0)	13 (0.2)	181 (3.0)	1,882 (31.0)	1,352 (22.3)	1,784 (29.4)	467 (7.7)	862 (14.2)
여성	10,696 (100.0)	1,107 (10.4)	5,836 (54.6)	516 (4.8)	1,036 (9.7)	1,668 (15.6)	375 (3.5)	533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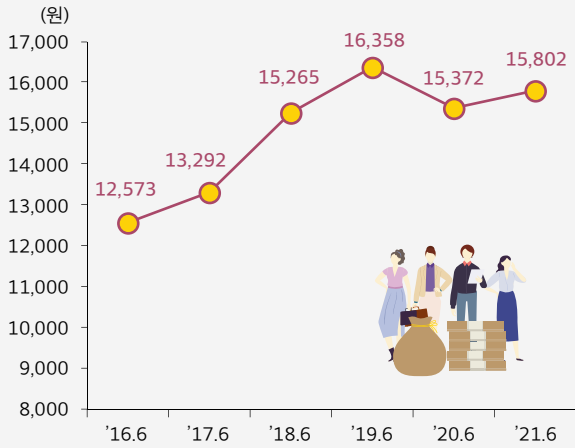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1년), ( ) 연령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  
 \*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재학·수강)과 학원·기관 외 취업준비의 합계(기타)

## 4. 여성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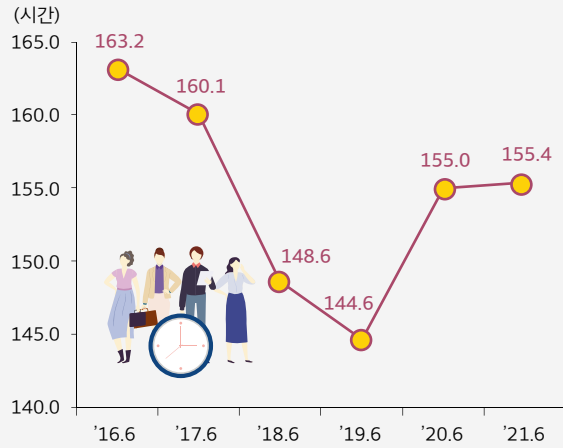
### 임금 및 근로시간

2021.6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5,802원으로 남성대비 69.8% 수준이고 월 근로시간은 155.4시간으로 남성(170.4시간)보다 짧다. 연도별로 보면 시간당 임금의 성별 격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여성 시간당 임금



여성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

		'16.6	'17.6	'18.6	'19.6	'20.6	'21.6
시간당 임금	전체	16,709	17,381	19,522	20,573	19,316	19,806
	남성	19,476	20,183	22,515	23,566	22,086	22,632
	여성	12,573	13,292	15,265	16,358	15,372	15,802
월 근로시간	전체	171.1	168.5	156.4	152.4	163.6	164.2
	남성	176.5	174.4	161.8	157.9	169.5	170.4
	여성	163.2	160.1	148.6	144.6	155.0	155.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여성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16) 21→ ('17) 21→ ('18) 19→ ('19) 19→ ('20) 22→ ('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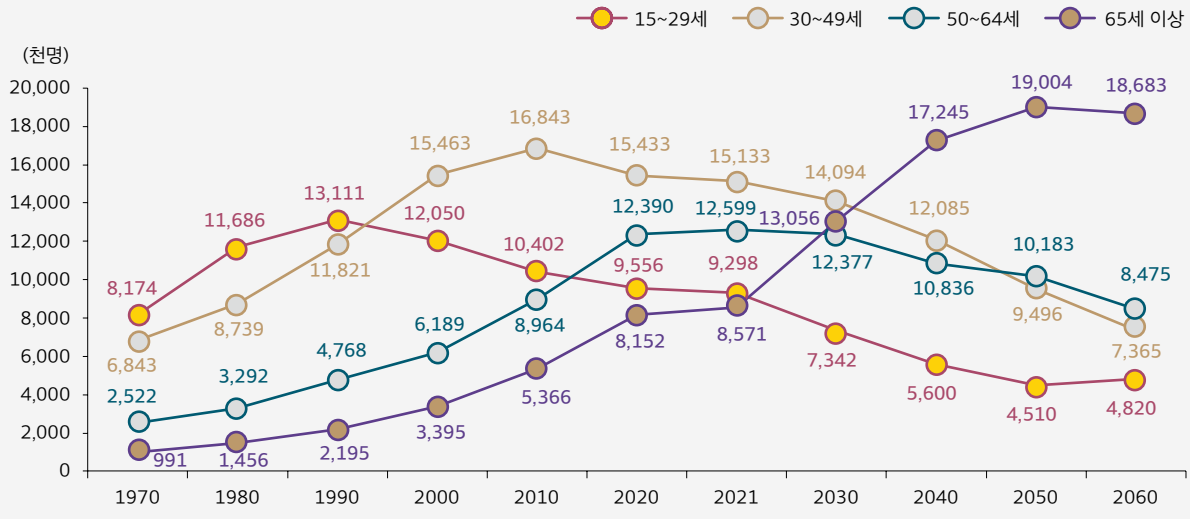
#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 장년\* 인구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장년(50세이상)인구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증가세는 65세 이상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 50세 이상

연령별 인구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50세 이상 인구는 1990년(=100)을 기준으로 2021년 304.0, 2030년 365.3, 2060년 39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65세이상 인구는 1990년 대비 2030년에 594.8, 2060년에는 851.1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 중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18년 소요 → 초고령사회 7년 소요)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한국	2000년	18년	2018년	7년	2025년
일본	1970년	24년	1994년	11년	2005년
영국	1929년	46년	1975년	49년	2024년
미국	1942년	71년	2013년	16년	2029년
프랑스	1864년	115년	1979년	40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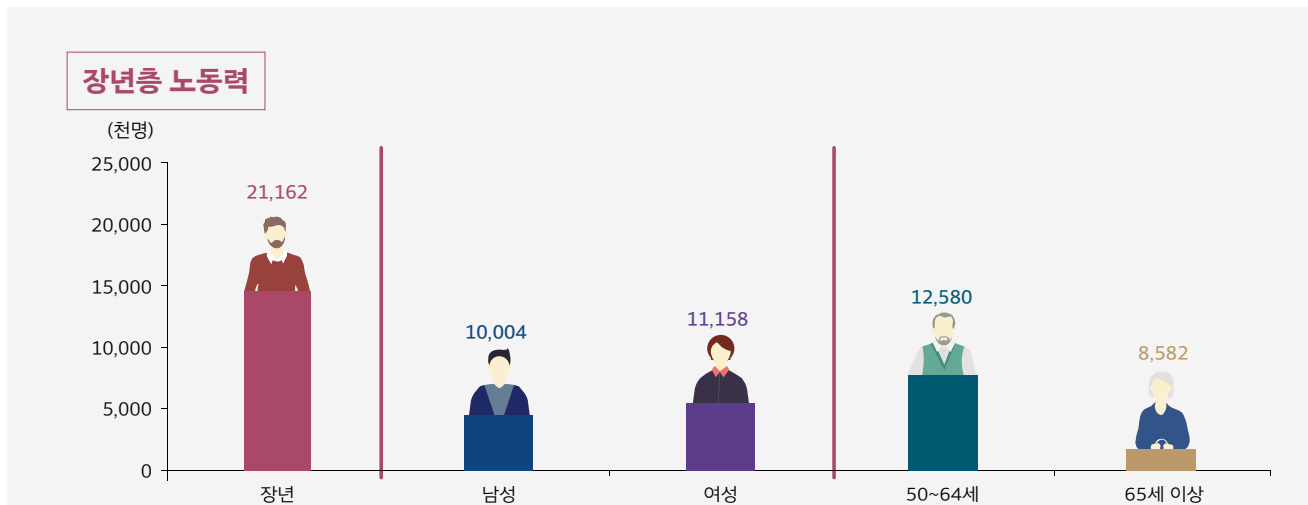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추계, OECD, UN

※ 65세 이상인구의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 장년 노동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장년(50세이상)인구는 21,162천명으로 여성 비중이 52.7%로 남성보다 더 많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인구'는 '인구추계'의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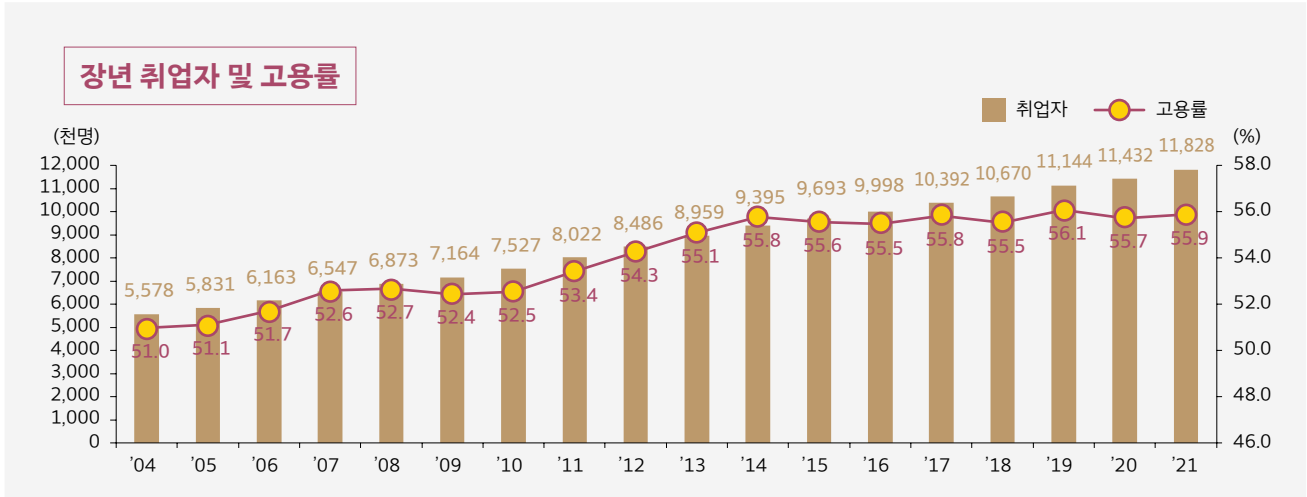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1년)

## 2. 장년 취업자 및 고용률

###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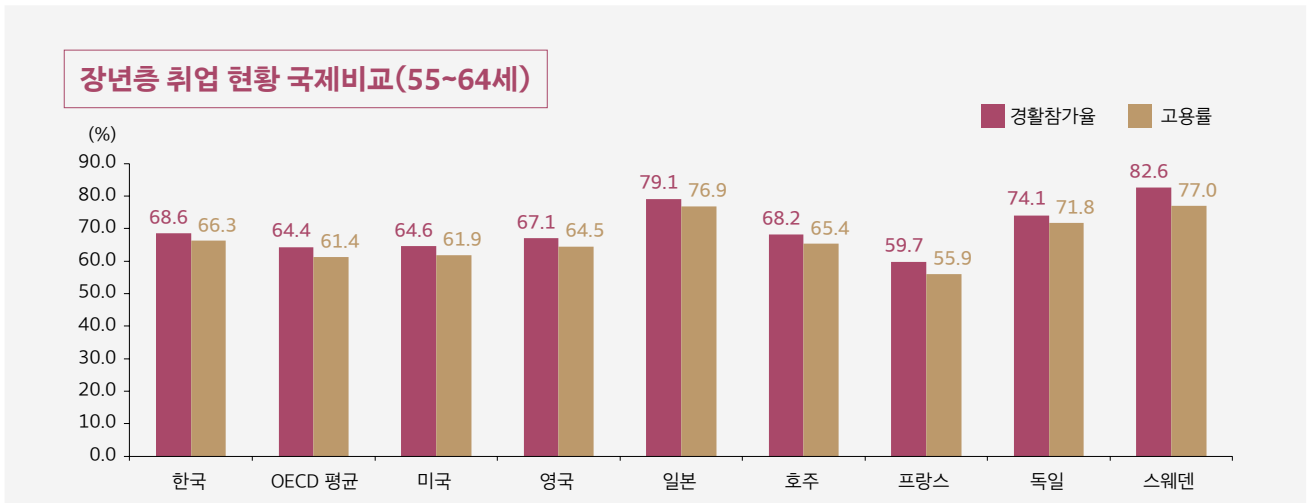
2021년 장년인구중 취업자는 11,828천명이고 고용률은 55.9%이다.  
'14년 이후 장년고용률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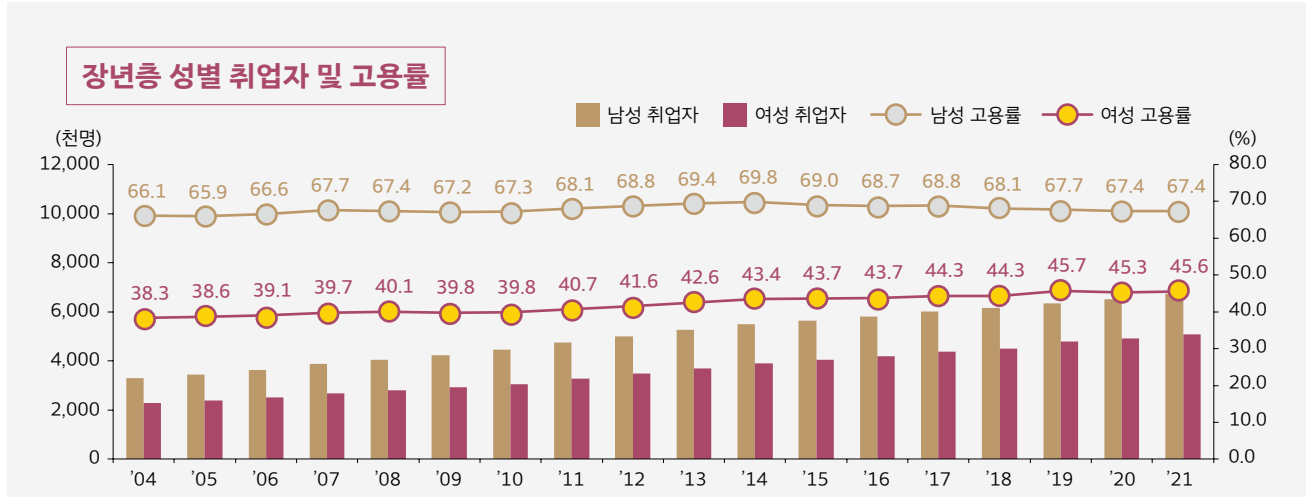
2021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농업 및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자료:OECD.Stats(21)

##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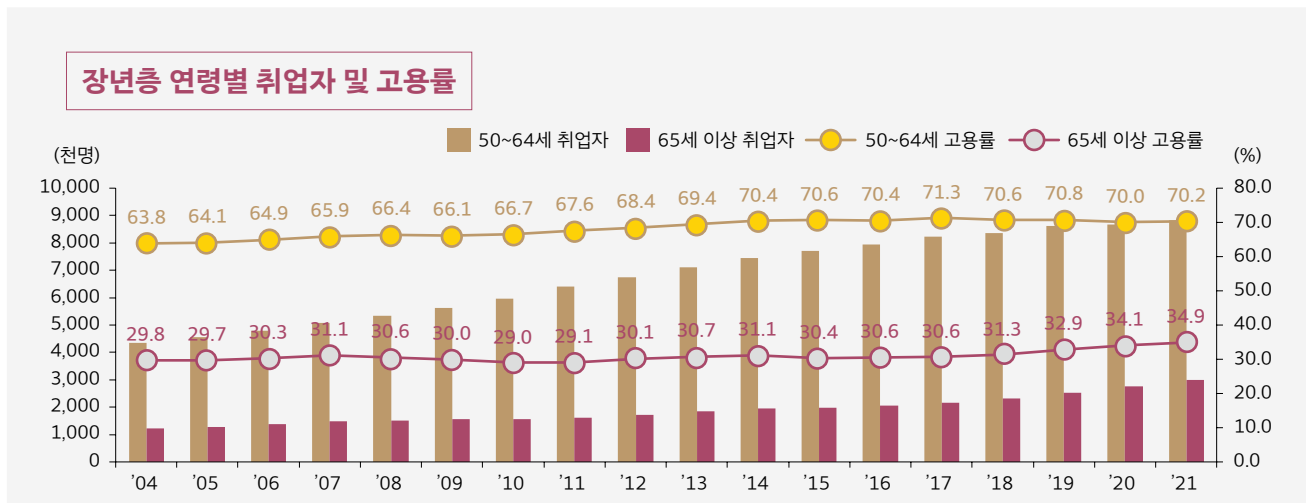
2021년 장년층 남성취업자는 6,745천명, 고용률은 67.4%이고 여성취업자는 5,083천명, 고용률은 45.6%이다. 연도별로 남성고용률은 하락하고 여성고용률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1년 50~64세 취업자와 고용률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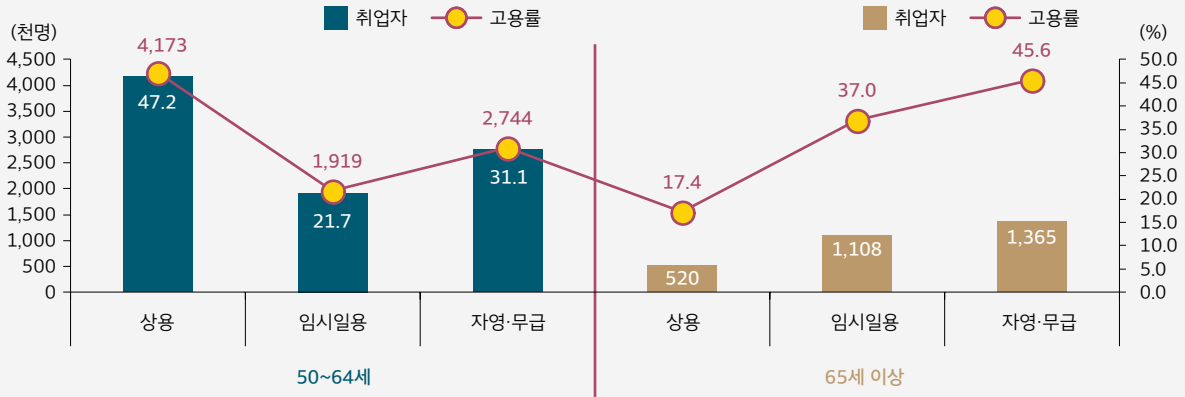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2021년 장년층(50~64세) 취업자중 상용직은 47.2%, 임시·일용직은 21.7%를 차지하며,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31.1%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장년층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16	'17	'18	'19	'20	'21
50세 이상	취업자	9,998 (100.0)	10,392 (100.0)	10,670 (100.0)	11,144 (100.0)	11,432 (100.0)	11,828 (100.0)
	상용	3,284 (32.9)	3,502 (33.7)	3,714 (34.8)	4,066 (36.5)	4,438 (38.8)	4,692 (39.7)
	임시·일용	2,858 (28.6)	2,911 (28.0)	2,926 (27.4)	2,984 (26.8)	2,914 (25.5)	3,028 (25.6)
	자영·무급	3,855 (38.6)	3,979 (38.3)	4,030 (37.8)	4,094 (36.7)	4,080 (35.7)	4,108 (34.7)
50~64세	취업자	7,930 (100.0)	8,226 (100.0)	8,359 (100.0)	8,607 (100.0)	8,658 (100.0)	8,836 (100.0)
	상용	2,995 (37.8)	3,196 (38.8)	3,387 (40.5)	3,674 (42.7)	3,971 (45.9)	4,173 (47.2)
	임시·일용	2,103 (26.5)	2,102 (25.6)	2,061 (24.7)	2,030 (23.6)	1,885 (21.8)	1,919 (21.7)
	자영·무급	2,832 (35.7)	2,929 (35.6)	2,911 (34.8)	2,903 (33.7)	2,802 (32.4)	2,744 (31.1)
65세 이상	취업자	2,068 (100.0)	2,166 (100.0)	2,311 (100.0)	2,538 (100.0)	2,774 (100.0)	2,992 (100.0)
	상용	289 (14.0)	306 (14.1)	327 (14.2)	392 (15.5)	467 (16.8)	520 (17.4)
	임시·일용	755 (36.5)	809 (37.4)	865 (37.4)	954 (37.6)	1,028 (37.1)	1,108 (37.0)
	자영·무급	1,024 (49.5)	1,051 (48.5)	1,119 (48.4)	1,192 (47.0)	1,278 (46.1)	1,365 (4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대비 비중

## 장년층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 장년층 정규, 비정규직 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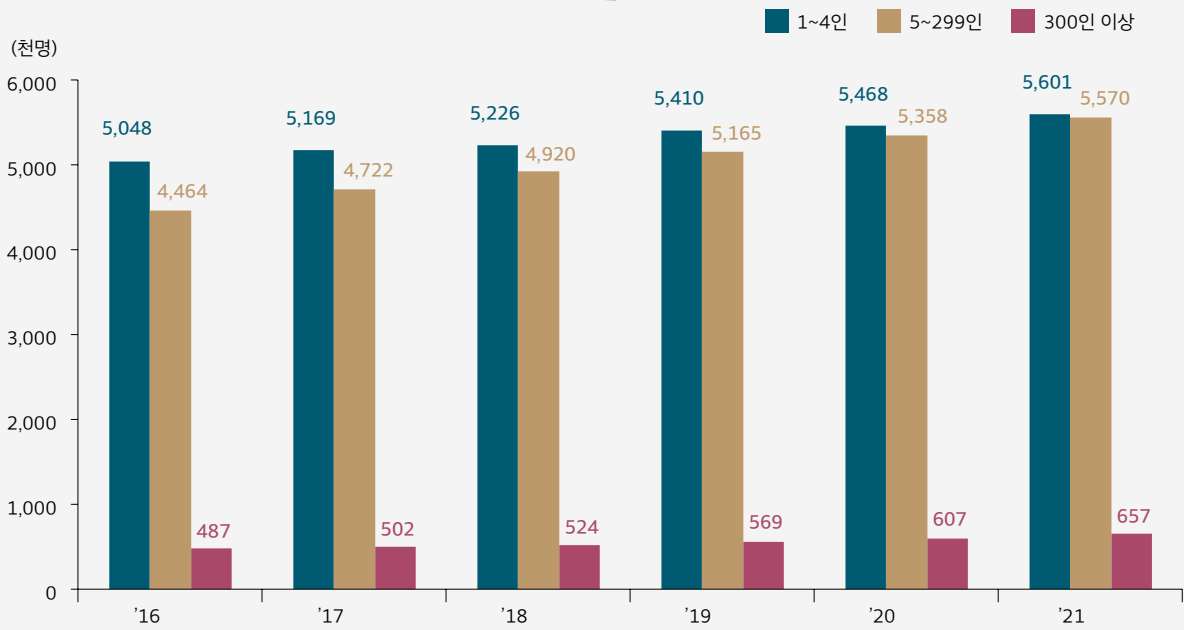
(단위: 천명, %)

		'15.8	'16.8	'17.8	'18.8	'19.8	'20.8	'21.8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5,892	6,246	6,468	6,677	7,141	7,503	7,907
	정규	3,220	3,388	3,520	3,585	3,630	3,828	3,838
	비정규	2,672 (45.4)	2,858 (45.8)	2,948 (45.6)	3,092 (46.3)	3,511 (49.2)	3,675 (49.0)	4,070 (51.5)
50~64세	임금근로자	4,867	5,130	5,290	5,429	5,723	5,900	6,150
	정규	2,980	3,128	3,240	3,315	3,392	3,550	3,567
	비정규	1,887 (38.8)	2,002 (39.0)	2,050 (38.7)	2,114 (38.9)	2,332 (40.7)	2,350 (39.8)	2,583 (42.0)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1,026	1,116	1,179	1,248	1,418	1,603	1,758
	정규	240	260	280	270	238	278	271
	비정규	785 (76.6)	856 (76.7)	898 (76.2)	978 (78.4)	1,180 (83.2)	1,325 (82.7)	1,487 (84.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 규모별 취업자

2021년 장년층 취업자는 300인 미만에서 94.4% 종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5~299인 규모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크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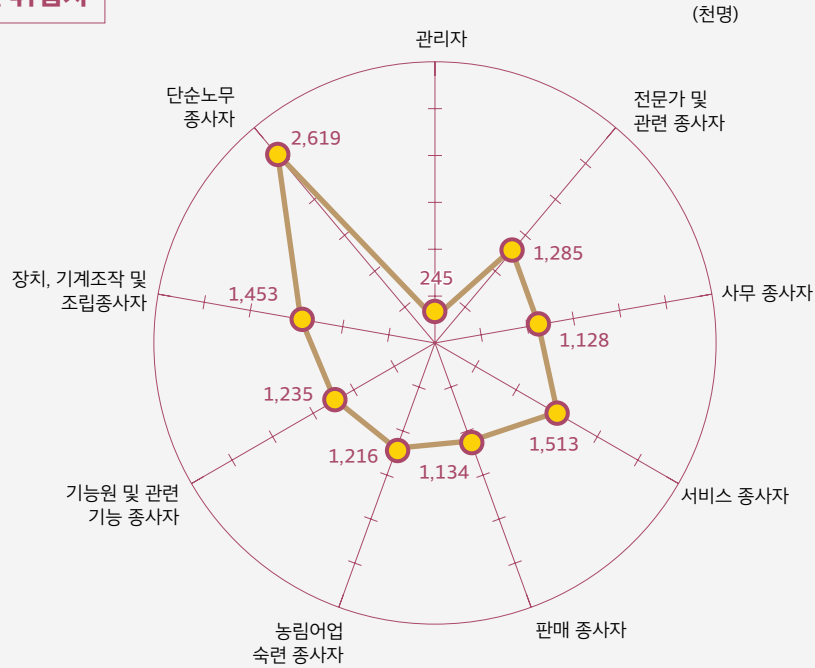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종별 취업자

2021년 장년층 취업자는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년층 직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17	'18	'19	'20	'21
전체	10,392 (100.0)	10,670 (100.0)	11,144 (100.0)	11,432 (100.0)	11,828 (100.0)
관리자	199 (1.9)	234 (2.2)	261 (2.3)	255 (2.2)	245 (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78 (10.4)	1,128 (10.6)	1,167 (10.5)	1,238 (10.8)	1,285 (10.9)
사무 종사자	909 (8.7)	990 (9.3)	1,072 (9.6)	1,109 (9.7)	1,128 (9.5)
서비스 종사자	1,248 (12.0)	1,290 (12.1)	1,404 (12.6)	1,449 (12.7)	1,513 (12.8)
판매 종사자	1,175 (11.3)	1,216 (11.4)	1,232 (11.1)	1,157 (10.1)	1,134 (9.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030 (9.9)	1,099 (10.3)	1,152 (10.3)	1,188 (10.4)	1,216 (10.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068 (10.3)	1,059 (9.9)	1,111 (10.0)	1,150 (10.1)	1,235 (10.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37 (13.8)	1,427 (13.4)	1,431 (12.8)	1,427 (12.5)	1,453 (12.3)
단순노무 종사자	2,249 (21.6)	2,228 (20.9)	2,314 (20.8)	2,459 (21.5)	2,619 (2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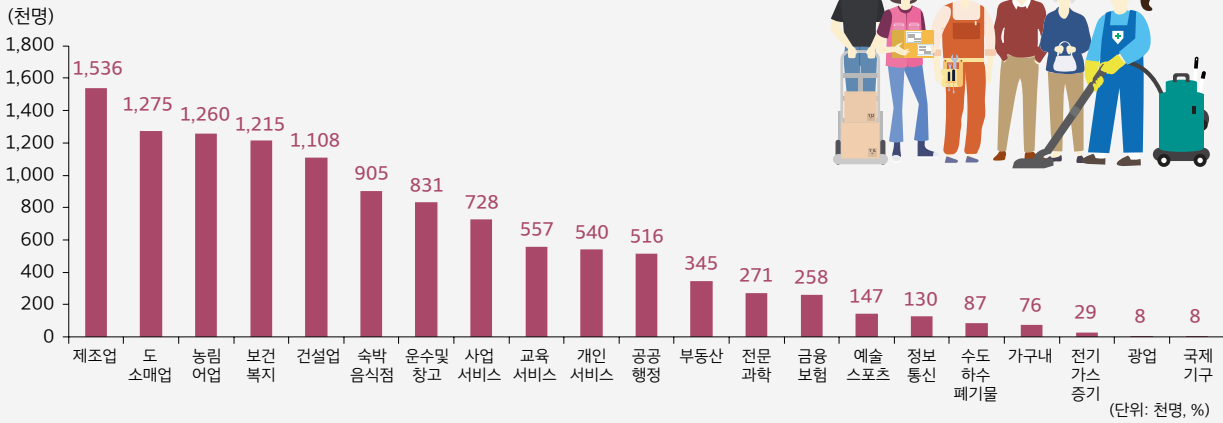
주) 7차 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3년 이후의 원계열 자료를 소급 보정하면서 '13년 이전자료와 시계열이 단절됨



## 산업별 취업자

2021년 장년층 취업자는 제조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순으로 많다.  
연도별로 보건복지업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다.

장년층 산업별 취업자



	'17	'18	'19	'20	'21
전 산업	10,392 (100.0)	10,670 (100.0)	11,144 (100.0)	11,432 (100.0)	11,828 (100.0)
농림어업	1,088 (10.5)	1,145 (10.7)	1,184 (10.6)	1,226 (10.7)	1,260 (10.6)
광업	15 (0.1)	11 (0.1)	7 (0.1)	7 (0.1)	8 (0.1)
제조업	1,440 (13.9)	1,458 (13.7)	1,515 (13.6)	1,530 (13.4)	1,536 (13.0)
전기가스증기	21 (0.2)	15 (0.1)	18 (0.2)	28 (0.2)	29 (0.2)
수도하수폐기물	50 (0.5)	54 (0.5)	56 (0.5)	79 (0.7)	87 (0.7)
건설업	957 (9.2)	978 (9.2)	1,001 (9.0)	1,024 (9.0)	1,108 (9.4)
도소매업	1,330 (12.8)	1,378 (12.9)	1,390 (12.5)	1,313 (11.5)	1,275 (10.8)
운수및창고	753 (7.2)	774 (7.3)	798 (7.2)	805 (7.0)	831 (7.0)
숙박음식점	916 (8.8)	907 (8.5)	933 (8.4)	908 (7.9)	905 (7.7)
정보통신	95 (0.9)	105 (1.0)	124 (1.1)	130 (1.1)	130 (1.1)
금융보험	210 (2.0)	230 (2.2)	214 (1.9)	217 (1.9)	258 (2.2)
부동산	318 (3.1)	328 (3.1)	343 (3.1)	328 (2.9)	345 (2.9)
전문과학	197 (1.9)	227 (2.1)	243 (2.2)	264 (2.3)	271 (2.3)
사업서비스	709 (6.8)	678 (6.4)	676 (6.1)	685 (6.0)	728 (6.2)
공공행정	422 (4.1)	442 (4.1)	488 (4.4)	518 (4.5)	516 (4.4)
교육서비스	465 (4.5)	482 (4.5)	501 (4.5)	516 (4.5)	557 (4.7)
보건복지	662 (6.4)	733 (6.9)	888 (8.0)	1,045 (9.1)	1,215 (10.3)
예술스포츠	114 (1.1)	114 (1.1)	138 (1.2)	151 (1.3)	147 (1.2)
개인서비스	565 (5.4)	563 (5.3)	553 (5.0)	562 (4.9)	540 (4.6)
가구내	62 (0.6)	46 (0.4)	70 (0.6)	88 (0.8)	76 (0.6)
국제기구	4 (0.0)	3 (0.0)	6 (0.1)	8 (0.1)	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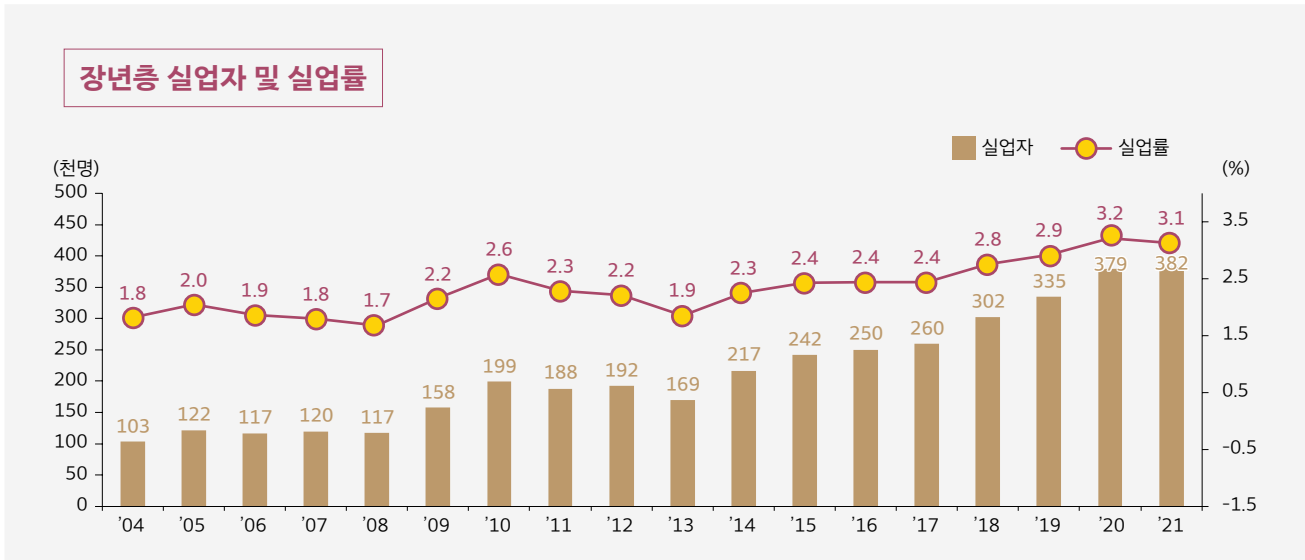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전체대비 비중

주) 10차 표준산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3년 이후의 원계열 자료를 소급 보정하면서 '13년 이전자료와 시계열이 단절됨

### 3. 장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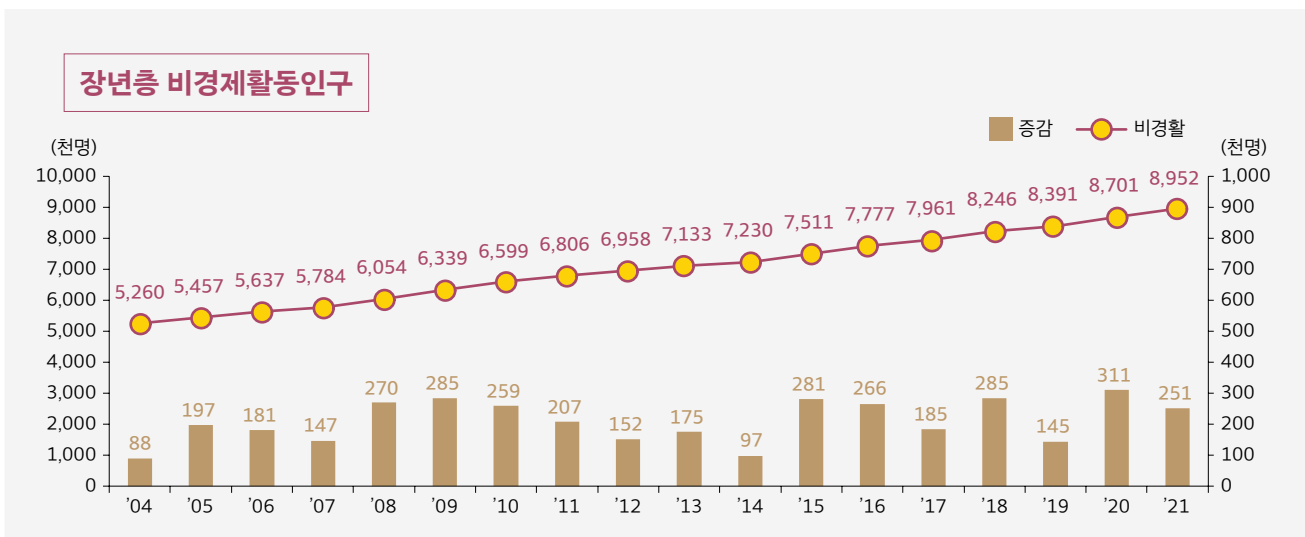
#### 실업자 및 실업률

2021년 장년층 실업률은 3.1%로 '13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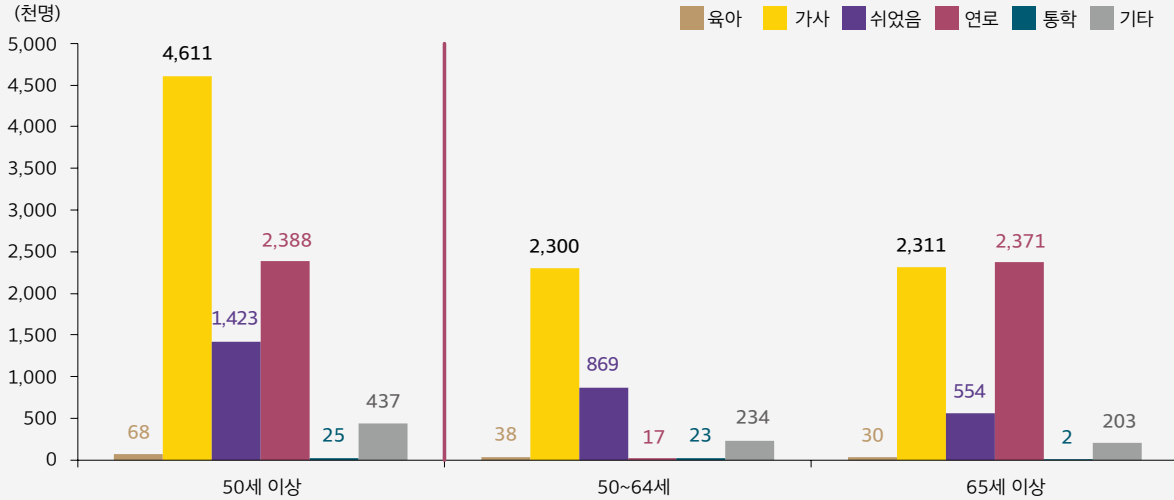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 사유

2021년 장년층 비경제활동 사유를 보면 가사가 4,611천명으로 가장 많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로의 비중이 높아진다.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육아	가사	쉬었음	연로	재학·수강	기타	
							취업준비	
50세 이상	8,952 (100.0)	68 (0.8)	4,611 (51.5)	1,423 (15.9)	2,388 (26.7)	25 (0.3)	35 (0.4)	437 (4.9)
50~64세	3,482 (100.0)	38 (1.1)	2,300 (66.1)	869 (25.0)	17 (0.5)	23 (0.7)	33 (1.0)	234 (6.7)
65세 이상	5,470 (100.0)	30 (0.5)	2,311 (42.3)	554 (10.1)	2,371 (43.3)	2 (0.0)	2 (0.0)	203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1년), ( )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

\*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등을 포함,  
'취업준비'는 '재학·수강'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과 '기타' 중 취업준비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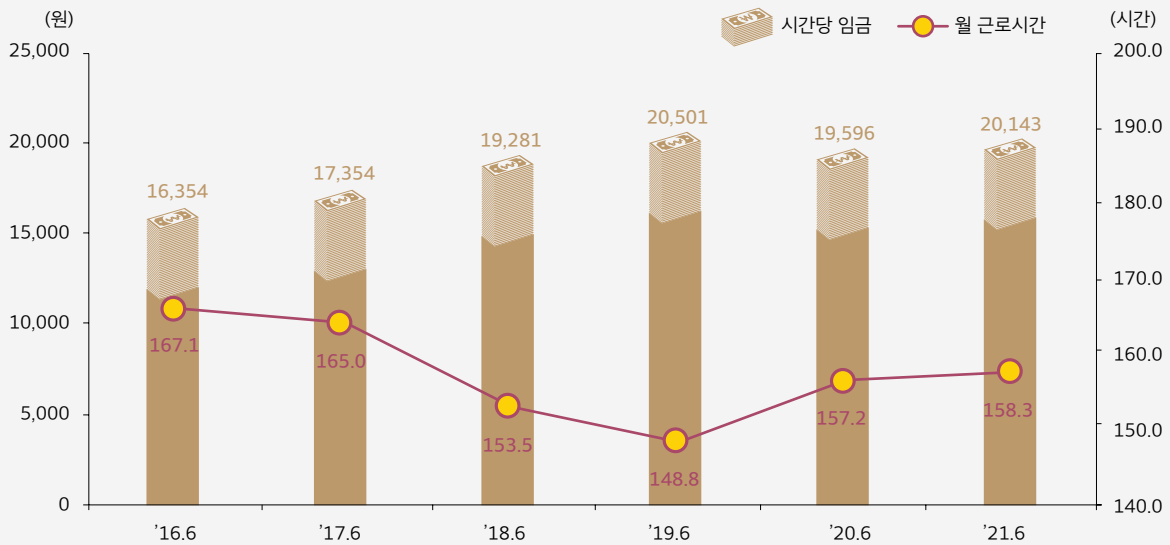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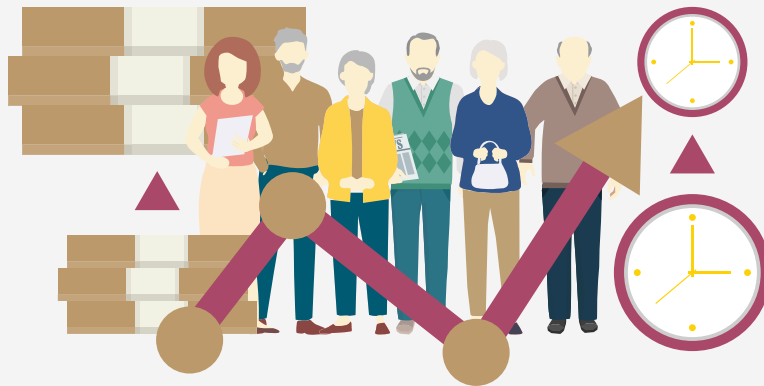
## 4. 장년 근로조건\*

###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장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43원이고 월 근로시간은 158.3시간이다.

\* 장년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장년층 시간당 임금 및 월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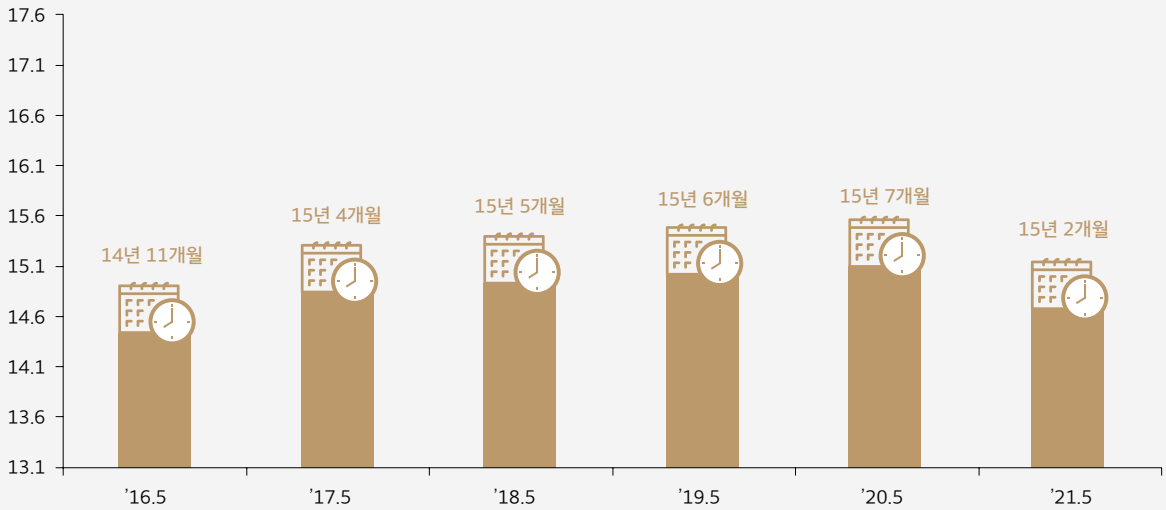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5. 정년 현황

## 근속기간

2021년 5월 기준 55~64세 취업 유경험자들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근속기간은 15년 2개월이며, 10~20년 기간이 30.1%로 가장 많다.

장년층 평균 근속기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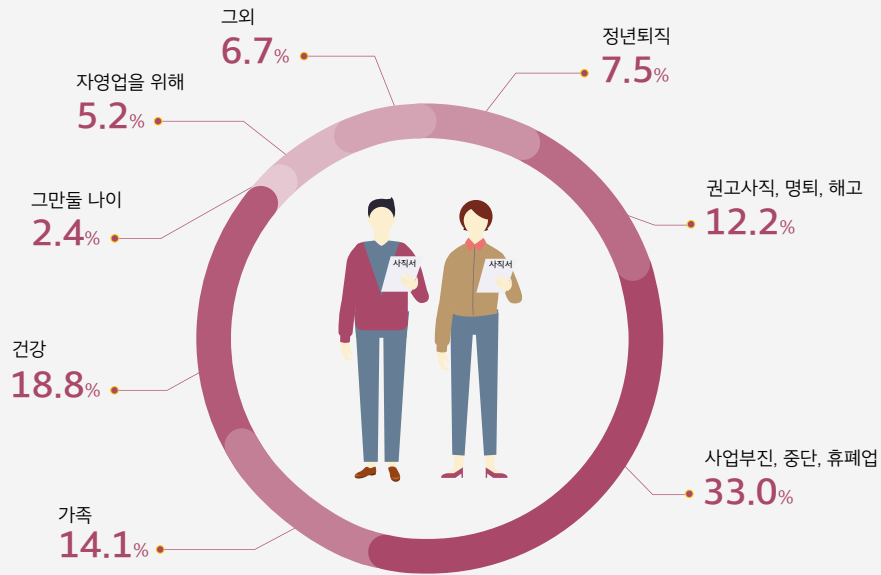
	'16.5	'17.5	'18.5	'19.5	'20.5	'21.5
전 체	6,866 (100.0)	7,150 (100.0)	7,483 (100.0)	7,705 (100.0)	7,843 (100.0)	7,993 (100.0)
5년미만	1,214 (17.7)	1,225 (17.1)	1,215 (16.2)	1,214 (15.8)	1,222 (15.6)	1,287 (16.1)
5~10년미만	1,327 (19.3)	1,284 (18.0)	1,308 (17.5)	1,358 (17.6)	1,390 (17.7)	1,509 (18.9)
10~20년미만	2,012 (29.3)	2,147 (30.0)	2,283 (30.5)	2,348 (30.5)	2,353 (30.0)	2,407 (30.1)
20~30년미만	1,306 (19.0)	1,401 (19.6)	1,445 (19.3)	1,517 (19.7)	1,544 (19.7)	1,511 (18.9)
30년이상	1,007 (14.7)	1,094 (15.3)	1,233 (16.5)	1,268 (16.5)	1,335 (17.0)	1,280 (16.0)
평균 근속기간	14년 11개월	15년 4개월	15년 5개월	15년 6개월	15년 7개월	15년 2개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 전체대비 비중

주) 55~64세 인구 중 현재 취업자와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도 포함

2021년 5월 기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건강이 좋지않아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직 연령은 49.3세이다.

장년층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단위: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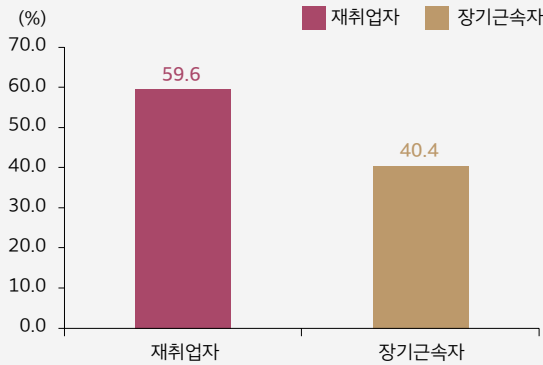
	'17.5		'18.5		'19.5		'20.5		'21.5	
	이직 연령	비중	이직 연령	비중	이직 연령	비중	이직 연령	비중	이직 연령	비중
전 체	49.1	(100.0)	49.1	(100.0)	49.4	(100.0)	49.4	(100.0)	49.3	(100.0)
정년퇴직	58.1	(7.9)	58.4	(7.5)	58.8	(7.1)	58.8	(7.8)	59.1	(7.5)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51.3	(11.9)	51.7	(11.2)	51.8	(12.2)	51.8	(12.5)	51.7	(12.2)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50.7	(31.1)	50.7	(31.9)	50.9	(33.0)	51.0	(33.2)	51.3	(33.0)
가족을 돌보기 위해	39.6	(15.6)	38.3	(15.8)	38.2	(13.8)	38.1	(14.0)	38.1	(14.1)
건강이 좋지 않아서	50.2	(19.2)	51.7	(19.5)	51.4	(19.8)	51.2	(19.3)	50.5	(18.8)
일을 그만 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51.6	(4.1)	50.9	(2.3)	51.1	(1.9)	50.8	(2.2)	51.1	(2.4)
자영업을 하기 위해	47.5	(4.8)	47.1	(5.5)	46.4	(5.2)	46.5	(4.9)	46.4	(5.2)
그 외	45.0	(5.4)	44.8	(6.3)	46.3	(6.9)	46.3	(6.1)	46.0	(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  
 주) 그 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기타 '자영업을 하기 위해' 항목은 '16년 이전 조사에는 없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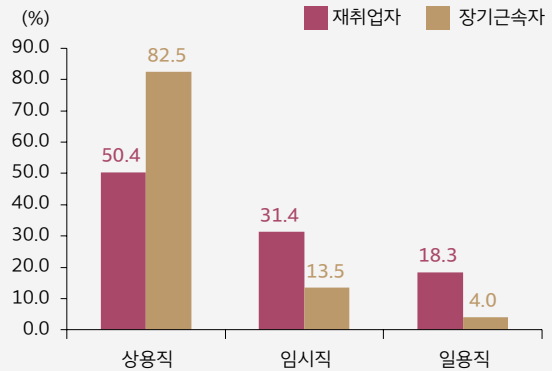
## 재취업\* 및 장기근속

2021년 5월 기준 55~64세 취업자 중 재취업자는 59.6%, 장기근속자는 40.4%로 나타났으며, 재취업자는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 비중이 늘어났다.

장기근속자 및 재취업자



장기근속과 재취업 근로자 종사상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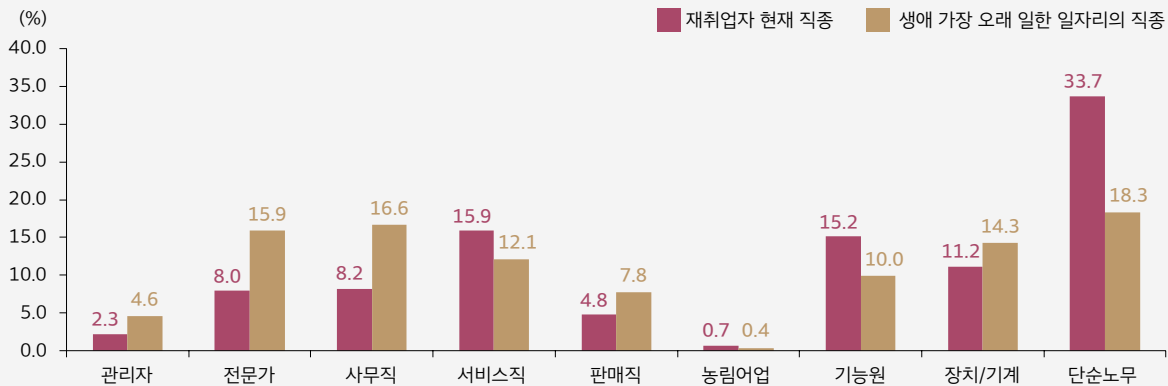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1.5월)  
 주) 55~64세 인구 기준

## 직업이동

55~64세 재취업자는 단순노무 직종에서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직과 기능원 직종에서는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그 외의 직종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장년층 재취업 근로자의 직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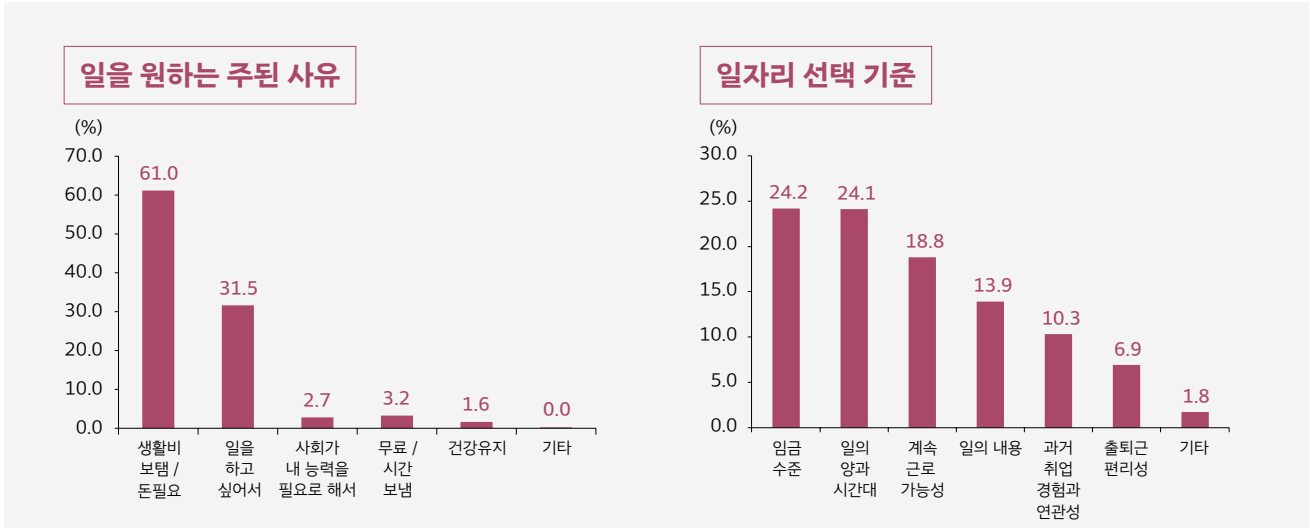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1.5월)

\* '재취업'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원자료에서 '임금근로자 중 현재의 일자리가 생애 가장 오랜 일자리가 아닌 사람'으로, 장기근속자는 '임금근로자 중 현재의 일자리가 생애 가장 오랜 일자리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산출한 것임

## 희망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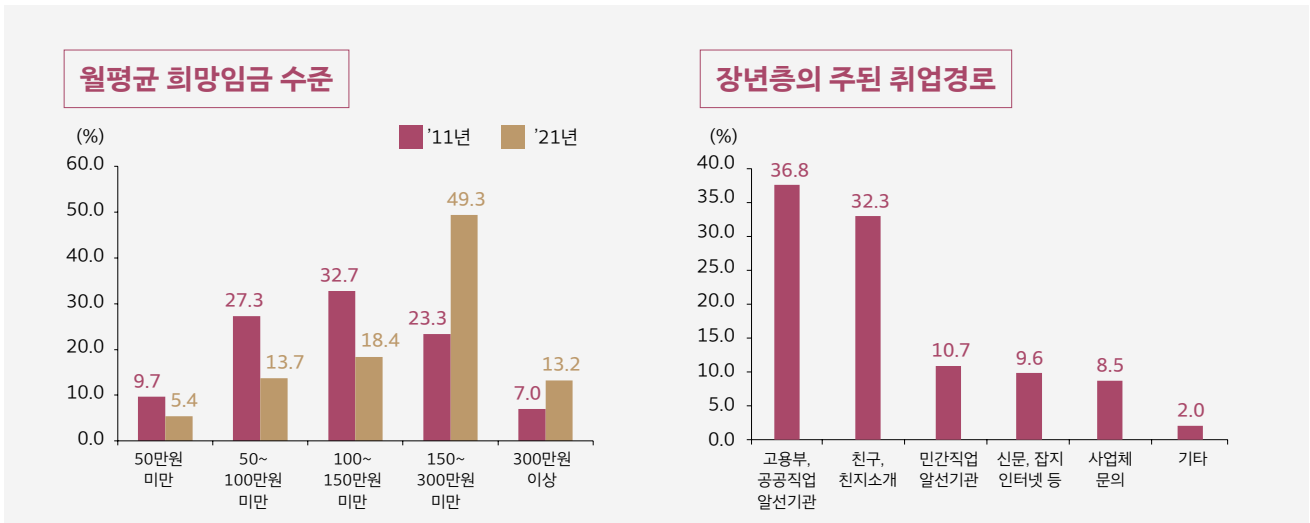
55~64세 인구 중 79.2%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구직 사유로는 생활비보탬이 가장 컸으며, 일자리 선택기준도 임금수준이 주된 기준이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1.5월)

## 희망 임금수준

희망임금수준은 150~300만원대를 원했고 주된 취업경로는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직업알선 기관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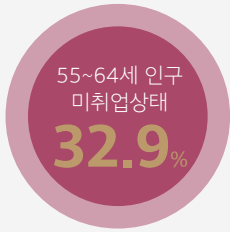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1.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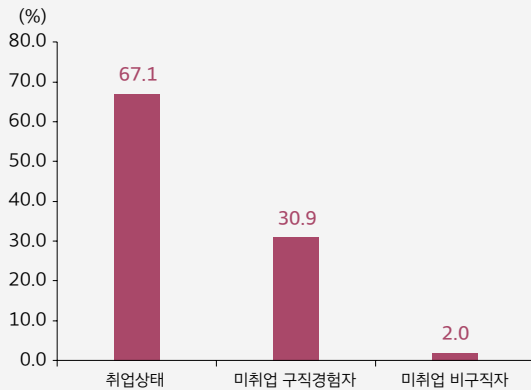


## 미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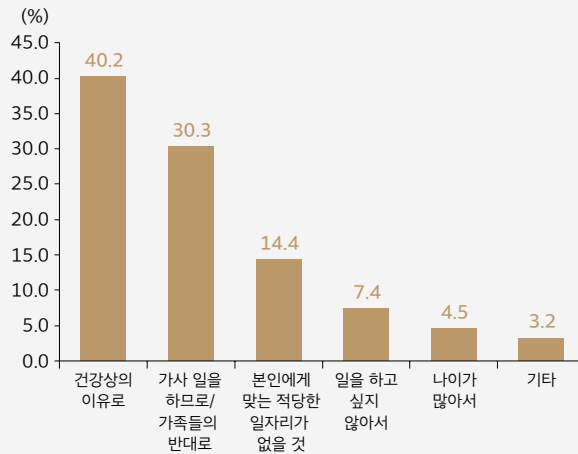
2021년 5월 55~64세 인구의 32.9%는 미취업상태이고, 미취업자의 비구직 사유로는 '건강문제', '가사 또는 가족의 반대'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경험 비율



비구직 사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1.5월)

## 정년

2021년 단일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61.5세이다.

(단위: 세)

	'17.6	'18.6	'19.6	'20.6	'21.6
평균 정년	61.1	61.2	61.4	61.5	61.5
300인 미만 사업장	61.1	61.2	61.4	61.5	61.5
300인 이상 사업장	60.2	60.2	60.2	60.2	60.2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단일정년이 있는 사업장 기준

## 노동시장 은퇴

2020년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OECD평균보다 길다.  
2010년에 비하면 은퇴시기가 빨라졌다.

(단위: 세)

		OECD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멕시코
남성	'10	62.5	67.1	62.9	67.2	61.1	62.9	58.9	66.9
	'20	63.8	65.7	64.9	68.2	63.1	63.7	60.4	66.2
여성	'10	61.3	66.1	63.4	64.5	61.1	61.3	59.1	65.7
	'20	62.4	64.9	64.7	66.7	63.2	63.2	60.9	62.5

자료: OECD  
 주) '유효 은퇴연령'은 OECD가 40세 이상 연령 계층의 5세 단위 구간별 경활참가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추정된 값이며, 위 표에서 '20년', '10년'의 은퇴연령은 각각 '15~'20년, '05~'10년의 평균 은퇴연령임

## 6. 장년층 동태 분석

### 취업활동 상태 변동

2006년 당시 취업상태에 있던 장년층(45세이상)중 '20년도(55세이상)에도 취업상태인 비중은 56.6%이다. 그중 동일직장 유지는 47.7%, 상용에서 임시·일용으로 이동한 경우는 13.7%였다.

(단위: 명, %)

'20년 \ '06년	표본수	전체				실업자	비경활
		취업자	동일직장 취업 상태	일자리 이동	취업자		
취업자('06년)	2,316[100.0]	1,175[56.6] (100.0)	595 (47.7)	580 (52.3)	15[0.7]	1,126[42.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주) 1차년도 취업 상태에 있는 3,922명 중 8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328명과 7차년도 종단가중값이 결측치인 278명을 제외한 총 2,316명에 대해 분석

(단위: 명, %)

'20년 \ '06년	취업자	동일직장 취업 상태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취업자	595	133	88	16	29	402	60	
임금근로자	133	100.0%	69.13%	16.20%	14.67%			
상용	95	77.87%	86.32%	11.45%	2.22%			
임시	11	7.86%	20.24%	75.87%	3.88%			
일용	27	14.27%	2.26%	9.20%	88.54%			
자영업자	397					97.63%	2.37%	
무급가족	65					27.00%	73.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단위: 명, %)

'20년 \ '06년	취업자	일자리 이동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취업자	569	368	180	118	70	171	30	
임금근로자	324	74.52%	54.78%	27.93%	17.29%	17.28%	1.50%	
상용	221	74.05%	61.72%	25.38%	12.90%	16.07%	1.85%	
임시	45	77.72%	35.31%	44.35%	20.33%	14.10%	0.00%	
일용	58	73.84%	43.43%	24.44%	32.13%	24.55%	1.28%	
자영업자	206	53.94%	54.38%	25.60%	20.02%	43.31%	3.03%	
무급가족	39	28.53%	11.45%	68.34%	20.22%	29.93%	28.3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주) 1차년도 취업 상태에 있는 580명 중 응답거부 또는 무응답이라고 응답한 11명을 제외한 총 569명에 대해 분석

## 직업 변동

일자리 이동한 장년층 중에서 이전 직업과 현직업이 동일한 경우는 ⑨단순노무,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에서 높았다. ③사무직은 유지율이 가장 낮았다.

(단위: 명, %)

'06년 \ '20년	표본수	취업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취업자*	545	27	28	14	76	38	49	57	46	210
①	24	21.82%	8.28%	5.60%	0.00%	18.22%	0.84%	20.55%	11.93%	12.76%
②	52	8.48%	28.94%	2.26%	12.55%	10.68%	4.37%	6.19%	3.77%	22.77%
③	63	2.72%	5.79%	10.82%	15.09%	8.20%	3.72%	11.46%	8.67%	33.52%
④	56	5.91%	0.00%	0.00%	35.59%	12.45%	4.16%	0.00%	2.86%	39.03%
⑤	69	10.43%	0.00%	3.22%	12.87%	25.17%	3.43%	13.34%	2.20%	29.33%
⑥	36	2.25%	0.00%	0.00%	8.84%	0.00%	40.41%	0.00%	0.00%	48.50%
⑦	59	1.08%	5.73%	2.36%	4.34%	1.12%	1.78%	35.52%	7.09%	40.99%
⑧	60	2.37%	2.08%	0.00%	21.81%	3.18%	3.95%	10.06%	35.24%	21.32%
⑨	126	3.67%	1.48%	0.00%	12.87%	3.33%	4.04%	7.80%	8.04%	58.7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중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주) ①관리자, ②(준)전문가, ③사무직, ④서비스근로자, ⑤판매근로자,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단순노무

## 산업 변동

일자리 이동에도 동일산업을 유지한 경우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장년층 구직자의 희망직종은 단순노무가 가장 많았다.

(단위: 명, %)

'06년 \ '20년	표본수	전 체					
		①	②	③	④	⑤	⑥
취업자	547	59	40	60	98	57	233
①	39	43.56%	4.72%	7.14%	11.08%	0.00%	33.49%
②	92	2.26%	29.78%	7.41%	7.25%	7.88%	45.42%
③	64	10.21%	3.09%	44.57%	7.22%	14.18%	20.74%
④	140	3.13%	6.08%	11.83%	35.98%	8.62%	34.36%
⑤	62	5.16%	3.56%	1.63%	10.89%	37.24%	41.53%
⑥	150	4.55%	3.68%	7.33%	13.59%	6.57%	64.2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중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주) ①농림어업, ②제조업(광업 포함), ③건설업, ④도소매/음식/숙박업, ⑤전기/운수/통신/금융, ⑥기타서비스업

## 구직자의 희망직종

(단위: 명, %)

		전체									
		표본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591	3.82%	1.99%	4.51%	27.93%	8.62%	5.62%	6.39%	2.50%	38.62%
성별	남	226	6.87%	3.10%	5.92%	17.64%	2.53%	5.97%	12.81%	5.92%	39.24%
	여	365	1.76%	1.23%	3.56%	34.90%	12.74%	5.38%	2.04%	0.19%	38.19%
연령	50~54세	-	-	-	-	-	-	-	-	-	-
	55~59세	91	3.91%	6.16%	10.24%	40.26%	13.01%	3.38%	4.95%	1.46%	16.63%
	60~64세	113	3.61%	2.76%	3.63%	32.25%	6.83%	5.69%	9.33%	2.67%	33.23%
	65~69세	126	4.93%	0.01%	5.89%	26.31%	8.07%	1.29%	9.31%	3.61%	40.57%
	70~74세	90	2.06%	0.00%	1.05%	15.38%	5.64%	7.17%	3.61%	4.55%	60.54%
	75~79세	76	4.76%	2.20%	2.10%	24.91%	11.79%	2.18%	3.69%	0.00%	48.37%
	80세이상	95	2.75%	0.00%	0.00%	19.10%	7.22%	22.96%	0.55%	0.85%	46.56%
학력	초졸이하	207	3.44%	0.00%	1.89%	18.73%	6.74%	9.19%	5.63%	1.68%	52.71%
	중졸이하	108	2.38%	0.00%	1.61%	27.34%	8.52%	4.70%	8.84%	0.00%	46.62%
	고졸	211	1.95%	0.72%	2.96%	33.58%	10.89%	4.62%	5.46%	4.59%	35.23%
	초대졸이상	65	11.09%	11.45%	16.99%	31.95%	6.46%	2.20%	7.63%	1.42%	10.81%
수입	1,200만원미만	156	4.13%	3.82%	2.43%	22.21%	7.96%	7.26%	2.55%	0.00%	49.64%
	1,200만~2,400만원미만	168	0.78%	0.89%	1.02%	24.63%	10.08%	5.30%	9.34%	4.28%	43.69%
	2,400만~4,250만원미만	128	4.46%	1.26%	7.63%	29.05%	9.74%	3.15%	6.12%	3.25%	35.34%
	4,250만원이상	138	5.88%	2.09%	6.96%	34.82%	7.00%	5.87%	7.04%	2.32%	28.01%
지역	대도시	301	2.83%	3.14%	4.17%	28.76%	11.32%	3.01%	5.86%	2.68%	38.23%
	중소도시	192	5.43%	0.48%	5.39%	30.06%	5.72%	4.59%	7.40%	3.21%	37.71%
	읍면부	98	3.27%	1.66%	3.47%	19.30%	6.21%	17.94%	5.72%	0.00%	42.42%
건강	보통이상	458	4.34%	2.17%	4.24%	29.93%	8.66%	5.28%	7.19%	2.21%	35.99%
	나쁜편	133	1.61%	1.20%	5.70%	19.35%	8.43%	7.07%	2.96%	3.75%	49.9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횡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주1) ①관리자, ②(중)전문가, ③사무직, ④서비스근로자, ⑤판매근로자,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단순노무

주2) 수입은 조사 당해의 1년 전 가구소득





[www.moel.go.kr](http://www.moel.go.kr)

## 04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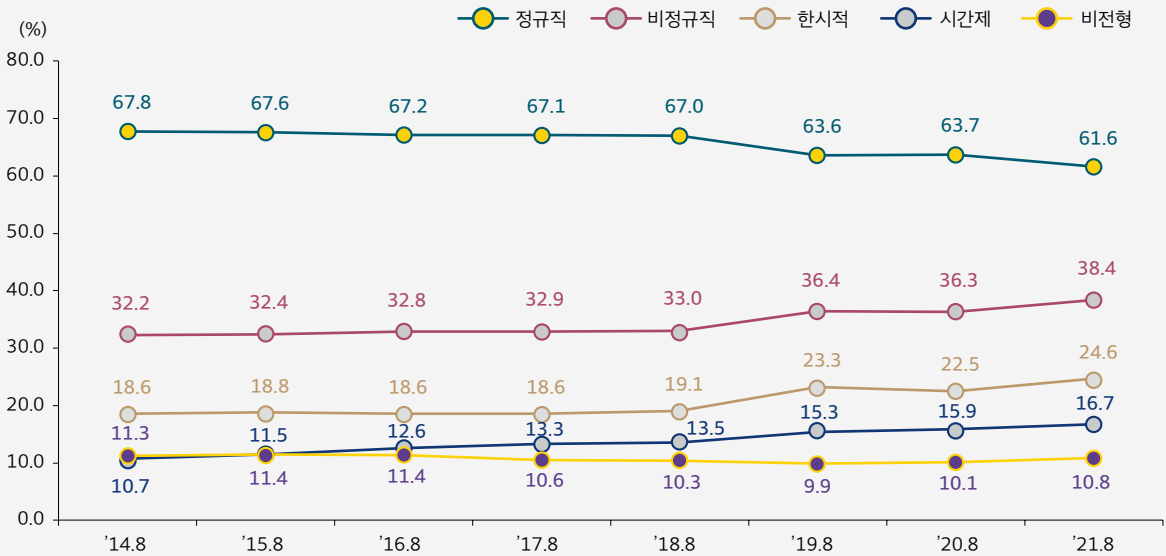


# 1. 비정규직 취업 현황

## 비정규직\* 현황

2021년 8월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20,992천명)대비 38.4% 수준이다.

비정규직 현황



\* 이 자료에서 비정규직은 ①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② 시간제근로자, ③ 비전형근로자(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가내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이는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며, 근로자를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분류하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과는 서로 다른 개념임. 따라서 정규직을 상용직으로 또는 비정규직을 임시직·일용직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 유형별 합계는(예, 기간제이면서 시간제인 경우 기간제와 시간제에 모두 집계되어 합산됨) 비정규직 전체 수(순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019년 조사에서부터 조사방식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추가포함됨. '19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규모에 영향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직접적인 비교 어려움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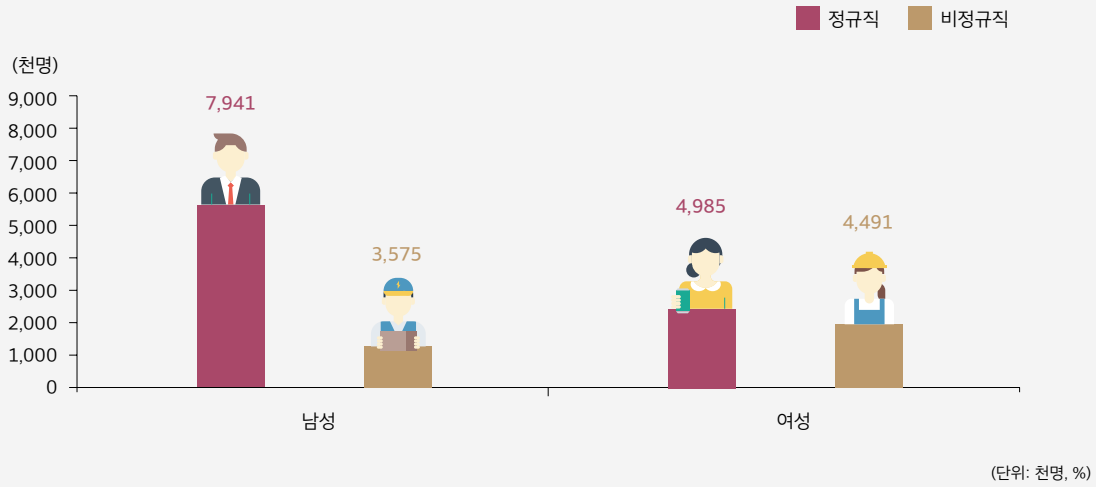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		
'14.8월	18,992	12,869	6,123	3,529	2,763	2,035	2,137	195	608	533	58	816
	(100.0)	(67.8)	(32.2)	(18.6)	(14.5)	(10.7)	(11.3)	(1.0)	(3.2)	(2.8)	(0.3)	(4.3)
'15.8월	19,474	13,166	6,308	3,655	2,872	2,236	2,229	211	660	502	55	886
	(100.0)	(67.6)	(32.4)	(18.8)	(14.7)	(11.5)	(11.4)	(1.1)	(3.4)	(2.6)	(0.3)	(4.5)
'16.8월	19,743	13,262	6,481	3,671	2,939	2,488	2,245	201	702	502	42	874
	(100.0)	(67.2)	(32.8)	(18.6)	(14.9)	(12.6)	(11.4)	(1.0)	(3.6)	(2.5)	(0.2)	(4.4)
'17.8월	20,006	13,428	6,578	3,725	2,930	2,663	2,112	188	694	497	30	801
	(100.0)	(67.1)	(32.9)	(18.6)	(14.6)	(13.3)	(10.6)	(0.9)	(3.5)	(2.5)	(0.1)	(4.0)
'18.8월	20,045	13,431	6,614	3,823	3,005	2,709	2,071	189	596	506	53	801
	(100.0)	(67.0)	(33.0)	(19.1)	(15.0)	(13.5)	(10.3)	(0.9)	(3.0)	(2.5)	(0.3)	(4.0)
'19.8월	20,559	13,078	7,481	4,785	3,799	3,156	2,045	182	615	528	46	748
	(100.0)	(63.6)	(36.4)	(23.3)	(18.5)	(15.3)	(9.9)	(0.9)	(3.0)	(2.6)	(0.2)	(3.6)
'20.8월	20,446	13,020	7,426	4,608	3,933	3,252	2,073	164	552	498	49	896
	(100.0)	(63.7)	(36.3)	(22.5)	(19.2)	(15.9)	(10.1)	(0.8)	(2.7)	(2.4)	(0.2)	(4.4)
'21.8월	20,992	12,927	8,066	5,171	4,537	3,512	2,278	211	585	560	79	955
	(100.0)	(61.6)	(38.4)	(24.6)	(21.6)	(16.7)	(10.8)	(1.0)	(2.8)	(2.7)	(0.4)	(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성별 현황

2021년 8월 비정규직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55.7%로 남성 44.3%보다 많다. 특히 가내근로, 시간제, 특수형태근로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다.

비정규직 성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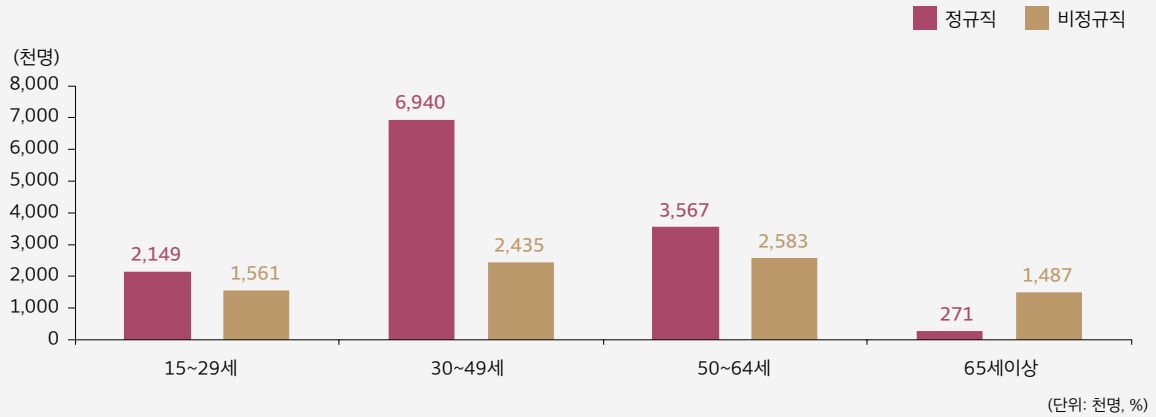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		
전체	20,992 (100.0) [100.0]	12,927 (100.0) [61.6]	8,066 (100.0) [38.4]	5,171 (100.0) [24.6]	4,537 (100.0) [21.6]	3,512 (100.0) [16.7]	2,278 (100.0) [10.8]	211 (100.0) [1.0]	585 (100.0) [2.8]	560 (100.0) [2.7]	79 (100.0) [0.4]	955 (100.0) [4.5]
남성	11,517 (54.9) [100.0]	7,941 (61.4) [69.0]	3,575 (44.3) [31.0]	2,234 (43.2) [19.4]	1,964 (43.3) [17.1]	1,011 (28.8) [8.8]	1,342 (58.9) [11.7]	109 (51.6) [0.9]	351 (60.1) [3.0]	207 (36.9) [1.8]	17 (21.3) [0.1]	742 (77.7) [6.4]
여성	9,476 (45.1) [100.0]	4,985 (38.6) [52.6]	4,491 (55.7) [47.4]	2,938 (56.8) [31.0]	2,573 (56.7) [27.2]	2,502 (71.2) [26.4]	936 (41.1) [9.9]	102 (48.4) [1.1]	233 (39.9) [2.5]	354 (63.1) [3.7]	62 (78.7) [0.7]	213 (22.3) [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1.8월), ( ) 유형 내 성별 비중 [ ] 성별 내 유형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연령별 현황

2021년 8월 비정규직의 연령분포를 보면 30~49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게 차이난다.

비정규직 연령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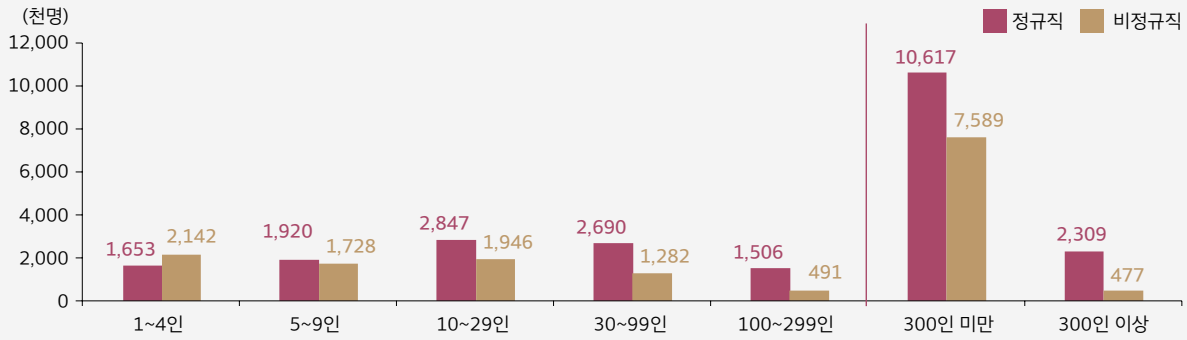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비전형근로자								
				한시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		
전체	20,992 (100.0) [100.0]	12,927 (100.0) [61.6]	8,066 (100.0) [38.4]	5,171 (100.0) [24.6]	4,537 (100.0) [21.6]	3,512 (100.0) [16.7]	2,278 (100.0) [10.8]	211 (100.0) [1.0]	585 (100.0) [2.8]	560 (100.0) [2.7]	79 (100.0) [0.4]	955 (100.0) [4.5]
15~29세	3,711 (17.7) [100.0]	2,149 (16.6) [57.9]	1,561 (19.4) [42.1]	973 (18.8) [26.2]	829 (18.3) [22.3]	820 (23.4) [22.1]	212 (9.3) [5.7]	38 (18.1) [1.0]	44 (7.5) [1.2]	51 (9.1) [1.4]	12 (15.2) [0.3]	71 (7.5) [1.9]
30~49세	9,375 (44.7) [100.0]	6,940 (53.7) [74.0]	2,435 (30.2) [26.0]	1,567 (30.3) [16.7]	1,382 (30.5) [14.7]	804 (22.9) [8.6]	672 (29.5) [7.2]	52 (24.8) [0.6]	118 (20.2) [1.3]	251 (44.8) [2.7]	29 (36.7) [0.3]	252 (26.4) [2.7]
50~64세	6,150 (29.3) [100.0]	3,567 (27.6) [58.0]	2,583 (32.0) [42.0]	1,487 (28.8) [24.2]	1,251 (27.6) [20.3]	899 (25.6) [14.6]	1,012 (44.4) [16.5]	82 (39.0) [1.3]	247 (42.3) [4.0]	217 (38.7) [3.5]	18 (23.2) [0.3]	501 (52.5) [8.2]
65세 이상	1,758 (8.4) [100.0]	271 (2.1) [15.4]	1,487 (18.4) [84.6]	1,144 (22.1) [65.1]	1,075 (23.7) [61.2]	989 (28.2) [56.3]	382 (16.8) [21.7]	38 (18.1) [2.2]	175 (29.9) [10.0]	42 (7.4) [2.4]	20 (24.9) [1.1]	130 (13.6) [7.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1.8월), ( ) 전체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규모별 현황

2021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별 분포는 300인 미만에서 94.1%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10인미만이 전체 비정규직중 48%를 차지한다.

비정규직 규모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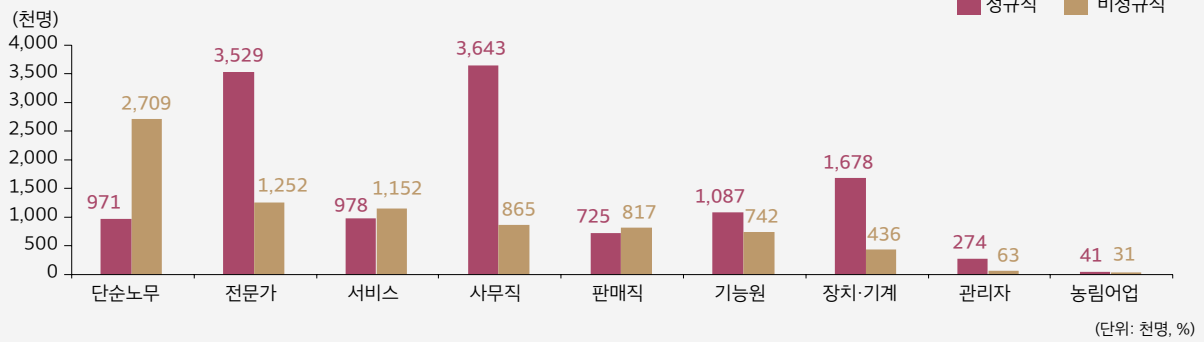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	
전체	20,992 (100.0)	12,927 (100.0)	8,066 (100.0)	5,171 (24.6)	4,537 (100.0)	3,512 (100.0)	2,278 (100.0)	211 (100.0)	585 (100.0)	560 (100.0)	79 (100.0)	955 (100.0)
300인 미만	18,207 (86.7)	10,617 (82.1)	7,589 (94.1)	4,746 (91.8)	4,135 (91.1)	3,413 (97.2)	2,231 (98.0)	200 (95.2)	565 (96.7)	550 (98.3)	73 (92.0)	954 (99.9)
1~4인	3,795 (18.1)	1,653 (12.8)	2,142 (26.6)	983 (19.0)	759 (16.7)	1,333 (37.9)	703 (30.9)	51 (24.1)	117 (20.1)	121 (21.6)	41 (52.5)	415 (43.5)
5~9인	3,649 (17.4)	1,920 (14.9)	1,728 (21.4)	982 (19.0)	837 (18.4)	821 (23.4)	590 (25.9)	50 (23.8)	176 (30.1)	69 (12.2)	3 (3.7)	330 (34.6)
10~29인	4,793 (22.8)	2,847 (22.0)	1,946 (24.1)	1,420 (27.5)	1,283 (28.3)	751 (21.4)	523 (23.0)	53 (24.9)	161 (27.6)	174 (31.0)	15 (18.7)	141 (14.8)
30~99인	3,972 (18.9)	2,690 (20.8)	1,282 (15.9)	953 (18.4)	871 (19.2)	399 (11.4)	331 (14.5)	32 (15.3)	87 (14.9)	157 (28.0)	10 (12.2)	54 (5.6)
100~299인	1,997 (9.5)	1,506 (11.6)	491 (6.1)	407 (7.9)	386 (8.5)	109 (3.1)	84 (3.7)	15 (7.0)	24 (4.0)	30 (5.4)	4 (4.9)	14 (1.4)
300인 이상	2,786 (13.3)	2,309 (17.9)	477 (5.9)	426 (8.2)	402 (8.9)	100 (2.8)	47 (2.0)	10 (4.8)	20 (3.3)	10 (1.7)	6 (8.0)	1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1.8월), ( ) 전체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직종별 현황

2021년 8월 비정규직의 직종별 분포는 단순노무직이 33.6%로 가장 많다.

비정규직 직종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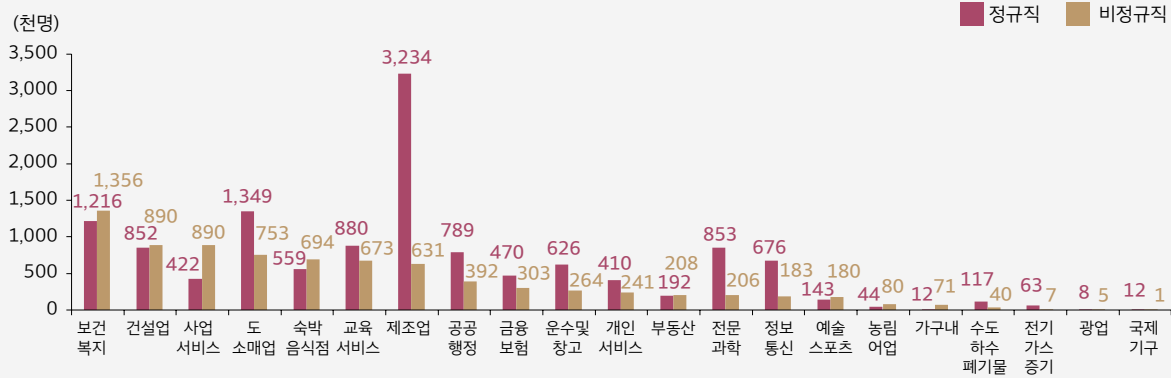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체	20,992 (100.0) [100.0]	12,927 (100.0) [61.6]	8,066 (100.0) [38.4]	5,171 (100.0) [24.6]	4,537 (100.0) [21.6]	3,512 (100.0) [16.7]	2,278 (100.0) [10.8]	211 (100.0) [1.0]	585 (100.0) [2.8]	560 (100.0) [2.7]	79 (100.0) [0.4]	955 (100.0) [4.5]
관리자	337 (1.6) [100.0]	274 (2.1) [81.4]	63 (0.8) [18.6]	55 (1.1) [16.4]	54 (1.2) [15.9]	5 (0.1) [1.3]	12 (0.5) [3.5]	3 (1.2) [0.8]	6 (1.0) [1.7]	4 (0.6) [1.1]		
전문가	4,781 (22.8) [100.0]	3,529 (27.3) [73.8]	1,252 (15.5) [26.2]	988 (19.1) [20.7]	913 (20.1) [19.1]	483 (13.7) [10.1]	133 (5.8) [2.8]	20 (9.6) [0.4]	10 (1.7) [0.2]	84 (15.1) [1.8]	16 (20.7) [0.3]	2 (0.2) [0.0]
사무직	4,508 (21.5) [100.0]	3,643 (28.2) [80.8]	865 (10.7) [19.2]	677 (13.1) [15.0]	635 (14.0) [14.1]	296 (8.4) [6.6]	74 (3.3) [1.6]	25 (12.1) [0.6]	17 (2.9) [0.4]	16 (2.8) [0.3]	6 (7.1) [0.1]	12 (1.2) [0.3]
서비스	2,130 (10.1) [100.0]	978 (7.6) [45.9]	1,152 (14.3) [54.1]	678 (13.1) [31.8]	576 (12.7) [27.1]	770 (21.9) [36.1]	152 (6.7) [7.1]	24 (11.2) [1.1]	43 (7.3) [2.0]	33 (5.8) [1.5]	17 (21.4) [0.8]	41 (4.3) [1.9]
판매직	1,542 (7.3) [100.0]	725 (5.6) [47.0]	817 (10.1) [53.0]	296 (5.7) [19.2]	217 (4.8) [14.1]	397 (11.3) [25.8]	354 (15.6) [23.0]	25 (11.7) [1.6]	8 (1.3) [0.5]	294 (52.6) [19.1]	8 (10.7) [0.5]	22 (2.3) [1.4]
농림어업	72 (0.3) [100.0]	41 (0.3) [57.4]	31 (0.4) [42.7]	20 (0.4) [27.5]	16 (0.4) [22.7]	6 (0.2) [7.9]	11 (0.5) [15.6]	1 (0.6) [1.8]	2 (0.3) [2.6]			8 (0.8) [11.1]
기능원	1,829 (8.7) [100.0]	1,087 (8.4) [59.4]	742 (9.2) [40.6]	333 (6.4) [18.2]	259 (5.7) [14.1]	121 (3.4) [6.6]	414 (18.2) [22.6]	20 (9.7) [1.1]	41 (7.0) [2.3]	7 (1.2) [0.4]	7 (9.1) [0.4]	360 (37.8) [19.7]
장치·기계	2,114 (10.1) [100.0]	1,678 (13.0) [79.4]	436 (5.4) [20.6]	320 (6.2) [15.1]	287 (6.3) [13.6]	71 (2.0) [3.3]	119 (5.2) [5.6]	10 (4.9) [0.5]	46 (7.8) [2.2]	34 (6.0) [1.6]	4 (4.6) [0.2]	39 (4.0) [1.8]
단순노무	3,680 (17.5) [100.0]	971 (7.5) [26.4]	2,709 (33.6) [73.6]	1,805 (34.9) [49.0]	1,581 (34.9) [43.0]	1,365 (38.9) [37.1]	1,009 (44.3) [27.4]	82 (39.0) [2.2]	413 (70.7) [11.2]	89 (16.0) [2.4]	21 (26.4) [0.6]	472 (49.4) [1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1.8월), ( ) 전체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산업별 현황

2021년 8월 비정규직의 산업별 분포는 보건복지업(16.8%), 건설업(11.0%), 사업서비스업(11.0%)순으로 많다.

비정규직 산업별현황



(단위: 천명, %)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총계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총계	기간제 근로자	총계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		
전체	20,992 (100.0) [100.0]	12,927 (100.0) [61.6]	8,066 (100.0) [38.4]	5,171 (100.0) [24.6]	4,537 (100.0) [21.6]	3,512 (100.0) [16.7]	2,278 (100.0) [10.8]	211 (100.0) [1.0]	585 (100.0) [2.8]	560 (100.0) [2.7]	79 (100.0) [0.4]	955 (100.0) [4.5]			
농림 어업	124 (0.6) [100.0]	44 (0.3) [35.8]	80 (1.0) [64.2]	26 (0.5) [20.8]	14 (0.3) [11.5]	21 (0.6) [17.2]	48 (2.1) [38.5]			2 (0.4) [1.7]	2 (2.9) [1.9]	47 (5.0) [38.2]			
광업	12 (0.1) [100.0]	8 (0.1) [61.5]	5 (0.1) [38.5]	4 (0.1) [35.2]	4 (0.1) [35.2]	0 (0.0) [0.0]	1 (0.0) [5.7]	1 (0.3) [5.7]							
제조업	3,865 (18.4) [100.0]	3,234 (25.0) [83.7]	631 (7.8) [16.3]	493 (9.5) [12.7]	430 (9.5) [11.1]	122 (3.5) [3.2]	81 (3.5) [2.1]	6 (2.9) [0.2]	5 (0.8) [0.1]	5 (0.8) [0.1]	16 (19.7) [0.4]	60 (6.3) [1.5]			
전기 가스 증기	70 (0.3) [100.0]	63 (0.5) [90.0]	7 (0.1) [10.1]	5 (0.1) [6.6]	4 (0.1) [6.0]	3 (0.1) [3.6]	3 (0.1) [3.6]					3 (0.3) [3.6]			
수도 하수 폐기물	156 (0.7) [100.0]	117 (0.9) [74.7]	40 (0.5) [25.3]	35 (0.7) [22.3]	33 (0.7) [21.3]	8 (0.2) [5.3]	3 (0.1) [2.0]		1 (0.1) [0.4]			3 (0.3) [1.6]			
건설업	1,742 (8.3) [100.0]	852 (6.6) [48.9]	890 (11.0) [51.1]	269 (5.2) [15.5]	200 (4.4) [11.5]	138 (3.9) [7.9]	596 (26.2) [34.2]	16 (7.7) [0.9]	37 (6.3) [2.1]	3 (0.6) [0.2]	2 (2.2) [0.1]	572 (59.9) [32.8]			

(단위: 천명, %)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		
도소매업	2,102 (10.0) [100.0]	1,349 (10.4) [64.2]	753 (9.3) [35.8]	379 (7.3) [18.0]	291 (6.4) [13.9]	400 (11.4) [19.0]	152 (6.7) [7.2]	14 (6.5) [0.7]	2 (0.4) [0.1]	77 (13.7) [3.7]	11 (13.5) [0.5]	51 (5.4) [2.4]
운수및창고	890 (4.2) [100.0]	626 (4.8) [70.3]	264 (3.3) [29.7]	155 (3.0) [17.4]	133 (2.9) [14.9]	74 (2.1) [8.3]	93 (4.1) [10.4]	3 (1.5) [0.4]	11 (1.9) [1.2]	53 (9.4) [5.9]		34 (3.5) [3.8]
숙박음식점	1,252 (6.0) [100.0]	559 (4.3) [44.6]	694 (8.6) [55.4]	291 (5.6) [23.3]	192 (4.2) [15.3]	534 (15.2) [42.6]	67 (3.0) [5.4]	5 (2.4) [0.4]	1 (0.2) [0.1]	2 (0.4) [0.2]	3 (3.6) [0.2]	56 (5.9) [4.5]
정보통신	859 (4.1) [100.0]	676 (5.2) [78.7]	183 (2.3) [21.3]	151 (2.9) [17.6]	141 (3.1) [16.4]	37 (1.0) [4.3]	25 (1.1) [3.0]	8 (4.0) [1.0]	3 (0.5) [0.3]	9 (1.5) [1.0]	4 (5.2) [0.5]	2 (0.2) [0.2]
금융보험	773 (3.7) [100.0]	470 (3.6) [60.8]	303 (3.8) [39.2]	84 (1.6) [10.9]	69 (1.5) [8.9]	35 (1.0) [4.6]	233 (10.2) [30.2]			232 (41.4) [30.0]	2 (2.8) [0.3]	
부동산	401 (1.9) [100.0]	192 (1.5) [48.0]	208 (2.6) [52.0]	159 (3.1) [39.7]	144 (3.2) [36.0]	54 (1.5) [13.5]	57 (2.5) [14.1]	11 (5.3) [2.8]	27 (4.6) [6.7]	16 (2.9) [4.0]		3 (0.3) [0.8]
전문과학	1,059 (5.0) [100.0]	853 (6.6) [80.5]	206 (2.6) [19.5]	164 (3.2) [15.5]	150 (3.3) [14.2]	65 (1.9) [6.1]	13 (0.6) [1.2]	1 (0.4) [0.1]		8 (1.4) [0.7]	3 (3.4) [0.3]	2 (0.2) [0.2]
사업서비스	1,311 (6.2) [100.0]	422 (3.3) [32.2]	890 (11.0) [67.8]	629 (12.2) [48.0]	575 (12.7) [43.9]	177 (5.0) [13.5]	664 (29.1) [50.6]	117 (55.6) [8.9]	484 (82.9) [36.9]	29 (5.2) [2.2]	2 (1.9) [0.1]	69 (7.2) [5.3]
공공행정	1,181 (5.6) [100.0]	789 (6.1) [66.8]	392 (4.9) [33.2]	378 (7.3) [32.0]	375 (8.3) [31.8]	260 (7.4) [22.0]	1 (0.1) [0.1]				1 (0.9) [0.1]	1 (0.1) [0.1]
교육서비스	1,553 (7.4) [100.0]	880 (6.8) [56.6]	673 (8.3) [43.4]	486 (9.4) [31.3]	438 (9.6) [28.2]	410 (11.7) [26.4]	69 (3.0) [4.4]	3 (1.2) [0.2]	1 (0.2) [0.1]	56 (10.0) [3.6]	6 (7.5) [0.4]	3 (0.3) [0.2]
보건복지	2,572 (12.3) [100.0]	1,216 (9.4) [47.3]	1,356 (16.8) [52.7]	1,178 (22.8) [45.8]	1,128 (24.9) [43.8]	890 (25.3) [34.6]	57 (2.5) [2.2]	20 (9.4) [0.8]	9 (1.6) [0.4]	7 (1.2) [0.3]	16 (20.8) [0.6]	5 (0.5) [0.2]
예술스포츠허브	323 (1.5) [100.0]	143 (1.1) [44.3]	180 (2.2) [55.7]	121 (2.3) [37.4]	97 (2.1) [30.0]	104 (2.9) [32.1]	20 (0.9) [6.2]	1 (0.4) [0.3]		17 (2.9) [5.1]		3 (0.3) [0.8]
개인서비스	651 (3.1) [100.0]	410 (3.2) [63.0]	241 (3.0) [37.0]	138 (2.7) [21.2]	108 (2.4) [16.6]	125 (3.6) [19.2]	75 (3.3) [11.6]	3 (1.3) [0.4]	4 (0.7) [0.6]	45 (8.1) [7.0]	3 (4.1) [0.5]	32 (3.4) [4.9]
가구내	83 (0.4) [100.0]	12 (0.1) [14.7]	71 (0.9) [85.3]	26 (0.5) [31.0]	9 (0.2) [10.2]	56 (1.6) [67.0]	21 (0.9) [25.3]	2 (0.9) [2.3]			9 (11.0) [10.5]	11 (1.2) [13.6]
국제기구	13 (0.1) [100.0]	12 (0.1) [90.0]	1 (0.0) [10.0]	1 (0.0) [10.0]	1 (0.0) [10.0]	0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1.8월), ( ) 전체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산업별·직종별 현황

2021년 8월 비정규직의 분포를 산업별 직종에 대해 교차분석해 보면 금융보험의 판매직, 교육서비스업의 전문가, 사업서비스업의 단순노무직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산업·직종별 현황

(단위: 천명, %)

업종 직종	전체	제조	건설	도소매	숙박 음식	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복지	기타 산업
전체	8,066 (100.0) [100.0]	631 (100.0) [7.8]	890 (100.0) [11.0]	753 (100.0) [9.3]	694 (100.0) [8.6]	303 (100.0) [3.8]	890 (100.0) [11.0]	392 (100.0) [4.9]	673 (100.0) [8.3]	1,356 (100.0) [16.8]	1,485 (100.0) [18.4]
관리자	63 (0.8) [100.0]	10 (1.5) [15.4]	8 (0.9) [13.0]	4 (0.5) [6.4]	2 (0.2) [2.7]	6 (2.0) [9.6]	11 (1.3) [18.1]	3 (0.8) [5.3]	2 (0.3) [2.9]	2 (0.1) [2.7]	15 (1.0) [24.0]
전문가	1,252 (15.5) [100.0]	45 (7.1) [3.6]	36 (4.0) [2.9]	37 (4.9) [2.9]	1 (0.2) [0.1]	10 (3.4) [0.8]	18 (2.0) [1.4]	18 (4.5) [1.4]	425 (63.1) [33.9]	328 (24.2) [26.2]	336 (22.6) [26.8]
사무직	865 (10.7) [100.0]	100 (15.9) [11.6]	48 (5.4) [5.6]	86 (11.4) [9.9]	6 (0.8) [0.7]	49 (16.0) [5.6]	100 (11.2) [11.5]	92 (23.4) [10.6]	73 (10.9) [8.5]	56 (4.1) [6.4]	256 (17.2) [29.6]
서비스	1,152 (14.3) [100.0]	3 (0.5) [0.3]		6 (0.8) [0.5]	399 (57.5) [34.6]	3 (0.8) [0.2]	64 (7.2) [5.6]	16 (4.0) [1.4]	58 (8.7) [5.1]	472 (34.8) [40.9]	131 (8.8) [11.4]
판매직	817 (10.1) [100.0]	12 (2.0) [1.5]	3 (0.4) [0.4]	421 (56.0) [51.6]	78 (11.2) [9.5]	229 (75.7) [28.1]	35 (3.9) [4.3]		2 (0.2) [0.2]	3 (0.2) [0.4]	33 (2.2) [4.1]
농림 어업	31 (0.4) [100.0]		1 (0.1) [3.3]				8 (0.9) [26.4]	1 (0.2) [2.9]	1 (0.1) [2.9]		20 (1.3) [63.8]
기능원	742 (9.2) [100.0]	104 (16.4) [14.0]	489 (54.9) [65.8]	11 (1.5) [1.5]	10 (1.4) [1.3]		47 (5.2) [6.3]	6 (1.6) [0.8]	11 (1.6) [1.4]	11 (0.8) [1.5]	54 (3.7) [7.3]
장치 기계	436 (5.4) [100.0]	179 (28.3) [41.0]	16 (1.8) [3.7]	11 (1.5) [2.6]	1 (0.2) [0.3]	2 (0.6) [0.4]	63 (7.0) [14.4]		17 (2.6) [4.0]	11 (0.8) [2.6]	135 (9.1) [30.9]
단순 노무	2,709 (33.6) [100.0]	178 (28.3) [6.6]	289 (32.5) [10.7]	176 (23.4) [6.5]	197 (28.4) [7.3]	4 (1.5) [0.2]	545 (61.3) [20.1]	256 (65.3) [9.4]	85 (12.6) [3.1]	474 (34.9) [17.5]	506 (34.0)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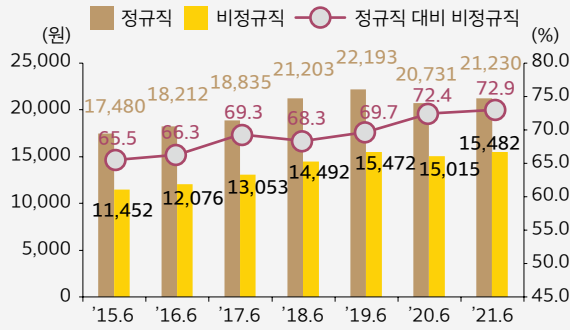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1.8월), ( ) 직종 전체 대비 비중, [ ] 업종 전체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2.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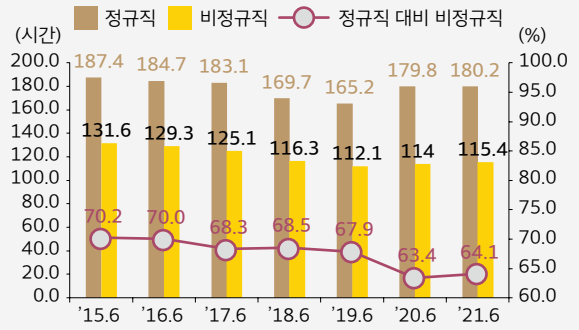
###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5,482원이고, 정규직 대비 72.9%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월 근로시간은 115.4시간이고 정규직 대비 64.1%이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15.6	15,978	17,480	11,452	11,575	8,643	11,524	9,053	10,727	8,589	10,425	13,158
'16.6	16,709	18,212	12,076	12,028	8,960	11,270	9,512	11,451	9,064	10,513	14,905
'17.6	17,381	18,835	13,053	12,878	9,226	12,242	10,708	11,670	10,492	11,009	15,804
'18.6	19,522	21,203	14,492	14,680	10,046	13,402	12,021	13,498	11,690	12,694	17,180
'19.6	20,573	22,193	15,472	15,501	11,393	14,423	12,809	14,310	12,470	14,288	18,297
'20.6	19,316	20,731	15,015	14,719	11,566	13,594	12,338	13,486	12,168	13,744	18,499
'21.6	19,806	21,230	15,482	15,069	12,068	14,220	12,421	14,031	12,202	12,945	19,28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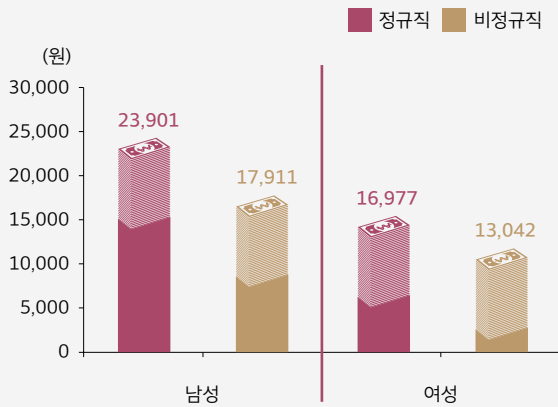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15.6	173.5	187.4	131.6	184.9	167.3	83.9	184.9	176.6	187.1	139.0	100.3
'16.6	171.1	184.7	129.3	183.9	150.7	82.6	185.5	173.8	188.2	115.3	97.1
'17.6	168.5	183.1	125.1	182.6	152.3	82.1	181.8	177.6	182.7	124.8	93.9
'18.6	156.4	169.7	116.3	170.3	132.4	79.2	165.4	156.3	167.5	123.2	90.8
'19.6	152.4	165.2	112.1	160.6	112.0	76.0	163.7	150.9	166.6	112.5	85.0
'20.6	163.6	179.8	114	172.7	118.9	79.4	173.5	166.8	174.5	116.7	79.6
'21.6	164.2	180.2	115.4	175.7	118.0	78.6	173.3	168.9	173.9	117.2	80.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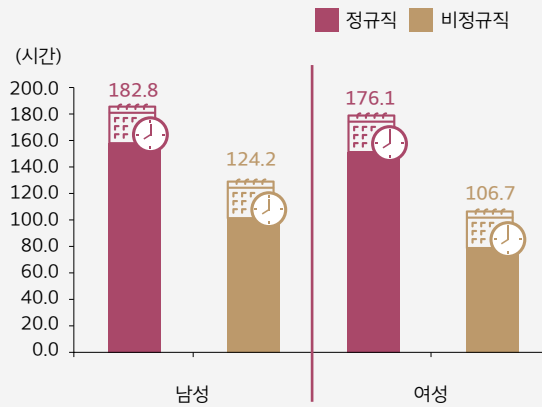
##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남성 17,911원, 여성 13,042원으로 각각 정규직 대비 74.9%, 76.8%이다. 월근로시간은 남성 124.2시간, 여성 106.7시간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에 더해 남녀간 차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성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성별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당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전체	19,806	21,230	15,482	15,069	12,068	14,220	12,421	14,031	12,202	12,945	19,283
남성	22,632	23,901	17,911	16,298	13,419	17,001	12,843	15,599	12,616	14,613	21,621
여성	15,802	16,977	13,042	13,434	10,809	13,190	11,904	13,187	11,636	12,274	13,22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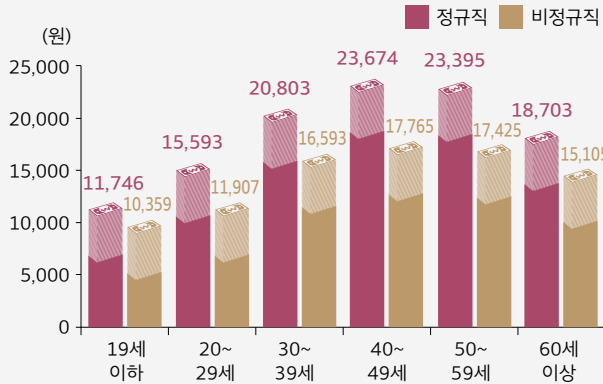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전체	164.2	180.2	115.4	175.7	118.0	78.6	173.3	168.9	173.9	117.2	80.2
남성	170.4	182.8	124.2	182.4	123.9	75.9	186.8	170.6	188.2	108.8	82.6
여성	155.4	176.1	106.7	166.7	112.6	79.6	156.7	168.0	154.4	120.6	74.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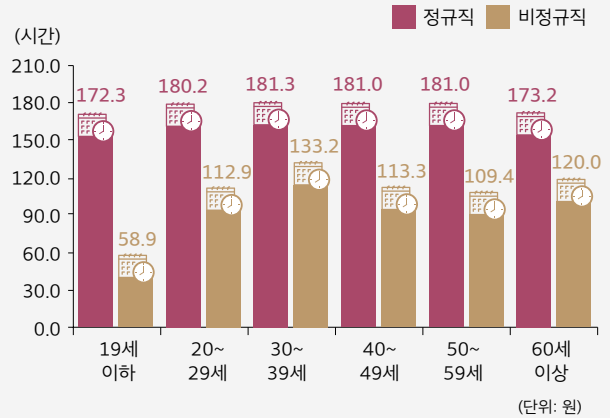
## 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40대 17,765원을 정점으로 50대부터 감소한다.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50대가 74.5%로 가장 낮다. 월 근로시간은 30대 정규직이 181.3시간으로 가장 긴 반면 비정규직 19세 이하는 58.9시간으로 가장 짧다.

연령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연령별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기간제
전체	19,806	21,230	15,482	15,069	12,068	14,220	12,421	14,031	12,202	12,945	19,283
19세이하	10,651	11,746	10,359	11,058	9,107	10,007	11,752	12,808	11,627	8,343	11,039
20~29세	14,382	15,593	11,907	12,699	9,798	10,663	12,574	13,196	12,082	11,163	13,863
30~39세	20,185	20,803	16,593	15,722	12,955	17,102	13,487	15,034	12,962	14,659	19,257
40~49세	22,699	23,674	17,765	17,166	14,379	17,240	14,305	15,481	14,088	12,496	20,233
50~59세	21,952	23,395	17,425	17,309	13,320	15,299	13,115	14,086	13,034	13,066	20,685
60세이상	17,073	18,703	15,105	14,614	12,388	14,092	11,441	13,486	11,388	12,594	20,15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단위: 시간)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기간제
전체	164.2	180.2	115.4	175.7	118.0	78.6	173.3	168.9	173.9	117.2	80.2
19세이하	82.8	172.3	58.9	135.9	48.8	57.1	111.2	177.3	103.4	99.0	44.7
20~29세	158.1	180.2	112.9	174.6	102.3	69.4	169.5	170.6	168.6	99.1	67.1
30~39세	174.3	181.3	133.2	184.3	133.5	82.5	178.8	164.3	183.8	132.0	84.2
40~49세	169.9	181.0	113.3	175.9	112.6	81.7	180.0	176.1	180.7	130.2	84.2
50~59세	163.7	181.0	109.4	169.4	133.3	85.3	171.4	166.8	171.8	119.7	86.0
60세이상	149.1	173.2	120.0	173.5	134.2	81.9	172.6	161.9	172.9	84.3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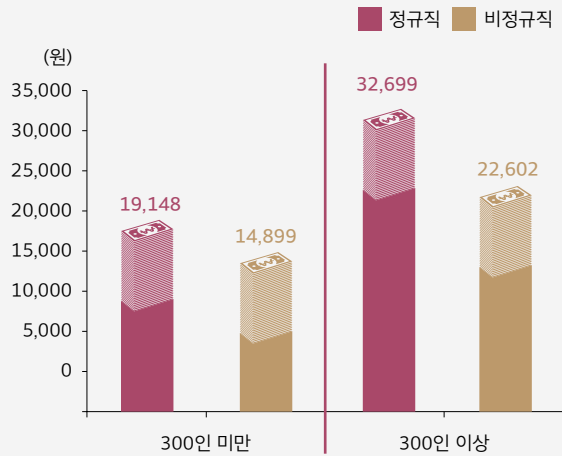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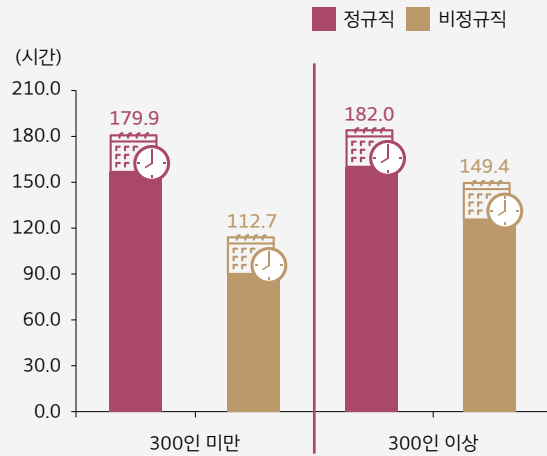
2021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300인 미만 사업장 14,899원, 300인 이상 22,602원이며 정규직대비 임금수준은 각각 77.8%, 69.1%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300인 미만 112.7시간, 300인 이상 149.4시간이다.

규모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규모별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전체	19,806	21,230	15,482	15,069	12,068	14,220	12,421	14,031	12,202	12,945	19,283
300인 미만	18,024	19,148	14,899	14,077	12,065	12,984	12,258	14,066	12,045	12,730	19,336
300인 이상	31,290	32,699	22,602	20,221	14,321	41,658	13,285	13,933	13,128	13,749	12,32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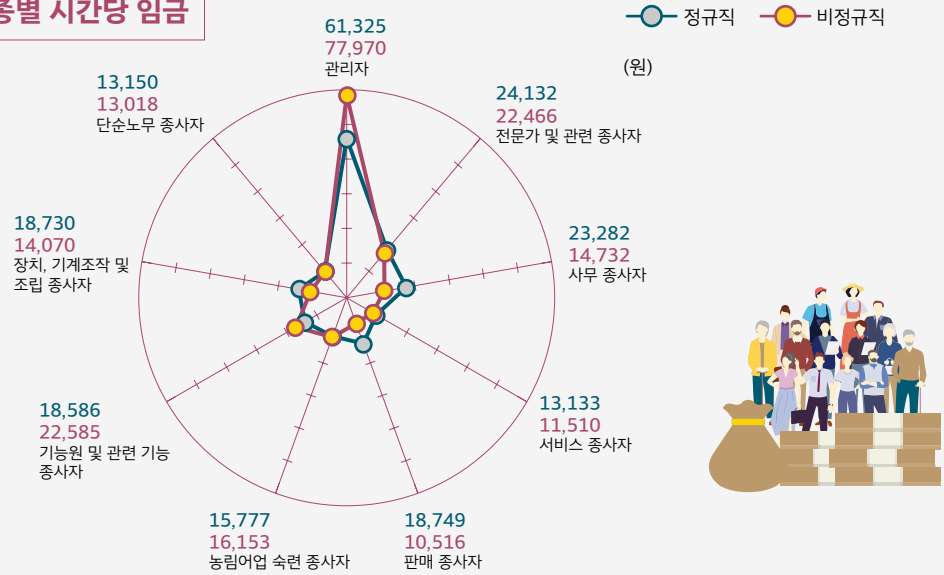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전체	164.2	180.2	115.4	175.7	118.0	78.6	173.3	168.9	173.9	117.2	80.2
300인 미만	162.1	179.9	112.7	175.6	117.9	80.1	171.4	166.4	171.9	101.9	80.4
300인 이상	177.5	182.0	149.4	176.0	185.2	46.5	183.6	176.2	185.5	174.7	62.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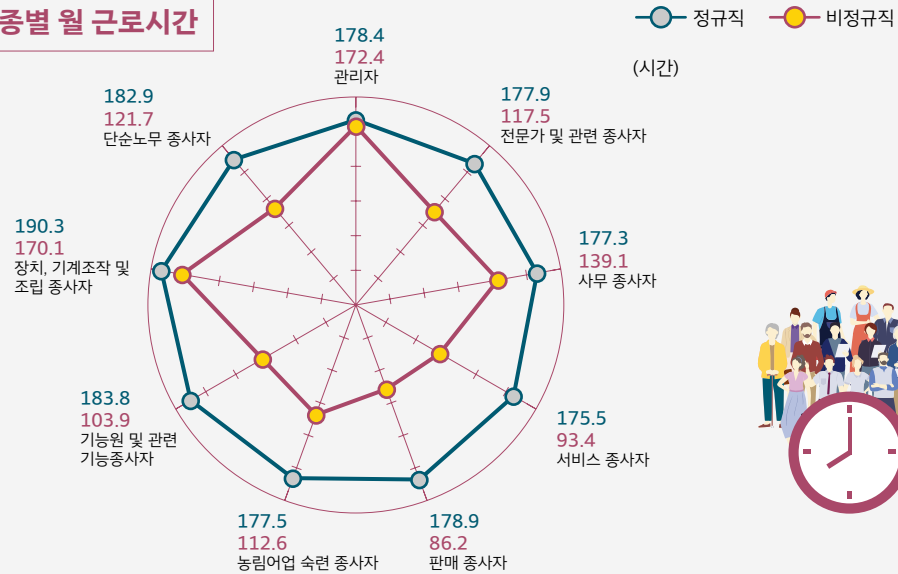
##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6월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높고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낮다. 월 근로시간은 관리자가 가장 길고 판매 종사자가 가장 짧다.

고용형태별 직종별 시간당 임금



고용형태별 직종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전체	19,806	21,230	15,482	15,069	12,068	14,220	12,421	14,031	12,202	12,945	19,283
관리자	62,043	61,325	77,970	80,307	32,926	14,809	24,205	0	24,205	0	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898	24,132	22,466	19,088	15,253	26,451	19,320	19,385	19,185	12,511	19,342
사무 종사자	22,441	23,282	14,732	15,879	11,230	13,723	14,492	13,613	15,056	12,934	12,692
서비스 종사자	12,295	13,133	11,510	12,075	10,161	11,511	12,090	12,690	11,963	0	11,239
판매 종사자	16,398	18,749	10,516	11,872	9,589	10,234	16,146	14,376	17,425	18,235	9,75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5,962	15,777	16,153	11,365	12,586	12,582	13,121	0	13,121	0	20,0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0,226	18,586	22,585	14,510	20,975	12,860	14,851	13,763	15,140	0	24,72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8,074	18,730	14,070	13,656	14,138	13,688	13,155	13,105	13,160	0	20,992
단순노무 종사자	13,074	13,150	13,018	11,523	10,341	10,917	11,286	11,409	11,284	10,437	16,68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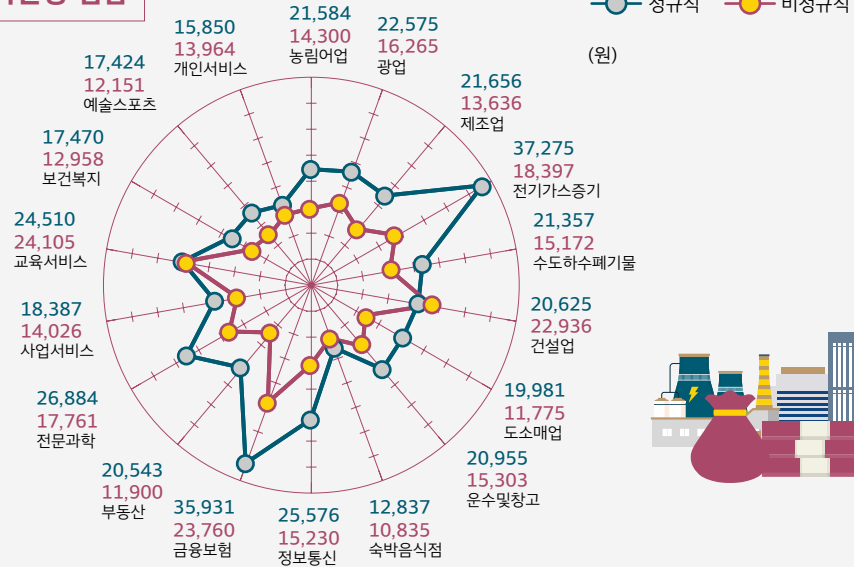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전체	164.2	180.2	115.4	175.7	118.0	78.6	173.3	168.9	173.9	117.2	80.2
관리자	178.1	178.4	172.4	175.1	176.0	96.7	176.0		176.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9.4	177.9	117.5	172.2	117.3	64.5	163.5	160.6	169.4	134.5	44.9
사무 종사자	173.5	177.3	139.1	174.3	120.2	85.1	171.8	169.5	173.2	119.0	61.4
서비스 종사자	133.1	175.5	93.4	158.5	138.4	77.3	178.9	174.5	179.9		68.2
판매 종사자	152.5	178.9	86.2	133.5	71.4	76.4	161.6	180.5	148.0	174.9	68.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45.5	177.5	112.6	185.8	171.5	81.1	179.4		179.4		64.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51.1	183.8	103.9	185.2	114.6	87.0	168.4	157.4	171.3		89.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87.5	190.3	170.1	193.6	161.7	85.5	193.3	180.0	194.7		92.3
단순노무 종사자	147.6	182.9	121.7	183.7	142.9	91.2	169.9	162.3	170.0	42.2	75.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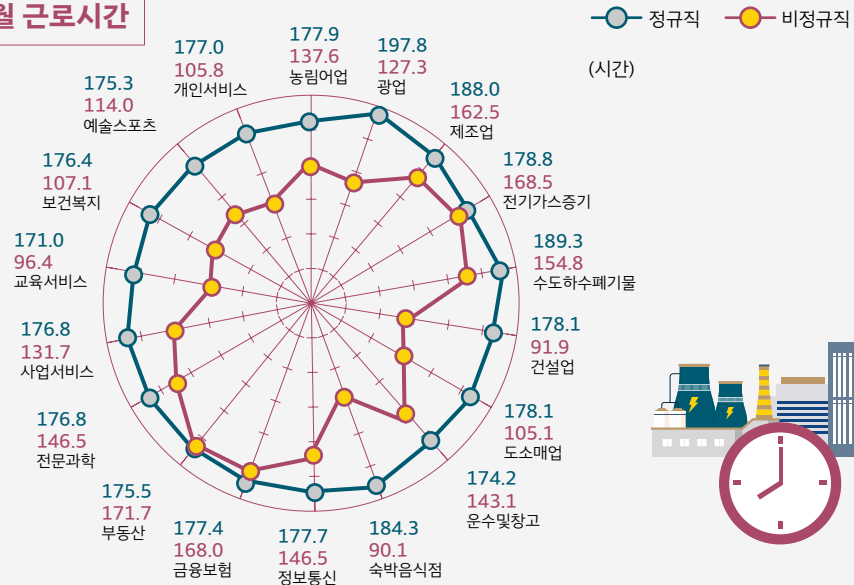
##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1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교육서비스, 금융보험순으로 높고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등은 낮다. 월 근로시간은 부동산, 전기가스증기업이 높고 숙박음식업, 건설업 순으로 낮다.

산업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산업별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전체	19,806	21,230	15,482	15,069	12,068	14,220	12,421	14,031	12,202	12,945	19,283
농림어업	19,128	21,584	14,300	12,151	8,922	11,363	13,609	0	13,609	0	18,964
광업	22,027	22,575	16,265	16,395	25,838	18,745	10,201	26,667	9,839	0	16,427
제조업	20,796	21,656	13,636	13,504	14,188	11,691	11,821	13,665	11,566	10,163	16,483
전기가스증기	35,421	37,275	18,397	18,968	13,698	21,092	18,151	13,936	18,341	0	16,661
수도하수폐기물	20,643	21,357	15,172	14,675	14,980	15,356	12,554	12,553	12,554	11,250	17,255
건설업	21,773	20,625	22,936	19,246	22,469	15,465	16,987	14,851	17,258	10,795	23,600
도소매업	18,322	19,981	11,775	12,569	9,846	11,229	13,528	14,665	13,327	17,319	12,556
운수 및 창고	20,019	20,955	15,303	16,639	13,893	13,318	13,799	12,599	13,890	11,495	15,922
숙박음식점	11,746	12,837	10,835	11,880	10,295	10,334	12,039	12,492	11,883	0	11,393
정보통신	24,681	25,576	15,230	16,737	11,992	13,348	14,461	14,172	15,553	13,254	10,964
금융보험	34,395	35,931	23,760	26,787	15,345	17,811	13,891	16,526	12,586	12,780	11,754
부동산	15,265	20,543	11,900	12,840	8,475	12,378	11,579	19,412	11,563	0	10,723
전문과학	25,981	26,884	17,761	18,220	13,558	17,992	13,893	13,894	13,892	11,368	19,057
사업서비스	17,575	18,387	14,026	13,820	11,516	13,552	12,771	14,553	12,259	12,450	16,065
교육서비스	24,335	24,510	24,105	16,817	11,872	30,400	13,299	22,650	12,442	13,832	13,383
보건복지	16,211	17,470	12,958	13,935	13,336	12,679	11,818	12,748	11,519	11,924	14,101
예술스포츠	15,189	17,424	12,151	12,743	9,569	11,892	12,398	12,410	12,398	0	12,197
개인서비스	15,472	15,850	13,964	14,134	11,457	15,112	12,744	13,211	12,520	10,276	12,24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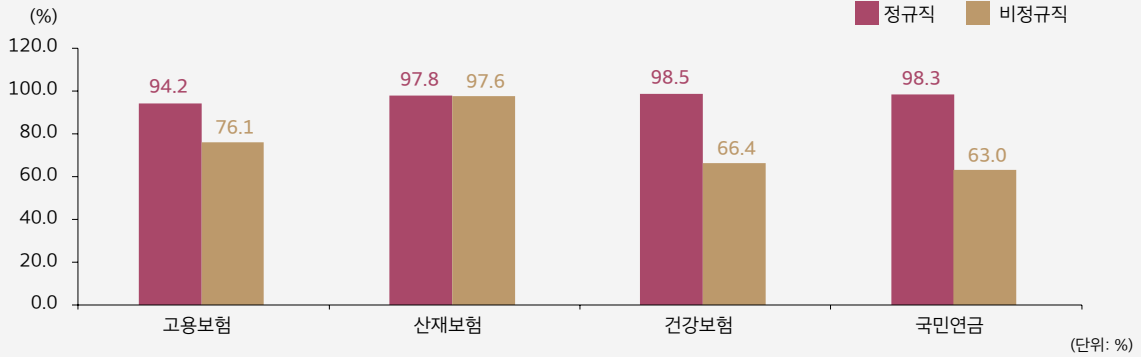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전체	164.2	180.2	115.4	175.7	118.0	78.6	173.3	168.9	173.9	117.2	80.2
농림어업	164.3	177.9	137.6	192.3	182.6	61.9	169.5		169.5		97.1
광업	191.7	197.8	127.3	196.7	57.8	80.2	48.1	120.0	46.6		62.4
제조업	185.3	188.0	162.5	197.9	154.8	90.6	180.9	170.9	182.3	67.5	97.8
전기가스증기	177.8	178.8	168.5	160.1	173.4	98.2	175.0	188.3	174.4		58.2
수도하수폐기물	185.3	189.3	154.8	189.6	148.4	109.5	194.2	205.9	190.8	176.0	69.2
건설업	135.2	178.1	91.9	178.1	109.7	86.4	97.6	182.9	86.8	88.0	85.3
도소매업	163.4	178.1	105.1	150.2	90.1	89.5	158.4	174.2	155.7	158.4	66.7
운수 및 창고	169.1	174.2	143.1	176.8	114.5	88.7	194.3	205.2	193.5	134.2	66.9
숙박음식점	133.0	184.3	90.1	172.9	137.1	76.8	163.9	168.9	162.2		72.0
정보통신	175.0	177.7	146.5	167.7	169.1	81.6	173.1	174.8	166.5	132.7	54.4
금융보험	176.2	177.4	168.0	175.5	176.6	97.8	172.9	178.9	169.9	166.1	34.6
부동산	173.2	175.5	171.7	186.8	120.0	95.5	178.2	167.4	178.2		56.0
전문과학	173.8	176.8	146.5	175.4	168.3	89.0	167.6	163.8	171.4	127.5	73.0
사업서비스	168.4	176.8	131.7	165.5	162.3	96.5	172.6	172.9	172.5	126.2	70.8
교육서비스	138.7	171.0	96.4	168.1	82.5	49.7	158.2	112.4	162.4	90.6	44.1
보건복지	157.1	176.4	107.1	167.4	90.1	81.2	176.6	152.0	184.5	176.0	42.1
예술스포츠	149.3	175.3	114.0	167.6	126.1	67.4	177.9	172.8	178.1		60.0
개인서비스	162.8	177.0	105.8	168.3	107.6	81.3	139.0	162.7	127.7	152.8	50.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1.6월)

## 사회보험 적용

2021년 6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76.1%, 산재보험 97.6%, 건강보험 66.4%, 국민연금 63.0%로 모두 정규직보다 낮다.

연령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기간제	비기간제					
고용보험	'15.6	89.3	95.4	66.7	87.0	38.0	65.0	93.5	67.2	46.0
	'16.6	90.7	95.7	72.1	86.9	45.1	69.0	93.8	58.9	57.4
	'17.6	89.1	94.7	68.7	85.7	41.1	67.5	93.1	62.8	50.2
	'18.6	89.6	94.6	70.8	84.4	39.1	73.2	93.3	74.0	53.2
	'19.6	90.3	94.4	74.0	85.0	50.3	76.8	95.6	75.1	57.0
	'20.6	90.3	94.4	74.4	86.2	43.9	81.1	96.2	76.2	55.8
산재보험	'21.6	90.5	94.2	76.1	89.3	46.3	80.3	95.0	79.9	58.6
	'15.6	97.6	98.0	96.4	98.3	87.6	94.2	97.9	93.2	97.4
	'16.6	98.1	98.3	97.4	98.8	93.0	95.5	98.0	95.8	98.1
	'17.6	97.6	97.8	96.8	98.5	92.2	93.4	97.6	96.4	98.5
	'18.6	97.4	97.5	96.7	97.9	91.2	94.4	96.7	99.8	98.3
	'19.6	97.7	97.8	97.3	98.5	87.9	94.9	98.3	99.2	98.4
건강보험	'20.6	97.8	97.9	97.5	99.0	85.4	95.7	99.7	100.0	97.7
	'21.6	97.8	97.8	97.6	98.9	86.6	95.9	98.5	100.0	98.5
	'15.6	88.4	97.9	55.5	92.6	26.6	59.6	92.2	68.6	8.5
	'16.6	89.7	98.3	59.4	94.9	36.4	65.6	94.0	56.6	11.1
	'17.6	88.9	98.0	58.1	92.7	35.0	65.3	92.2	70.6	12.0
	'18.6	89.4	98.1	59.5	93.6	34.9	71.8	91.6	79.4	10.9
국민연금	'19.6	90.9	98.2	64.2	93.4	43.7	75.8	95.3	77.3	18.1
	'20.6	91.1	98.5	64.9	93.1	41.4	79.0	96.1	78.7	20.2
	'21.6	91.5	98.5	66.4	93.6	42.8	79.1	95.4	78.9	22.9
	'15.6	88.7	97.8	52.7	88.5	25.9	56.4	90.1	70.6	9.0
	'16.6	90.1	98.2	56.7	89.7	35.0	63.7	92.5	59.4	11.1
	'17.6	89.1	97.8	54.9	86.9	33.9	63.0	88.1	71.9	11.0
	'18.6	89.7	97.9	56.5	86.5	34.3	69.9	89.7	78.6	11.2
	'19.6	91.1	98.0	61.0	85.9	44.1	73.7	92.2	75.4	17.5
	'20.6	91.3	98.3	61.7	86.6	39.5	77.6	94.9	80.2	20.5
	'21.6	91.7	98.3	63.0	88.7	41.9	76.5	93.2	82.5	22.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이상,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미만, 60세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3. 고용형태 변화 정규직 전환

2021년 6월 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전체 기간제 근로자는 1,851천명이며 이 중 (기간제법) 적용자는 693천명이다.

#### 비정규직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

(단위: 천명, %)

전체 근로자 (A)	기간제 근로자 (B)	기간제법 적용자 (C)		계약기간 만료자 (D)	계약 종료 (D1)		정규직 전환 (D2)		계속 고용 (D3)	
		비율 (B/A)	비율 (C/B)		비율 (D1/D)	비율 (D2/D)	비율 (D3/D)			
15,476	1,851	(12.0)	693	65	53	(81.4)	3	(5.1)	9	(13.4)

자료: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21년 12월),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 '계속고용'은 기간제 형태로 2년을 넘어 계속 고용하는 경우 방침미정 등의 기타 조치 사항은 제외

### 근속기간별 정규직 전환

근속계약 만료시 정규직전환 비율을 살펴 보면, 1년 6개월 초과~2년이하의 근속기간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14.6%)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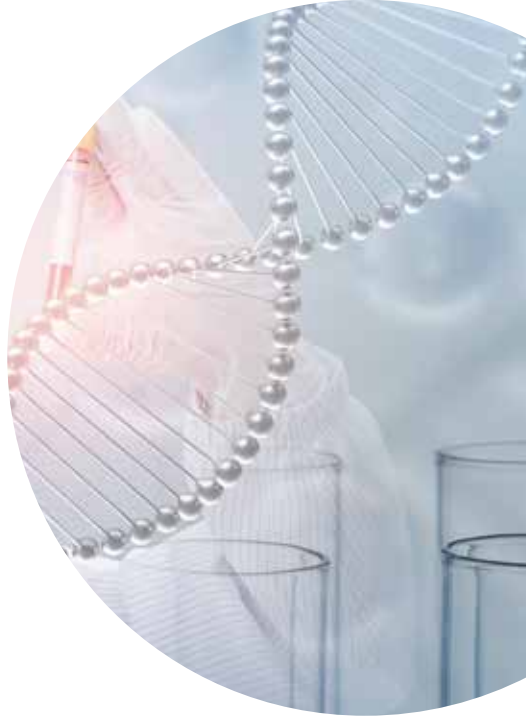
#### 근속기간별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

(단위: 천명, %)

전체	계약기간 만료자 (D)	계약 종료 (D1)		정규직 전환 (D2)		계속 고용 (D3)	
		비율 (D1/D)	비율 (D2/D)	비율 (D3/D)			
전체	65	53	(81.4)	3	(5.1)	9	(13.4)
1년6개월 이하	59	48	(82.0)	3	(4.4)	8	(13.4)
1년6개월 초과~2년 이하	4	3	(75.5)	1	(14.6)	0	(10.3)
2년 초과	2	1	(74.9)	0	(4.2)	0	(19.0)

자료: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21년 12월),  
 주) '계속고용'은 기간제 형태로 2년을 넘어 계속 고용하는 경우 방침미정 등의 기타 조치 사항은 제외





#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1년 기준

# 03

## 부록

Appendix

고용노동 관련 OECD 국제비교



# Appendix

---

고용노동 관련 OECD 국제비교

## OECD 국제통계 수록범위



1

+

OECD 통계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국제비교 통계 중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지표 27개 항목을 수록하였음



2

+

본문 통계표에는 38개 회원국가 중 15~64세 이상 인구가 1,500만 명 이상인 13개 국가의 최근 자료를 수록하였음



3

+

국제비교의 필요성이 있지만 OECD에서 별도로 발표하지 않은 한국의 지표는 OECD 통계 DB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2개 이상의 발표된 지표를 가공하여 생산하였음

## 이용 시 참고사항



1

+

모든 지표에 대하여 산정 기준과, 자료의 출처, 이용상의 한계 등을 숙지한 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2

+

국가별 최신 자료 수록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 23개국(회원국의 2/3) 이상의 자료가 수록된 최신 연도의 통계를 수록하였음



3

+

모든 자료는 2022년 7월 22일 OECD통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해당 시점에 자료가 수록·발표되지 않은 국가는 미반영)



4

+

‘OECD평균’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발표된 지표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였으며, 통계표 하단에 이를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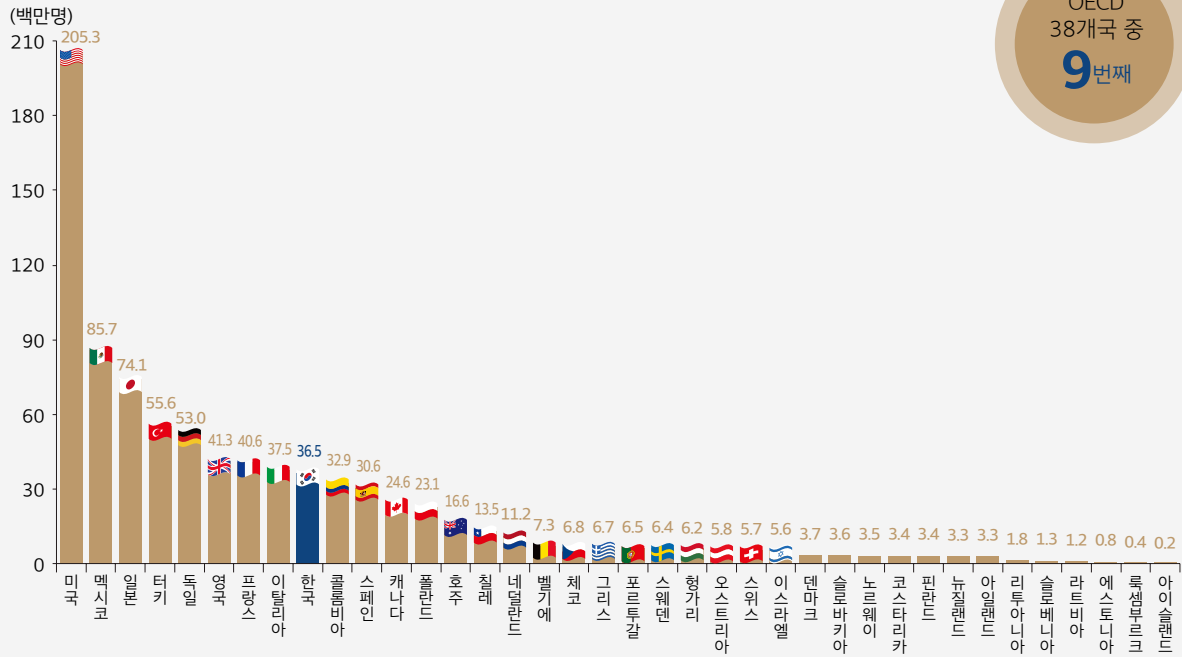
## 1. 인구 및 고용

## 인구

OECD는 15~64세 인구는 노동연령대 인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3,650만명으로 OECD 38개국 중 9위에 위치한다.

국가별 15~64세 인구



OECD  
38개국 중  
9번째

(단위: 만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미국	20,550	20,554	20,651	20,627	20,572	20,526
멕시코	8,020	8,118	8,259	8,351	8,477	8,568
일본	7,631	7,606	7,552	7,511	7,469	7,410
터키	5,225	5,315	5,365	5,415	5,483	5,557
독일	5,380	5,380	5,352	5,355	5,326	5,297
영국	4,106	4,116	4,125	4,133	4,137	4,128
프랑스	4,089	4,095	4,092	4,081	4,069	4,056
이탈리아	3,887	3,873	3,859	3,843	3,826	3,753
한국	3,684	3,686	3,680	3,679	3,664	3,650
스페인	3,006	3,005	3,018	3,042	3,060	3,056
캐나다	2,377	2,394	2,418	2,442	2,453	2,457
폴란드	2,465	2,432	2,394	2,360	2,337	2,310
호주	1,590	1,612	1,633	1,654	1,664	1,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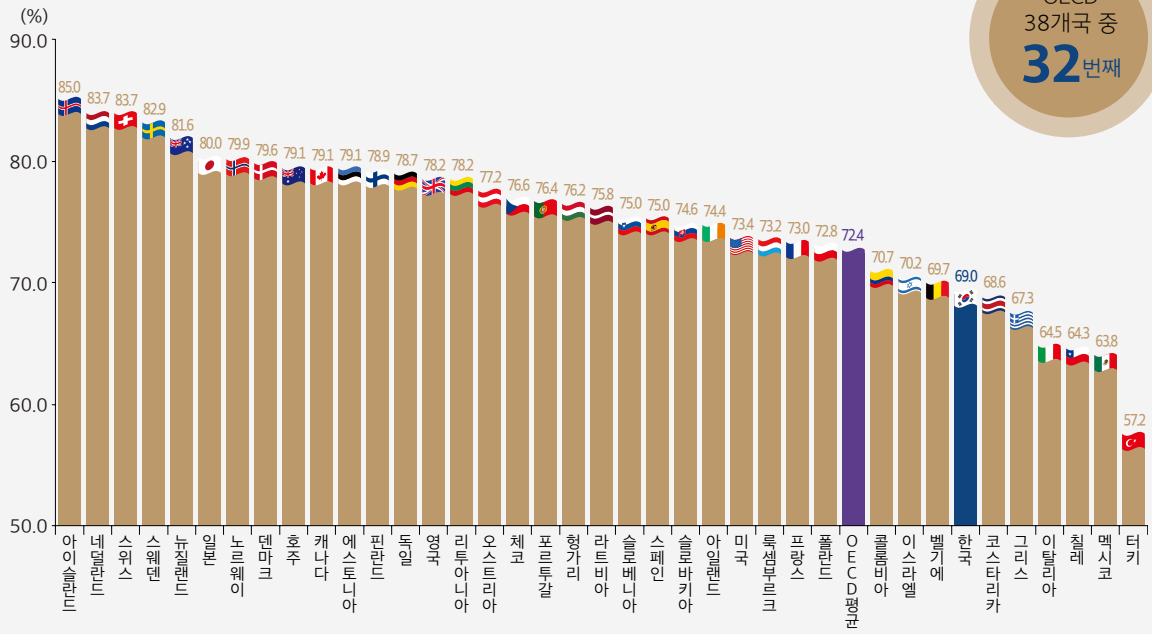
자료: OECD.Stats

주) 위에서 15세~64세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로서, 추계인구 중 군인, 재소자 등 속박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구에 해당함.

##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에서 한국은 2021년 69.0%로 OECD 38개국 중 32위에 위치한다.

국가별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OECD  
38개국 중  
**32**번째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본	76.9	77.5	78.9	79.5	79.6	80.0
호주	76.9	77.4	78.0	78.5	77.9	79.1
캐나다	77.9	78.2	78.2	78.7	77.4	79.1
독일	77.9	78.2	78.6	79.2	78.6	78.7
영국	77.7	78.2	78.3	78.8	78.8	78.2
스페인	75.4	75.1	74.9	75.0	73.4	75.0
미국	73.0	73.3	73.6	74.1	73.0	73.4
프랑스	71.4	71.5	71.9	71.7	71.0	73.0
폴란드	68.8	69.6	70.1	70.6	71.0	72.8
<b>한국</b>	<b>68.7</b>	<b>69.2</b>	<b>69.3</b>	<b>69.5</b>	<b>68.6</b>	<b>69.0</b>
이탈리아	64.9	65.4	65.6	65.7	64.1	64.5
멕시코	63.6	63.4	63.7	64.6	62.3	63.8
터키	57.0	58.0	58.5	58.5	54.9	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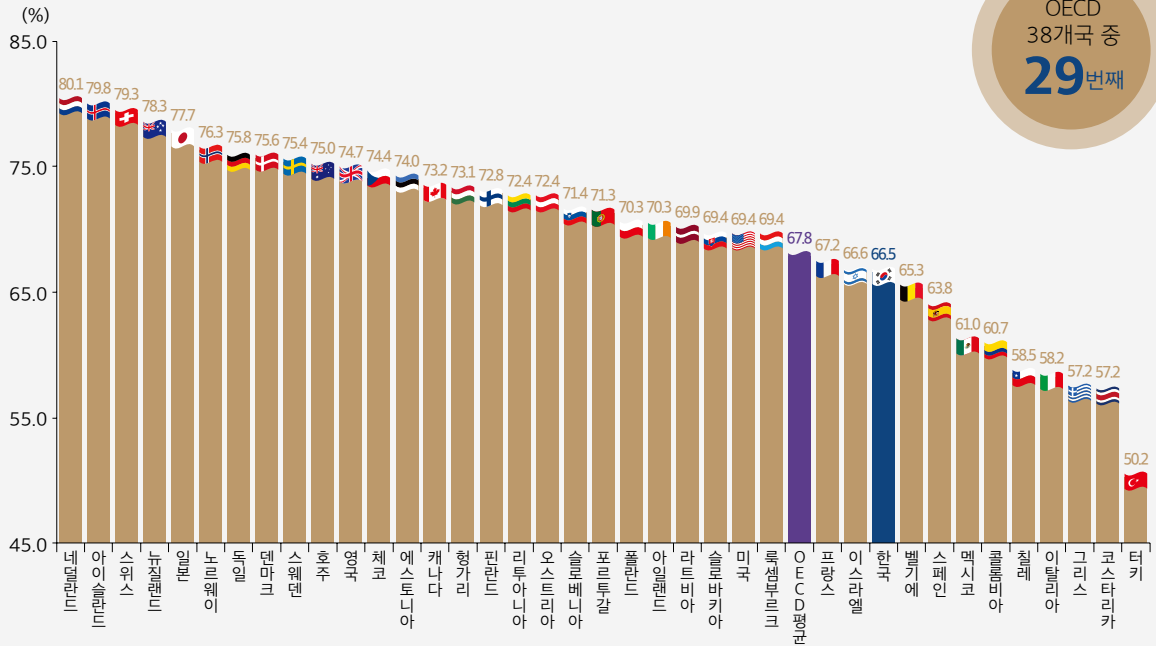
자료: OECD.Stats

주) 위에서 15~64세 인구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구로서, 인구추계상의 인구에서 군인,재소자 등 속박인구를 제외한 것임(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구는 국가마다 산출방법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OECD에서는 각종 고용지표를 발표할 때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15~64세 인구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 고용률

대표적 고용률 지표인 15~64세 고용률에서 한국은 66.5%로 OECD 38개국 중 29위에 위치한다.

국가별 15~64세 고용률



OECD  
38개국 중  
**29**번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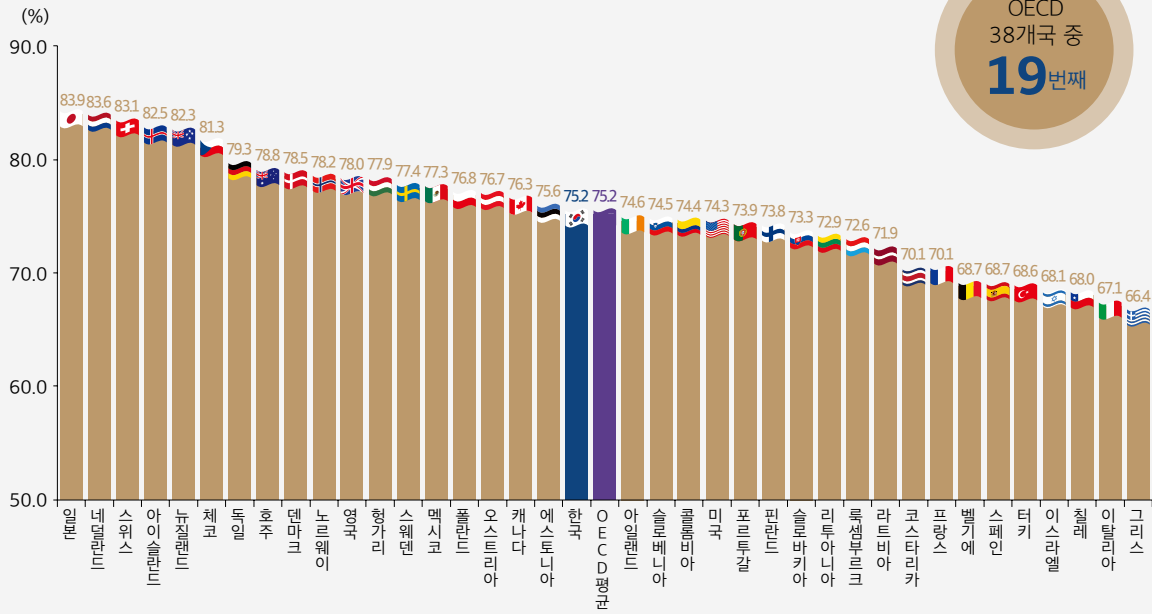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본	74.3	75.3	76.8	77.6	77.3	77.7
독일	74.7	75.2	75.9	76.7	75.4	75.8
호주	72.4	73.0	73.8	74.3	72.7	75.0
영국	73.8	74.7	75.0	75.6	75.1	74.7
캐나다	72.3	73.2	73.5	74.2	70.0	73.2
폴란드	64.5	66.1	67.4	68.2	68.7	70.3
미국	69.4	70.1	70.7	71.4	67.1	69.4
프랑스	64.2	64.7	65.4	65.5	65.3	67.2
<b>한국</b>	<b>66.1</b>	<b>66.6</b>	<b>66.6</b>	<b>66.8</b>	<b>65.9</b>	<b>66.5</b>
스페인	60.5	62.1	63.4	64.3	61.9	63.8
멕시코	61.0	61.1	61.5	62.2	59.4	61.0
이탈리아	57.2	58.0	58.5	59.0	58.1	58.2
터키	50.6	51.5	52.0	50.3	47.5	50.2

자료: OECD.Stats

## 성별 고용률

한국의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5.2%, 여성은 57.7%로 OECD 38개국의 남성은 평균보다 높고, 여성은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국가별 남성 고용률 (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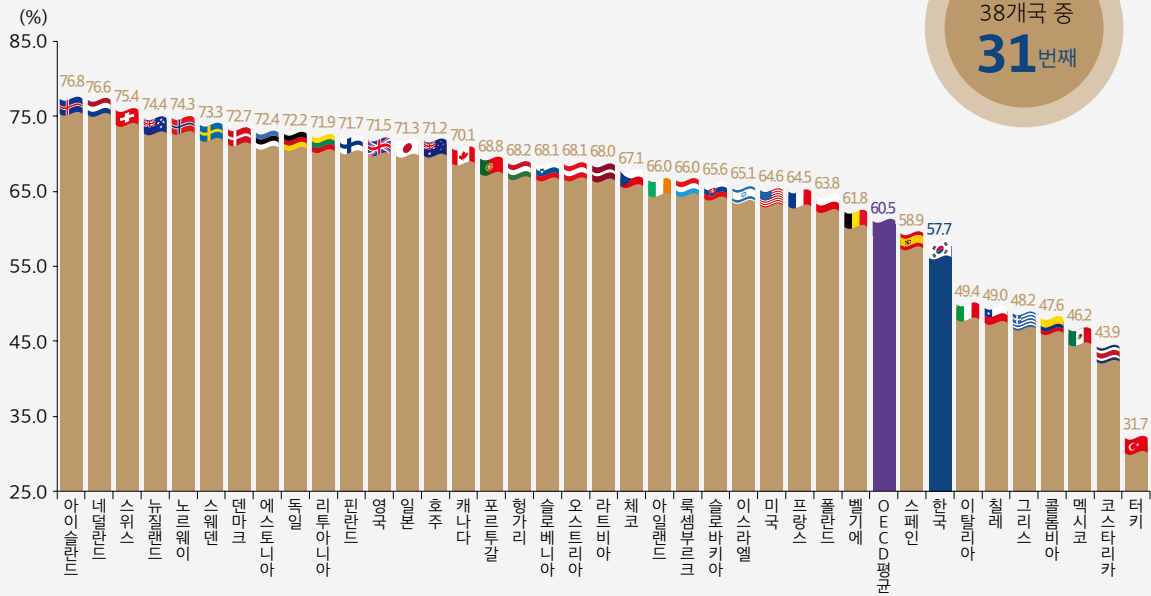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본	82.5	82.9	83.9	84.1	83.8	83.9
독일	78.4	78.9	79.7	80.5	78.9	79.3
호주	77.5	77.9	78.4	78.7	76.9	78.8
영국	78.8	79.4	79.6	79.7	78.5	78.0
멕시코	78.6	79.0	79.0	78.8	75.6	77.3
폴란드	71.0	72.8	74.0	75.3	75.9	76.8
캐나다	75.3	76.2	76.6	77.1	73.2	76.3
한국	75.9	76.3	75.9	75.7	74.8	75.2
미국	74.8	75.4	76.1	76.5	72.1	74.3
프랑스	67.6	68.4	68.9	68.8	68.5	70.1
스페인	65.8	67.6	69.0	69.9	67.3	68.7
터키	70.0	70.7	70.9	68.3	65.2	68.6
이탈리아	66.5	67.1	67.6	68.0	67.2	67.1

자료: OECD.Stats

국가별 여성 고용률 (15~64세)



OECD  
38개국 중  
31번째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독일	70.8	71.5	72.1	72.8	71.8	72.2
영국	68.9	70.1	70.5	71.6	71.7	71.5
일본	66.1	67.4	69.6	70.9	70.6	71.3
호주	67.4	68.2	69.2	70.0	68.6	71.2
캐나다	69.4	70.1	70.4	71.2	66.8	70.1
미국	64.0	64.9	65.5	66.3	62.2	64.6
프랑스	60.9	61.2	62.0	62.4	62.2	64.5
폴란드	58.1	59.5	60.8	61.1	61.5	63.8
스페인	55.1	56.5	57.8	58.8	56.6	58.9
한국	56.1	56.9	57.2	57.8	56.7	57.7
이탈리아	48.1	48.9	49.5	50.1	49.0	49.4
멕시코	45.1	44.9	45.6	47.0	44.6	46.2
터키	31.2	32.2	32.9	32.2	29.7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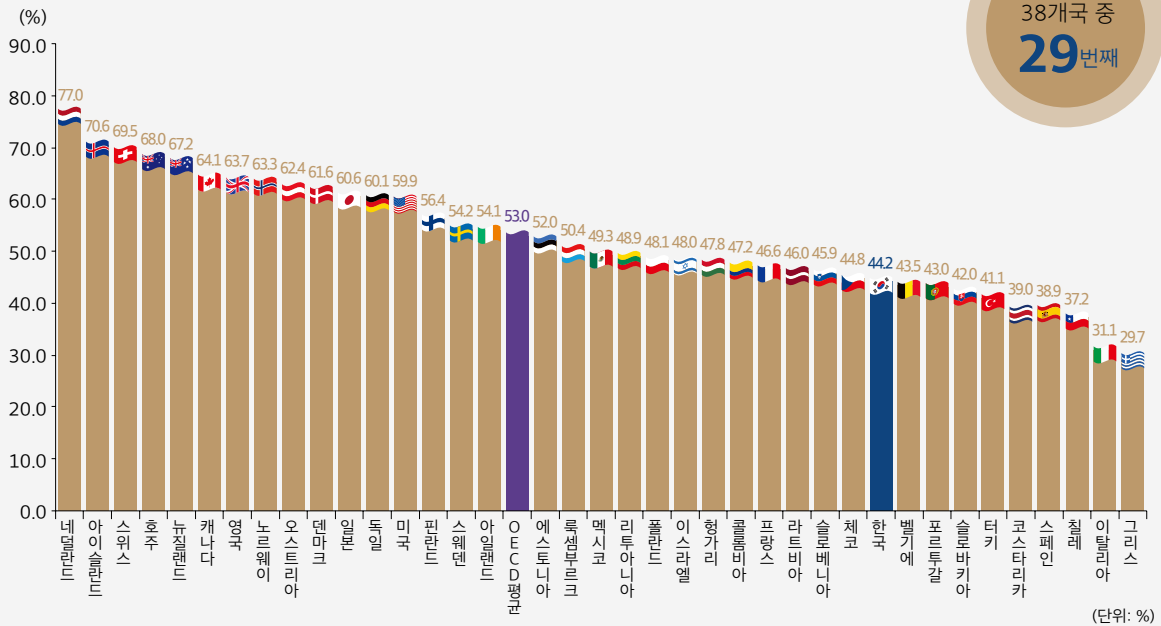
자료: OECD.Stats

+ 연도별로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17년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연령별 고용률\*

2021년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2%로 OECD 38개국 중 29위로 낮은편에 위치한다. 높은 대학진학률, 군복무 등으로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환경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15~29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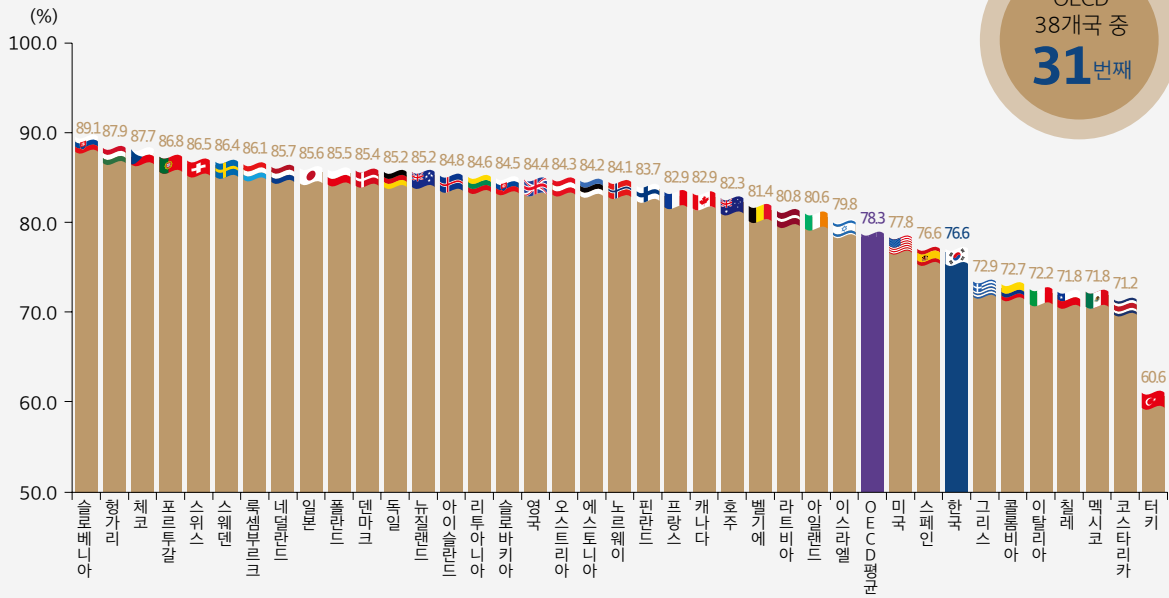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호주	65.6	65.9	67.3	67.7	64.8	68.0
캐나다	64.2	65.2	65.8	66.2	59.0	64.1
영국	64.0	65.1	64.8	65.5	64.3	63.7
일본	56.8	56.8	59.4	60.6	60.0	60.6
독일	58.2	58.7	59.4	60.4	59.5	60.1
미국	59.4	60.6	61.1	61.9	56.2	59.9
멕시코	49.1	49.2	49.4	50.2	47.8	49.3
폴란드	47.7	49.0	50.2	50.8	48.0	48.1
프랑스	43.5	44.0	44.7	44.6	43.1	46.6
한국	41.7	42.1	42.7	43.5	42.2	44.2
터키	42.5	43.0	43.4	41.5	37.9	41.1
스페인	37.1	39.2	40.5	40.9	36.4	38.9
이탈리아	29.7	30.3	30.8	31.8	29.8	31.1

자료: OECD.Stats, 15~29세 인구나 취업자수를 기초로 재산정하였음

\* OECD에서는 연령별 고용률을 15~24세(청년), 25~54세(중년), 55~64세(장년)로 나누어 제시. 우리나라는 남성의 군복무 등으로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기준을 15~29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OECD의 통계 DB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 고용률을 15~29세(청년), 30~54세(중년), 55~64세(장년)로 나누어 재산정

2021년 한국의 30~54세 중년 고용률은 76.6%로  
 OECD 38개국 중 31위로 낮은편에 위치한다.

국가별 30~54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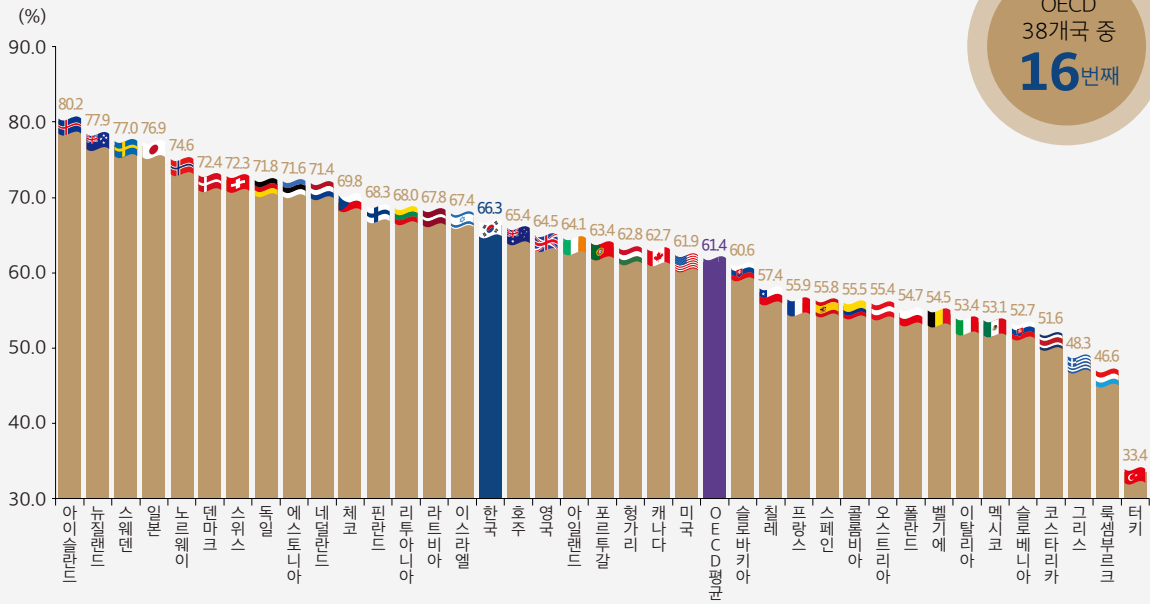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본	83.2	84.1	85.1	85.6	85.2	85.6
폴란드	80.9	81.9	83.0	83.5	84.2	85.5
독일	85.0	85.3	85.8	86.2	84.8	85.2
영국	82.9	83.8	83.9	84.5	84.4	84.4
프랑스	80.7	81.0	81.6	81.8	81.8	82.9
캐나다	81.5	82.5	82.7	83.6	80.3	82.9
호주	80.0	80.5	81.1	81.8	80.5	82.3
미국	78.2	78.8	79.5	80.1	76.1	77.8
스페인	72.6	74.3	75.8	76.9	74.5	76.6
한국	77.2	77.6	77.5	77.4	76.3	76.6
이탈리아	71.1	71.7	72.1	72.6	71.9	72.2
멕시코	71.8	71.9	72.5	73.0	70.0	71.8
터키	60.3	61.4	61.8	60.2	58.0	60.6

자료: OECD,Stats

2021년 한국의 55~64세 장년 고용률은 66.3%로  
OECD 38개국 중 16위로 청년, 중년 고용률에 비해 높은편에 위치한다.

국가별 55~64세 고용률



OECD  
38개국 중  
**16**번째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본	71.4	73.3	75.2	76.3	76.7	76.9
독일	68.6	70.1	71.4	72.7	71.6	71.8
한국	66.2	67.5	66.8	66.9	66.6	66.3
호주	62.5	63.6	63.8	64.5	63.6	65.4
영국	62.8	63.6	65.1	66.2	65.4	64.5
캐나다	60.9	61.4	62.1	62.6	60.4	62.7
미국	61.8	62.5	63.1	63.7	60.3	61.9
프랑스	49.8	51.3	52.2	53.0	53.8	55.9
스페인	49.1	50.5	52.2	53.8	54.7	55.8
폴란드	46.2	48.3	48.9	49.5	51.8	54.7
이탈리아	50.3	52.2	53.7	54.3	54.2	53.4
멕시코	55.0	54.9	55.3	56.0	52.3	53.1
터키	33.4	34.4	35.3	33.6	31.1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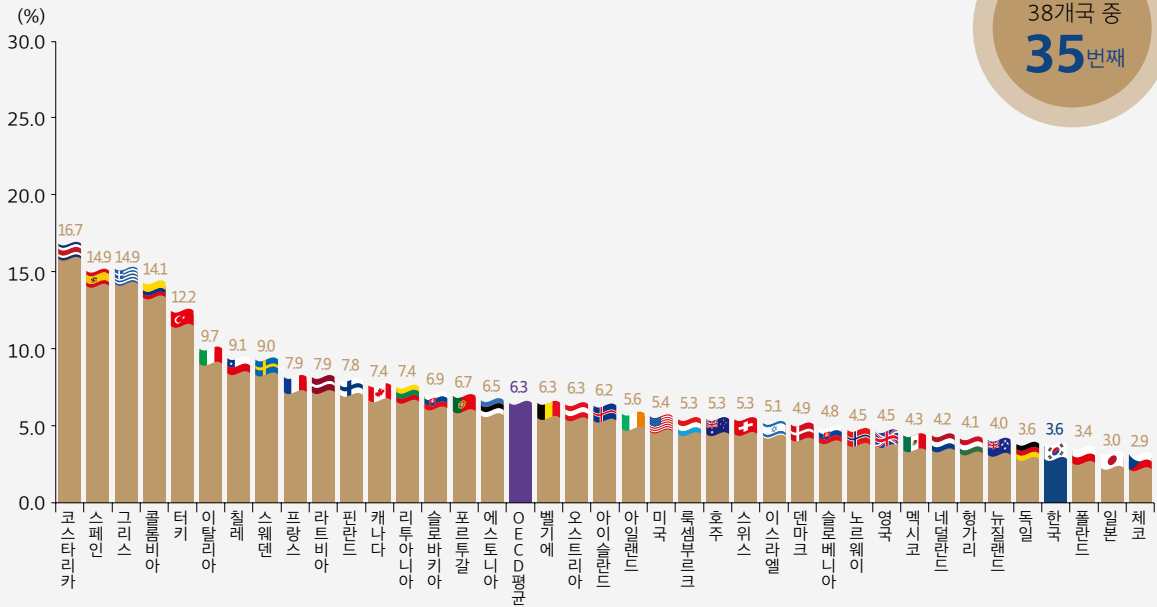
자료: OECD.Stats



## 실업률

2021년 15~64세 실업률에서 한국은 3.6%로 OECD 38개국 중 35위로 낮은편에 속한다. 이는 한국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15~64세 실업률



OECD  
38개국 중  
**35**번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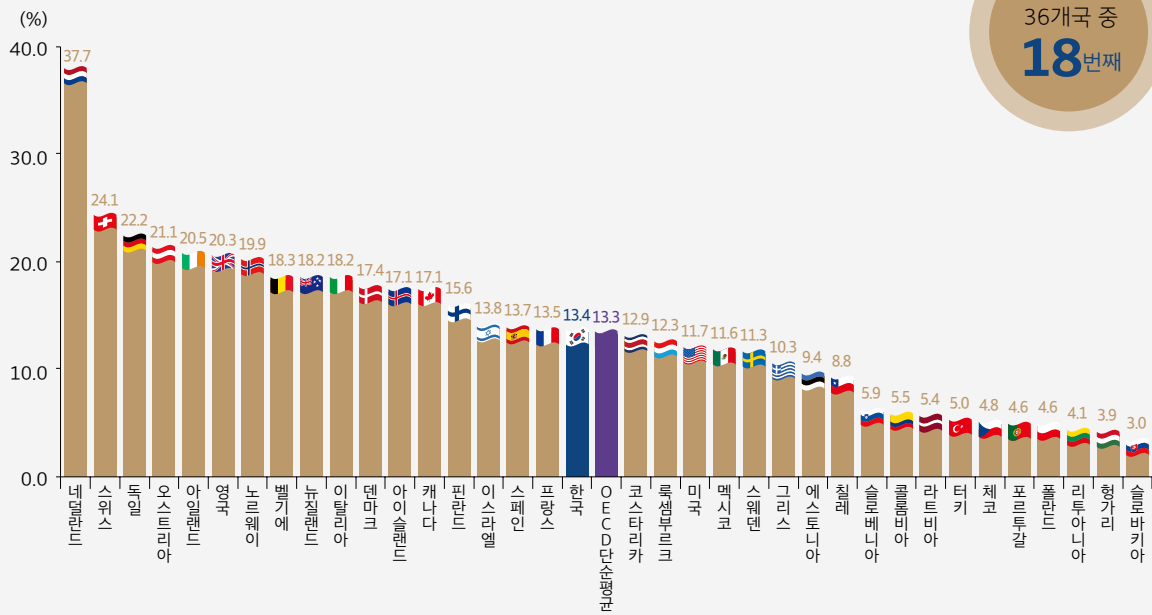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스페인	19.7	17.3	15.4	14.2	15.6	14.9
터키	11.1	11.2	11.2	14.0	13.4	12.2
이탈리아	11.9	11.4	10.8	10.2	9.4	9.7
프랑스	10.1	9.5	9.1	8.5	8.1	7.9
캐나다	7.1	6.4	6.0	5.8	9.6	7.4
미국	4.9	4.4	3.9	3.7	8.1	5.4
호주	5.9	5.8	5.5	5.3	6.6	5.3
영국	5.0	4.5	4.3	4.0	4.7	4.5
멕시코	4.0	3.6	3.4	3.7	4.5	4.3
독일	4.2	3.8	3.5	3.2	4.0	3.6
한국	3.8	3.8	3.9	3.8	4.0	3.6
폴란드	6.2	5.0	3.9	3.3	3.2	3.4
일본	3.3	3.0	2.6	2.5	3.0	3.0

자료: OECD, Stats

## 고용구조

OECD는 주된 일자리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은 13.4%로 36개국 중 18위에 위치한다.

국가별 시간제 근로자 비중(15세이상)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네덜란드	39.1	38.7	38.7	38.3	37.8	37.7
독일	22.4	22.4	22.3	22.3	22.5	22.2
영국	23.0	22.6	22.2	22.0	21.3	20.3
이탈리아	20.0	19.9	19.3	19.4	19.2	18.2
캐나다	18.3	18.3	17.7	17.9	16.6	17.1
스페인	15.1	14.7	14.1	13.6	12.8	13.7
프랑스	14.3	14.4	14.0	13.4	12.8	13.5
한국	9.1	9.6	9.9	11.8	12.7	13.4
미국	13.4	12.9	12.7	12.4	11.7	11.7
멕시코	11.7	11.4	11.3	11.6	11.5	11.6
터키	4.6	4.6	5.0	5.3	6.1	5.0
폴란드	5.4	5.4	5.4	5.2	5.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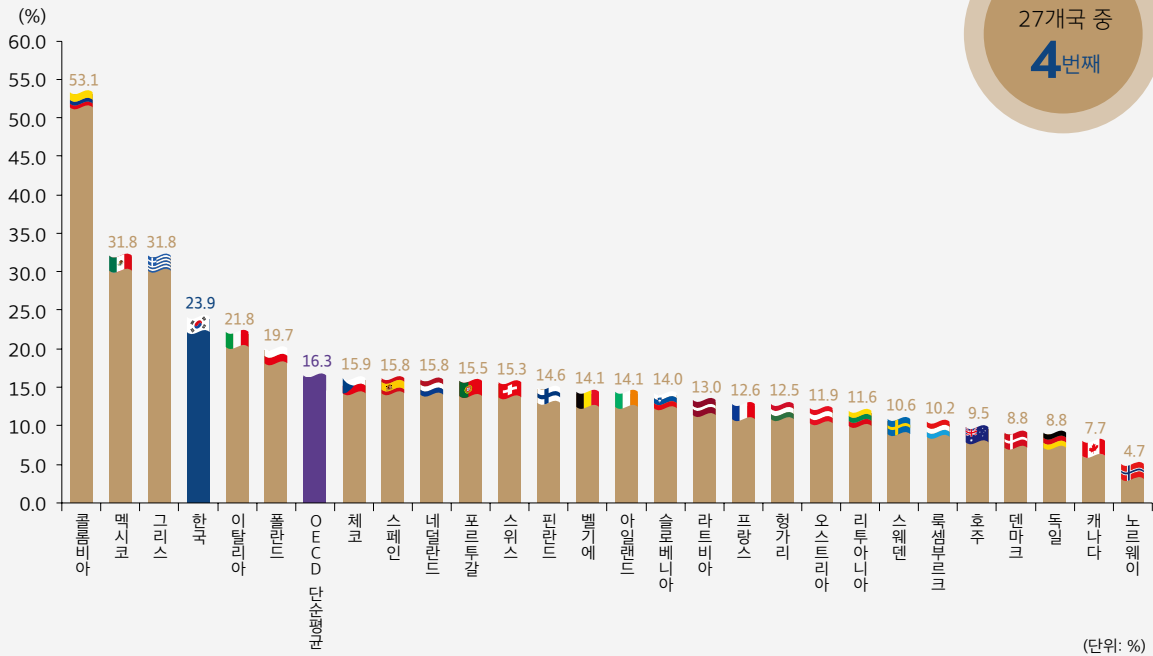
자료: OECD.Stats.

시간제근로자 : 주된 일자리의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인 임금근로자, 한국은 경향 임금근로자 자료를 통해 별도로 포함.

그래프 상의 OECD 평균(13.3%)은 한국을 포함한 단순평균이고, 통계가 미제출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가중평균은 14.0%임

취업자중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인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지표이다. '21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9%로 OECD 27개국 중 4번째로 높은편에 속한다.

국가별 비임금근로자 비중(15세이상)



OECD 27개국 중  
**4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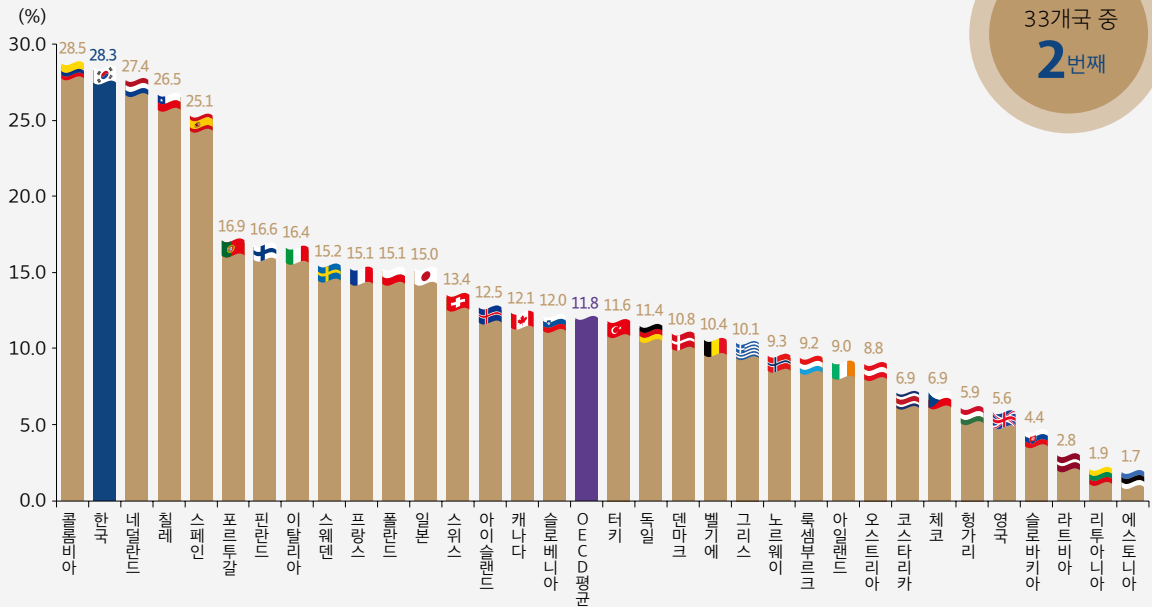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멕시코	31.7	31.3	31.5	31.8	30.4	31.8
한국	25.5	25.4	25.1	24.6	24.4	23.9
이탈리아	23.9	23.2	22.9	22.7	22.5	21.8
폴란드	20.7	20.4	20.3	20.0	20.6	19.7
스페인	16.9	16.5	16.0	15.7	16.1	15.8
네덜란드	16.8	16.7	16.7	16.6	17.2	15.8
프랑스	11.8	11.6	11.6	12.1	12.4	12.6
호주	10.1	9.9	9.6	9.7	9.4	9.5
독일	10.4	10.2	9.9	9.6	..	8.8
캐나다	8.6	8.3	8.2	8.2	8.6	7.7
일본	10.5	10.4	10.3	10.0	9.9	..
터키	32.4	32.7	32.0	31.5	30.2	..
미국	6.4	6.3	6.3	6.1	6.3	..

자료: OECD.Stats

OECD국가들의 고용 안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임시직근로자 비중을 볼 수 있다.(국가별 임시직의 정의는 차이가 있음) 2021년 한국은 28.3%로 33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국가별 임시직근로자(Temporary Employment) 비중(15세 이상)

OECD  
33개국 중  
2번째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콜롬비아	28.3	28.2	28.8	28.8	27.3	28.5
한국	21.9	20.6	21.2	24.4	26.1	28.3
네덜란드	20.8	21.8	21.5	20.3	18.0	27.4
스페인	26.1	26.7	26.8	26.3	24.1	25.1
이탈리아	14.0	15.4	17.0	17.0	15.1	16.4
프랑스	16.3	16.9	16.7	16.3	15.4	15.1
폴란드	27.5	26.2	24.4	21.8	18.6	15.1
일본	-	-	15.7	15.7	15.4	15.0
캐나다	13.3	13.8	13.4	12.9	11.6	12.1
터키	13.3	13.3	12.6	11.6	10.9	11.6
독일	13.2	12.9	12.6	12.0	10.9	11.4
영국	6.1	5.9	5.6	5.2	5.4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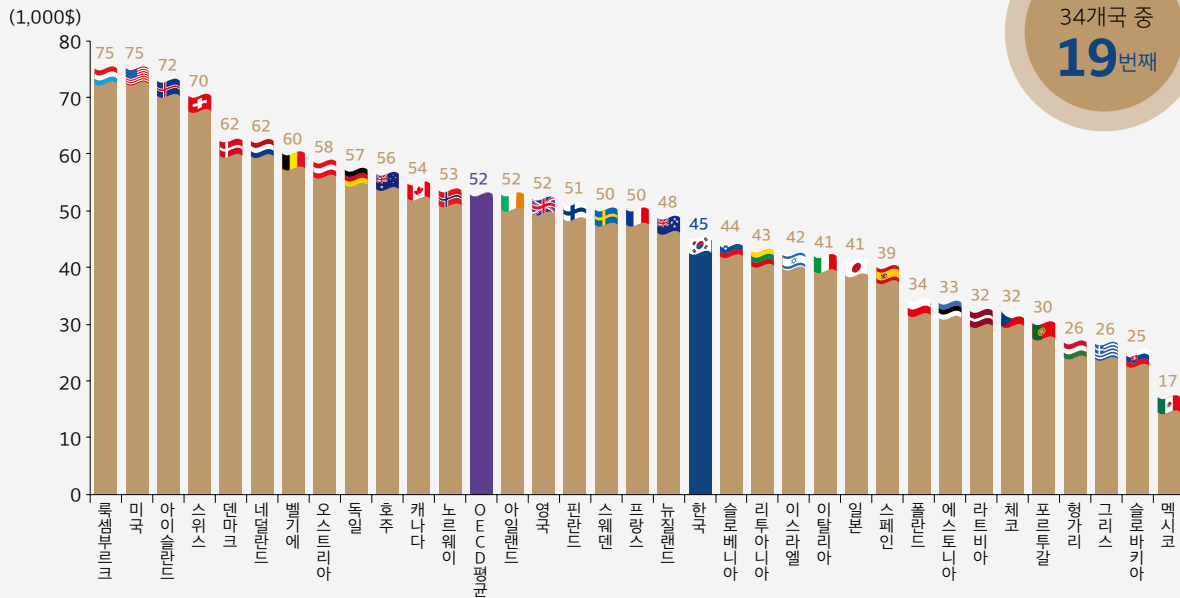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자료 활용  
 주요국의 임시직 기준: 한국(기간제+단기기대+파견+일일근로), 캐나다(종료일이 정해진 경우), 일본(1년미만 기간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14개국(일의 종류가 객관적으로 정해진 경우)

## 2. 근로조건

### 피용자보수\*

OECD국가들의 1인당 피용자보수를 실질구매력 기준인 US\$ PPP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1년 한국은 연간 44,813달러로 OECD 34개국 중 19번째이다.

국가별 피용자보수 (ppp기준)



(단위 : 천US\$)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미국	66,260	66,934	67,664	68,842	72,807	74,738
스위스	66,157	65,850	65,663	67,039	66,039	69,726
독일	54,185	54,756	55,536	56,427	56,015	56,663
호주	54,825	54,562	54,702	55,288	56,575	56,021
캐나다	52,675	53,430	54,403	54,685	56,258	54,299
영국	47,663	47,765	48,024	48,770	48,718	51,724
프랑스	47,703	48,365	48,303	48,769	46,765	49,619
한국	40,543	41,496	42,926	44,400	44,547	44,813
이탈리아	41,076	40,805	40,864	41,072	38,686	41,438
일본	37,413	37,506	37,932	38,417	38,194	40,849
스페인	39,916	39,396	39,264	39,346	37,914	39,480
폴란드	28,548	29,754	31,766	33,275	33,921	33,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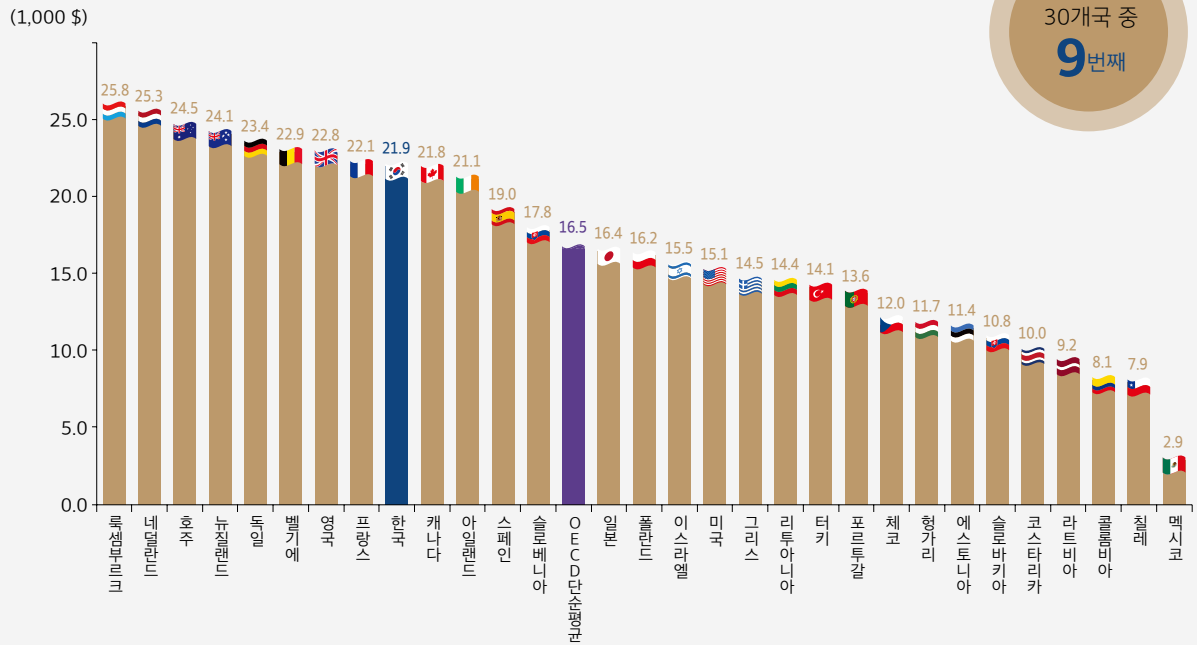
자료: OECD.Stats

\*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 국가별 임금수준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실질 최저임금

2020년 OECD국가들의 실질최저임금액에서 한국은 21,928달러로 30개국 중 9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연간 실질 최저임금 (ppp기준)



(단위 :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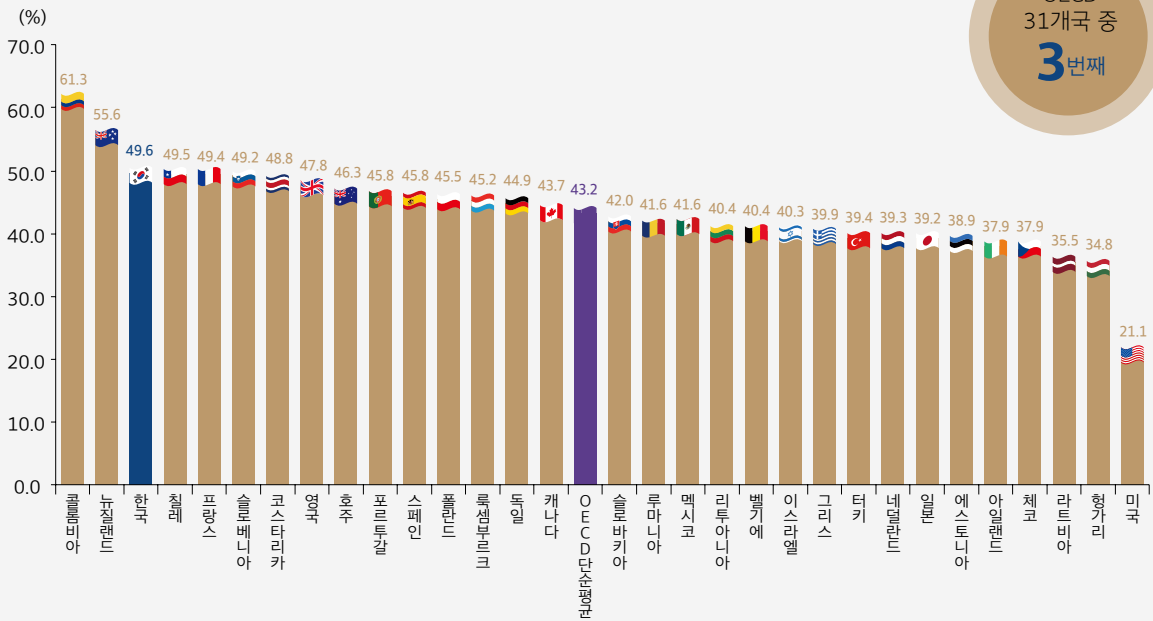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호주	22,963	23,229	23,436	23,779	24,161	24,526
독일	23,071	22,958	23,653	23,251	23,756	23,379
영국	18,912	20,583	20,694	21,104	21,735	22,782
프랑스	21,927	22,023	22,001	21,867	21,956	22,113
한국	15,016	16,070	16,914	19,399	21,429	21,928
캐나다	18,410	18,695	19,020	21,019	21,371	21,761
스페인	13,475	13,637	14,450	14,778	17,948	19,006
일본	14,556	14,941	15,332	15,644	16,049	16,422
폴란드	11,864	12,626	13,372	13,791	14,454	16,157
미국	16,467	16,261	15,922	15,543	15,266	15,080
터키	10,667	13,173	12,791	12,554	13,741	14,078
멕시코	1,975	2,041	2,109	2,220	2,490	2,889

자료: OECD.Stats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2020년 OECD국가들의 평균임금(Mean wage)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서 한국은 49.6%로 31개국 중 3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OECD  
31개국 중  
**3번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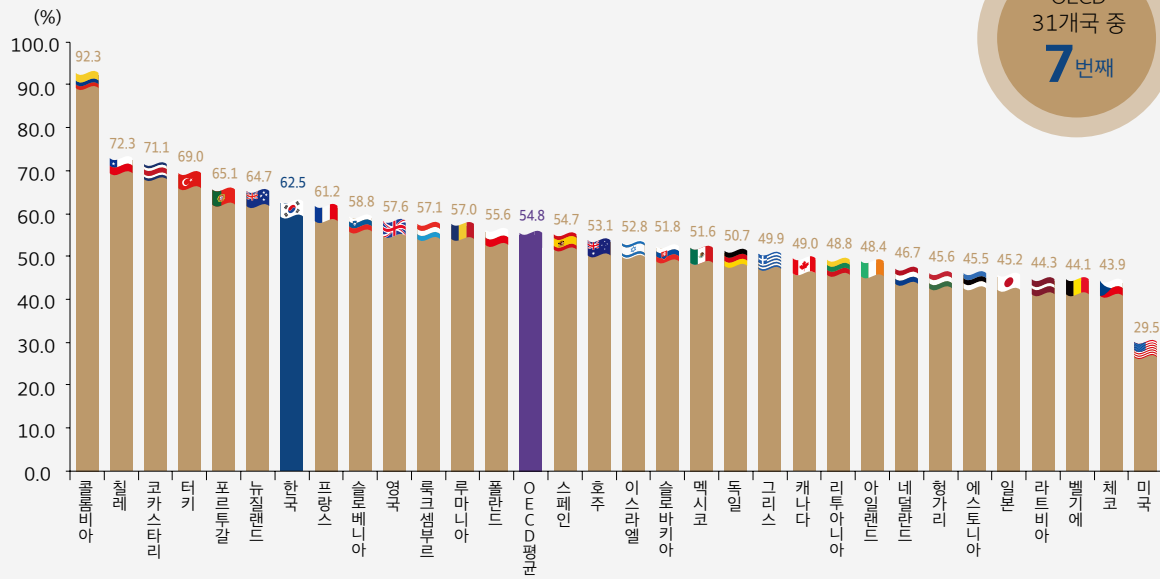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37.8	39.7	41.4	46.1	49.4	49.6
프랑스	50.3	50.0	49.9	49.7	49.6	49.4
영국	40.6	43.8	44.4	44.8	45.5	47.8
호주	44.4	47.4	47.4	47.2	47.4	46.3
스페인	31.3	31.8	33.8	34.3	41.5	45.8
폴란드	41.1	42.6	43.6	42.0	42.0	45.5
독일	42.6	42.0	41.7	42.1	44.1	44.9
캐나다	39.7	40.0	40.8	45.0	45.1	43.7
멕시코	29.9	30.3	32.0	33.7	37.1	41.6
터키	39.9	42.7	40.7	40.5	40.5	39.4
일본	34.4	35.2	36.2	37.1	37.9	39.2
미국	25.2	24.8	24.3	23.2	22.3	21.1

자료: OECD.Stats

\*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주40시간제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2020년 OECD국가들의 중위임금(Median wage)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서 한국은 62.5%로 31개국 중 7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터키	69.9	74.9	71.3	71.0	71.0	69.0
한국	48.6	50.4	52.8	58.6	62.7	62.5
프랑스	62.3	62.0	61.8	61.6	61.5	61.2
영국	48.7	52.7	53.6	54.5	55.1	57.6
스페인	37.1	37.7	40.0	41.0	49.5	54.7
홍콩	53.5	54.0	54.9	54.1	54.3	53.1
멕시코	38.7	38.4	40.0	42.2	46.0	51.6
독일	48.3	47.2	47.0	47.6	49.8	50.7
캐나다	44.5	45.8	45.8	51.4	51.2	49.0
일본	39.7	40.4	41.6	42.7	43.6	45.2
미국	35.8	34.9	33.7	32.7	31.6	29.5

자료: OECD,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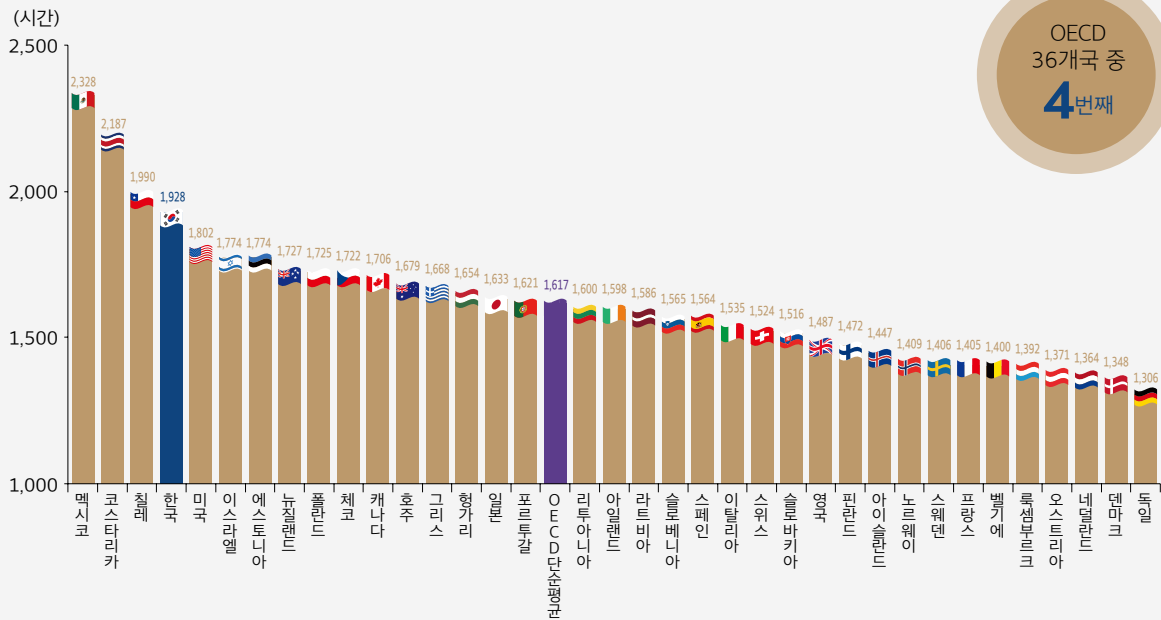
\*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주40시간제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연간 근로시간 및 취업시간

2021년 OECD국가들의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에서 한국은 1,928시간으로 36개국 중 4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2021년)



OECD  
36개국 중  
**4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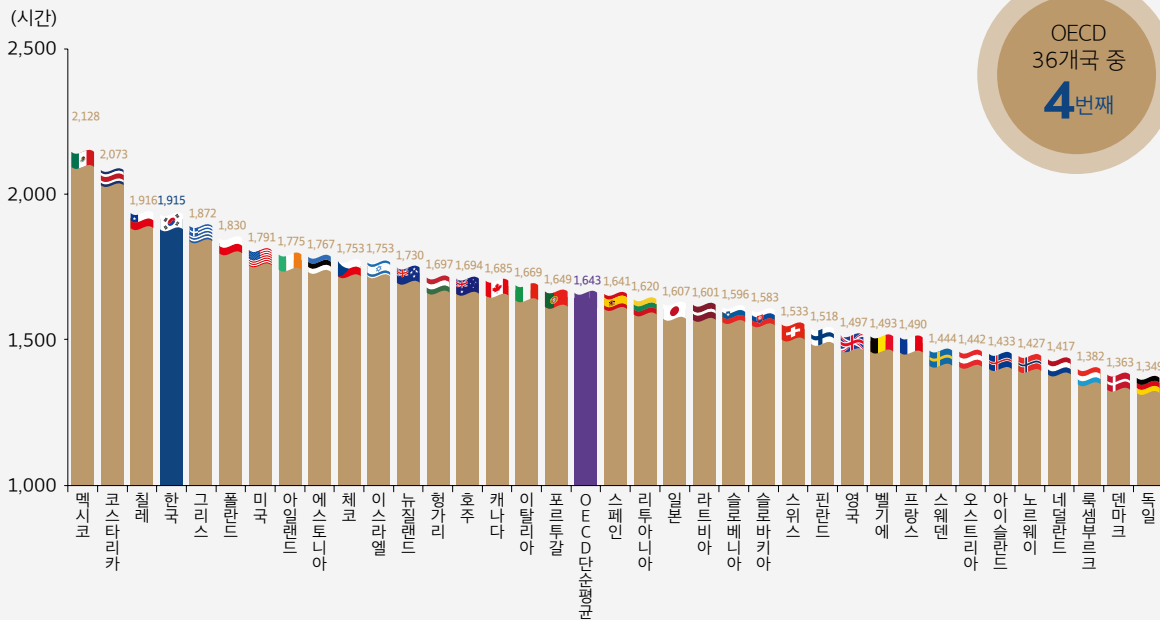
(단위: 시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멕시코	2,348	2,348	2,347	2,336	2,326	2,328
한국	2,033	1,996	1,967	1,957	1,927	1,928
미국	1,785	1,783	1,788	1,784	1,784	1,802
폴란드	1,734	1,718	1,697	1,692	1,685	1,725
캐나다	1,717	1,707	1,723	1,705	1,673	1,706
호주	1,704	1,707	1,706	1,696	1,670	1,679
일본	1,724	1,720	1,706	1,669	1,621	1,633
스페인	1,620	1,614	1,618	1,603	1,516	1,564
이탈리아	1,581	1,582	1,588	1,579	1,447	1,535
영국	1,513	1,509	1,510	1,513	1,365	1,487
프랑스	1,428	1,416	1,424	1,428	1,326	1,405
독일	1,334	1,331	1,330	1,329	1,284	1,306

자료: OECD.Stats

2021년 OECD국가들의 전체취업자(Total Employment)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에서 한국은 1,915시간으로 36개국 중 4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연간 취업시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OECD  
36개국 중  
**4번째**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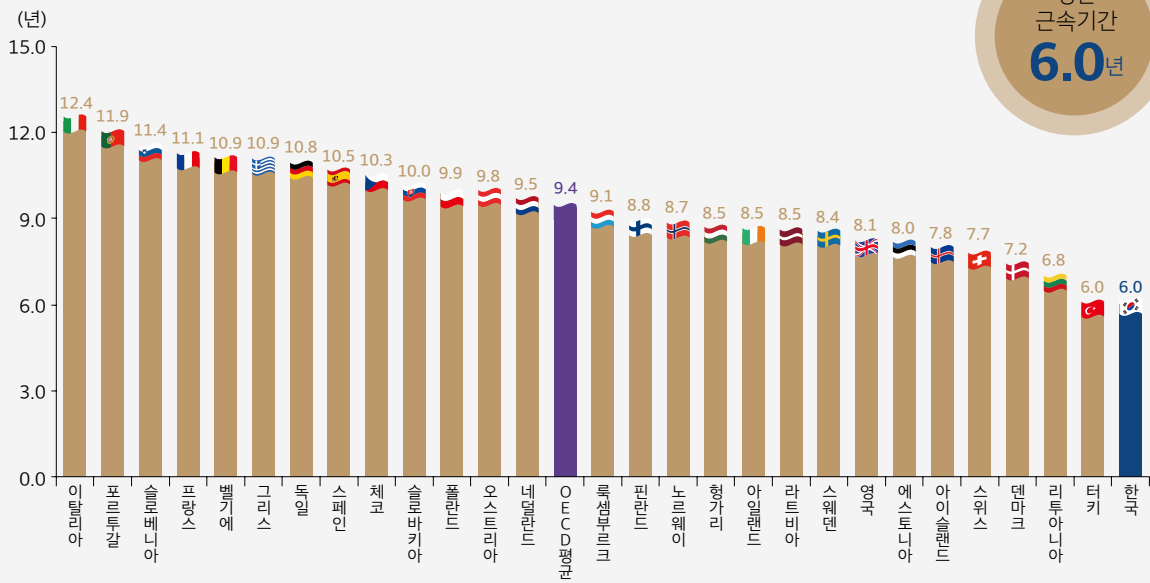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멕시코	2,146	2,149	2,149	2,139	2,124	2,128
한국	2,068	2,018	1,993	1,967	1,908	1,915
미국	1,778	1,778	1,782	1,777	1,767	1,791
호주	1,739	1,738	1,733	1,722	1,683	1,694
캐나다	1,706	1,695	1,708	1,690	1,644	1,685
이탈리아	1,722	1,719	1,719	1,710	1,554	1,669
스페인	1,702	1,692	1,698	1,683	1,570	1,641
일본	1,714	1,709	1,680	1,644	1,598	1,607
영국	1,541	1,536	1,536	1,537	1,364	1,497
프랑스	1,522	1,508	1,514	1,518	1,407	1,490
독일	1,396	1,389	1,385	1,382	1,324	1,349

자료: OECD.Stats

## 근속기간

2020년 OECD국가들의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에서 한국은 6.0년으로 28개국 중 가장 짧다.

국가별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평균 근속기간  
**6.0년**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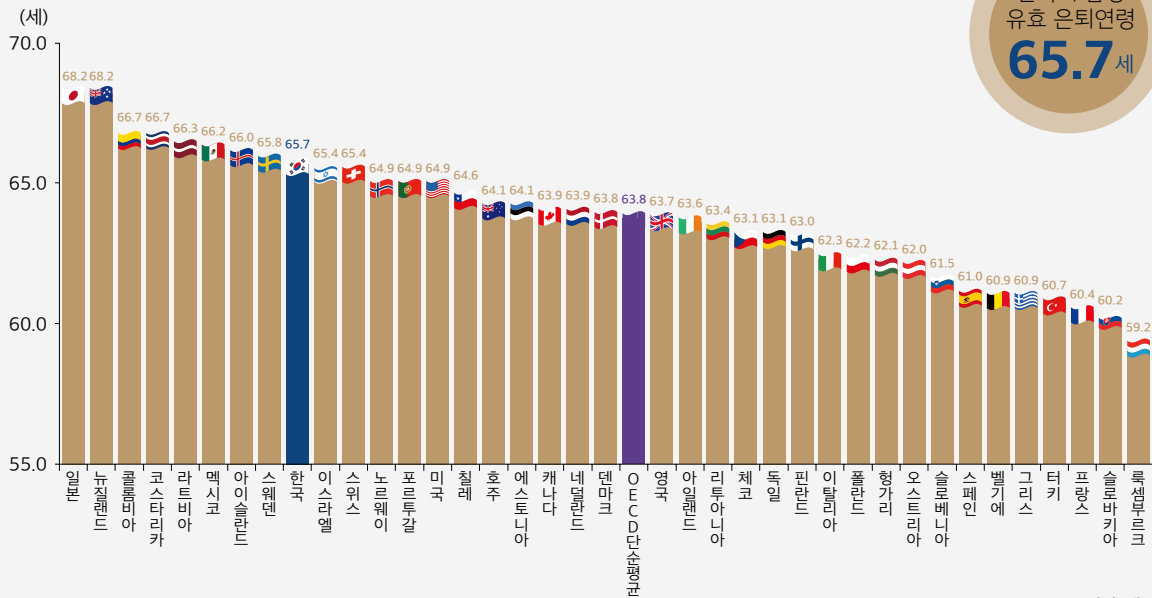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탈리아	12.2	12.1	12.2	12.2	12.2	12.4
프랑스	11.4	11.4	11.2	11.0	10.9	11.1
독일	10.6	10.6	10.5	10.5	10.5	10.8
스페인	10.4	10.3	10.1	10.0	10.0	10.5
폴란드	9.6	9.6	9.6	9.6	9.6	9.9
오스트리아	9.7	9.6	9.7	9.6	9.5	9.8
영국	8.0	8.0	7.9	8.0	8.0	8.1
한국	5.7	5.8	5.9	6.0	5.9	6.0

자료: OECD.Stats.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활용

## 은퇴연령

2020년('15~'20년 5년평균) OECD국가들의 유효은퇴연령에서 38개국 중 한국 남성은 65.7세로 9위, 한국 여성은 64.9세로 4위로 모두 OECD 평균 은퇴연령보다 높은 편이다.

국가별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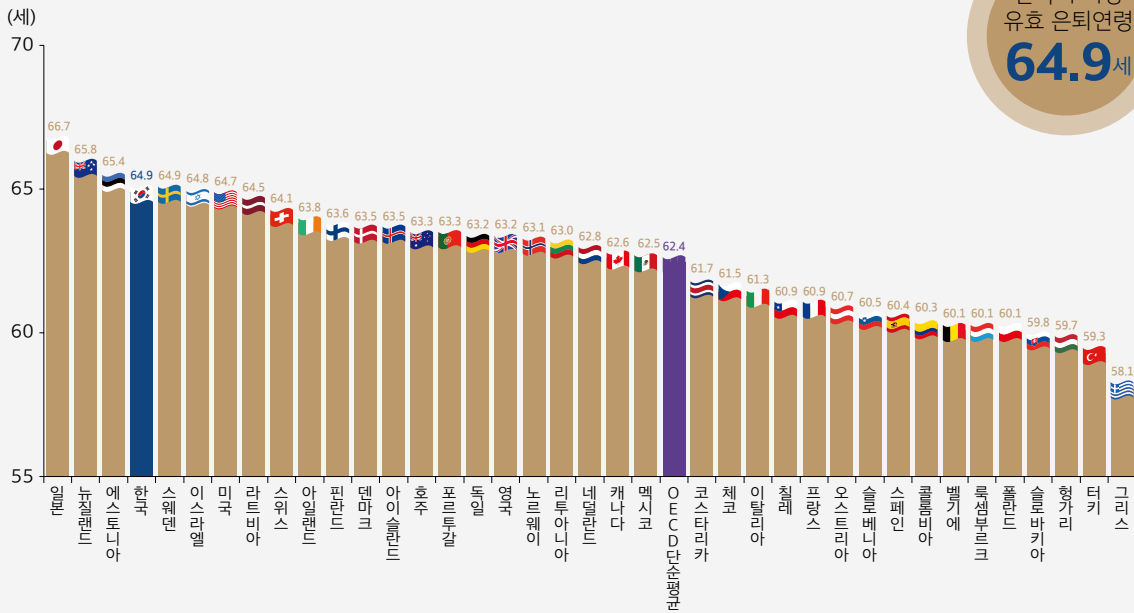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본	66.5	67.2	67.7	67.8	67.6	68.2
멕시코	67.5	67.4	67.7	67.2	67.6	66.2
한국	68.7	68.4	69.4	68.6	66.6	65.7
미국	63.3	64	64.6	65	65.3	64.9
호주	63.8	63.6	64.1	63.7	64.1	64.1
캐나다	63.4	64	63.9	63.6	64.7	63.9
영국	63	63.1	63.2	63.3	63.4	63.7
독일	61.9	62.3	62.6	63	63.4	63.1
이탈리아	60.4	60.7	61.1	62	62.6	62.3
폴란드	60.6	60.8	61	61.4	61.9	62.2
스페인	61.6	61.6	61.6	61.5	61.5	61
터키	60.9	61.9	62.1	61.9	61.5	60.7
프랑스	58.9	59.3	59.9	60.3	60	60.4

자료: OECD,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주1) 각 연도의 통계치는 5년 평균 은퇴연령임. 예를 들어 '20년'은 '15~'20년 평균 은퇴연령임

주2) '평균 유효 퇴직연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 수정되었음(21.11)

국가별 여성의 유효 은퇴연령



한국의 여성 유효 은퇴연령 **64.9**세

(단위: 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본	65.7	66.4	66.8	66.5	67.1	66.7
한국	68.5	68.5	69.5	68.4	67.9	64.9
미국	62.7	63.3	63.8	64.3	64.8	64.7
호주	62.1	62.5	63.1	63.2	63.5	63.3
독일	61.6	62.4	62.7	62.9	63.3	63.2
영국	61.8	62.1	62.2	62.5	62.8	63.2
캐나다	61.8	61.7	62.1	62.5	63.0	62.6
멕시코	64.5	63.7	62.6	63	64.9	62.5
이탈리아	59.9	60.7	60.2	60.7	61.7	61.3
프랑스	59.5	59.9	60.0	60.2	60.4	60.9
스페인	62.1	61.9	60.9	60.6	61.2	60.4
폴란드	58.4	58.7	59	59.7	59.6	60.1
터키	62.3	62.6	63.2	62.8	62.6	59.3

자료: OECD,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주1) 각 연도의 통계치는 5년 평균 은퇴연령임. 예를 들어 '20년'은 '15~20년 평균 은퇴연령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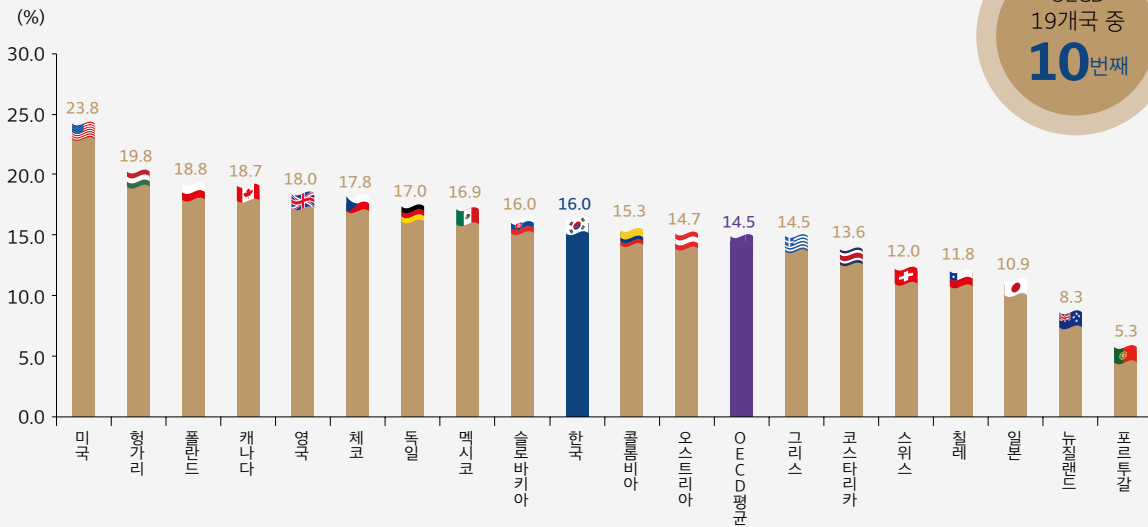
주2) "평균 유효 퇴직연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 수정되었음(21.11)

### 3. 분배지표

#### 저임금근로자 비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중위임금(Median)\*의 2/3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OECD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비중에서 한국은 16.0%로 19개국 중 10번째로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국가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2020년)



OECD  
19개국 중  
**10**번째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미국	24.91	24.50	24.07	23.38	23.81	22.69
폴란드	21.67	-	21.11	-	18.80	-
캐나다	22.34	22.01	20.68	19.38	18.67	19.54
영국	19.28	18.98	18.96	18.06	18.02	16.66
독일	18.85	18.21	17.83	17.64	16.98	-
멕시코	16.09	13.32	15.66	17.08	16.93	14.23
한국	23.50	22.30	19.04	16.96	15.96	15.63
일본	12.65	12.32	12.12	11.79	10.88	10.66
호주	15.63	15.06	15.43	15.46	-	-
프랑스	-	-	7.74	-	-	-
이탈리아	-	-	3.71	4.89	-	-
스페인	-	-	10.83	-	-	-
터키	-	-	0.96	-	-	-

자료: OECD.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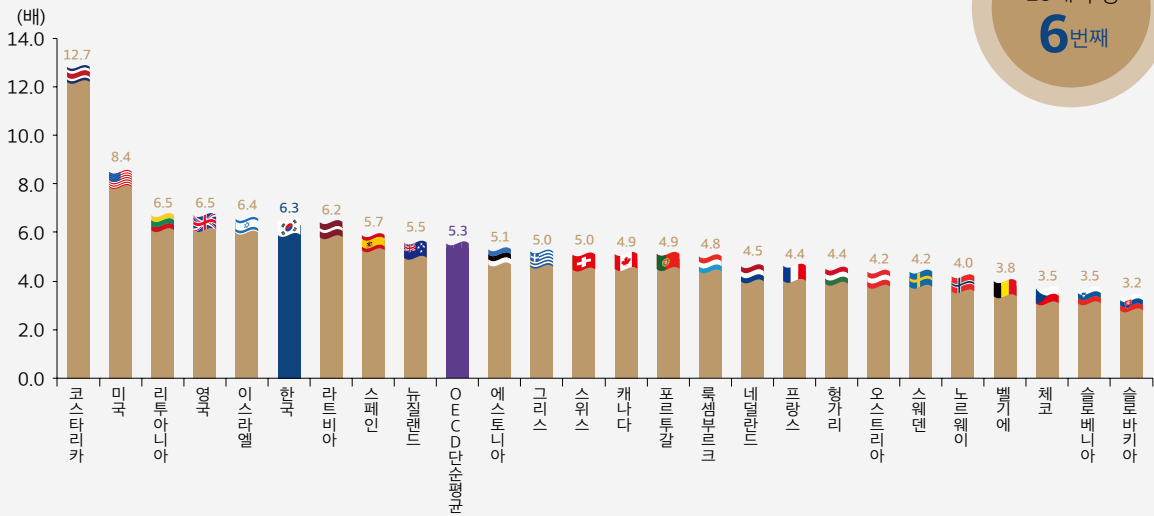
\* 저임금근로자 비중 등 분배관련 지표는 나라마다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행정통계 등 출처가 다양하고, 대상자의 범위도 다양하여 직접비교 시 주의할 필요. 예) 일본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정액급여만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정

\* 전일제(상용) 근로자의 임금총액 기준

## 소득 5분위 배율\*

2019년 한국의 가계소득 5분위 기준 상위20%(5분위)/하위20%(1분위)의 배율은 6.3배로 OECD 25개국 중 6번째로 높다.

국가별 소득 5분위 배율 (2019년)



OECD  
25개국 중  
**6번째**

(단위: 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8.3	8.5	8.4	8.4	8.4	-
영국	6.1	6	6.2	6.5	6.5	-
한국	6.9	7	7	6.5	6.3	5.8
스페인	6.5	6.5	6	5.9	5.7	-
캐나다	5.5	5.1	5.1	4.9	4.9	-
프랑스	4.4	4.3	4.4	4.6	4.4	-
호주	-	5.5	-	5.6	-	-
독일	4.5	4.6	4.5	4.4	-	-
이탈리아	6.3	5.9	6.1	6	-	-
일본	-	-	-	6.2	-	-
폴란드	4.6	4.4	4.2	4.3	-	-
터키	7.8	-	7.7	7.5	-	-
멕시코	-	10.3	-	8.6	-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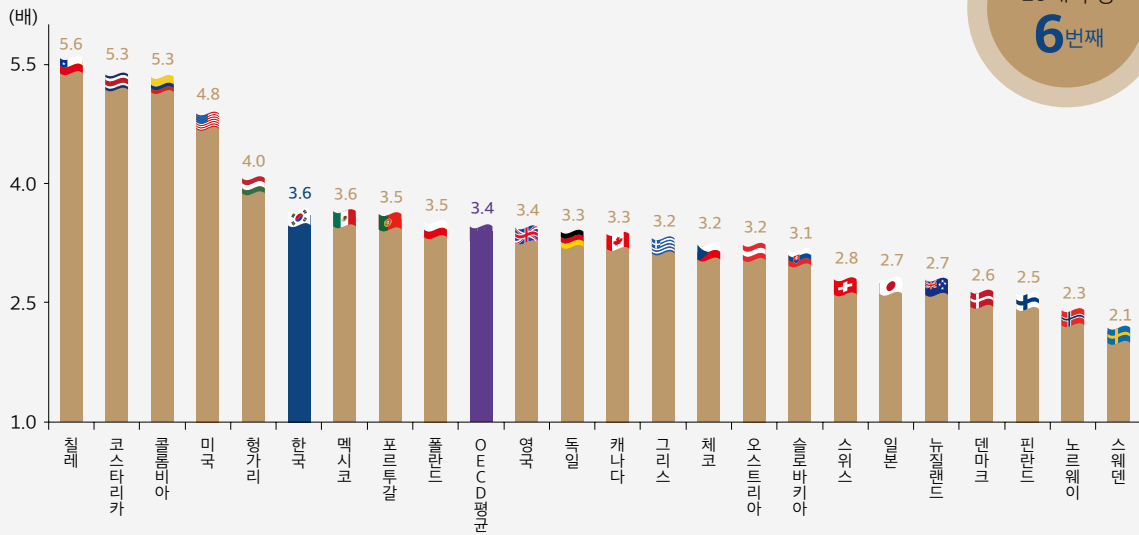
자료: OECD.Stats

\* OECD는 소득분배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1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눈 후 구간별 평균소득에 대한 배율을 지표로 제공한다.

## 임금 10분위수 배율\*

2020년 한국의 임금소득 10분위 기준 상위9분위(D9)/하위1분위(D1)의 배율은 3.6배로 OECD 23개국 중 6번째로 높다.

국가별 D9/D1 분위수 배율 (2020년)



OECD  
23개국 중  
**6번째**

(단위: 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미국	5.05	5.07	4.95	5.00	4.84	4.80
한국	4.50	4.30	3.93	3.63	3.60	3.61
멕시코	3.33	3.57	3.33	3.49	3.58	3.33
폴란드	3.81	-	3.70	-	3.45	-
영국	3.43	3.42	3.42	3.34	3.38	3.16
독일	3.36	3.32	3.33	3.28	3.33	-
캐나다	3.71	3.61	3.42	3.37	3.30	3.23
일본	2.85	2.83	2.82	2.78	2.74	2.70
호주	3.07	3.20	3.13	-	-	-
프랑스	-	-	2.86	-	-	-
이탈리아	-	-	2.57	2.75	-	-
스페인	-	-	3.17	-	-	-
터키	-	-	3.36	-	-	-

자료: OECD.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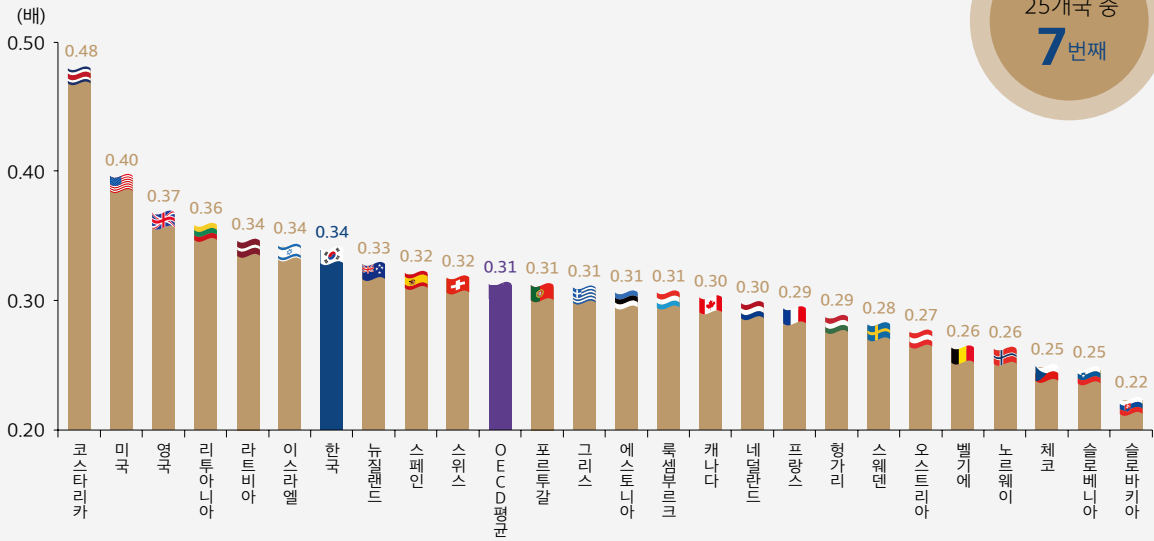
\* OECD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분포를 '분위수 배율'(Decile Ratio) 지표로 발표하고 있다. 분위수 배율은 전일제근로자의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누고 분위별 경계값을 임금이 낮은 쪽부터 높은 쪽으로 D1~D9으로 정의한 후 이들의 배율로서 D5/D1, D9/D5, D9/D1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1사이 값 중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2019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4으로 OECD 25개국 중 7번째로 불평등도가 높다.

국가별 지니계수(2019년)



OECD  
25개국 중  
**7**번째

(단위: 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0.39	0.391	0.39	0.393	0.395	..
영국	0.36	0.351	0.357	0.366	0.366	..
한국	0.352	0.355	0.354	0.345	0.339	0.331
스페인	0.344	0.341	0.333	0.33	0.32	-
캐나다	0.318	0.307	0.31	0.303	0.301	-
프랑스	0.295	0.291	0.292	0.301	0.292	-
호주	-	0.33	-	0.325	-	-
독일	0.293	0.294	0.289	0.289	-	-
이탈리아	0.333	0.327	0.334	0.33	-	-
일본	-	-	-	0.334	-	-
멕시코	-	0.459	-	0.418	-	0.42
폴란드	0.291	0.285	0.275	0.281	-	-
터키	0.404	-	0.409	0.39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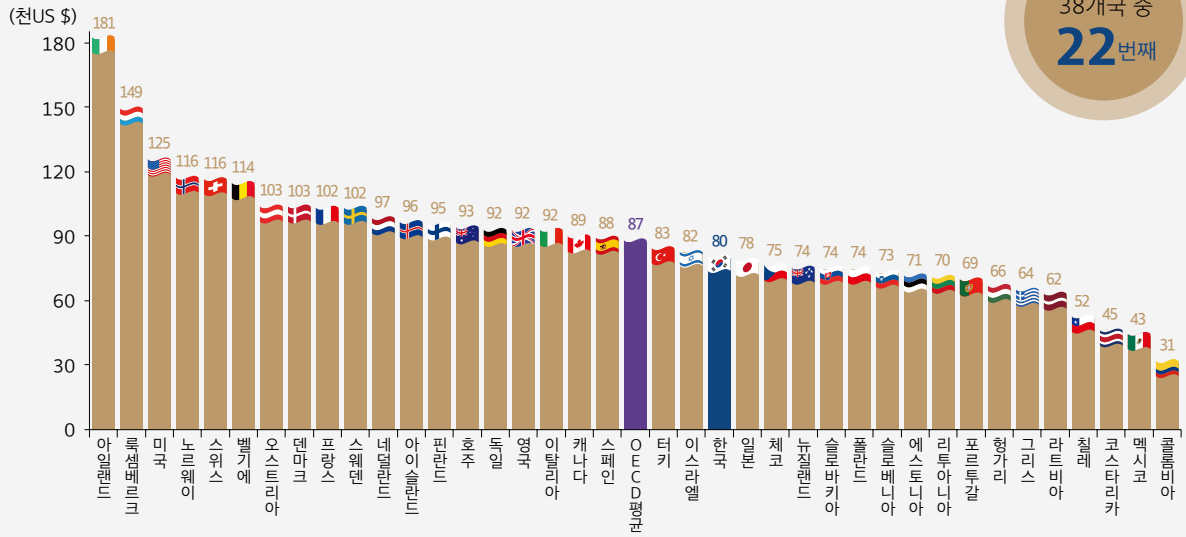
자료: OECD.Stats

## 4. 기타 고용노동 지표

### 노동생산성\*

한국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US\$ PPP 환율기준으로 8만달러이며, OECD 38개국 중 22번째이다.

국가별 노동생산성 (ppp기준, 2019년)



OECD  
38개국 중  
**22**번째

(단위: 천US \$)

	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터키	한국	폴란드	멕시코
2017	111.6	90.9	91.2	83.9	82.5	82.3	80.4	81.0	71.5	69.9	72.6	61.6	40.4
2018	123.4	93.9	101.7	89.2	91.8	92.0	88.8	91.4	78.8	80.7	78.8	70.9	44.5
2019	124.8	93.5	102.3	89.1	91.7	92.1	88.2	92.0	78.3	83.2	79.7	74.2	43.4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21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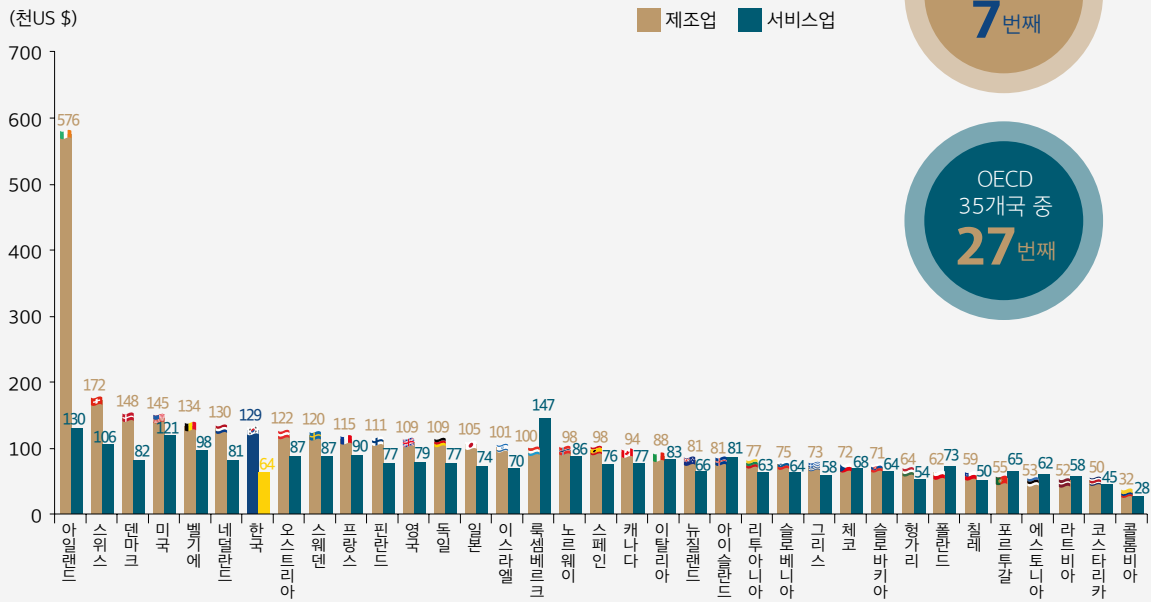


\*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1단위당 산출량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 창출에 노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투입량 1단위를 취업자 1인으로 정의하는 1인당 노동생산성과 1시간으로 정의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산식에서 '산출량'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은 물론 1인당 자본 장비율, 효율적 경영, 기술진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높은 것은 아님

## 국가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12만9천 달러로 35개국 중 7위이며 서비스업은 6만 4천달러로 35개국 중 27위이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국가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천US\$, 2019)



OECD 35개국 중  
**7** 번째

OECD 35개국 중  
**27** 번째





##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1년 기준

발행인 이 정 식

발행일 2022년 8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T. (국번없이)1350 www.moel.go.kr

디자인·인쇄 **신성기획** 044. 862. 1960

본 책의 내용을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통계로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이라고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